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박재갑 ·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책명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초판 1쇄 발행 2023년 5월 5일

지은이 박재갑 朴在甲 Park Jae-Gahb
김민 金民 Kim Min

펴낸이 박재갑
도운이 김해림
디자인 김미애
본문조판 프린팅랩
펴낸곳 한글재민체연구회
등록 제2022-000176호(2022년 9월 2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4길 30, 501동 1401호
전화 02-766-8080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한글재민체연구회
* 출판은 대신송촌문화재단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980056-1-8 (PDF)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지은이

박재갑朴在甲 www.jgpark.ne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퇴직을 하였다. 2000~2006년 국립암센터 초대 및 2대 원장을 역임하고, 2010~2011년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세계대장항문학회ISUCRS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국내 단행본으로 대장항문학(일조각, 1991, 2000, 2005, 2012.), 종양학(일조각, 2003, 2012.) 등 13권, 국외 단행본으로 Atlas of Human Tumor Cell Lines, Academic Press, 1994) 등 12권, 국내 논문 228편, 국제 논문 218편을 발표하였다. 2011년~2014년 충청북도 제1기 및 제2기 명예도지사, 2001년 황조근정훈장, 2003년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 2005년 세계금연의날 WHO(세계보건기구) 금연공로상, 2005년 세계금연지도자상(폴란드 건강증진재단), 2008년 미국대장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2009년 제11회 관악대상, 2018년 국민훈장무궁화장 등을 수상하였다.

김민金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2년간 일본의 세계적인 CI 전문회사 ㈜파오스에 근무하며 스미토모은행, 기린맥주, 캔우드, 브릿지스톤, 조지루시 등의 CI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90년에는 파오스 서울을 설립하여 ㈜한샘의 CI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다. 1993년까지 ㈜CDR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데이콤, OB 맥주, 삼성중공업 등의 CI작업을 주도하였으며, 1996년 미국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9년 국민대학교에 부임하였다. 2005년에는 천상병 시인의 각종 필적들을 찾아내 디지털폰트로 완성하였고 신영복, 윤동주 등의 육필 복원 디지털폰트를 비롯하여 CJ그룹, GS칼텍스, 이건산업 등 다수의 기업 전용 서체를 디자인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2012년 제2회 사회적기업의 날 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2013년 제25회 아산상(재능나눔부문), 2017년 제19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1년 제12회 봉래상 등을 수상하였다.

일러두기

* 어서, 어필의 명칭은 원본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됨.
* 언찰, 언간의 명칭은 원본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됨.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박재갑 ·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머리말

단상斷想 및 감상鑑賞

저 박재갑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재직하다가 2013년 8월 말 정년을 맞은 대장암 전문 외과 의사로서 7천여 명의 환자들을 수술한 바 있습니다. 의사 생활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2010년부터는 홍익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유화(안상진 교수), 민화(송규태 화백), 펜담채화(안석준 화백)를, 김영택 화백으로부터 펜화를 배운 바 있습니다. 그 후 정진웅 선생으로부터 서각을, 김동각 선생으로부터 전각을, 최인수 교수로부터 조각을 배우고, 2018년부터는 서예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예계를 이끌고 계신 심은 전정우 선생, 고산 최은철 박사, 초정 권창륜 선생으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기초에 관한 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글자를 쓰고 싶은 생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원개원칙서』에 담긴 한글 서체가 그동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단아하고 꼿꼿하며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귀한 서체가 현재는 사라지고 없어졌나 하는 아쉬움에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를 되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한문 혼용의 『대한의원개원칙서』를 한글학자 박갑수 교수에게 부탁드려 기존의 국역 문장을 다듬은 후 개원칙서의 글꼴과 유사하게 반복하여 붓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설날에 인사차 방문한 국민대학교 김민 교수가 이 모습을 보고 반기며 본인의 정년이 8년 남았는데 마지막 업적으로 함께 『대한의원개원칙서』에 기반한 서체 개발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 저는 서체 개발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이었으므로 큰 귀인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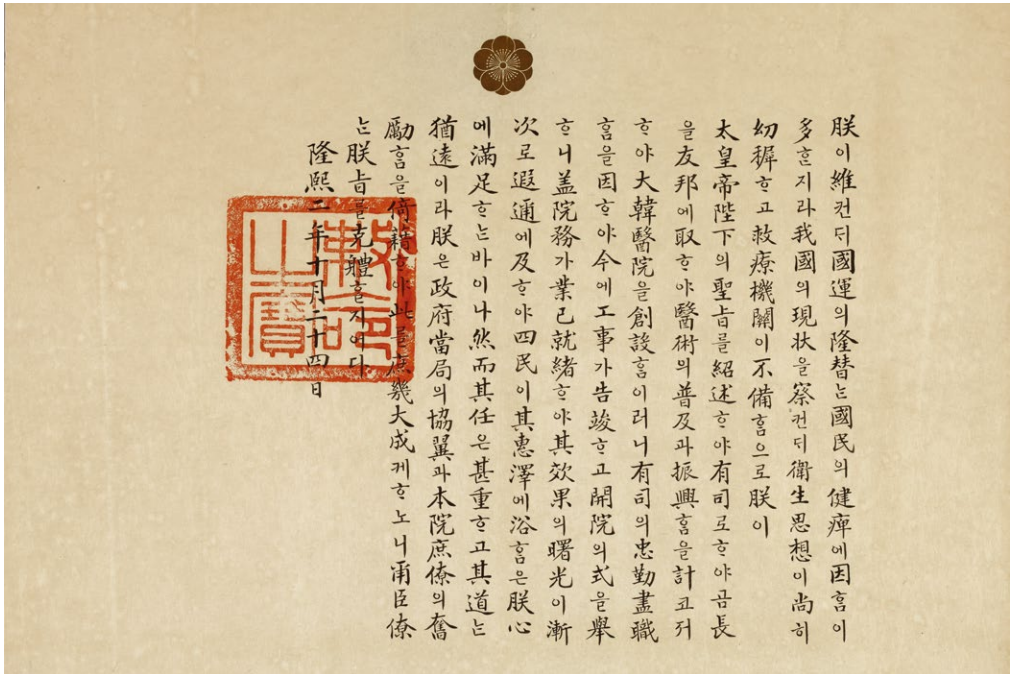

朕이維컨디國運의隆替ᄂᆞᆫ國民의健痺에因ᄒᆞᆷ이
多ᄒᆞᆫ지라我國의現狀을察컨디衛生思想이尚히
幼稚ᄒᆞ고救療機關이不備ᄒᆞᆷ으로朕이
太皇帝陛下의聖旨를紹述ᄒᆞ야有司로ᄒᆞ야곰長
을友邦에取ᄒᆞ야醫術의普及과振興ᄒᆞᆷ을計ᄒᆞ고저
ᄒᆞ야大韓醫院을創設ᄒᆞᆷ이러니有司의忠勤盡職
ᄒᆞᆷ을因ᄒᆞ야今에工事가告竣ᄒᆞ고開院의式을舉
ᄒᆞ니蓋院務가業已就緖ᄒᆞ야其效果의曙光이漸
次로遐通에及ᄒᆞ야四民이其惠澤에浴ᄒᆞᆷ은朕心
에滿足ᄒᆞᆫ바이나然而其任은甚重ᄒᆞ고其道ᄂᆞᆫ
猶遠이라朕은政府當局의協翼과本院庶僚의奮
勵ᄒᆞᆷ을倚賴ᄒᆞ야此로써幾大成케ᄒᆞ노니甫臣僚
ᄂᆞᆫ朕旨를克體ᄒᆞᆷ지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그림 1. 『대한의원개원칙서』 원본 43.0x59.0cm
—
『대한의원개원칙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www.heritage.go.kr

저 김민은 2000년 국립암센터의 심볼 및 로고로 선정된 작품을 디자인 한 홍석표의 지도교수로 당시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재직중이던 공동저자 박재갑과 인연을 맺게 된 후로 박재갑이 하는 공익활동단체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담배없는세상연맹 (Tobacco Free World Alliance, ToFWA)』, 『글로벌문화경제포럼(Global Culture & Economy Forum)』의 로고, 그리고 영문서적인 『담배제조및매매금지(Banning Tobacco)』의 표지 디자인 등을 재능 기부하여 왔습니다.

한글은 위대한 글

한글은 위대한 큰 글입니다. 한글은 영어, 중국어, 일어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를 품어야 합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2022년 8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원장 이호영 교수 등과 함께 『한글재민체연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2022년 한글날에는 중국의 기본 간체자 6,700자를 탑재시킨 『한글재민체4.0』이 완성되었으며, 일본어(和文) 가나 문자 181자 및 일본 한자 964자를 추가로 완성하여 최종 검수 작업이 끝나는 2023년 5월에 우리나라 최고의 글꼴 전문회사인 ㈜윤디자인그룹을 통하여 대학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5만 벌을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지원을 받아 11,172자의 본문용 한글과 표준한자 4,888자 및 간체자 6,700자로 구성된 『한글재민체5.0』 개발작업이 시작되어 훈민정음 반포 577주년이 되는 2023년 한글날에 『한글재민체5.0』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풀어쓰기 전용 『한글재민체6.0』이 동시에 출시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서예 공부를 시작하고 2019년부터 『한글재민체』 개발을 시작한 후 2020년 10월 8일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전시와 함께 『한글재민체1.0』을, 2021년 11월 2일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전시와 함께 『한글재민체2.0』을, 2022년 5월 25일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전시와 함께 『한글재민체3.0』을, 2023년 1월 11일 『한글재민체 한글서예 초대전 - 개원칙서와 보건의료』, 그리고 2023년 『한글재민체소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명대학교 고문헌실, 고규창, 고인수, 고재석, 곽노봉,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권동순, 권재일, 권진호, 권창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길희성, 김기석, 김두헌, 김동각, 김동진, 김미애, 김상태, 김선숙, 김성기, 김성수, 김수하, 김연수, 김응학, 김인걸, 김인규, 김정수, 김정은(서울의대 학장), 김지명, 김지영, 김채식, 김해림, 김현승, 김호, 대신송촌문화재단, 박갑수, 박기호, 박병천, 박상철, 박영국, 박용만, 박윤정, 박정숙, 박중신, 박지원(서울대학교병원), 배광식, 봉래출판문화재단, 부산시립박물관, 부정애,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준, 서홍관, 성인근, 성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손용석, 송하경,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신선호, 심동섭, 안병욱, 안중근의사기념관, 안휘준, 양홍석, 연합뉴스, 오강남, 오석원, 오죽헌시립박물관, 유홍준, 윤동한, 윤디자인, 윤양희, 윤진영, 이규복, 이규선, 이기동, 이동훈, 이배용, 이상백, 이석연, 이어룡, 이태준, 이태진, 이필숙, 이현주, 이호영, 임기연, 임원선, 임홍재, 장명국, 장민환, 장지훈, 장혜자, 전광배, 전정우, 정광, 정상혁, 정재영, 정진웅, 정해창, 조선일보, 조용진, 진황가, 최병구, 최은철, 최재혁, 최홍식, 편석훈, 표학길, 하철용,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학회,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한재영, 한재훈, 함민숙, 허경무, 허성도, 허유미, 홍윤표, 황문환, 황상익, 황준석 (가나다순, 직함 및 존칭 생략)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재갑은 32종류의 정자체 작품들을 원본에 충실하여 모서摹書 하였으나 서력書歷이 일천日淺하여 미치지 못함을 자인自認하며, 동도제현同道諸賢의 질정叱正을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박재갑 · 김민

목차

머리말 : 단상斷想 및 감상鑑賞

제1장 개요 — 9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 9
2. 「契(글)자와 글」 — 10
3. 겨레의 글 한글 — 10
4. 『한글재민체』 보급과 새로운 한글정자체의 발굴 — 12
5. 『한글재민체소고韓契在民體小考』의 내용 — 12

제2장 서사자書寫者 — 13
1. 서사관書寫官 — 13
2. 사자관寫字官 — 15
3. 필경사筆耕士·사수寫手 — 22
4.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 23
5.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서사자書寫者 — 24

제3장 서체書體 — 25
1. 한글서체韓契書體 — 25
2.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의 분류分類 — 30
3.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 31
4. 한자서체漢字書體 해서체楷書體의 분류分類 — 33

제4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 37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 37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 39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 39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5.0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6.0,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7.0 — 39
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한글韓契 2,350자 — 43
6.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한자漢字 8,682자 — 47
7.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로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및 주요 문장부호 — 63

제5장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作品 — 65
1.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455년 — 66
2.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1459년 — 69
3.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 71
4. 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 75
5.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1593년 — 79
6. 선조가 숙의에게宣祖가 淑儀에게, 1597년, 선조30년 — 81
7. 선조어필宣祖御筆, 1603년, 선조36년 11월 19일 — 83
8. 선조대왕어필언간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36년 동짓달 — 85
9. 효종대왕어서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 86
10. 숙종대왕언찰어필肅宗大王諺札御筆, 1685년, 숙종11년 6월 — 88
11. 숙종대왕어필,명안공주방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 90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肅宗大王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25년, 1699년 — 93
13. 소훈이씨제문昭訓李氏祭文, 1721년 — 95
14.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 99
15.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1755년 — 105
16. 고문진보언해古文眞寶諺解, 영조년간 — 107
17. 임산예지법臨産豫知法(18세기) — 109
18. 언서첩諺書帖, 1802년 — 113
19. 유빈박씨애책문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 115
20. 학석집(익종)鶴石集, 19세기 — 116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 표리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1827 — 117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1883년 6월 12일 — 118
23.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 1883년 9월 18일 — 121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 — 123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 125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왕실고문서 622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 127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왕실고문서 613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 129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왕실고문서 617
2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도홀기 — 131
外進宴時舞童各呈才舞圖笏記, 1901년
29. 책황귀비홀기冊皇貴妃笏記, 1903년 — 133
30. 고종황제의 밀서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29일 — 135
3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 137
32.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 ~ 2월 3일 — 139

제6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작품作品 — 141
1. 정대마도교서征對馬島敎書 — 147
2. 징비록서문懲毖錄自書 — 151
3. 선조국문유서 宣祖國文諭書 — 153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 155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5. 삼일독립선언서 三一獨立宣言書 — 157
6. 선언서 宣言書 — 161
7.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 165
8.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上學部大臣書 — 167
9. 上學部大臣書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 171
10. 학부대신답서 學部大臣答書 — 174
11. 칙령 제7호勅令第七號 — 175
12. 칙령 제9호勅令第九號 — 177
13.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 179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 — 180
京城醫學專門學校 螢雪記念 寫眞帖 序文
15. 역질 관련 영조 윤음 英祖癘疫綸音 — 183
16. 무오년 독감 戊午年毒感 — 185
17. 천화 天和 — 187
18. 천물무간 天物無間 — 190
19.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 — 192

제7장 인장印章 작품作品 — 193
1. 체천지보體天之寶, 1464년 — 194
2. 유서지보諭書之寶, 1593년 — 196
3. 대재건원大哉乾元, 1603년 — 199
4.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1894, 1895년 — 200
5. 대한국새大韓國璽, 1906년 — 202
6. 외무대신外務大臣, 1894년 10월 11일 — 204
7. 외부대신外部大臣, 1895년 5월3일, 1899년 10월 30일 — 205
8. 칙명지보勅命之寶, 1908년 — 206
칙명지보(한글), 2020년

부록 — 207
1. 그림 목록 — 207
2. 표表 목록 — 207
3.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 목록 — 208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작품 목록 — 210
5. 모각模刻, 복각復刻 및 새김刻 작품 목록 — 211
6. 참고문헌 — 212

제1장 개요

『대한의원개원칙서』(국가등록문화재 제449호, 2009년 10월 12일 지정)는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칙명지보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 대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년 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였다.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재민체』라는 이름의 탄생은, 김민金民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 서로의 이름에서 재在와 민民을 따서 재민在民이라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개발하는 글꼴은 주권재민主權在民도 있으니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하자고 합의하고 한글재민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글재민체 개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작은 글이라도 새로 만드는 서체로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고산(최은철) 서실에서 함께 지도받는 문하생들(고헌 정봉규, 금정 홍서진, 석담 정덕선, 송산 황의암, 연재 황수진, 유당 조현성, 유전 한정녀, 재민 박재갑, 차화 유희자, 초암 최준용, 창연 장사익 찬조 참여)과 함께 한글서예전 『고산서원창립35주년기념 한글초대전, 사랑』이라는 전시(2019. 11. 08.~16., 소허당)를 개최하였다. 박재갑은 김민이 만들어준 서체(한글재민체 0.5) 모본을 모사한 강안나 시인의 『그대 눈꽃 사랑』과 미국 아파치족 결혼 축시 『동행』을 출품하였다. 이 전시를 위한 박재갑의 세필 작품을 본 김민은 한글재민체의 서체 개발 방향을 재설정하여 2020년 한글날 『한글재민체1.0』을 선보이게 되었다.

오랜 기간 여러 서체에 관한 개발 경험이 있는 김민이 함께 하게 되어 한글재민체 개발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마침 미국에서 대학(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을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 공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규선 양(2022년 8월 박사학위 취득)이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한글재민체 개발에 참여하며 속도가 붙었다. 한글재민체 서체 개발이 이렇게 커지고 할 일이 많은 줄 박재갑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박재갑은 서체 개발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시작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몰라서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한글재민체1.0』(2020년 10월 8일),『한글재민체2.0』(2021년 11월 3일), 『한글재민체3.0』(2022년 5월 25일)의 저작권은 전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되었다.

2022년 5월 25일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특별전에서 한글학자 박갑수 교수가 다음과 같은 축사를 하였다. "『축하의 말씀』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재민체在民體』 글꼴의 완성과 전시를 축하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자면 언어와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우리말이 있고, "한글"이란 훌륭한 문자가 있습니다. 文字生活은 보다 원만한 소통을 위해 國漢混用을 하거나, 한글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朴在甲 이사장님은 그간 국민대학의 김민金民 교수와 함께 在民體 글꼴을 개발하셨습니다. 단아하고 예쁜 글꼴입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을 글꼴입니다. 2020년 10월 8일 한글 글꼴을 개발하여 발표회를 가지셨고, 2021년 11월 2일, 2차로 漢字 글꼴을 약 5,000자 개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5월 25일 제3차로 漢字 8,682字의 글꼴을 개발하여 在民體 글꼴 개발의 大尾를 장식하고, 發表會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主權在民의 정신에 따라 개발된 在民體 글꼴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사업이나,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愛民精神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在民體 글꼴 개발 사업 자체가 훌륭한 문화사업인데 글꼴을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데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국어학도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在民體 글꼴이 많이 애용되기를 바라며, 박 이사장님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 많이 하시기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25. 박갑수 드림"

박갑수, 「축하의 말씀」,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특별전에서, 2022. 5. 25.

2. 「契(글)자와 글」

한자漢字 8,682자의 글꼴을 개발한 후 2022년 5월 25일의 전시 제목으로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체3.0으로』로 정하고 제목에 한자漢字를 병기竝記하려고 하니 『글』을 어떤 한자로 써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던 중 신선호申善浩 회장께서 글은 契자라는 고유한 자가 있다고 하면서 契字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여 주었는데, 그때 신 회장이 설명하여 준 내용이 「契(글)자와 글」 이라는, 진태하陳泰夏의 글과 똑같아 아래에 인용한다.

신선호, 개인 교신, 2022. 3. 17.

전광배, 개인 교신, 2023. 3. 16.

한자의 자음을 형성하고 있는 바탕이 되고 있는 말은 우리의 조상인 동이어東夷語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한다. 그 첫째로 찾은 것이 '글契'이다.

은대殷代의 '갑골문'에서는 글자를 무엇이라고 일컬었을까? 갑골문에서 쓰인 글자의 자형은 '𠫑'의 형태였다. 이 글자는 '𠀠'와 '𡿧'의 상형자로서 곧 칼(𠀠→刀)로써 나뭇조각에 숫자를 새긴 것(𡿧→丰)을 나타낸 것이다. 옛날에는 상대에게 만일 돼지를 5마리 주었다가 뒤에 돌려받으려면 어떤 징표徵標가 있어야 하므로, 나무판에 그 수를 칼로 새기어 반으로 쪼개어 서로 지니고 있다가 뒤에 맞추어 일치하면 약속을 이행했던 것을 위와 같은 자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뒤에 나무판에 이렇게 새긴다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栔契'의 자형으로 바뀌고, 또한 이러한 약속은 대약大約 곧 큰 약속을 할 때 한다는 뜻으로 '契'의 자형으로 바뀌어 쓰였다.

'𠫑(契)'자의 발음이 옛날에 '기흘절欺訖切'의 반절음反切音으로서 '글'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자를 '글'이라고 일컫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뿐이다. 우리말의 글씨를 '쓰다'보다 더 옛말이 '긋다'이다. 또한 우리말에는 글씨를 나무판에 긋던 도구 곧 각도刻刀의 명칭으로서 '끌>끌'이란 말도 가지고 있다.

陳泰夏, 「契(글)자와 글」, 『한자漢字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東夷族이 만들었다』, 明文堂, 서울, 2019년, 158~163쪽

3. 겨레의 글 한글

한글재민체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구사업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0년 10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한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의 전시 도록에도 이미 잘 제시되어있어 소개한다.

어떤 국어학자는 예전에 쓰임새가 없는 글자들이 사라졌듯이 오늘날은 외국어 한글 표기에서처럼 새로이 쓰임새가 필요한 글자 자모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한다. 영어가 국제어로 부상한 지 오래된 판국에 f, r, v, z 등에 해당하는 자모를 개발해볼 일이라는 것이다.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72~173쪽

① 글자의 혼동 : 우선, 17세기부터 꼭지 없는 "ㅇ"과 꼭지 있는 "ㆁ"이 주로 붓질의 편의 때문에 완전히 혼동되고 만 것은 명백한 타락이다. 꼭지 없는 이응은 '전탁의 후음' 곧 목청의 떨림 자체를 적는 것이고 꼭지 있는 이응은 '전탁의 아음' 곧 여린입천장 콧소리를 적는 것인 만큼 소릿값이 전연 다르다.

② 한글 낱자의 규정 : 1933년 이래로 한글 맞춤법에서 낱자를 스물 넉자로 규정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은 지나치게 완고한 처사다. 당초에는 혼란스러운 표기 생활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의 상황은 다르다. 옛 글자 가운데 된이응 또는 여린 히읗 "ㆆ"은 실상 예나 이제나 독립적인 음소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빈도 높은 소리를 정확히 적게 해 줄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제 때부터 오늘날까지 업신여김을 당해 왔다. 이 글자를 살리면, 놀라며 내지르는 소리 "앗, 악"의 부정확한 시옷과 기역을 한결 정확하게 이 글자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여봇, 차렷, 열중쉬엇" 등의 시옷 받침도 마찬가지다. "으앗 으악"의 "으"도 실은 이 글자로 적어야 맞는 것이다.

③ 한글 모아쓰기의 폐해 :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가 『훈민정음』 책에서부터 규정되기는 했지만 철칙은 아니었다. "如孔子ㅣ 魯ㅅ 사ᄅᆞᆷ之類"라는 예문이 그 좋은 본보기다. 여기서 한자 뒤의 "ㅣ"나 "ㅅ"처럼 낱자를 따로 적기는 나중에 "비ㅅ발, 힛모로, 하ᄂᆞᆯᄭᆞ"등에서처럼 한글로만 적을 때도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모아쓰기와 풀어쓰기를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네 언어 감각을 위해서 유익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한글 맞춤법에서 모아쓰기를 고착시킨 결과 우리네 언어 감각도 음절 단위에 고착되고 말았다.
모아쓰기의 더 큰 폐해는 전산기에 들어 있다. 한글을 입력할 때는 언제나 낱자 단위로 입력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풀어쓰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52개가 안되는 글쇠로 어떠한 한글 자료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산기 속에서는 이 풀어쓰기로 입력된 한글 낱자의 사슬 가운데 음절 경계를 찾아내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나 종이에는 우리 눈에 익은 음절 단위로 바꾸어 출력하게 된다.

④ 읽기의 어려움 : 글꼴의 용도에 따라가려 써야 하는 미술가들은 본문체로 쓸 만한 한글의 글꼴이 두어 가지밖에 안 되고 수천 가지나 되는 로마자의 글꼴에 비해서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취미가 영상 매체로 흐르는 시대 변화에 도무지 대응할 수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

⑤ 풀어쓰기 : 모아쓰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은 초성과 종성을 구별하지 않는 풀어쓰기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로나 음운의 원리로나 초성과 종성은 동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책에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고 한 것이다.

김정수, 「한글 문화권의 앞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94~199쪽

21세기는 하나의 지구 문화가 창출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는 말한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은 이미 하나라는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언어 중 가장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겐 '겨레의 글, 한글'을 '지구촌의 글, 세계의 한글'로 도약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건무, 「새천년에 비춰보는 한글의 미래」,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59쪽

4.『한글재민체』 보급과 새로운 한글정자체의 발굴

2023년 1월에는 원로 중진 서예가 30인, 강복영, 강영애, 곽상혁, 구자송, 김상숙, 김선숙, 김응학, 김이중, 김일순, 김정묵, 김후분, 박병천, 박정숙, 서복희, 서정선, 서정수, 송하경, 신길자, 유혜선, 이기훈, 이명실, 이성숙, 이송자, 이신영, 장지훈, 장혜자, 정복동, 조종숙, 최미연, 함민숙을 초대하여『한글재민체 한글서예 초대전 - 개원의료와 보건의료』특별 초대전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한글재민체연구회』에서는 개발된『한글재민체』의 보급과 새롭고 아름다운 한글 정자체正字體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한글재민체서예대전을 2023년 8월에 개최한다. 작품은 애국가 가사 1~4절(후렴구는 마지막 4절에 한 번만) 총 136자를 한글재민체나 관공체官公體 등의 한글 정자체로 70x70cm 크기의 한지에 자유로운 장법章法으로 제작하면 된다. 우수상 수상 작품은 우리나라 최고의 서체 전문기업 ㈜윤디자인그룹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폰트로 탄생시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2024년 한글날에 무료 디지털 폰트로 배급될 예정이다.

5.『한글재민체소고韓契在民體小考』의 내용

『한글재민체』는『대한의원개원칙서』의 격조 높은 붓글씨 서체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 책에서는『대한의원개원칙서』를 어느 서사자가 어떠한 서체로 작성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시대 중요 문서를 서사한 서사관과 사자관 등의 활동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하여 보았다.
한글 서체에 관하여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글 서체를 정음체(훈민정음해례본체)에서 발전한 정자체와 흘림체 셋으로 대별하고, 정자체는 다시 민체정자, 관공체, 궁체정자로 소분小分하였으며, 흘림체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으로 소분하였다.
그동안 한글 서예계는 근엄한 정음체(고체, 판본체)와, 아름다운 궁체, 그리고 자유로운 민체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체 訓民正音 諺解本體를 시작으로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의 발전 양상을 조명하고자 언해류 7 작품, 어서류 7 작품, 유서, 국서, 밀서, 칙서 8 작품, 옥책문, 홀기, 제문, 애책문 6 작품 등 총 32 작품을 임서하여 소개한다. 훈민정음 언해본 희방사본을 나무에 복각하고 프린팅 잉크로 한지에 인쇄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한글재민체를 활용하여 국사國事 관련 작품 7 작품, 의학 관련 작품 9 작품 그리고 사상 관련 작품 3 작품 중 1 작품은 필사하고, 2 작품은 돌에 새기고 한지에 인주로 찍어, 총 19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정자체 임서작품과 한글재민체 필사작품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으로 7 작품을 돌에 모각하였고, 한 작품을 돌에 새겨 총 8 작품을 소개한다.

제2장 서사자書寫者

단아하고 꼿꼿하며 아름답고 고귀한 대한의원개원칙서 붓글씨의 서사자書寫者는 누구인가?
조선시대에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던 서사관, 사자관 등에 관하여 여러 문헌을 인용하고 조선시대의 사자관에 해당하는 현재의 전문경력관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1. 서사관書寫官

서사관은 조선시대 왕실의 여러 행사 때에 각종 글씨의 서사를 위해 차출되어 주로 도감都監에 소속되어 서사의 업무를 맡은 관원이었다. 서사관은 크게 전서를 쓰는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과 해서를 쓰는 해서서사관楷書書寫官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 역할에 따라 좀 더 상세히 나누면 전문서사관에는 어보御寶의 보문寶文을 담당한 보전문서사관寶篆文書寫官, 금보전문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옥인전문서사관玉印篆文書寫官 등이 있었고, 교명문의 전서를 쓰는 교명전문서사관敎命篆文書寫官, 표석의 전서를 쓰는 표석전문서사관表石篆文書寫官, 영정 등의 표제를 쓰는 표제서사관標題書寫官 등이 있었다.
해서서사관에는 재궁에 '상上'자를 쓰는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 명정을 쓰는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 각종 책문의 내용을 쓰는 죽책서사관竹冊書寫官, 옥책서사관玉冊書寫官, 금책서사관金冊書寫官, 시책서사관諡冊書寫官, 애책서사관哀冊書寫官이 있었고 교명문의 내용을 쓰는 교명문서사관敎命文書寫官, 각종 신주를 쓰는 신주서사관神主書寫官 등이 있었다.
옥책玉冊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 (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 (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옥책의 내용은 왕비를 책봉할 때는 왕비 책봉의 배경과 자질, 그리고 효성과 우애, 예의와 법도 등의 덕목을 훈계하는 내용을 수록하였고, 존호 및 시호·휘호는 수여하는 칭호의 뜻과 배경·의미 등을 수록하였다.
당시 어책은 어보와 함께 수여되었는데, 왕과 왕비의 책봉 명칭, 추봉 명칭, 존호·시호·휘호 등을 인장에 새긴 것이 어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사연과 의미 등을 풀이한 것이 어책이다. 어책은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로 구분한다.
옥책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의호를 결정하는 관원들이 있다. 여러 대신大臣들과 의정부 동서벽東西壁, 관각당상館閣堂上, 육

조참판六曹參判 등으로 모두 고급 관료들이다.

둘째로 옥책 제작의 직접적인 참여자들로 제술관製述官과 서사관書寫官, 특히 장인들이다. 의호를 통해 존호, 시호, 휘호 등이 정해지면 이에 대한 주석서註釋書인 옥책문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를 제술관이 작성한다.

서사관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옥에 직접 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서사관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 봤을 때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 내선, 선양, 전수, 전위라고도 함.)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는 교명과 책보冊寶(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는 교명과 책인冊印(죽책竹冊과 옥인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필사한 것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교명 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직조하여 넣는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찍은 것도 있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책竹冊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도 죽책을 사용한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는 교명과 책인을 수여한다. 죽책의 형태는 죽간竹簡 5~6조각을 책자 형태로 엮어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새기고 니금泥金을 하고 변철로 고정하여 둥근 고리와 돌쩌귀로 연결한다. 죽책의 앞뒷면에는 비단으로 회장하여 장식한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죽책의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 내용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교명과 죽책은 같은 듯, 다른 듯하다. 형태적으로 볼 때는 확연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여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죽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제술製述→출초본서사出草本書寫· 품정稟定→초도서서사草圖書書寫→정본서사正本書寫→북칠北漆→전금塡金→작첩作貼의 과정이다.

전서는 해서나 행서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체字體는 아니었고 어보나 어진, 금석문의 두전頭篆(비석의 머리 부분에 쓴 전자篆字)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특수한 서체였다. 그 중에서도 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寶文은 반드시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선조宣祖의 옥보에는 글자 수가 매우 많은데 어떤 전자篆字로 써서 새길 것인가? 자체를 상세히 써서 들이라."라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보의 보문은 승문원이나 교서관校書館의 전자관篆字官이 쓰기도 하였으나 도감의 전문서사관이 쓴 사례가 많다. 전문서사관으로는 당대에 전서에 능숙한 고위직을 채용하였으며 이들은 당시 전서의 대표적 명필이기도 하였다. 의궤를 일괄해보면 전문서사관의 대표적 인물로 광해군 대의 허함許涵, 효종 대의 이익엽李益燁,·여이징呂爾徵, 현종 대의 김수항金壽恒, 영조 대의 조현명趙顯命,·유척기兪拓基, 철종 대의 김도희金道喜,·박회수朴晦壽,·홍재룡洪在龍, 고종 대의 김문근金汶根 등이 보인다.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 왕조 어책御冊, 옥책玉冊 5』,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199, 252~254쪽

서준, 「교명과 죽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 왕조 어책御冊 – 교명敎命 · 죽책竹冊 · 금책金冊』,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426쪽~453쪽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93~196쪽

張乙演,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硏究 : 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硏究院, 城南, 2007년, 17쪽

2. 사자관寫字官

조선 말기 육조六曹의 행정 법규를 수록한 관찬 사료인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사자관寫字官은 승문원承文院의 사자관청寫字官廳에 소속되어 사대事大, 교린交隣 문서와 표문表文, 자문咨文, 어첩御牒, 어제御製, 어람서御覽書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자관청이 승문원의 속사屬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관의 주 업무는 외교문서 작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자관은 왕실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의 서역書役에 투입되었고 때로는 관료 집안을 방문하여 사사로이 글을 쓰기도 하였다. 사자관은 신분상 기술직 중인이었지만 국가의 주요 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승문원承文院의 관원官員으로서 사자寫字나 이문吏文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 홍문관弘文館의 관원館員, 여러 도의 교관 및 체아직遞兒職 이외의 자로서 수령守令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사품四品 이상의 품계品階로 올라갈 수 없고, 나이가 이십 미만인 자에게는 동반직東班職을 주지 못한다.

한우근韓沽劤, 이태진李泰鎭, 이성무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飜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성남시, 1985년, 8쪽

『사자관청등록寫字官廳謄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사자관청등록』은 비록 조선 말기 짧은 기간 작성된 관청 일지日誌이지만 그간 사료의 부재로 인해 사자관의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개관 이래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요 문헌을 국역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에는 고문헌 국역 총서 제11책으로 국역 사자관청 등록을 펴내었다. 이 책에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상백 교수가 해제한 내용이 사자관에 관한 어떠한 문헌보다도 잘 정리되어 있어 저자의 양해하에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 사자관청등록 國譯 寫字官廳謄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22년, 10~32쪽

조선 말기인 1877년(고종 14)에서 1882년(고종 19)까지 6년간 사자관청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671개의 기사가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 정서正書한 필사본 업무 일지 사자관청등록은 사자관청의 직제 및 운영과 사자관의 서사書寫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자관의 직제와 운영

조선시대 사자관의 연원은 이긍익李肯翊(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승문원의 조직을 정리하며, 사자관이라는 직책이 조선 초에는 없었고 문신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자로 하였으나, 후에 글씨를 잘 쓰는 자가 매우 적어 선조 조부터 사士·서인庶人을 막론 하고 군직軍職의 직함을 주고 사자관으로 삼았는데, 이해룡李海龍, 한호韓濩(1543~1605)가 그 시작이며 숙종 대에 이르러 승문원에 40명 정원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대事大:

사대事大는 중국中國과의 외교外交를 말하고 교린交隣이란 일본日本과 여진女眞간의 외교外交를 말한다. 다만 청淸이 중국中國을 정복征服한 이후에는 교린交隣은 대일외교對日外交만을 의미하게 된다.

승문원承文院 :

[原] 사대事大·교린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한다.
사자관寫字官 40인은 글씨 전문가를 뽑아서 임명한다.

규장각奎章閣 :

[增] 역대 국왕이 지은 글과 쓴 글씨 및 유언遺言, 그리고 현 국왕의 초상화와 글 및 글씨 등을 관리한다. 사자관寫字官 8인, 화원畵員 10인은 예비인원으로서 대령待令시키되 규장각奎章閣에 소속시킨다.

조두순 외 저, 『역주 대전회통』,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 www.krpia.co.kr

사자寫字 :

승문원承文院은 사대事大·교린문서交隣文書를 관장하여, 특히 사대문서事大文書인 주본奏本, 자문咨文, 표전表箋, 방물장方物狀 및 부본副本들은 선사자善寫者가 서사書寫하여야 하였으므로 당상관堂上官이나 문신文臣이 아니더라도 사자寫字에 특이特異한 재능才能이 있는 자者로 하여금 서사書寫케 하였다.(세조世祖 三九, 一二. 八. 庚戌) 이렇듯 서사관書寫官의 임무任務가 막중莫重함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령守令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품이상계四品以上階로 승천陞遷될 수 있는 특전特典을 주었다.

한우근韓沽劤, 이태진李泰鎭, 이성무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飜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성남시, 1985년, 18쪽

이긍익이 사자관을 정의하기 위해 어떠한 사료를 참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기록과 함께 현존하는 법제서, 중앙 연대기 사료, 사자관청 소속 사자관의 명단을 수록한 『사자관청선생안寫字官廳先生案』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자관의 직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선 전기인 1485년(성종 16)에 편찬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자관'이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지만, 승문원 장권奬勸에 '사자寫字한 자를 고하高下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전최殿最할 때 참고한다. 부본副本, 주본奏本, 자문咨文, 표表, 전箋, 방물장方物狀 중에서 20통을 베껴 쓴 자는 1차례 상고上考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자관 역할을 한 관원의 운영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 이후 1491년(성종 22)까지의 법령을 수집, 편찬한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사자는 주본, 계본啓本, 표, 전, 부본, 자문 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매달 50자 이상씩 서사하여 각각 본업을 익히되, 이를 어기는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조사하고 그중에 태만함이 더욱 심한 자는 파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성종 대의 『경국대전』 체제에서는 승문원에 사자관이라는 직책은 없었으나 외교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일을 전담하는 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국대전 이후 이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수양 의무에 대한 법 체제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이라는 명칭은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중종 37)까지의 법령을 수집, 편찬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 다시 확인된다. 『대전후속록』의 병전兵典 『체아직遞兒職』에는 승문원에 사자관 2명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상당히 간략하지만 법제서에 '사자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잡과방목雜科榜目』(古4652.5-16) 중 제3책에 수록된 『사자관청선생안』에는 중종 대에 활동했던 인물인 유이손柳耳孫(생몰년生歿年 미상)부터 사자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사자관청의 설치 시기를 추정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자관에 대한 기사가 중종 대부터 확인되는 점은 사자관의 운영 시기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 즉, 사자관은 중종 대부터 관직으로서 자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자관은 영조대 1746년(영조 22)에 편찬한 『속대전』에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갖춰진 체제가 확인된다. 『속대전』에는 승문원의 사자관을 본업인本業人으로 40명 차출하며, 2달마다 승문원 제조提調 가 고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를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승진시켜 보충하며, 체아직遞兒職 군직으로 정3품 상호군上護軍 1자리, 종3품 대호군大護軍 1자리, 종4품 부호군副護軍 1자리, 종5품 부사직副司直 1자리, 종6품 부사과副司果 1자리까지, 총 5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속대전』 이후 1785년(정조 9)에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규장각이 새로 창설되어 사자관 제8명을 차비대령差備待令으로 소속시키면서 조선 후기 사자관은 승문원 40명, 규장각 8명이며 체아직遞兒職 5자리로 운영되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사자관의 직제와 운영은 1867년(고종 4)의 육전조례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육전조례』는 관청의 행정 처리를 위한 법규를 수록한 법제서로 사자관의 직제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자관은 실관實官 40명이 전담하였고 사자관 중 높은 위치에 훈장訓長 1인이 45개월간 직을 담당하였다. 정본, 부본, 대자大字 3개의 글씨체로 시험을 실시하여 뛰어난 자는 녹관祿官 13자리에 임명하였고 훈장은 녹관으로 사과司果 1자리에 올랐다. 녹관은 상호군, 대호군, 부호군, 부사직, 부사

과, 사과까지 14자리가 있어서 『속대전』 체계의 5자리에서 9자리가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사자관 중 중국에 가는 사행에는 사계절 삭취재朔取才에 따라 시표관侍表官과 정사군관正使軍官이 1명씩 선발되었고, 일본에 가는 통신사행에는 취재取才 또는 임의로 국서관國書官이 차출되었다. 외도에는 황해, 평안도의 감영과 병영,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의 감영, 통영에 실관 40명 중에서, 충청도의 병영과 수영, 경상도의 좌, 북병영은 무료관無料官 20명을 경력에 따라 윤회輪回하여 차출하여 보냈다. 경상 우병영, 전라 병영, 남병영은 모두 별문서 자리로, 황해수영, 경상좌수영은 모두 관직 자리로 차출하여 보냈다. 차비대령은 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규장각에 속했다.

『사자관청등록』은 1877년(고종 14)의 기록이기 때문에 육전조례에서 확인되는 직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자관 중에는 훈장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시험으로 녹관이 선발되었다. 사자관은 승문원에서 외교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행을 갔으며 지방에도 파견되어 관아의 서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법제서에서 확인되는 사자관의 직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조선시대 사자관 운영 현황

	성종대		중종대	숙종대	영조대	정조대	고종대
법제서	경국대전 (1485년)	대전속록 (1491년)	대전후속록 (1542년)	편찬 법전 확인되지 않음	속대전 (1746년)	대전통편 (1785년)	육전조례 (1867년)
명칭	사자		사자관 ———				
관청	승문원		사자청 ———				
정원	미상		미상	사자청 40명 ———			규장각 8명 — 수 부정
녹관	미상		체아직 2	미상	체아직 5 ———		14

사자관은 외교문서에서 왕실 문헌까지 다양한 기록물 작성에 참여하였는데 승문원에 소속되었던 만큼 외교문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사대에는 외교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 숙련을 통해 사행에 참여하여 착오가 있는 문서를 발견하면 흠결이 없도록 고치는 업무도 포함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 대 기사에는 사자관을 두는 목적이 오로지 사대事大였음이 확인되며, 광해군 대에는 사자관이 찬집청撰集廳에 파견되었는데 사대문서의 일이 있을 때 모두 승문원에 가서 일하여 실록 편찬 업무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된다. 즉, 승문원 소속의 사자관은 외교 문서 작성을 가장 시급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분명해 다른 서적 편찬 업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숙종 대에 사자관 정원이 40명으로 고정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연려실기술』에서는 선조 대부터 사자관을 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자관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는 양반 서류庶流나 그에 준하는 신분의 가계에서 진출하였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기술직 중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잡과방목雜科榜目』(古4652.5-16)에 수록된 『사자관청선생안』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사자관청선생안에는 각 사자관의 명단 아래 역임한 관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수록 인원에 비해서 수가 적지만 종6품 이상 참상관參上官의 관직이 확인된다.

사자관은 정2품 판서부터 종6품 현감까지 참상관 이상인 자도 역임하였으나 그 수가 점점 줄어 영조 대 이후부터는 본업인으로 하위직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청선생안』에 따르면 정2품 판서判書에는 한인급韓仁及(1583~1644년), 정2품 참찬參贊에는 한준韓準(1542~1601년), 종2품 제학提學에는 오준吳竣(1587~1666년), 정3품, 종3품 부사府使에는 양만고楊萬古 (1574~1655년), 이충겸李忠謙(인조대 활동), 정3품 목사牧使에는 김행金行(1532~?), 김응청金應淸(생몰년 미상), 이언관李彦寬(생몰년 미상), 종4품 군수郡守 한호韓濩(1543~1605년), 장인충張仁忠(미상), 장응선張應善(인조대 활동), 정침鄭琛(인조대 활동), 종5품 현령縣令은 이복장李福長(선조대 활동), 신여탁申汝擢(선조대 활동), 안선민安善民(생몰년 미상), 박숭현朴崇賢(인조대 활동), 이익장李益章(인조대 활동), 종6품 현감縣監은 박자휘朴子翬 (생몰년 미상), 윤경국尹敬國(선조대 활동), 이진응李震膺(인조대 활동), 이인

민李仁民(인조대 활동), 조수동趙壽棟 (숙종대 활동), 이유화李惟和(숙종대 활동), 김수언金壽彦(생몰년 미상), 김국표金國杓(영조대 활동)가 확인된다. 이 중에서 정3품 이상 직책을 역임한 인물은 인조 대까지 활동했던 인물로 보이며, 종6품 이상 직책을 역임한 사자관은 영조 대에 활동한 김국표가 마지막으로 확인된다. 이후 사자관 명단에는 참상관 이상 관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름 아래에는 사자관을 길이 전담하게 한다는 '영부永付'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하여 명단의 끝까지 계속된다.

요컨대, 중종 대에서 영조 대까지의 사자관 중에는 정2품 판서부터 종6품 현감까지 참상관 이상 관직을 역임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숙종, 영조 대에 이를수록 점차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참상관 이상 관직을 역임한 이들 전체가 양반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이긍익의 서술처럼 사자관에는 사인士人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조 대부터 사자관만 전담한 인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관련 사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속대전』 체제가 마련되면서 사자관을 '본업인本業人'으로 차출한다는 규정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1882년 5월 23일의 청회에 참석한 인물을 대상으로 직책의 위계를 살펴 보면 사자관청에는 수좌首座, 수관首官, 훈장訓長, 훈장예차訓長預差, 유사관有司官, 장무관掌務官, 우위右位, 하위下位의 순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우위와 하위는 관직 이름이기보다는 사자관청에서 일반 사자관의 등급을 나눈 정도로 보인다. 즉, 장무관은 사자관청에서 하위, 우위 위에 있는 중간 간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직책으로 보인다.

사자관의 직제

사자관청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청회에는 좌목座目, 즉 참석자를 직위 순으로 기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사자관청의 사자관은 수좌首座, 수관首官, 훈장訓長, 예차훈장預差訓長, 유사관有司官, 장무관掌務官, 우위右位, 하위下位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수관, 유사관, 장무관은 주요 직책인 삼임관三任官이며 등록에서 수관 훈장 이기흡李基洽, 유사관 훈장 이긍현李兢鉉과 같은 직책이 다수 확인되므로 삼임관 자리는 차출되면서 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차훈장은 훈장이 사임하면 곧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등록에서는 수관의 선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수관은 여섯 달 임기를 마치면 후보자를 수망首望, 부망副望, 말망末望으로 갖춰 제조에게 보고하여 낙점을 받아 선발되었다. 수관은 임기를 채우지 않더라도 병환 등 신상의 일로 제조에게 청하여 사임을 하기도 하였고, 여섯 달이 넘도록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삼임관 중 수관은 제조가 임명하였으나 유사관과 장무관의 인사권은 수관에게 있었고 청회를 거쳐 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청 생도방生徒房 입속入屬

생도방에는 사자관이 되기 전 수련 단계에 있었던 동몽童蒙이 있었다. 동몽은 학생學生으로도 불리었는데 재주에 성취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자관 중 이습肄習(정식 관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일을 익히는 임시 벼슬아치)이 되었다. 등록에는 사자관청 생도방에 동몽으로 입속하는 과정인 완천完薦에 관한 기사가 확인된다. 먼저 입속을 원하는 자가 모이면 수관은 완천 일자를 통보하고 완천을 위한 청회가 개최되었다. 완천 과정은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등록의 완천 결과, 인명 아래 '초순무결初巡無結', '삼순이결三巡二結'과 같은 글이 확인되어 사자관청의 완천은 사역원의 역관 생도방 입속 과정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역원 역관 입속 과정은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완천完薦』에서 확인되는데 입속을 원하는 자는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거단자保擧單子를 제출하고 녹관이 모여서 단자單子를 보고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녹관들이 단자를 '삼순三巡' 즉, 3번 이하로 돌려보았을 때 종이를 꼬아서 거부를 표현하는 '결結'이 두 번 이하 나온 자들은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에도 합격하면 최종 입속되었다. 이 완천절차는 역관의 입속에 해당하지만 등록에 완천이라는 용어와 대상자 아래 '순巡'과 '결結'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역관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동몽에 입속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자관은 『속대전』 체제부터 40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대전통편』 체제부터 승문원 40명, 규장각 8명으로 자리가 정해졌다. 그러나 등록에 따르면 사자관과 생도[官生]를 합한 인원이 예전에는 60명이었으나 등록 작성 당시 8, 90명

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우위가 20여 명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15명이라서 7명을 더 선발한다는 기사도 확인된다. 등록의 표제가 「본원 등록」이므로 등록에서 언급한 사자관은 승문원 소속의 사자관일 가능성이 크다. 즉,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자관 40명, 생도 20명의 자리로 직제를 이루고 있었으나 등록이 작성되었을 당시 관생의 수가 비대해지고 직제의 우위, 하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수도 유동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자관의 임명과 평가

등록에서는 사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거치게 되는 과정과 지속적인 평가 상황을 보여준다. 사자관에 임명되어 말단인 조사曹司가 되면 면신례免新禮인 지면례知面禮 과정을 거친 후 또다시 허참례許參禮를 거쳐 포상받고 임용되었다. 사자관이 된 자는 청에서 업무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주도做度라는 과정을 통해서 50일 동안 쉬지 않고 번을 서도록 하였다. 사자관은 녹취재祿取才, 삭취재朔取才로 평가받았다. 특히, 삭취재 시행과 관련해서는 1877년 2월 10일 기사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당시 승문원 제조가 본원 사자관의 필체가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여 『황정경黃庭經』으로 매달 시제에 응하게 하도록 지시가 있었다. 『황정경』으로 삭취재를 시행하는 것은 1879년까지 2년 동안 시행되었다. 등록에서 사자관의 삭취재로 황정경을 익히도록 한 것은 당시 사자관이 왕희지王羲之(303~361)의 필체를 익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등록의 한 부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황정경은 왕희지가 해서楷書로 쓴 본의 모본과 판각본이 다수 제작되었고 사자관청에서는 이 서첩을 익혀 매달 삭취재에 응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의 조직 문화

사자관은 다른 기술직 중인과 마찬가지로 집안 대대로 관직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자관청 내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문화로 집안사람이 관청에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의 서사 활동

사자관청등록은 사자관 본연의 업무인 서사 활동을 상세히 보여준다. 사자관청이 승문원의 속사屬司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관에게 외교문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그리고 사자관은 왕실 문헌 등 국가 주요 기록물의 서사 작업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

사자관의 외교문서 작성

등록은 사자관의 외교문서 작성 활동을 상세히 보여준다. 등록에서 확인되는 외교문서 작성과 관련한 기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사자관청등록』수록 외교문서 작성 기사 목록

연도	문서명(작성시기)
1877	월식자月食咨(1.25~26), 표민자漂民咨(1.26~30), 선통칭사자先通稱謝咨(4.18~19), 절행문서節行文書(10.10~27)
1878	고부사문서告訃使文書(6.13~19), 절행문서節行文書(10.10~27)
1879	절행문서節行文書(10.2~11.7), 성경예부회자盛京禮部回咨(10.4)
1880	표민자漂民咨(3.22~23), 어채자漁採咨(5.23~25), 절행문서節行文書(10.10~11.7), 성경예부회자盛京禮部回咨(10.22), 선통칭사자先通稱謝咨(11.6), 준청문서准請文書(11.16~17)
1881	성경예부회자盛京禮部回咨(3.5), 북경예부회자北京禮部回咨(4.11), 사행문서使行文書(6.10~16), 북경예부회자北京禮部回咨(6.28), 청력자請曆咨(8.19), 사행문서使行文書(10.4)
1882	북경예부자北京禮部咨(4.24), 총리각국사무아문자總理各國事務衙門咨(7.14), 사행문서使行文書(7.19), 총리각국사무아문자摠理各國事務衙門咨(7.25), 예부자禮部咨(8.19), 북양통상대신아문자北洋通商大臣衙門咨(9.27), 사행문서使行文書(10.15~11.6), 진주문서陳奏文書(11.7), 총리각국사무아문자摠理各國事務衙門咨(12.17), 북양통상대신아문자北洋通商大臣衙門咨(12.19)

등록의 외교문서 작성 관련 기사는 1882년(고종 19)에 가장 많다. 1881년까지는 주로 대청 외교문서가 대부분이었으나 1882년부터는 종류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는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일본군 주둔을 허가하는 제물포조약을 일제와 체결하는 등 당시 외세와의 관계가 급변하였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에서 각국의 사신이 와서 서계書契, 국서國書, 조회문照會文, 자문咨文의 발급이 수시로 있어 사자관이 매일 번을 서도록 한 것

으로 보아 당시 외교문서 작성이 수시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청 사대문서 업무는 일반적으로 예문관藝文館에서 사대문서를 기안하는 제술製述단계, 사자관이 형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오류를 잡는 선사繕寫단계, 선사를 마친 초본인 흑초를 검토하는 흑초사대黑草査對 단계, 문서를 정서하면서 오류를 검토하는 필사畢寫단계, 외교문서에 어보御寶와 어압御押을 남기는 안보安寶단계, 완성된 사대문서를 보관함에 봉안하는 봉과封裹 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사자관은 외교문서 생산 과정 중 선사부터 필사까지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등록에서는 특히 매년 10월에 수록된 사행 문서 작성 관련 기사에서 업무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서 문서 작성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모든 절차가 수록된 1880년 10월의 문서 작성 사례를 통해서 사자관의 업무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사자관은 문서분방文書分榜 – 문서회동文書會同 – 흑초사대黑草査對 – 정서사대正書査對 – 의정부사대議政府査對 – 방물봉과方物封裹 – 승정원사대承政院査對 – 모화관사대慕華館査對의 순으로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만 기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은 확인하기 힘들다. 모화관의 사대 이후 사행이 출발하면 황주黃州, 평양平壤, 의주義州에서 세 차례 사대를 진행하는 이를 위해서 사자관은 시표관과 정사 군관으로 차출되어 문서 수정에 관여하였다. 사자관청에는 사행을 나서는 이들을 위해 전별餞別 행사를 베풀었다.

사자관의 왕실 기록물 작성 사자관은 규장각에도 소속되어 있었듯이 국가의 중요 기록물 작성에 동원되었다. 다만 등록에는 승문원 소속 사자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서 규장각의 기록물 작성 업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록에서 확인되는 사자관이 작성한 기록물은 표3과 같다.

표3. 『사자관청등록』수록 사자관 참여 기록물 목록

	작성시기	작성대상	작성장소
1	1877.1.20.	삼공선생안三公先生案	의정부議政府
2	1877.7.27.	발부총록發付摠錄	승정원承政院
3	1877.8.25.	책제목冊題目	통장청統長廳
4	1877.11.22.	친상전문親上箋文	예문관藝文館
5	1877.12.23.	친상전문親上箋文	예문관藝文館
6	1878.1.19.	친상전문親上箋文	예문관藝文館
7	1878.2.4.	왕비세보王妃世譜	종친부宗親府
8	1878.3.17.	진선도進饌圖	별군직청의궤소 別軍職廳儀軌所
9	1878.4.21.	언서책제목諺書冊題目	통장청統長廳
10	1878.8.8.	승경도陞卿圖	미상
11	1878.9.25.	삼반고三班考	이조서리문아가 吏曹書吏文雅家
12	1878.10.24.	어명첩御命牒, 예단자禮單子	정원서리홍가가 政院書吏洪哥家
13	1879.2.23.	어제실병풍御齋室屛風	대조太廟
14	1879.9.6.~ 1880.11.16.	책역소 간행 책	세자시강원책역소 世子侍講院冊役所
15	1879.12.3.	전문箋文	외방양읍外方兩邑
16	1880.5.16.	통감책제목通鑑冊題目	홍문관弘文館
17	1880.6.22.	상양문초도서上樑文草圖書	별궁別宮
18	1880.9.16.	열성조계강책列聖朝繼講冊	옥당玉堂
19	1881.6.21.	칙급예단勅給禮單	공사청公事廳
20	1881.8.14.	함녕전상량문초도서 咸寧殿上樑文草圖書	세자빈궁世子嬪宮
21	1881.8.20.	열성조자손록列聖朝子孫錄	돈녕부敦寧府
22	1882.3.26.	어첩御帖, 명첩名帖	승정원承政院
23	1882.3.29.	홍패첩지紅牌帖紙	승정원承政院
24	1882.4.9.	어첩御帖, 명첩名帖, 수중홀 기手中笏記	승정원承政院
25	1882.5.15.	등영록登瀛錄	홍문관弘文館
26	1882.6.4.	강목제목綱目題目	홍문관弘文館
27	1882.10.16.	국조방목國朝榜目	홍문관弘文館

등록에는 사자관이 참여한 기록물 27건이 확인된다. 육전조례에서 따르면 사자관이 어첩, 어제, 어람서의 작성을 담당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등록에서 확인되는 사자관의 서사 활동은 『왕비세보王妃世譜』, 『열성조자손록列聖朝子孫錄』과 같은 왕실 족보, 의궤의 진찬도進饌圖, 역대 왕의 경연에서 진강進講했던 서적과 기간을 기록한 『열성조계강책列聖朝繼講冊』등 왕실 관련 기록물뿐만 아니라, 홍문관의 관원을 임명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기록한 『등영록登瀛錄』,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들의 명단인 『국조방목國朝榜目』, 의정부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명단인 『삼공선생안三公先生案』과 같은 관청 기록물, 국왕 등 왕실에 올리는 문서인 전문箋文, 문과 급제자에게 내린 홍패紅牌와 첩지帖紙 같은 문서, 책 제목, 병풍, 상량문의 초도서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국가 주도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에는 사자관이 서역을 위해 방문한 곳도 확인되는데 왕실 관련 공간, 중앙 관청을 비롯하여 이조 서리, 승정원 서리의 집까지 방문하여 작업하였다.

등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자관의 왕실 기록물 서사 활동은 시강원 책역소侍講院冊役所의 서적 간역사업 참여와 관련한 기사들이다. 장서각에는 『시강원책역소일기侍講院冊役所日記(K2-2780)』가 현존하고 있다. 책역소는 1879년(고종 16) 9월 3일 왕명에 의해 감동관監董官이 임명되고, 9월 6일 사복시司僕寺에 책역소가 설치되고 1880년 11월 16일까지 업무가 진행되었다. 즉 책역소의 서적 간행 시기 와 등록의 작성 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당시 사자관의 활동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책역소에서는 당시 세자인 순종의 서연書筵에 쓰이는 강의 교재를 출판하였는데 책역소 서역에 투입된 사자관은 총 19명이 확인된다.

책역소의 서적 출판에 다수의 사자관이 투입된 이유는 새로 간행하는 책의 판하본板下本이나 제목을 쓰는 일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세자의 서연을 위해 서적의 다수에 이함頤頷과 현토懸吐 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책역소에서 작업한 책은 을해년(간행 년 미상)에 간행한 사서삼경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과 『효경』, 『소학』, 『예기』, 『춘추』, 『통감강목』, 『천자문』까지 4,280책과, 새로 간행한 대.소자 『효경』, 『소학』, 『통감』, 『사략』, 『속사략』, 『동몽선습』, 『전운옥편』까지 865책, 총 5,145책이다. 이때 『사서삼경』, 『효경』, 『소학』은 이함과 현토를, 『예기』, 『춘추강목』, 『통감』, 『사략』, 『속사략』에는 현토를 하였으며, 세자 예람건睿覽件은 청색으로, 강관講官 배포 건 및 그 밖의 건은 흑색으로 현토하였다. 이 중에서 이함은 책역소에서 전라감영에 이함에 사용되는 죽청지를 들이도록 명한 기록과 당시 작업의 결과물로 보이는 '을해신간乙亥新刊 춘방장판春坊藏板'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의 본문에는 현토, 본문의 아래 여백인 서각書脚에는 종이를 부착한 주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책의 하단에 부착한 주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의 책역소 작업 관련 기록은 1879년(고종 16) 9월 5일 연일 사자관을 시강원侍講院에 들어오도록 통지하였다는 처음 기록부터 1880년 11월 25일 서역 종료 후 참여 사자관을 외직外職으로 조용調用하는 등의 사자관청의 업무 처리까지가 확인된다. 등록에는 사자관의 책역소 작업이 상세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1880년 11월 25일 현토와 이함의 서역을 위해서 모두 출외出外하였다는 것과 1879년부터 1880년까지 시강원에서 백목白木, 부채扇子, 『과화존신過化存神』 등 지속적인 선물하사 내역 등이 확인된다. 등록에는 비록 책역소의 작업 내역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사자관청의 업무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 이유는 책역소에 상당수의 사자관이 차출되어 업무에 투입되었지만 사자관청에서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다른 중요 업무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등록에는 『통천록通薦錄』의 등서로 시강원 서역에 불참한다는 기록과 같이 업무 중복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고 책역소 업무 기간에도 외교문서 작성, 다른 관청의 서역 업무, 삭취재, 녹취재 시행 등과 같은 주요 업무를 계속 수행한 기사들이 확인된다.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續大典』, 『大典通編』, 『六典條例』, 『練藜室記述』, 『承政院日記』, 『鮮王朝實錄』, 『雜科榜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 古4652.5-16-v.3), 1870. 以後

『寫字官聽謄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번호: 고궁3817

『侍講院冊役所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2-2780), 1880.

『小學諸家集註』,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3-46), 1815.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김두헌, 「자료 『寫字廳先生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 대동사학회, 2004.
김두헌,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45,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이신영, 『王羲之 書藝에 關한 批評 硏究 』,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장서각,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國譯 사자관청등록寫字官廳謄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22년, 10~32쪽

3. 필경사筆耕士·사수寫手

① 글씨를 베껴 쓰는 사람.
② 조선 시대에, 과장科場에서 시권試券의 글씨를 대신 써 주던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
예능프로그램 유키즈온더블럭에서는 2022년 6월 17일 (서예)전문경력관을 필경사筆耕士라는 호칭으로 소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필경筆耕은 붓으로 농사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직업으로 글이나 글씨를 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필경사筆耕士란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고전종합DB에서 필경사를 검색하여 보면 『명재유고(제26권 / 서書)』에서 필경사가 사수寫手라는 용어로 등장한다.

유상기에게 보냄 6월 12일
요사이 날씨가 몹시 더운데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지난번 인편이 왔을 때 병 때문에 편지를 쓰지 못하고, 아이들더러 좌상에게 재차 감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했습니다. (중략中略)
책을 간행하는 일은 지금 이미 정해졌고, 초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며, 또 이미 깨끗이 필사했으니, 교정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려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역사를 언제쯤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사문斯文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본은 아직 모두 산정刪定하지 않아서 원래 간행을 서둘러서는 안 되었고, 만약 추후에 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앞뒤로 간행된 두 본이 또한 참고해서 보기에 좋을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뜻으로 좌상에게 답을 하였습니다. 다만 책을 간행하는 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정입니다. 그대의 노쇠한 정력으로 혼자서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여러 종제들에게 함께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그중 몇 권을 나누어 받아 교정해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찍이 이른바 송안宋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회천懷川 송시열宋時烈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천이 아니고 바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또 이런 종류의 의문 난 곳이 있거든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상이 그대에게 답한 편지에 서문 쓰는 것을 사양했기에 지난번 답서에서 사양하지 말고 써 달라고 청했습니다. 지난번에 등본謄本을 보니 매우 정밀하던데 이 본을 가지고 판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판각할 본을 다시 등사할 계획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밀한 필경사筆耕士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자관寫字官이 가장 좋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책을 간행하는 일이 정해진 뒤에 소식을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 한국고전번역원 | 홍기은 (역) | 2008

[與兪相基 六月十二日]
[DCI]ITKC_MO_0400A_0280_010_0560_2003_A136_XML DCI복사
至於刊事。今已定矣。初本首尾完具。且已淨寫。校正之外。更無難事。未知始役在何間耶。大役亟濟。豈非斯文之幸也。此中本。尙有刪定之猶未盡者。元不當汲汲。倘或追後可得入梓。則前後兩本。亦好參看。有何妨也。昨亦以此意。復于左相矣。但刊役最難者。校正也。君之衰境精力。恐難獨辦。令從弟諸賢。可以往同否。此中亦可以分卷校上矣。且曾見以所謂宋按者。疑爲懷川。非也。乃指龜峯也。如復有此等疑晦處。則一一示及如何。左相答

君之書。辭序文。故昨於復書中。請其勿辭而爲之矣。前見謄本甚精。未知此本可付板否。或欲更謄付板之本耶。若然則寫手之精者甚難。京中寫字官最好。而得之未易。未知何以爲計。刊事已定之後。未知消息。爲鬱。六月十二日。

윤증尹拯, 「유상기에게 보냄, 6월 12일」, 『명재유고明齋遺稿, 제26권, 서書』, 1732년, 한국고전종합DB

그리고 사수寫手라는 용어는 정암집貞菴集에서도 확인이 된다.

1) 가문 의식과 선조先祖의 현창顯彰

앞서 살폈듯이 『정암집貞菴集』에는 여러 양식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편지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집과 달리 일가친척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절친한 벗 김신겸金信謙이나 평소 깍듯이 모셨던 외종형 이재李縡, 그리고 학문적인 의론을 주고받았던 임성주任聖周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민우수閔愚洙가 일가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략中略)

1734년 처음 과장에 들어가는 아들 백첨과 백겸에게 차분히 임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1738년에 과거가 임박하여 긴장한 아들들에게, 공부가 지겨우면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도록 권하기도 하고, 일과를 정해서 힘써 공부하도록 권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들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대필해 주는 사수寫手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꾸짖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민우수에게 자손의 과거 급제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였지만, 과거를 능사로 여기는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아들들의 학문적 깊이와 특징을 모두 파악하여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중략中略)

한편, 민우수는 일가친지와 제사나 묫자리 등 가문의 일을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중략中略)

그러는 중에도 과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 것과 사수寫手를 쓰지 말 것을 충고하였는데, 과거와 향사享祀가 겹쳤을 때는 형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우수는 졸하기 전까지 장조카 백분과 지속적으로 편지로 집안일을 의논하였던바, 그만큼 민우수에게 가문의 의미는 깊었던 것이라 하겠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김은정

조광조趙光祖, 「가문 의식과 선조先祖의 현창顯彰」, 『정암집貞菴集』, 1892년, 한국고전종합DB

4.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조선시대의 사자관제도는 현재 전문경력관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경력관 제도의 법적 근거, 지위,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경력관은 5급 이상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의 임명장과 서훈 등을 손글씨로 쓰는 업무를 관장한다. 현행법상 전문경력관 제도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전문경력관 규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직종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직에 적용되는 계급 구분(1~9급)과 직렬구분(행정, 전산, 공업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무의 성격·난이도·숙련도 등에 따라 가·나·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2항, 전문경력관 규정(제1조 등)

② 현행 전문경력관 제도의 연혁은 조선시대 사자관寫字官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직종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62년에 도입되었다. 사자관은 승문원, 규장각에 소속되어 외교문서, 자문咨文, 어첩, 어제 등의 문서를 정서正書하던 관원이다.

③ 전문경력관 복무 및 인사관리상의 특례

직무 난이도와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가군은 5급 이상 나·다군은 6급 이하로 관리하고 정년·휴직, 명예퇴직 등 신분보장은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나 승진· 전보·전직·파견 등은 직위 특성상 제한되고 있다.

④ 전문경력관 채용요건의 근거와 시험방법

경력경쟁 채용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 · 제3호(경력) · 7호(지방-국가직) · 10호(학위) · 12호(연고지) 등의 요건충족으로 채용한다. 특히 자격증(2호)은 직무 성격에 따라 직위별로 소속 장관이 정하고 경력 또는 학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시험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 (또는 필기·실기)으로 하고 필기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⑤ 현황

현재 전문경력관은 인사혁신처(임용장 담당)에 2명(가군 1명, 나군 1명, 이 중 1명은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했고, 1명은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서훈 담당)에 2명(가군 1명, 나군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⑥ 제도적 개선책

전문경력관의 연혁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서예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을 명문화하고 채용 인원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예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경력관을 필경사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호칭이다.

이석연,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개인 교신, 2022. 9. 28.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17일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 국새 날인,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 관리시스템 운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경력관 가군을 모집하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를 냈다. 응시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서예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 서예 관련 분야 박사 학위
- 서예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학사 취득의 경우 4년 이상 경력)

조선일보, 2023. 2. 22.

5.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서사자書寫者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글재민체』를 잘 아는 이필숙 박사가 『한글재민체』와 똑같은 서체의 고자료가 인사동 화봉문고에서 운영하는 제81회 화봉현장경매에 올라왔다고 전화하였다. 이필숙, 개인 교신, 2023. 3. 19. 『서순행일기』 첫 장의 필사 서체가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서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 3. 16~19. 14쪽 그러나 120가지 서체로 천자문千字文 작품을 발표한 전정우는 『대한의원개원칙서』와 『서순행일기』는 필체로 보아 서사자가 같지 않다고 단언하였고,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16., 『대한의원개원칙서』는 대단히 수준이 높은 달필達筆인데 비하여 『서순행일기』는 개원칙서에 못 미치는 필체라 하였다.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20.

『대한의원개원칙서』의 필사자가 누구일까. 『대한의원개원칙서』는 황제가 내린 칙서이기에 개인 필사자에게 맡기기보다, 공식적인 문서로 처리해야 하므로 사자관급에 있던 인물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 하나 20세기 초에도 사자관들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의궤나 등록에 필사한 사자관들의 이름이 나온다. 예컨대, 1906년에 제작된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규장각 소장)에 사자관으로 참여한 김보영金輔榮외 3인이 이름이 적혀 있다.

윤진영, 개인 교신, 2022. 9. 14.

『대한의원개원칙서』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자관이 필사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제3장 서체書體

종이에 먹물과 붓을 이용하여 글자를 직접 썼을 때 나타나는 글자꼴을 붓글씨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모필체毛筆體라고 하는데 한글, 한자, 일본 글자 등을 예술성이 나타나도록 쓴 붓글씨들은 전, 예, 해, 행, 초서 등의 형태적 분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체書體라고도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38쪽

동방서법탐원과정東方書法探源課程에서는 한글 실기(1)은 판본체 실기이고, 한글 실기(2)는 궁체 실기이다.

2023년 5월 24~29일 개최되는 제24회 세종한글서예대전에서는 궁체(현대문정자, 현대문흘림, 고문정자, 고문흘림), 고체(판본체), 일반체, 세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하고 있다.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는 분명 판본체도 아니고 궁체도 아니다. 그럼 무슨 서체인가.

서체의 이름으로는 1. 어느 시기인가 즉 시간적인 시체, 2. 장소에 따른 즉 궁중에서 궁녀들이 쓴 궁체, 3. 재료에 따른 판본체, 4. 공간적 차원의 민체 등이 있다.

김응학, 개인 교신, 2022.9.13.

1. 한글서체韓契書體

한글 서체에 관하여는 2022년 9월 24일~25일 창녕에서 개최된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석상에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홍윤표의 원고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곽노봉이 보고한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의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와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의 『2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그리고 2015년 서예학연구지에 게재된 장지훈의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통일방안 연구』 등을 인용하며 정리하였다.

허경무, 김인택은 56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2006년 10월 21일,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유형과 명칭』 으로 한글지에 발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분류 기준을 확립하여 서체의 유형을 설정하고 서체 명칭을 정립하는 데 있다. 한글이 창제된 글자라는 점, 글자 생활에서 모아쓰기를 한 점, 서사 도구가 주로 붓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형성], [중앙축성], [기필의 노봉성] 세 자질을 기준 삼아 조선 시대 한글 서체를 분류하였다. 조선 시대 서체는 1. 해례본체, 2. 언해본체, 3. 궁체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례본체를 제외한 언해본체와 궁체는 '획의 연결', '붓길과 글자 간의 연결과 흐름', '획 축약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정, 흘림, 진흘림으로 다시 분류하여, 궁극적으로 조선 시대 한글 서체를 해례본체, 언해본체 정자, 언해본체 흘림, 언해본체 진흘림, 궁체 정자, 궁체 흘림, 궁체 진흘림으로 분류.명명하였다.

허경무, 김인택,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유형과 명칭』, 한글, 2007년, 275: 193~226쪽

한글 서체 분류의 시초는 1960년대에 국문학자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고, 서예가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이었다. 초기의 한글 서체 분류는 주로 한자 서예가들에 의해 시도되었기 때문에 '궁체'가 그 분류 속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한글 서체에 대한 분류와 명칭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그 연구가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했던 분류체계도 몇 가지로 압축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에는 '민체民

體'가 등장하고 있는데 주장자는 몇 안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서예가가 민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 한글 서체를 분류한다면 한글 서체는 대체로 4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글 서체이다. 이 서체는 초기의 훈민정음의 서체를 보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름을 따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라고 한다. 한글 서예계 일부에서는 '판본체', 또는 '고체古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체는 변별력이 뛰어난 서체이어서 오늘날의 서체로 말한다면 제목체 또는 고딕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서체는 훈민정음 해례본체의 형태는 유지하되, 붓으로 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선과 점과 원에 변화를 일으킨 서체이다. 이 서체는 대체로 변별력과 속독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서체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바탕체에 속하는 서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서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인 자유분방한 서체이다. 그것을 민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만든 서체이다. 주로 궁중에서 사용하였던 것인데, 한글의 직선을 최대한 곡선화 시켜서 쓴 서체이다. 궁중에서 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궁체라고 한다.

위와 같은 한글 서체의 변화로 한글 서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① 훈민정음 해례본체 : 변별력이 가장 큰 서체, 현대 서체의 돋움체 또는 고딕체

② 훈민정음 언해본체 : 현대 서체의 바탕체 또는 명조체

③ 궁체 : 점과 선을 아름답게 표현한 서체

④ 민체 : 구조와 조형을 자유롭게 표현한 서체

이 서체들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 해례본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 글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 훈민정음해례본이다. 이 문헌에 보이는 한글은 붓으로 쓴 것이라기보다는 붓으로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서체로서 실제로 그 문자를 설명한 문헌인 훈민정음해례본과 초기의 문헌인 동국정운에만 쓰여서, 사용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1446년~1447년의 2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체의 범위를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까지 넓힌다고 해도 여전히 1447년이 상한선이다. 즉 훈민정음 창제 직후이다.

(2) 훈민정음 언해본체

훈민정음 언해본에 쓰인 서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서체인데 주로 관청에서 간행한 문헌에 많이 사용되었다. 변별력과 속독력을 동시에 지니는 서체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의 현존 최고본은 서강대학 소장의 『월인석보 권 1』의 앞에 붙어있는 책이다. 그래서 최초의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월인석보체라고 할 수 있다.

이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전국 각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여러 지방의 감영에서 간행한 각종 문헌에 모두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모두 사용한 한글 서체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더 나은 아름다운 서체, 예컨대 궁체가 나왔어도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약간의 변형을 경험했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체처럼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서체가 속독력이 있고, 변별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에도 적합한 서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그 변이형이 매우 많아서 이들도 세분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이형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18세기말에 등장한 두 문헌을 보이면 이들을 훈민정음 언해본체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훈민정음 언해본체의 세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홍윤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창녕, 9. 24. ~ 9. 25., 7~54쪽

간경도감체

조선 세조 7년(1461)에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 설치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목판에 나타난 글자체. 간경도감체는 1463년에 나온 법화경언해, 1575년에 복각하여 나온 원각경언해에 나타나는바 상하로 긴 자형을 이루는 목판본의 정자체 글꼴이다. 이 불경들 가운데 목판 글자체로 대표적인 능엄경언해의 글자체는 닿소리와 홀소리의 크기 차이를 작게, 가로 세로의 획 기울기를 수직 수평으로, 세로획의 처음 부분은 뾰족하게, 끝부분은 둥글게 나타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5쪽

(3) 궁체宮體

한글의 서체는 고체의 근엄함에서 궁체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갔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체古體, 예문, 네이버 검색

한글 서체 변형의 극치는 궁체이다. 서체의 변화나 새로운 서체의 창조는 글씨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창조하는 것인데, 선(또는 획)과 점의 배열과 글자들의 구조적이고 예술적인 구도로 되어 있다.

궁체라는 단어는 한글 서체가 아닌 한자의 서체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초에 이미 '궁체宮體'라는 단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죽천竹泉 이덕형李德泂(1566~1645)의 수필집인 필사본 『죽창한화竹窓閑話』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전한다. "궁체宮體란 무슨 뜻인가?" 하니, 장인이 또 대답하기를 "진陳나라 후주后主때 강총江總이란 사람이 글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써서, 이것을 궁중에서 본받아 썼기 때문에 궁체라고 하옵니다. 그리고 양梁나라 서이도 역시 궁체를 썼습니다." 하였다. 장인이 집에 돌아가서 자제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문관들이 모두 글을 읽지 않아서 심지어 궁체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하였다.

홍윤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창녕, 9. 24. ~ 9. 25., 7~54쪽

'궁체宮體'란 단어는 원래 서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문체文體의 한 종류로서 '궁체'는 이미 중국에서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궁체'란 한문의 문체로부터 시작하여 서체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글 서체의 명칭이 된 동기로 보인다. '궁체' 필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750년대 이후로 보인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궁체는 궁중에서 쓰기 시작한 필사체로 바르게 쓴 정자체와 흘려서 쓴 흘림체의 서체가 있는데 궁체는 궁중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처음 등장하는 문헌으로 '궁체'라는 말은 이옥李鈺(1760-1812 문장가)의 『서호죽지사西湖竹枝詞』에 보이는 '早學宮體書 異凝微有角 舅姑見之喜 諺文女提學' 문장의 '宮體'라는 말에서 이미 이 시기에 이 말이 쓰이었음을 보인다(처음 발견하신 분은 김진세 교수).

박병천, 개인 교신

(사)갈물한글서회

궁체의 보급에 기여하는 단체로 1958년에 갈물 이철경 선생님(1914~1989년)을 중심으로 창립된 한글서예 단체 (사)갈물한글서회가 있다.

갈물 이철경 선생님과 꽃뜰 이미경 선생님(1918~2022년)의 지도 아래, 우리 고유의 전통 궁체를 연구, 발전시켜 오늘날의 한글 궁체를 완성하였다. 궁체의 독창성과 수려한 예술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나아가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찬란한 예술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로 타임캡슐에 갈물한글서회의 도록을 남긴 바 있고, 회원들의 작품 200여점을 해외 공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사)갈물한글서회는 정기적 전시회, 학술 발표회, 논문 발표, 서적 발간 등의 서체 연구와 창작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한국 서단의 발전과 한글 서법의 개발 및 궁체의 보급에 기여하는 문화 예술 단체이다.

(사) 갈물한글서회 소개, http://www.galmul.or.kr/

(4) 민체

민체는 궁체에 대립시켜 만든 용어다. 백성들이 정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글씨를 썼다는 의미이다.

(5) 판본체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에 나타난 서체를 목판木板 인쇄 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아 판본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윤양희, 『중학교 서예』, 우일출판사, 서울, 1984년, 19쪽

윤양희, 『한글書藝 指導方法 改善을 위한 硏究』, 韓國敎育開發院, 서울, 1985년, 43쪽

장지훈, 개인 교신, 2022. 9. 13.

윤양희, 개인 교신, 2023. 3. 24.

한글글꼴용어사전에 의하면 판본체板本體, 版本體에서 판본板本은 목판으로 인쇄한 책이고, 판본版本은 목판, 활자, 석인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찍어낸 모든 책을 말한다. 이러한 책에 찍힌 글씨체를 각각의 판본체라고 하지만 대체로 고서본의 인출용 글씨체와 이를 본보기로 한 서예적 측면의 필사체도 판본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굵기로 구성된 사각형의 훈민정음 글꼴의 판본체, 굵기의 변화가 있는 상하로 긴 자형의 오륜행실도 글꼴의 판본체 등 의미성이 다양하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268쪽

판본체란 한글 창제 직후에 나온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동국정운』등의 판본에 쓰인 글자를 기본으로 쓴 붓글씨의 글자꼴이다. 오래된 글씨체라는 의미에서 고체古體, 또는 『훈민정음』을 본받아 쓴 글씨라는 의미에서 정음체正音體라고도 불린다. 처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을 때는 모든 점과 획이 원필법圓筆法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에 발간된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등에는 방필법方筆法으로 되어 있다. 판본체는 한자의 전서나 예서의 획을 본받아 썼는데, 글씨의 특징을 살펴보면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사각형에 가까운 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문자의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기하학적인 자형을 취하고 있다.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 자음의 폭이 넓거나 좁게 변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2. 10. 13., 네이버 검색

판본체는 훈민정음 해례본체라고 해야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체라는 말은 20세기에 나온다. 처음 붓으로 쓴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누군가에게 쓰게 했을 것이다.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며 판본체는 필사본체의 상대어일 뿐이다. 판본版本의 판版자는 조판組版으로 인쇄한 책이란 뜻이고, 본本자는 손으로 직접 쓴 책을 말하는데 조판이 성행한 이후에는 판본이란 명사로 고정되었다고 한다. 광의적인 면에서는 활자로 찍은 활자본을 비롯하여 탑본榻本, 석인본, 영인본도 판본의 일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판본이란 용어에는 필사본이나 인쇄본 모두를 포함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박병천, 『한글서체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 2014년, 45~46쪽

판본체라는 명칭에는 모호성이 있다. 필사본에는 판본체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훈민정음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426쪽

(6) 서예 명칭 통일방안

한자 서체가 5종인 데 반해, 한글 서체의 명칭은 약 42개 정도 쓰이고 있어서 마치 42종의 다양한 한글 서체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서예계에서 주로 사용해온 서체 명칭을 분류해보면 판본체류, 궁서체류, 일반체류로 분류된다. 서체 명칭의 사용 빈도를 보면, 판본체류에서는 판본체>고체>반포체 순서로 나타났고, 궁서체류에서는 궁체>정자>흘림>진흘림 순서로 나타났으며, 일반체류에서는 조화체>잡체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이 사용하는 국정 미술 교과서에서는 한글 서체 명칭을 판본체와 궁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검정 미술 교과서에서는 판본체와 궁체는 물론이고, 궁체에 다시 정자, 흘림, 반흘림, 진흘림, 그리고 국한문 혼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 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저자와 출판사에 따라 명칭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글 서체의 분류체계와 명칭이 매우 혼란스러운 실태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예계에서는 한글 서예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6~2007년 두 차례 공청회를 실시한 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1단계 명칭통일 백서(2007)』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집은 서체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1단계 명칭통일 백서에서는 한글서예 서체 명칭의 기본원칙으로 '말하기 쉽고', '듣기 좋으며', '뜻이 분명하고', '함유한 의미가 풍부해야 한다.' '우리글의 서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기되었다. 과거의 서체를 통섭하면서 현대를 아우르고 후대로 계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①간명하고 ②함축적이며 ③쉽고 ④체계적인 명칭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장지훈,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통일방안 연구」, 『서예학연구』, 2015년, 27 : 401~426쪽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글서체명칭 통일에 관한 공청회는 2006년 11월 10일 백범기념관에서 『한글 자·서체 명칭 분류 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의 서체 명칭과 분류안 제1안은 아래와 같다.

① 정음해례본 : 정음원체(훈민정음 해례본), 정음방체(용비어천가, 석보상절)

② 정음언해체 : 정자(심청전, 춘향전), 흘림(조웅전), 진흘림(삼국지)

③ 궁체 : 정자(옥원듕회연), 흘림(낙성비룡), 진흘림체(인봉소)

④ 민체 : 정자(숙향전, 무곡전, 소대성전), 흘림(유충렬전 등), 진흘림체(유최헌전 등)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의 결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한글서체명칭을 세 가지 방면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① 고체,

② 정자(체),

③ 흘림(체)

이는 자형에 근거한 명칭이고, 한문 서예와도 견줄 수 있는 명칭이며, 현행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칭으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정자와 흘림을 고체와 어울리게 말하자면, 정자체 · 흘림체라고 명명할 것이고, 여기에 '글씨'를 넣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고체는 자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를 근거로 한 것이나, 이런 글씨를 '판본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오래된 '자체'라는 뜻으로 '고체'라고 일컫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궁체'에 대한 문제이다. 궁체는 궁중에서 주로 서사 상궁들이 붓으로 서사할 때 사용했던 한글 서체가 표본이 되어 새로운 서체가 보편화됨으로써 나름대로 체계를 이루었고, 명칭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 서체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글 서예가들 대부분이 '궁체'라는 명칭으로 한글 서예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형이나 서체를 근거로 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서체 분류에서 상위 분류에 속하지 않고 하위 분류에 속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서단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셋째. '해례본체' '판본체' '민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명칭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작품 제작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서체 명칭이다. 그러나 해례본체와 판본체는 판각과 판본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서예라고 볼 수 없고, 민체는 서체보다는 서풍에 속한 것이라 민간 서풍이라 해야 옳은 명칭이기 때문에 한글 서체 명칭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단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역시 문제점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2007년 4월 28일 예술의전당에서 '한글서체 분류와 명칭 통일에 관한 제2차 공청회'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제2차 공청회에 제시된 시안의 제1안은 아래와 같으며

① 해례본체 - 해례본체

② 언해본체 - 언해본체정자, 언해본체흘림, 언해본체진흘림

③ 궁체 - 궁체정자, 궁체흘림, 궁체진흘림

특히 제2차공청회에 제시한 시안에서 제2안은 서체 분류의 체계를 서체 변화과정에 따라 통합적 대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글 서체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적 서체를 분류하는 소분류 방법을 제시했다.

① 곧은체

② 바른체

③ 흘림체

④ 진흘림체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007.

곽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서예문인화書藝文人畫, 2015. 1., 92~103쪽

곽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2)』, 서예문인화書藝文人畫, 2015. 2., 94~103쪽

한글 반포 570돌 기념 2016 장서각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의 한글 서체표에서는 1 정자체, 2 흘림체, 3 목판본, 4 금속활자로 나누고, 정자체는 『고문진보』(숙종 후반), 『어제자성편언해』(1746년), 『학석집』(19세기), 『산성일기』(연대 미상), 흘림체는 『손방연의』(18세기), 『무오연행록』(1799년), 『정미가례시일기』(1848년 이후), 『여사서』(19세기 말~20세기 초), 『동의보감』(연대 미상)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목판본은 『대불정수능엄경』(1462년), 『월인석보』(16세기), 『언해두창집요』(1608년), 『무예도보통지』(1790년)를 금속활자로는 「분류두공부시언해』(1481년) 을해자, 『대방광원각경』(1565년) 을유자, 『어제내훈』(1737년) 무신자, 『가체신금사목』(1788년) 정유자, 『어제악장』(1795년) 정리자를 예시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60~363쪽

2.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의 분류分類

(1) 관료서체官僚書體

이규복은 2020년 출판한 단행본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상원사중창권선문』 서체의 여러 특징은 후대 관료들의 글씨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을 보인다. 이처럼 후대 관료들의 글씨에서 같은 특징들이 계속 보인다는 것은 특정한 특징을 갖춘 서체가 일정한 형식을 이루게 되고, 이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큰 계통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통의 글씨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선조국문유서』(1953), 『소훈이씨제문언해』(1721), 『어제자성편언해』(1746), 『천의소감언해』(1755), 『고문진보언해』(영조년간), 『임산예지법』(18세기), 『유빈박씨애책문』(1823), 『명성황후상존오옥책문』(1890), 『외진연시무동각정재무도홀기』(1901), 『책황귀비홀기』(1903) 등이 이러한 계통의 서체 흐름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서체는 필사체의 특성상 각 서사자에 따른 일부 개성 혹은 숙련도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글 글꼴의 완숙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뿐, 큰 틀에서 보면 관료들이 사용하는 서체의 계통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원사중창권선문』 이후에 나타나는 관료서체에서는 후대로 갈수록 조형 체계로의 공간 배분으로 이동하지만 종성 'ㄴ,ㄹ,ㅁ,ㅂ'등의 크기가 약간 축소되는 경향의 변화만 보일 뿐이다. 특히 전체적인 글꼴의 짜임과 종성 'ㄴ,ㄹ,ㅁ,ㅂ'등의 글꼴과 공간을 넓게 형성하는 특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또한 'ㅣ'축으로의 정렬이 보이기는 하지만 종성이 모음 'ㅣ'에 종속되지 않고 초성 'ㅇ,ㅁ'등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궁체와 같은 온전한 'ㅣ'축 정렬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형성한 서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집단, 즉 관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전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위에서 예를 든 문서와 책들을 필사한 서사자가 모두 관료로 추정 또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서체를 관료서체라 부를 수 있겠다. 관료서체는 한글 실용화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체로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한글 서체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료서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에 천착하여 후에 적절한 단어로 변경할 수 있음도 미리 밝혀둔다. 이 관료서체는 궁중의 공식적인 문서나 책 간행 등의 서사에 사용되었고, 왕가의 서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와 숙종의 언간이나 숙명공주 언간, 낭선군 이우李俁(1637-1693) 의 글씨로 추정되는 『양문탑동표석』

의 글씨에서 관료서체의 특징들을 볼 수 있기에 그렇다.”

이규복,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 이서원, 성남시, 2020년

이우 :

선조의 제12남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의 장남

(2)『관공체官公體 Official Script』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정자체 붓글씨는 누가 서사하였다는 기록을 아직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자관체』는 우리나라 사전에 이미 조선시대에 한호韓濩가 확립한 독특한 한문서체漢文書體로 외교外交 문서와 관공官公 문서에 사용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한문 서체의 하나로 인식되어있다. 문헌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한문 서체를 지칭하지 않으면서, 『대한의원개원칙서』와 고종황제의 국한문혼용 외교문서에 나타난 단아하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를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 명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等 이 공식公式 문서 등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 서체 중의 하나라고 정의定義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고인수, 김응학, 한재훈, 등)에게 의견을 들은 후, 기존의 한자 관련 서체 명칭과는 다른 새로운 서체 명으로 『관공체官公體』 라 명명하였다. 영어로는 Official Script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서체 관련 용어들이 정의定義는 무엇이고, 언제, 누가, 어느 문헌을 통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의 기록들이 불분명하여 관공체에 관련된 기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관공체官公體』의 정의定義는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等 이 공식公式 문서 등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이다. 2022년 9월 22일 상표등록(출원번호 40-2022-0174282)을 출원하였다. 『한글재민체소고韓契在民體小考』 도서를 통하여 관공체의 정의를 처음으로 보고한다.

官公體記 :

官은 治國의 實政을 구현하는 기관이자, 平天下의 理想을 실현하는 창구이다. 英祖는 재위 18년(1742) 향후 官에서 治平의 도를 펴게 될 성균관 유생들을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蕩平碑를 세워 당쟁의 태풍弊風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재가 되기를 권하였다. “두루 어울리고 편당짓지 않음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편당짓고 두루 어울리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뜻이다.”[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나라 안의 백성들과 나라 밖의 사람에게 베푸는 치국과 평천하의 근간은 ‘공정한 마음[公心]’이어야 한다. 사사로운 생각[私意]은 끼어들 틈이 없다. 박재갑과 김민은 文官·書寫官·寫字官 등이 공식 문서 등에 사용한 서체를 복원하며, 官에서 배포하는 공식 문서에는 字體가 바르고 또박또박 쓰여진 정자체이며, 治平의 도를 펴고자 하는 公心을 담고 있으므로, ‘官公體’라 명명하였다.

友千 고재석 부연敷衍, 개인 교신, 2022. 9. 14.

3.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서로 다른 표기 대상으로 인하여 세종의 새 문자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정음正音, 그리고 언문諺文 이라 불렀다.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한 발음기호로서 훈민정음이라 불렀고, 한자의 중국 표준음을 위한 것으로는 정음이라 하였으며,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언문이라 하였다. 물론 이 명칭은 모두 같은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훈민정음, 정음, 그리고 언문의 어느 하나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자의 명칭으로 볼 때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 즉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한자음”의 뜻을 가진 훈민정음은 『동국정운東國正韻』을 편찬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며, 정음은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중국 표준 한자음을 표음하기 위한 것이고, 언문은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명칭이었다.

정광, 『새로운 시각視角으로 본 훈민정음 제정의 경위經緯 – 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영축총림 통도사 특별학술대회 –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영축총림 통도사, 2022. 10. 7., 7쪽

정음자 :
훈민정음의 글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음 :
일반명사 (언어) :
조선시대, 1443(세종 25)년에 조선의 4대 왕 세종世宗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창제創製한 우리나라 글자.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모두 28자로 이루어졌다.
고유명사 (책명) :
조선 시대, 1446(세종 28)년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찍어 낸 목판본 해설서. 전권 33장 1책으로 되어 있다.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네이버 검색

필자는 『1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의 시안 및 결론』과 2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방안에서 제시된 1안 및 2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570돌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개최한 2016 장서각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의 도록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표4. 한글서체표).

① **훈민정음 해례본체訓民正音解例本體** :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라 하며 약칭 정음체正音體라 한다.

② **정자체正字體** : 훈민정음 언해본체를 정자체라 한다. 정자체에는 민체정자와 관공체 및 궁체정자를포함한다.

③ **흘림체** : 흘림체에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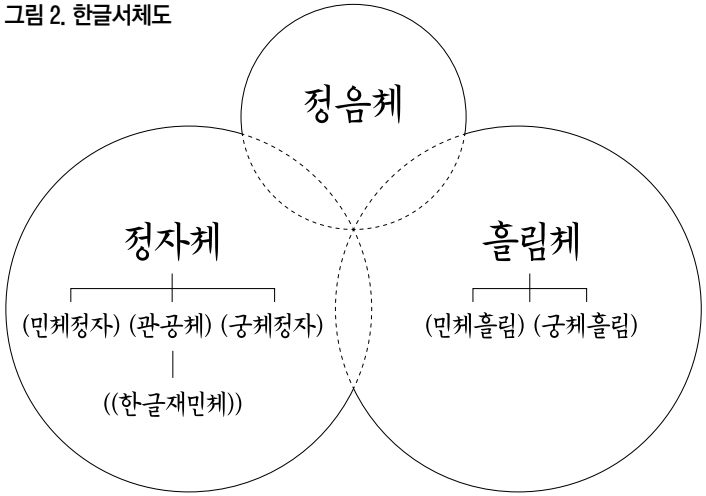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르면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는 정자체(바르고 또박또박 쓴 글자체,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다.
그리고 한글재민체는 정자체인 관공체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것이다(그림2,한글서체도).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홍윤표 교수는 "훈민정음 언해본체(즉 정자체)는 그 변이형이 매우 많아서 이들도 세분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이형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훈민정음 언해본체의 세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표4.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2006년 11월10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1회 공청회	시안	정음해례본체	정음언해체	궁체	민체	-
		결론	고체	정자체	흘림체	-	-
2007년 4월28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회 공청회	시안 1안	해례본체	언해본체	궁체	-	-
		시안 2안	곧은체	바름체	흘림체	진흘림체	-
2016년 6월28일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서체표	-	정자체	흘림체	-	목판본
							금속활자
2023년 5월5일	『한글재민체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한글서체표	정음체*	정자체 (민체정자) (관공체) ((한글재민체)) (궁체정자)	흘림체 (민체흘림) (궁체흘림)	-	-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　) : 중분류
((　)) : 소분류

그림 2. 한글서체도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　　) : 중분류
((　)) : 소분류

『한글재민체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2023.5.5.

4. 한자서체漢字書體 해서체楷書體의 분류分類

한자서체는 크게 전서篆書, 예서隷書,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시대 순서로 나열한 것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체는 해서체다. 해서는 정해正楷, 정서正書, 진서眞書라고도 부르는 한자의 글씨체이다. 이 글씨체는 오늘날까지 한자의 정체正體로 간주되어 인쇄된 서적에 찍힌 한자는 대개 해서체의 모양으로 되어있다.

해서체, 네이버 지식백과

해서체의 몇 가지 소분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대각체臺閣體 · 관각체館閣體

명, 청대明淸代의 묵색이 짙고 글씨 크기가 고른 네모 반듯하고 깔끔한 관청의 서체. 명대에는 '대각체臺閣體'로, 청대에는 '관각체'로 불렸다. 이 서체는 명, 청대의 한림원翰林院의 관료들이 즐겨 사용하였고 과거 응시자에게도 요구되어 청대 건륭乾隆 중엽 이후 크게 융성하였다.

원래 관각館閣은 송대宋代에 소문관昭文館, 사관史館, 집현원集賢院과 비각秘閣, 용도각龍圖閣, 천장각天章閣을 통칭하였으나 명, 청대에는 관각이 모두 한림원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원래 관각체라 하면 한림원의 서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후에는 판에 박은 듯 몰개성적인 서체를 낮게 평가하여 모두 관각체라 부르게 되었다.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붓글씨에는 여러 필체가 있다. 관각체館閣體도 그 하나다. 왕조 시절 정부기관인 관館이나 각閣에서 썼던 글씨 유형이다. 때론 문체文體도 가리킨다. 조선에서는 홍문관弘文館이나 예문관藝文館, 그리고 규장각奎章閣 등이 그 기관에 해당한다.

중국의 관각체 전통은 퍽 유장悠長하다. 명대에는 대각체臺閣體로 불렸다가 청대에 지금 말로 자리를 잡았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 쓰는 필체라서 특징이 두드러진다. 누구든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함이 우선이다.

따라서 읽기 쉬운 해서楷書로 써야 한다. 아울러 '반듯함方, 밝음光, 검정烏'을 갖춰야 한다. 공문서이니만큼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던 까닭이다. 나중에는 과거科擧 응시자들도 이를 쓰지 못하면 낙방落榜을 감수해야 했다.

우선 장중하고 우아하다는 장점이 있다. 황제도 읽는 문서여서 글씨를 다듬고 또 다듬었던 전통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딱딱한 공문서라서 자유로운 감성이 들어설 여지는 아예 없다.

유광종, 『중국 정부의 붓글씨 필체』 조선일보, 2022. 1. 14.

(2) 사자관체寫字官體 간록체干祿體

조선 시대에 한호韓濩가 확립한 독특한 한자漢字 서체書體로 외교外交 문서와 관공官公 문서에 사용되었다.

우리말샘, 네이버 검색

한호韓濩 석봉石峯

조선시대 글씨로 출세하여 사자관寫字官, 서사관書寫官을 역임한 서예가. 문신. 본관은 삼화三和. 자는 경홍景洪, 호는 석봉石峯 · 청사淸沙. 군수 대기大基의 5대손으로, 정랑 세관世寬의 손자이다. 1567년(명종 22)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83년(선조 16) 와서瓦署 별제別提에 제수되었다. 글씨로 출세하여 사자관寫字官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고, 중국에 사절이 갈 때도 서사관書寫官으로 파견되었다. 벼슬은 흡곡현령歙谷縣令과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지냈다.

그의 묘갈墓碣에 의하면, "송도松都에서 났으며, 점占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옥토끼가 동쪽에 났으니 낙양洛陽의 종잇값이 높아지리라. 이 아이는 반드시 글씨를 잘 써서 이름이 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라면서 글씨 쓰기에 힘썼고, 꿈에 왕희지王羲之에게서 글씨를 받아, 이로부터 마음속으로 자부自負하고 법첩[法帖: 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을 대할 때마다 신神이 돕는 것 같아 마침내 해서楷書 · 행서行書 · 초서草書에 그 묘妙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의 서법書法은 조선 초기부터 성행하던 조맹부趙孟頫의 서체를 따르지 않고 왕희지를 배웠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은 진위眞僞가 문제 되는 『악의론樂毅論』 · 『동방삭찬東方朔贊』 · 『황정경黃庭經』 등의 소해小楷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법趙法보다 뒤떨어져서 진당인晉唐人의 높고 굳센 기운氣韻이 모자라는 저속한 구렁으로 떨어졌다. 또한, 한미寒微한 출신으로 오랫동안 사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술적인 타고난 재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에 맞추려는 노력이 앞섰다.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에는 모든 글씨체에 숙달되기는 하였으나 속되다고 비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국가의 문서를 다루는 사자관의 특유한 서체, 즉 사자관체寫字官體가 창출될 만큼 그의 영향은 컸으며 또 이로부터 사자관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서체를 중국에서는 **간록**체干祿體라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검색

박용만의 논문 홍재전서弘齋全書 편찬과정의 사자관寫字官 성격과 역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자관은 개인적인 취향의 필체가 아니라 동일한 필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획일화된 서체는 사대교린의 문서와 어제를 정서하는 사자관의 기본적인 책무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실제 사자관과 서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정조는 당대 서풍書風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조선의 서예가 중국의 순정하지 못한 서풍을 그대로 흉내 낸다고 비판하면서, 조선 때 안평대군安平大君(1418~1453)이나 한호韓濩(1543~1605)의 순박한 글씨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식, 「정조正祖의 서체반정書體反正」, 『경기사학6』, 경기사학회, 2002년, 161~162쪽.

문장에 있어서 문체반정文體反正이라고 하는 것처럼 서예에 있어서 서체반정書體反正을 통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정조의 서체반정은 사자관의 서풍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사자관은 본래 사자관의 서체書體가 있는데, 액체額體 편액 서체와 한체韓體 한호의 서체는 좋지 않게 보고 당체唐體등과 같은 번중繁重하지 않은 각 서체를 반드시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 이처럼 하는 동안 이른바 사자관의 서체라는 것이 날로 진면모를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점차 버릇이 되어 오늘날 고질적인 폐단을 이룬 것이다. 근일 내각에서 어제御製를 서사書寫한 것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간인刊印한 것을 보면 당체唐體도 아니고 속체俗體도 아니어서 뾰족하고 가는 것(첨세尖細)이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이다. 해원該院이 취재取才할 때 만약 유의하여 권면하고 독려하였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이후로 사자관들 중에 혹시라도 다시 잘못된 버릇을 인습하여 획畫이 돈후敦厚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공사제조公事提調가 별도로 처벌하라.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일성록日省錄』, 서기 1785년 정조 9년 6월 19일(병신), 0174권, 奎12811, 0099-0099면

정조는 사자관의 서체 곧 寫字官體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 편액에 사용하는 액체額體와 한호의 서풍을 따르는 한체韓體를 사자관체의 전형으로 이해하였다. 액체는 원나라 이부광李溥光이 사용한 편액의 대자大字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전하여 당액의 서체로 사용하였다.

寫字官自有寫字官,之體。而額體韓體。看作疲怳。如唐體等不緊各體。必欲倣而放之。如是之際。所謂寫體。日就失眞。此蓋漸染於數十年前。今成痼弊。以近日內閣御製書寫本。大典通編刊印本觀之。非唐非俗。尖細不敢掛眼。該院取才。若能着意勸課。豈有是也。此後寫字官等。更或復循謬習。畫不敦厚者。公事提調另加施罰。

이익의『성호사설』설암편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설암雪庵의 글씨는 우리 나라에 전하여 당액堂額의 체로 되어 액체額體라 이르는데, 사람들이 흔히 설암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이르기를 "대동부大同府 선석仙釋 이부광李溥光이 어려서 중이 되었는데, 글을 읽어 시에 능하고 서법書法을 잘 알아서 한때에 궁성宮城 전우殿宇의 편액扁額이 다 그 손에서 나왔다." 하였으니,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익李瀷(1681~1763), 민족문화추진회 편,「제9권, 인사문人事門, 설암雪庵」,『국역星湖僿說Ⅳ』, 민족문화추진회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1982년, 70~72쪽

한체는 정조가 가장 순정한 사자관체로 지칭하는 한호의 서풍을 말한다. 정조는 당시 사자관체가 잘못된 습기習氣로 인해, 당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체도 아닌 비당비속非唐非俗의 서체이며 뾰족하고 가는것(尖細)이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사자관이 여러 서체를 모방하다 결국 그 진眞을 잃어버리고만 것에서 찾으면서 그 근거로 1785년 간행된 '대전통편'과 선사한 어제御製를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이해룡과 석봉 한호를 사자관 시초로 꼽았다.
박용만,『『弘齋全書』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2021년, 45:134~163쪽

간록 :
관리가 되어 녹봉을 구한다는 뜻으로, 관리가 되고자 함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석봉石峯 :
그를 노예 라고 지칭하는 것이 비록 황당하지만 / 종왕鍾王 으로 부르는 것 또한 어찌 참이랴 / 이삼백 년 동안 필적할 솜씨 없었으니 / 시비를 따지자고 감히 사람을 속이랴 / 指爲奴隷雖多妄 / 喚作鍾王亦豈眞 / 三二百年無對手 / 是非要定敢誣人
박세당朴世堂,「석봉石峯, 시詩 석천록石泉錄 상上」,『서계집西溪集 卷2』, 간행년도미상, a134_033a 쪽, 한국고전종합DB

한호韓濩의 글씨에 대한 품평品評
원접사遠接使 정유길鄭惟吉(1515~1588)이 중국의 조사詔使(황제의 조서를 들고 온 사신) 한세능韓世能을 의주義州에서 맞이하였는데, 한세능이 한호韓濩의 글씨를 매우 상찬賞讚하였다. 등계달滕季達이 전에 그 수적手迹을 얻어 감주弇州 왕세정王世貞에게 보여 주자, 감주는 "조송설趙松雪 에 비견할 만하다"고 하였고, 도장경屠長卿 은 "성난 사자가 바위를 후벼 파는 듯하다"고 하였다.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8. 24.

성균관 '명륜당'의 현판을 쓴 명나라 사신 주지번은 "마땅히 왕희지, 안진경과 더불어 우열을 다툴 만한 솜씨다."라고 하였다. <송도지>에 따르면 임진년에 조선에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 마귀, 북해, 등계달 그리고 유구국의 양찬지 등이 모두 그 글씨를 구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적고 있다. 선조 임금은 한석봉이 한가한 곳에 머무르면서 서예를익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가평군수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익,『성호사설』한석봉 부분 참고, 고재석, 개인 교신, 2023. 3. 13.

석천록石泉錄 :

『석천록石泉錄』 무신년(1668, 현종 9)에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석천에 거처한 이후에 지은 것이다.

노예 한호는 사자관寫字官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으며, 한미한 출신으로 사자관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타고난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므로 이른 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국가의 문서를 다루는 사자관의 특유한 서체가 창출될 만큼 그의 영향은 컸으며 또 이로부터 사자관 제도가 이루어졌다.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에 "석봉은 모든 글씨체에 숙달하였으나 속되다."라고 평하였다.

종왕鍾王 :

위魏나라의 종요鍾繇와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를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서예에 능하였다.

제4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1. 『한글재민체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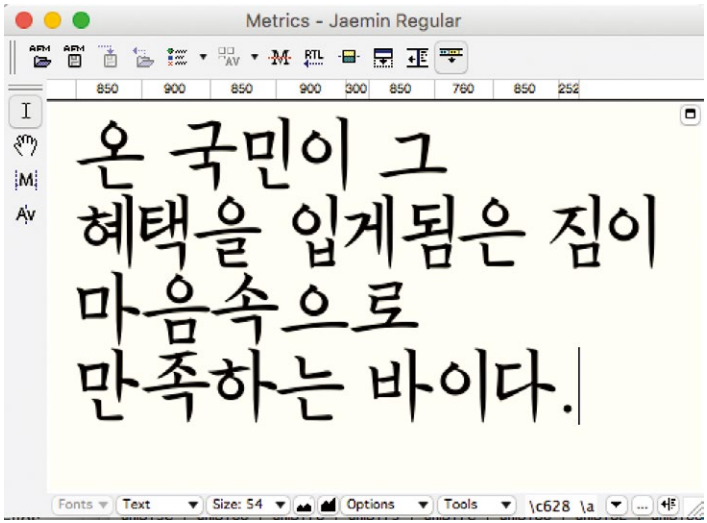
2020년 한글날 '대한의원개원칙서' 에 포함된 33자 한글 붓글씨체筆體Calligraphy에 기반을 둔 현대적 감성의 폰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Hangeul Jaemin Font를 개발하였고, 2020년 574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는 새로운 한글 글꼴 '한글재민체'를 발표하는 특별전을 가졌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에 따라 서체의 이름을 '한글재민체'로 짓고 '한글재민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여 모든 국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copylight.or.kr, 한국저작위원회, 2020.10.8.

한글재민체는 세계시민의 끌꼴이다. 이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을 위해 개발한 글자체이다

하철용, 개인 교신.단아하게 정돈된 현대적 감성의 폰트로써 편히 쓸 수 있는 깔끔하고 미려한 서체이다.

박갑수, 개인 교신



동양고전에 등장하는 '민民'에는 다음의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임금君을 상대어로 하는 백성 즉 인민人民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天을 상대어로 하는 백성 즉 생민生民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민民은 첫 번째에서 언급한 인민人民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成公元年)에서 말한 "옛날에는 네 부류의 백성이 있었으니, 사민士民·상민商民·농민農民·공민工民이 그것이다. " (古者有四民, 有士民, 有商民, 有農民, 有工民.)라는 글에 나오는 '민民'이라든가, 『대학大學』 經1章에 나오는 "대학大學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친애하는 데 있고,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 至善)고 할 때의 '민民'은 모두 임금을 상대어로 하는 인민人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민民'에는 두 번째에서 언급한 생민生民이라는 뜻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경詩經』』「대아大雅·증민烝民」에서 말한 "하늘이 수많은 백성을 내시면서, 모든 사물에 법칙을 부여하셨다. 백성들은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에 나오는 '민民'이라든가, "하늘이 생민生民을 (이 땅에) 내리셨을 때부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을 부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蓋自天降生民, 則旣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고 하는 주희朱熹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나오는 '민民'은 모두 하늘을 상대어로 하는 생민生民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애당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하天下라고 불렀고, 천하를 통치하는 사람을 천자 天子라고 부른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천天(하늘)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는 생민生民을 잘 기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일 뿐이며, 그런 점에서 천자가 통치하는 인민人民은 곧 하늘이 생명을 부여한 '생민生民'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인민人民보다 생민生民이 더욱 '민民'의 근원적이고 상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재훈, 개인 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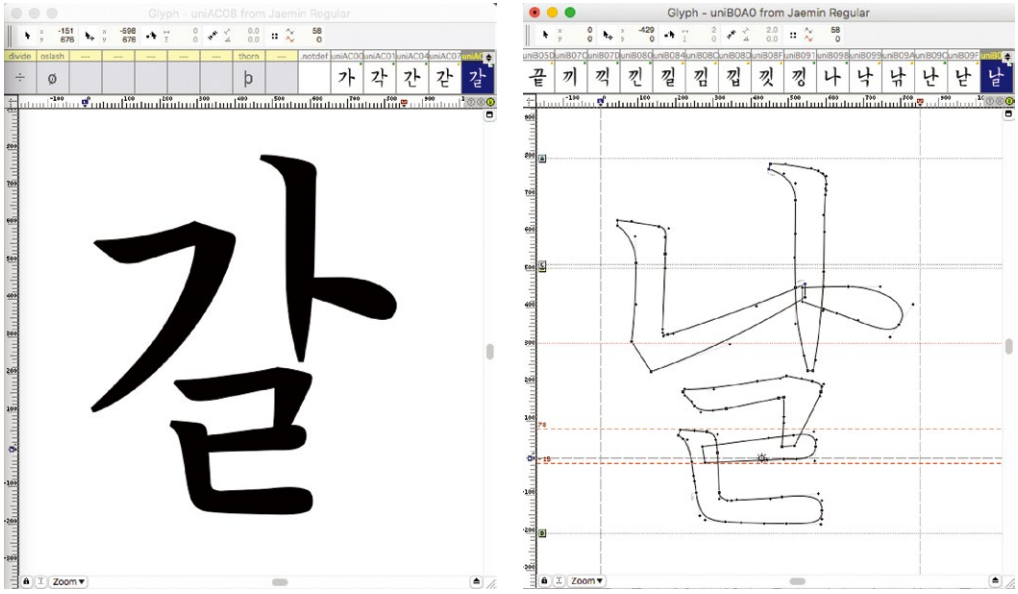


그림 3.『한글재민체1.0』 제작 과정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 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 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년, 22권 3호, 328쪽, 그림 17.

2. 『한글재민체2.0』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인 까닭에 그 뜻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글과 한자의 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문헌 인용문이나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 및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벌의 디지털 폰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글과 함께 쓰이는 한자, 영자, 숫자와 문장부호 등이 일관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자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성 폰트에서 한자가 제외되는 현실이다. 국한문 혼용 칙서의 붓글씨체에서 탄생한 한글재민체에는 한글과 동일한 스타일의 한자가 탑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2020년 한글재민체를 무료 배포한 이후부터 한자 개발을 시작하였다. 대한의원개원칙서에서 123자, 장서각이 지원해준 국한문혼용 외교문서들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진영, 박용만 제공 중에서 총 176자를 발췌하여 재민한자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신선호 회장(일중 김충현과 여초 김응현의 제자)은 한글재민체의 획과 느낌이 유사하다고 추천한 저수량褚遂良(596~658) 서체로 연구팀원들은 한자 구조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다. 그 이후 서예 관련 도서의 출판과 한자 폰트의 인쇄 활용에 관심이 많았던 김현승 대표께서 한글재민체 및 저수량체와 느낌이 유사하다고 추천한 중국의 방송체仿宋體를 참고하여 KS표준한자 4,888자를 완성하고 2021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한글재민체2.0을 발표하는 특별전을 가졌으며 이 또한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모든 국민이 '한글재민체'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송나라 인쇄본 스타일을 본떠 1916년에 제작된 방송체는 대한의원개원칙서와 시기도 비슷하였고 한글재민체와 스타일도 흡사하여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한글재민체3.0』

2022년 5월 25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 배포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를 시작한 한글재민체3.0 韓契在民體3.0 Hangeul Jaemin Font 3.0에는 기존 한글재민체2.0의 KS표준 한자 4,888자에 더하여 한국한자 203자와 박의 선조의 문집 한자 49자, 김채식 대표가 추천한 고문헌 한자 205자, 2021년 말 기준 대법원 인명용 한자 8,279자 중에서 중복자를 제외한 한자 총 8,682자를 탑재시켰다. 전국 지명 한자가 모두 포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한국한자 203자를 발굴하여 디지털로 남긴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무료 배포한 『한글재민체2.0』버전은 서예 작품의 세로쓰기 모본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대문 가로쓰기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 로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및 주요 문장부호에 개원칙서의 멋을 오롯이 담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글재민체3.0』에서는 이러한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하여 수려한 글꼴로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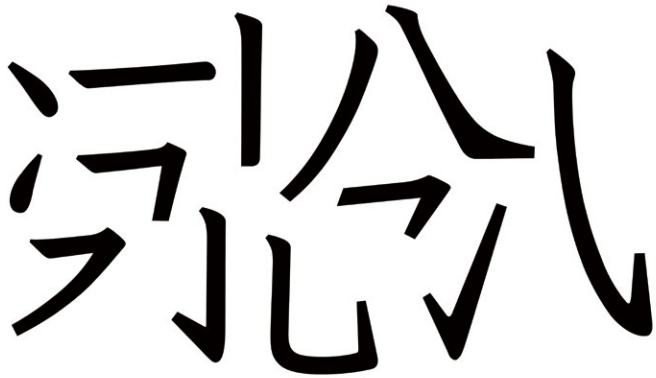
4. 『한글재민체4.0』, 『한글재민체5.0』 『한글재민체6.0』, 『한글재민체7.0』

2022년 3월에는 중국에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유학하러 온 진황가 생도가 새롭게 연구팀에 합류하여 숙원이었던 한글재민체의 국제화 작업이 착수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시되는 간체자 폰트에는 약 25,000자의 글자가 수록되지만 한글재민체에는 중국인들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표준 간체자 6,763자를 탑재시켰다. 진황가 박사과정생과 그의 지도교수 김민은 표준 간체자 6,763자를 약 6개월에 걸쳐 제작하였고 9월 가을학기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또 다른 박사과정생 김지영이 연구팀에 추가 합류하여 일본 한자 6,776자와 히라가나 및 가타카나 문자 174자를 이듬해인 2023년 2월에 완성하게 되었다.

5월까지 기술적인 코딩작업까지 마치게 되면 국내 최고의 글꼴 전문기업 ㈜윤디자인그룹을 통하여 전국의 대학,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에 한글, 로만, 아라비아숫자, 번체, 간체, 가나 문자 및 일본표준 한자를 동일한 필체로 개발한 '한글재민체' 5만 벌을 무료로 배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700여종의 디지털 폰트가 개발되어 있으나 한글과 로만문자, 번체자, 간체자, 일본 문자까지 동일한 모양의 자소로 구성한 디지털 폰트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자평한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번체자繁體字는 물론, 이웃 중국의 간체자簡體字와 일본 문자(和文字)를 한글과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개발시간과 비용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 하겠다. 하지만 역시 한 벌의 서체라는 것이 한글과 로만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글재민체는 2019년부터 4년간 많은 이들이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가능했던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2023년 한글날에는 현재 진행 중인 본문용 11,172자의 『한글재민체5.0』과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풀어쓰기 전용 『한글재민체6.0』이 동시에 출시된다. 세모꼴의 반치음을 비롯하여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네 개의 자음과 순경음 체계를 부활시키고 약 60여종의 새로운 자소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와 김민이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수원여자대학교 김미애 교수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고 있으며, 풀어쓰기 타이핑을 위한 입력시스템 개발은 ㈜윤디자인그룹에서 기술을 지원하여 완성된다. 또한 올해 제1회 한글재민서예대전에서 우수상 격인 '윤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작품은 2024년 한글날에 『한글재민체7.0』 이름으로 제작되어 무료 보급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년 『한글재민체연구회』가 주최하는 『한글재민서예대전』을 통해 더 많은 신진 작가와 아름다운 서체가 발굴될 것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문화는 나날이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4. 『한글재민체』 한자 획의 특징



韩文	汉字	
사	主	宋
더	弟	力
노	三	正
마	目	品
고	卷	存

그림 4, 5, 6. 『한글재민체4.0』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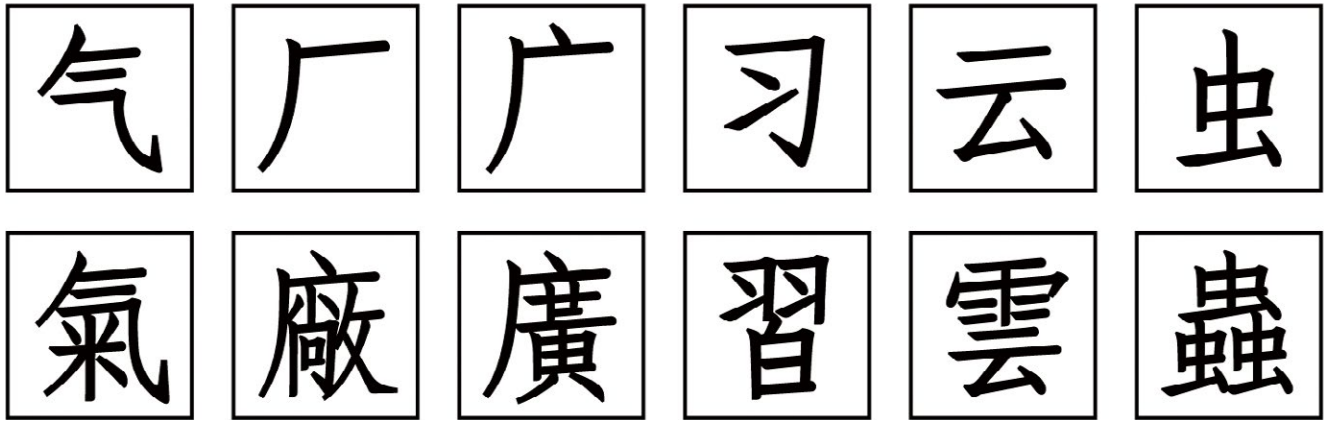
—

진황가陳凰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volume 456, 74~76쪽

그림 5. 『한글재민체』 간체자

智 浮 符 神 租 食 君 羽
姆 请 凉 查 仿 扑 复 秘
熙 莽 幔 仙 埮 瞠 喃 展
陈 岚 贪 家 糖 缦 噜 冲
批 凰 面 文 跟 国 渠 娘
涂 道 嘉 民 学 韩 李 博
篇 在 赢 爱 鸟 懒 鹭 骗
飘 腾 郑 须 连 利 烧 延
演 丞 容 剧 圭 婚 梦 菲
模 善 树 蛋 鸵 磨 恋 继

그림 6. 『한글재민체』 간체자, 번체자 비교



대한민국大韓民國アジア대륙大陸동북부トウふくブ東北部ノカソハソトウ韓半島ニ위치イチ位置ツテイル민주ミソツュウキョウワコク共和國デツュト수도首都はそうるトクベツツ特別市

그림 7.『한글재민체』일본 가나문자

—

김지영, 자료 제공, 2023. 2.

5. 『한글재민체3.0』 한글 2,350자

韓契在民體3.0 韓契 2,350字
2,350 Hangeul Characters

가각간갇갈갉갊감갑값갓갔강갖갗같갚갛개객갠갤갬갭갯갰갱갸갹갼걀
걋걍걔걘걜거걱건걷걸걺검겁것겄겅겆겉겊겋게겐겔겜겝겟겠겡겨격겪
견겯결겸겹겻겼경곁계곈곌곕곗고곡곤곧골곪곬곯곰곱곳공곶과곽관괄
괆괌괍괏광괘괜괠괩괬괭괴괵괸괼굄굅굇굉교굔굘굡굣구국군굳굴굵굶
굻굼굽굿궁궂궈궉권궐궜궝궤궷귀귁귄귈귐귑귓규균귤그극근귿글긁금
급긋긍긔기긱긴긷길긺김깁깃깅깆깊까깍깎깐깔깖깜깝깟깠깡깥깨깩깬
깰깸깹깻깼깽꺄꺅꺌꺼꺽꺾껀껄껌껍껏껐껑께껙껜껨껫껭껴껸껼껴꼈꼍
꼐꼬꼭꼰꼲꼴꼼꼽꼿꽁꽂꽃꽈꽉꽐꽜꽝꽤꽥꽹꾀꾄꾈꾐꾑꾕꾜꾸꾹꾼꿀
꿇꿈꿉꿋꿍꿎꿔꿀꿨꿩꿰꿱꿴꿸꿤꿥꿨뀌뀐뀔뀜뀝뀨끄끅끈끊끌끎끓끔
끕끗끙끝끼끽낀낄낌낍낏낑나낙낚난낟날낡낢남납낫났낭낮낯낱낳내낵
낸낼냄납냇냈냉냐냑냔냘냠냥너넉넋넌널넓넖넘넙넛넜넝넣네넥넨넬넴
넵넷넸넹녀녁년녈념녑녔녕녘녜녠노녹논놀놂놈놉놋농높놓놔놘놜놨뇌
뇐뇔뇜뇝뇟뇨뇩뇬뇰뇹뇻뇽누눅눈눋눌눔눕눗눙눠눴눼뉘뉜뉠뉨뉩뉴뉵
뉼늄늅늉느늑는늘늙늚늠늡늣능늦늪늬닌닐니닉닌닐닒님닙닛닝닢다닥
닦단닫달닭닮닯닳담답닷닸당닺닻닿대댁댄댈댐댑댓댔댕댜더덕덖던덛
덜덞덟덤덥뎟뎡뎢뎦뎨뎩뎬뎰뎀뎁뎃뎄뎅뎌뎐뎔뎠뎡뎨뎬도독돈돋돌돎
돐돔돕돗동돛돝돠돤돨돼됐되된될됨됩됫됴두둑둔둘둠둡둣둥둬뒀뒈뒝

뒤뒨뒬뒵뒷뒹듀듄듈듐듕드득든듣들듦듬듭듯등듸디딕딘딛딜딤딥딧딨
딩딪따딱딴딸땀땁땃땄땅땋때땍땐땔땜땝땟땠땡떠떡떤떨떪떫떰떱떳떴
떵떻떼떽뗀뗄뗌뗍뗏뗐뗑뗘뗬또똑똔똘똥똬똴뙈뙤뙨뚜뚝뚠뚤뚫뚬뚱뛔
뛰뛴뛸뜀뜁뜅뜨뜩뜬뜯뜰뜸뜹뜻띄띈띌띔띕띠띤띨띰띱띳띵라락란랄람
랍랏랐랑랒랖랗래랙랜랠램랩랫랬랭랴략랸랏량러럭런럴럼럽럿렀렁렇
레렉렌렐렘렙렛렝려력련렬렴렵렷렸령례롄롑롓로록론롤롬롭롯롱롸뢴
뢍뢨뢰뢴뢸룀룁룃룡료룐룔룝룟룡루룩룬룰룸룹룻룽뤄뤘뤠뤼뤽뤤뤌뤔
륏륑류륙륜률륨륩륫륭르륵른를름릅릇릉릊릍릎리릭린릴림립릿링마막
만많맏말맑맒맘맙맛망맞맡맣매맥맨맬맴맵맷맸맹맺먀먁먈먕머먹먼멀
멂멈멉멋멍멎멓메멕멘멜멤멥멧멨멩며멱면멸몃몄명몇몌모목몫몬몰몲
몸몹못몽뫄뫈뫘뫙뫼뫤뫨뫱뫳뮈뮌뮐뮙뮛무묵묶문묻물묽묾뭄뭅뭇뭉
뭍뭏뭐뭔뭘뭡뭣뭬뮈뮌뮐뮤뮨뮬뮴뮷므믄믈믐믓미믹민믿밀밂밈밉밋밌
밍및밑바박밖밗반받발밝밟밟밤밥밧방밭배백밴밸뱀뱁뱃뱄뱅뱉뱌뱍뱐
뱝버벅번벋벌벎범법벗벙벚베벡벤벧벨벰벱벳벴벵벼벽변별볍볏볐병볕
볘볜보복볶본볼봄봅봇봉봐봔봤봬뵀뵈뵉뵌뵐뵘뵙뵤뵨부북분붇불붉붊
붐붑붓붕붙붚붜붤붰붸뷔뷕뷘뷜뷩뷰뷴뷸븀븃븅브븍븐블븜븝븟비빅빈
빌빎빔빕빗빙빚빛빠빡빤빨빪빰빱빳빴빵빻빼빽뺀뺄뺌뺍뺏뺐뺑뺘뺙뺨

뻐 뻑 뻔 뻗 뻘 뻠 뻣 뻤 뻥 뻬 뻥 뼈 뼉 뼘 뼙 뼛 뼜 뼝 뽀 뽁 뽄 뽈 뽐 뽑 뽕 뾔 뾰 뿅 뿌 뿍 뿐
뿔 뿜 뿟 뿡 쀼 쁑 쁘 쁜 쁠 쁨 쁩 삐 삑 삔 삘 삠 삡 삣 삥 사 삭 삯 산 삳 살 삵 삶 삼 삽 삿 샀
상 샅 새 색 샌 샐 샘 샙 샛 샜 생 샤 샥 샨 샬 샴 샵 샷 샹 섀 섄 섈 섬 섭 서 석 섞 섟 선 섣 설
섧 섧 섬 섭 섯 섰 성 섶 세 섹 센 셀 셈 셉 셋 셌 셍 셔 셕 션 셜 셤 셥 셧 셨 셩 셰 셴 셸 셍 소
속 솎 손 솔 솖 솜 솝 솟 송 솥 솨 솩 솬 솰 솽 쇄 쇈 쇌 쇔 쇗 쇘 쇠 쇤 쇨 쇰 쇱 쇳 쇼 쇽 숀 숄
숌 숍 숏 숑 수 숙 순 숟 술 숨 숩 숫 숭 숯 숱 숲 숴 쉈 쉐 쉑 쉔 쉘 쉠 쉥 쉬 쉭 쉰 쉴 쉼 쉽 쉿
슁 슈 슉 슐 슘 슛 슝 스 슥 슨 슬 슭 슴 습 슷 승 시 식 신 싣 실 싫 심 십 싯 싱 싶 싸 싹 싻 싼
쌀 쌈 쌉 쌌 쌍 쌓 쌔 쌕 쌘 쌜 쌤 쌥 쌨 쌩 쌰 써 썩 썬 썰 썲 썸 썹 썼 썽 쎄 쎈 쎌 쏀 쏘 쏙 쏜
쏟 쏠 쏢 쏨 쏩 쏭 쏴 쏵 쏸 쐈 쐐 쐬 쐰 쐴 쐼 쐽 쑈 쑤 쑥 쑨 쑬 쑴 쑵 쑹 쒀 쒔 쒜 쒸 쒼 쓩
쓰 쓱 쓴 쓸 씀 씋 씁 씌 씐 씔 씜 씨 씩 씬 씰 씸 씹 씻 씽 아 악 안 앉 않 알 앍 앎 앓 암 압
앗 았 앙 앝 앞 애 액 앤 앨 앰 앱 앳 앴 앵 야 약 얀 얄 얇 얌 얍 얏 양 얕 얗 얘 얜 얠 얩 어 억
언 얹 얻 얼 얽 얾 엄 업 없 엇 었 엉 엊 엌 엎 에 엑 엔 엘 엠 엡 엣 엥 여 역 엮 연 열 엷 염
엽 엾 엿 였 영 옅 옆 옇 예 옌 옐 옘 옙 옛 옜 오 옥 온 올 옭 옮 옰 옳 옴 옵 옷 옹 옻 와 왁 완
왈 왐 왑 왓 왔 왕 왜 왹 왠 왬 왯 왱 외 왹 왼 욀 욈 욉 욋 욍 요 욕 욘 욜 욤 욥 욧 용 우 욱 운
울 욹 욺 움 웁 웃 웅 워 웍 원 월 웜 웝 웠 웡 웨 웩 웬 웰 웸 웹 웽 위 윅 윈 윌 윔 윕 윗 윙 유
육 윤 율 윰 윱 윳 융 윷 으 윽 은 을 읊 음 읍 읏 응 읒 읓 읔 읕 읖 읗 의 읜 읠 읨 읫 이 익 인
일 읽 읾 잃 임 입 잇 있 잉 잊 잎 자 작 잔 잖 잗 잘 잚 잠 잡 잣 잤 장 잦 재 잭 잰 잴 잼 잽 잿
쟀 쟁 쟈 쟉 쟌 쟎 쟐 쟘 쟝 쟤 쟨 쟬 저 적 전 절 젊 점 접 젓 정 젖 케 켁 켄 켈 켐 켑 켓 켕 켜
켠 켤 켬 켭 켰 켱 켸 조 족 존 졸 졺 좀 좁 좃 종 좆 좇 좋 좌 좍 좔 좝 좟 좡 좨 좼 좽 죄 죈 죌
죔 죕 죗 죙 죠 죡 죤 죵 주 죽 준 줄 줅 줌 줍 줏 중 줘 줬 줴 쥐 쥑 쥔 쥘 쥠 쥡 쥣 쥬 쥰 쥴
쥼 즈 즉 즌 즐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짊 짐 집 짓 징 짖 짙 짚 짜 짝 짠 짢 짤 짧 짬 짭 짯

짰짱째짹짼쨀쨈쨉쨋쨌쨍쨔쨘쨩쩌쩍쩐쩔쩜쩝쩟쩠쩡쩨쩽쪄쪘쪼쪽쫀쫄
쫌쫍쫏쫑쫓쫘쫙쫠쫬쫴쬈쬐쬔쬘쬠쬡쬥쭈쭉쭌쭐쭘쭙쭝쭤쭸쭹쮜쮸쯔쯤
쯧쯩찌찍찐찔찜찝찡찢찧차착찬찮찰참찹찻찼창찾채책챈챌챔챕챗챘챙
챠챤챦챨챰챵처척천철첨첩첫첬청체첵첸첼쳄쳅쳇쳉쳐쳔쳤쳬쳰촁초촉
촌촐촘촙촛총촤촨촬촹최쵠쵤쵬쵭쵯쵱쵸쵺추축춘출춤춥춧충춰췄췌췐
취췬췰췸췹췻췽츄츈츌츔츙츠측츤츨츰츱츳층치칙친칟칠칡침칩칫칭카
칵칸칼캄캅캇캉캐캑캔캘캠캡캣캤캥캬캭컁커컥컨컫컬컴컵컷컸컹케켁
켄켈켐켑켓켕켜켠켤켬켭켯켰켱켸코콕콘콜콤콥콧콩콰콱콴콸쾀쾅쾌쾡
쾨쾰쿄쿠쿡쿤쿨쿰쿱쿳쿵쿼퀀퀄퀑퀘퀭퀴퀵퀸퀼큄큅큇큉큐큔큘큼크큭
큰클큼큽킁키킥킨킬킴킵킷킹타탁탄탈탉탐탑탓탔탕태택탠탤탬탭탯탰
탱탸턍터턱턴털턺텀텁텃텄텅테텍텐텔템텝텟텡텨텬텼톄톈토톡톤톨톰
톱톳통톺톼퇀퇘퇴퇸툇툉툐투툭툰툴툼툽툿퉁퉈퉜튀튁튄튈튐튑튕튜
튠튤튬튱트특튼튿틀틂틈틉틋티틱틴틸팀팁팃팅파팍팎판팔
팖팜팝팟팠팡팥패팩팬팰팸팹팻팼팽퍄퍅퍼퍽펀펄펌펍펏펐펑페펙펜펠
펨펩펫펭펴편펼폄폅폈평폐폘폡폣포폭폰폴폼폽폿퐁퐈퐝푀푄표푠푤푭
퓻푸푹푼푿풀풂품풉풋풍퓌퓡퓌퓐퓔퓜퓟퓨퓬퓰퓸퓻퓽프픈플픔픕픗피
픽핀필핌핍핏핑하학한할핥함합핫항해핵핸핼햄햅햇했행햐향허헉헌헐
헒험헙헛헝헤헥헨헬헴헵헷헹혀혁현혈혐협혓혔형혜혠혤혭호혹혼홀홅
홈홉홋홍홑화확환활홧황홰홱홴횃횅회획횐횔횝횟횡효횬횰횹횻후훅훈
훌훑훔훗훙훠훤훨훰훵훼훽훤휄휑휘휙휜휠휨휩휫휭휴휵휸휼흄흇흉흐
흑흔흖흗흘흙흠흡흣흥흩희흰흴흼흽힁히힉힌힐힘힙힛힝

6.『한글재민체3.0』한자 8,682자

韓契在民體3.0 漢字 8,682字
8,682 Hanja Characters
[KSX1001 한자 4,888자]

황색글자 :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한자' 203자

伽佳假價加可呵哥嘉嫁家暇架枷柯歌珂痂稼苛茄街袈訶賈跏軻迦駕刻却
各恪慤殼珏脚覺角閣侃刊墾奸姦干幹懇揀杆柬桿澗癎看磵稈竿簡肝艮艱
諫間乫喝曷渴碣竭葛褐蝎鞨勘坎堪嵌感憾戡敢柑橄減甘疳監瞰紺邯鑑鑒
龕匣岬甲胛鉀閘剛堈姜岡崗康强彊慷江畺疆糠絳綱羌腔舡薑襁講鋼降鰊
介价個凱塏愷愾慨改槪漑疥皆盖箇芥蓋鎧開喀客坑粳羹醵倨去居巨拒据
據擧渠炬祛距踞遽鉅鋸乾件健巾建愆楗腱虔蹇鍵騫乞傑杰桀儉劍劒檢瞼
鈐黔劫怯迲偈憩揭擊格檄激膈覡隔堅牽犬甄絹繭肩見譴遣鵑抉決潔結缺
訣兼慊箝謙鉗鎌京俓倞傾儆勁勍卿坰境庚徑慶憬擎敬景暻更梗涇炅烱璟
璥瓊痙硬磬竟競絅經耕耿脛莖警輕逕鏡頃頸驚鯨係啓堺契季屆悸戒桂械
棨溪界癸磎稽系繫繼計誡谿階鷄古叩告呱固姑孤尻庫拷攷故敲暠枯槁沽
痼皐睾稿羔考股膏苦苽菰藁蠱袴誥辜錮雇顧高鼓哭斛曲梏穀谷鵠困坤崑
昆梱棍滾琨袞鯤汨骨供公共功孔工恐恭拱控攻珙空蚣貢鞏串寡戈果瓜科
菓誇課跨過鍋顆廓槨藿郭冠官寬慣棺款灌琯瓘管罐菅觀貫關館刮恝括适
侊光匡壙廣曠洸晄狂珖筐胱鑛卦掛罫乖傀塊壞怪愧拐槐魁宏紘肱轟交僑
咬喬嬌嶠巧攪敎校橋狡皎矯絞翹膠蕎蛟較轎郊餃驕鮫丘久九仇俱具勾區
口句咎嘔坵垢寇嶇廐懼拘救枸柩構歐毆毬求溝灸狗玖球瞿矩究絿耉臼舅

[추가 한자 3,794자]

舊苟衢謳購軀逑邱鉤銶駒驅鳩鷗龜國局菊鞠鞫麴君窘群裙軍郡堀屈掘窟宮弓穹窮芎躬倦券勸卷圈拳捲權淃眷厥獗蕨蹶闕机櫃潰詭軌饋晷歸貴鬼叫圭奎揆槻珪硅窺竅糾葵規赳逵閨勻均畇筠菌鈞橘克剋劇戟棘極隙僅劤勤懃斤根槿瑾筋芹菫覲謹近饉今妗擒昑檎琴禁禽芩衾衿襟錦伋及急扱汲級給亘兢矜肯企伎其冀嗜器圻基埼夔奇妓寄岐崎己幾忌技旗旣朞期杞棋棄機欺氣汽沂淇玘琦琪璂璣畸畿碁磯祁祇祈祺箕紀綺羈耆耭肌記譏豈起錡錤飢饑騎騏驥麒緊佶吉拮桔金喫儺娜懦拏拿那諾暖煖難揑捺南枏楠湳男納衲囊娘乃內奈柰耐女年撚秊念恬拈捻寧寗努奴弩怒瑙駑濃膿農惱腦尿嫩訥杻紐能尼泥匿溺多茶丹亶但單團壇彖斷旦檀段湍短端簞緞蛋袒鄲鍛撻澾獺疸達啖坍憺擔曇淡湛潭澹痰聃膽蕁覃談譚錟沓畓答踏遝唐堂塘幢戇撞棠當糖螳黨代垈坮大對岱帶待戴擡玳臺袋貸隊黛宅德悳倒刀到圖堵塗導屠島嶋度徒悼挑掉搗桃棹櫂淘渡滔濤燾盜睹禱稻萄覩賭跳蹈逃途道都鍍陶韜毒瀆牘犢獨督禿篤纛讀墩惇敦旽暾沌焞燉豚頓乭突仝冬凍動同憧東桐棟洞潼疼瞳童胴董銅兜斗杜枓痘竇荳豆逗頭屯臀芚遁遯鈍得嶝橙燈登等藤謄鄧騰喇懶癩羅蘿螺裸邏洛烙珞絡落酪駱亂卵欄欒瀾爛蘭鸞剌辣嵐擥攬欖濫籃纜藍襤覽拉臘蠟廊朗浪狼琅瑯螂郞來崍徠萊冷掠略亮

倆兩凉梁樑粮粱糧良諒輛量侶儷勵呂廬慮戾旅櫚濾礪藜蠣閭驢驪麗黎力
曆歷瀝礫轢靂憐戀攣漣煉璉練聯蓮輦連鍊冽列劣洌烈裂廉斂殮濂簾獵令
伶囹岺嶺怜玲笭羚翎聆逞鈴零靈領齡例澧禮醴隷勞撈擄櫓潞瀘爐盧老蘆
虜路輅露魯鷺鹵碌祿綠菉錄鹿麓論壟弄朧瀧瓏籠聾儡瀨牢磊賂賚賴雷了
僚寮廖料燎療瞭聊蓼遼鬧龍壘婁屢樓淚漏瘻累縷蔞褸鏤陋劉旒柳榴流溜
瀏琉瑠留瘤硫謬類六戮陸侖倫崙淪綸輪律慄栗隆勒肋凜凌楞稜綾菱陵俚
利厘吏唎履悧李梨浬犁狸理璃痢籬罹羸莉裏裡里釐離鯉吝潾燐璘藺躪隣
鱗麟林淋琳臨霖砬立笠粒摩瑪痲碼磨馬魔麻寞幕漠膜莫邈万卍娩巒彎慢
挽晩曼滿漫灣瞞萬蔓蠻輓饅鰻唜抹末沫茉襪靺亡妄忘忙望網罔芒茫莽輞
邙埋妹媒寐昧枚梅每煤罵買賣邁魅脈貊陌驀麥孟氓猛盲盟萌冪覓免冕勉
棉沔眄眠綿緬面麵滅蔑冥名命明暝椧溟皿瞑茗蓂螟酩銘鳴袂侮冒募姆帽
慕摸摹暮某模母毛牟牡瑁眸矛耗芼茅謀謨貌木沐牧目睦穆鶩歿沒夢朦蒙
卯墓妙廟描昴杳渺猫竗苗錨務巫憮懋戊拇撫无楙武毋無珷畝繆舞茂蕪誣
貿霧鵡墨默們刎吻問文汶紊紋聞蚊門雯勿沕物味媚尾嵋彌微未梶楣渼湄
眉米美薇謎迷靡黴岷悶愍憫敏旻旼民泯玟珉緡閔密蜜謐剝博拍搏撲朴樸
泊珀璞箔粕縛膊舶薄迫雹駁伴半反叛拌搬攀斑槃泮潘班畔瘢盤盼磐磻礬
絆般蟠返頒飯勃拔撥渤潑發跋醱鉢髮魃倣傍坊妨尨幇彷房放方旁昉枋榜
滂磅紡肪膀舫芳蒡蚌訪謗邦防龐倍俳培徘拜排杯湃焙盃背胚裴裵褙賠輩

配陪伯佰帛柏栢白百魄幡樊煩燔番繁蕃藩飜伐筏罰閥凡帆梵氾汎泛犯範
范法琺僻劈壁擘檗璧癖碧蘗闢霹卞弁變辨辯邊別瞥鱉鼈丙併兵屛并昞昺
柄棅炳甁病秉竝輧餅騈保堡報寶普步洑湺潽瑞甫菩補褓譜輔伏僕匐卜宓
復服福腹茯蔔複覆輹輻馥鰒本乭俸奉封峯峰捧棒烽熢琫縫蓬蜂逢鋒鳳不
付俯傅剖副否咐埠夫婦孚孵富府扶敷斧浮溥父符簿缶腐腑膚艀芙莩訃負
賦賻赴趺部釜阜附駙鳧北分吩噴墳奔奮忿憤扮昐汾焚盆粉糞紛芬賁雰佛
弗彿拂崩朋棚硼繃鵬丕備匕匪卑妃婢庇悲憊扉批斐枇榧比毘毗毘沸琵痺
砒碑秕秘粃緋翡肥脾臂菲蜚裨誹譬費鄙非飛鼻嚬嬪彬斌檳殯浜濱瀕牝玭
貧賓頻憑氷聘騁乍事些仕伺似使俟僿史司唆嗣四士奢娑寫寺射巳師徙思
捨斜斯柶査梭死沙泗渣瀉獅砂社祀祠私篩紗絲肆舍莎蓑蛇裟詐詞謝賜赦
辭邪飼駟麝削朔傘刪山散汕珊産疝算蒜酸霰乷撒殺煞薩三杉森渗芟蔘衫
揷澁鈒颯上傷像償商喪嘗孀尙峠常床庠廂想桑橡湘爽牀狀相祥箱翔裳觴
詳象賞霜塞璽賽嗇穡索色牲生甥笙墅壻嶼序庶徐恕抒捿敍暑曙書栖棲犀
瑞筮絮緖署胥舒薯西誓逝鋤黍鼠夕奭席惜昔晳析汐淅潟石碩蓆釋錫仙僊
先善嬋宣扇敾旋渲煽琁瑄璇璿癬禪線繕羨腺膳船蘚蟬詵跣選銑鐥饍鮮卨
屑楔泄洩渫舌薛褻設說雪齧剡暹殲纖蟾贍閃陝攝涉燮城姓宬性惺成星晟
猩珹盛省筬聖聲腥誠醒世勢歲洗稅笹細貰召嘯塑宵小少巢所掃搔昭梳沼
消溯瀟炤燒甦疏疎瘙笑篠簫素紹蔬蕭蘇訴逍遡邵銷韶騷俗屬束涑粟續謖

贖速孫巽損蓀遜飡率宋悚松淞訟誦送頌刷灑碎鎖衰釗修受嗽囚垂壽嫂守
岫峀帥愁戍手授搜收數樹殊水洙漱燧狩獸琇璲瘦睡秀穗竪粹綏綬繡羞脩
茱蒐蓚藪袖誰讐輸遂邃酬銖銹隋隧隨雖需須首髓鬚叔塾夙孰宿淑潚熟琡
璹肅菽巡徇循恂旬栒楯橓殉洵淳珣盾瞬筍純脣舜荀蓴蕣詢諄醇錞順馴戌
術述鉥崇崧嵩瑟膝蝨濕拾習褶襲丞乘僧勝升承昇繩蠅陞侍匙嘶始媤尸屎
屍市弑恃施是時枾柴猜矢示翅蒔蓍視試詩諡豕豺埴寔式息拭植殖湜熄篒
蝕識軾食飾伸侁信呻娠宸愼新晨燼申神紳腎臣莘薪藎蜃訊身辛迅失室實
悉審尋心沁深瀋甚芯諶什十雙氏亞俄兒啞娥峨我牙芽莪蛾衙訝阿雅餓鴉
鵝堊岳嶽幄惡愕握樂渥鄂鍔顎鰐齷安岸按晏案眼雁鞍顔鮟斡謁軋閼唵岩
巖庵暗癌菴闇壓押狎鴨仰央怏昂殃秧鴦厓哀埃崖愛曖涯碍艾隘靄厄扼掖
液縊腋額櫻罌鶯鸚也倻冶夜惹揶椰爺耶野弱約若葯蒻藥躍佯壤孃恙揚攘
敭暘楊樣洋瀁煬痒瘍禳穰羊襄讓釀陽養圉御於漁瘀禦語馭魚齬億憶抑檍
臆偃堰彦焉言諺孽蘖俺儼嚴奄掩淹嶪業円予余如歟汝璵礖與艅茹輿轝餘
亦域役易疫繹譯逆驛嚥堧姸娟宴延捐挻椽沇沿涎涓淵演烟然煙燃燕研硯
筵緣縯衍軟鉛鳶悅涅熱閱厭染炎焰琰艶苒閻髯鹽曄燁葉塋嶸影映暎楹榮
永泳渶潁濚瀛瀯煐營獰瑛瓔盈穎纓英詠迎鐖霙乂倪刈叡曳汭濊猊睿穢芮
藝蘂裔詣譽豫鋭霓預五伍俉傲午吾吳嗚塢墺奧娛寤悟懊敖旿晤梧汚澳烏
熬獒筽蜈誤鰲鼇屋沃獄玉鈺溫瑥瘟穩縕蘊兀壅擁瓮甕癰翁邕雍饔渦瓦窩

窪臥蛙蝸訛婉完宛梡椀浣玩琓琬碗緩翫脘腕莞豌阮頑曰往旺枉汪王倭娃
歪矮外嵬巍猥畏僥凹堯夭妖姚寥嶢拗搖撓擾曜橈燿瑤窈窯繇繞耀腰蟯要
謠遙邀饒慾欲浴縟褥辱俑傭冗勇埇墉容庸慂榕涌湧溶熔瑢用甬聳茸蓉踊
鎔鏞于佑偶優又友右宇寓尤愚憂旴牛玗瑀盂祐禑禹紆羽芋藕虞迂遇郵釪
隅雨雩勛彧旭昱栯煜稶郁頊云楺殞澐熉耘芸蕓運隕雲韻蔚鬱亐熊雄元原
員圓園垣媛嫄寃怨愿援沅洹湲源爰猿瑗苑袁轅遠院願鴛月越鉞位偉僞危
圍委威尉慰暐渭爲瑋緯胃萎葦蔿蝟衛褘謂違韋魏乳侑儒兪唯喻孺宥幼幽
庾悠惟愈愉揄攸有柔柚楡楢油洧游濡猶猷瑜由癒維臾萸裕誘諛諭踰蹂遊
逾遺酉釉鍮堉毓肉育允奫尹潤玧胤贇鈗閏聿戎瀜絨融垠恩慇殷誾銀隱乙
吟淫蔭陰音飲揖泣邑凝應膺鷹依倚儀宜意懿擬椅毅疑矣義艤薏蟻衣誼議
醫二以伊夷姨已弛彝怡爾珥異痍移而耳肄苡荑貽貳邇飴餌濕益翊翌翼謚
人仁刃印咽因姻寅引忍湮絪茵蚓認靭靷一佚佾壹日溢逸鎰馹任壬妊姙恁
稔荏賃入卄仍剩孕芿仔刺咨姊姿子字孜恣慈滋炙煮玆瓷疵磁紫者自茨蔗
藉諮資雌作勺嚼斫昨灼炸爵綽芍酌雀鵲孱棧殘潺盞岑暫潛箴簪蠶雜丈仗
匠場墻壯奬將帳庄張掌暲杖樟檣欌漿牆獐璋章粧腸臟臧莊葬蔣薔藏裝贓
醬長障再哉在宰才材栽梓渽滓災縡裁財載齋齎爭箏諍錚佇低儲咀姐底抵
杵楮樗沮渚狙猪疽箸紵苧菹著藷詛貯躇這邸雎齟勣吊嫡寂摘敵滴狄的積
笛籍績翟荻謫賊赤跡蹟迪迹適鏑佃佺傳全典前剪塡塼奠專展廛悛戰栓殿

氈澱煎琠田甸畑癲筌箋箭篆纏詮輾轉鈿銓錢鐫電顚顫餞切截折浙癤竊節
絶占岾店漸点粘霑鮎點接摺蝶丁井亭停偵呈姃定幀庭廷征情挺政整旌晶
晸柾楨檉正汀淀淨渟湞瀞炡玎珽町睛碇禎程穽精綎艇訂諪貞鄭酊釘鉦鋌
錠霆靖靜頂鼎制劑啼堤帝弟悌提梯濟祭第臍薺製諸蹄醍除際霽題齊俎兆
凋助嘲弔彫措操早晁曺曹朝條棗槽漕潮照燥爪璪眺祖祚租稠窕粗糟組繰
肇藻蚤詔調趙躁造遭釣阻雕鳥族簇足鏃存尊卒拙猝倧宗從悰慫棕淙琮種
終綜縱腫踪踵鐘鐘佐坐左座挫罪主住侏做姝胄呪周嗾奏宙州廚晝朱柱株
注洲湊澍炷珠疇籌紂紬綢舟蛛註誅走躊輳週酎酒鑄駐竹粥俊儁准埈寯峻
晙樽浚準濬焌畯竣蠢逡遵雋駿茁中仲衆重卽櫛楫汁葺增憎曾拯烝甑症繒
蒸證贈之只咫地址志持指摯支旨智枝枳止池沚漬知砥祉祗紙肢脂至芝芷
蜘誌贄趾遲直稙稷織職唇嗔塵振搢晉晋桭榛殄津溱珍瑨璡畛疹盡眞瞋秦
縉縝臻蔯袗診賑軫辰進鎭陣陳震侄叱姪嫉帙桎瓆疾秩窒膣蛭質跌迭斟朕
執濮緝輯鏶集徵懲澄且侘借叉嗟嵯差次此磋箚蹉車遮捉搾着窄錯鑿齪撰
澯燦璨瓚竄簒纂粲纘讚贊鑽餐饌刹察擦札紮僭參塹慘慙懺斬站讒讖倉倡
創唱娼廠彰愴敞昌昶暢槍滄漲猖瘡窓脹艙菖蒼債埰寀寨彩採砦綵菜蔡采
釵冊柵策責凄妻悽處倜剔尺慽戚拓擲斥滌瘠脊蹠陟隻仟千喘天川擅泉淺
玔穿舛薦賤踐遷釧闡阡韆凸哲喆徹撤澈綴輟轍鐵僉尖沾添甛瞻簽籤詹諂
堞妾帖捷牒疊睫諜貼輒廳晴淸聽菁請靑鯖剃替涕滯締諦逮遞體初剿哨憔

抄招梢椒楚樵炒焦硝礁礎秒稍肖艸苕草蕉貂超酢醋醮促囑燭矗蜀觸寸忖
村邨叢塚寵悤憁摠總聰蔥銃撮催崔最墜抽推椎楸樞湫皺秋芻萩諏趨追鄒
酋醜錐錘鎚雛騶鰍丑畜祝竺筑築縮蓄蹙蹴軸逐春椿瑃出朮黜充忠沖蟲衝
衷悴膵萃贅取吹嘴娶就炊翠聚脆臭趣醉驟鷲側仄厠惻測層侈値嗤峙幟恥
梔治淄熾痔痴癡稚穉緇緻置致蚩輜雉馳齒則勅飭親七柒漆侵寢枕沈浸琛
砧針鍼蟄秤稱快他咤唾墮妥惰打拖朶楕舵陀馱駝倬卓啄坼托擢晫柝濁濯
琢琸託鐸呑嘆坦彈憚歎灘炭綻誕奪脫探眈耽貪塔搭榻宕帑湯蕩兌台太怠
態殆汰泰笞胎苔跆邰颱擇澤撑攄兎吐土討慟桶痛筒統通堆槌腿褪退頹偸
套妬投透鬪慝特闖坡婆巴把播擺杷波派爬琶破罷芭跛頗判坂板版瓣販辦
鈑阪八叭捌佩唄悖敗沛浿牌狽稗覇貝彭澎烹膨愎便偏扁片篇編翩遍鞭騙
貶坪平枰萍評吠嬖幣廢弊斃肺蔽閉陛佈包匍匏咆哺圃布怖抛抱捕泡浦疱
砲胞脯苞葡蒲袍褒逋鋪飽鮑幅暴曝瀑爆俵剽彪慓杓標漂瓢票表豹飇飄驃
品稟楓諷豊風馮彼披疲皮被避陂匹弼必泌珌畢疋筆苾馝乏逼下何厦夏廈
昰河瑕荷蝦賀遐霞鰕壑學虐謔鶴寒恨悍旱汗漢澣瀚罕翰閑閒限韓割轄函
含咸啣喊檻涵緘艦銜陷鹹合哈盒蛤閤闔陜亢伉姮嫦巷恒抗杭桁沆港缸肛
航項亥偕咳垓奚孩害懈楷海瀣蟹解該諧邂駭骸劾核倖幸杏荇行享向嚮珦
鄕響餉饗香噓墟虛許憲櫶獻軒歇險驗奕爀赫革俔峴弦懸晛泫炫玄玹現眩
睍絃絢縣舷衒賢鉉顯孑穴血頁嫌俠協夾峽挾浹狹脅脇莢鋏頰亨兄刑型形

泂滎瀅瀅炯熒珩瑩荊螢衡逈邢鎣馨兮彗惠慧暳蕙蹊醯鞋乎互呼壕壺好岵弧戶扈昊晧毫浩淏湖滸澔濠濩灝狐琥瑚瓠皓祜糊縞胡芦葫蒿虎號蝴護豪鎬頀顥惑或酷婚昏混渾琿魂忽惚笏哄弘汞泓洪烘紅虹訌鴻化和嬅樺火畵禍禾花華話譁貨靴擴攫確碻穫丸喚奐宦幻患換歡晥桓渙煥環紈還驩鰥活滑猾豁闊凰幌徨恍惶愰慌晃晄榥況湟滉潢煌璜皇篁簧荒蝗遑隍黃匯回廻徊恢悔懷晦會檜淮澮灰獪繪膾茴蛔誨賄劃獲宖橫鐄哮嚆孝效斅曉梟涍淆爻肴酵驍侯候厚后吼喉嗅帿後朽煦珝逅勛勳塤壎焄熏燻薰訓暈薨喧暄煊萱卉喙毁彙徽揮暉煇諱輝麾休携烋畦虧恤譎鷸兇凶匈洶胸黑昕欣炘痕吃屹紇訖欠欽歆吸恰洽翕興僖凞喜噫囍姬嬉希憙憘戲晞曦熙熹熺犧禧稀羲詰豈更車賈滑串句龜龜契金喇奈懶癩羅蘿螺裸邏樂洛烙珞落酪駱亂卵欄爛蘭鸞嵐濫藍襤拉臘蠟廊朗浪狼郎來冷勞擄櫓爐盧老蘆虜路露魯鷺碌祿綠菉錄鹿論壟弄籠聾牢磊賂雷壘屢樓淚漏累縷陋勒肋凜凌稜綾菱陵讀拏樂諾丹寧怒率異北磻便復不泌數索參塞省葉說殺辰沈拾若掠略亮兩凉梁糧良諒量勵呂女廬旅濾礪閭驪麗黎力曆歷轢年憐戀撚漣煉璉秊練聯輦蓮連鍊列劣咽烈裂說廉念捻殮簾獵令囹寧嶺怜玲瑩羚聆鈴零靈領例禮醴隸惡了僚寮尿料樂燎療蓼遼龍暈阮劉杻柳流溜琉留硫紐類六戮陸倫崙淪輪律慄栗率隆利吏履易李梨泥理痢罹裏裡里離匿溺吝燐璘藺隣鱗麟林淋臨立笠粒狀炙識什茶刺切度拓糖宅洞暴輻行降見廓

乀幺青竜儿冂几匚广弋殳糸耒虍虫豸釆隶隹韭髟鬯鬲黽龠个乞仝玉吉圭
乭亥吾怒夆孬巽旻亨卑耄巷亶隻垈抱碁匪乳淫廛鑾鬟伃儉潔匏劝匏勖匠叹
岱者侖岱圮粃卻岱亳唜晁間啓卻滾涖鮑蕊耄嚪邁穩囔戟墀藝奈契娘姘姝
嫩嫺孍寓岔嶔嶼楔栞乿弥蔆猴徹忞惕惷慁慞慎慮憲或擠斁斗斈斟芩
苓旌昶眼晞曇暾朶桊桃梡榵檄榬檎橘檄櫻歌欬欬殆汲求沽渚淀菜凞澕澔瀲
澥烞焌冬羿狣珽瑧瓗璣眩晡睭瞡暷規硱磻补裀秬稾賓簠絆者耆聞瞟胯胙
跎鯥蓓蟒衡觥鱗訟訐誣誑諱容亘貯貶賱趙蹠輝嬖迣建迸逕邕銃鏗鑭鑼鬨
關隕霧黯罄顒顚顤颶鯿饐鐐酬亳魟魟鯛鰈鱗鵬鷄齣黤厂丌丟並丫丰丱丶
丷乖乭圭巳乿乖姿哲乾厖荃涟耆个亙亜亟奕京亳毫亹亹今亾令仞仡仳仵份
仿仫仔优会仗估伲伻伾征侶体佔佖佗佝佞佟佪佴佻佻佻侊侏侏侊侍侍侍

喨 悳 嗃 嗉 嗑 嗛 嗂 嗢 喜 嗽 喰 嗥 嘈 嘌 嘍 嘎 嘏 嘐 嘒 嗎 嘖 嘩 嘬 嘑 嘸 嘹 嘻 嘿 噁 噉 噉
噍 噎 噙 噢 噤 噥 噩 噪 噬 噭 噯 噲 噶 噴 嚀 嚄 嚆 嚅 嚌 嚩 嚬 嚥 嚩 嚬 嚬 嚬 嚬 嚬 嚬 嚬 嚬 嚬 囟
囷 囹 囫 囮 囷 国 囿 圄 圖 圉 圜 圩 圪 圬 圮 圾 坻 坌 坏 坵 坨 坩 坱 坳 坷 坣 坻 垌
垕 垞 垤 垸 垽 垳 埏 埘 埒 埜 埤 埠 埦 埯 埰 埴 埽 埽 墁 墊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墁

戭戲戳戰戶扃扈扎扑扒扯扛扞扞扣扳扺找扑抆抗抔抖抪抨抬抮坷拄担拆
拊抛拑拕拚拵拽挂挌挐挒挨挪挲挹捂捃捄捆捍捎捘捩揣揩揫搉搆搉搒搘搦搦搨搪搫搖搯搶摛摞摧摭摳摻摽撅撐撕撙撦撟撩撼撾撿擉擐擗擠擣擯擱擷擺攏攔
攙攛攢攤攲攽敃敉敝敕敘教敝斁斕斝斬斲斯旂旃旄旆旒旓旒旒昊旨昀昂昃
昈昍昨昜昡昤昀昵昷昶昹晅晈晚晠晡晡晢晤晤晷晷暉暈暴暾曉曛曛曛

澕澖潸凜澡澥澨澤澶濆澹濰濔濘濛濞澦澨濮濴濶濺濵澹澂澨瀦濔瀲瀸瀹
瀼灄灆變灕灞灤灝灩灯灾炁炆炕炝炱炮炰為烊烑烓烔烜烯烳烺烝焆焓閔
焜焠烱熒焯焱煃煆煒煓熙煝煢煨熀熅熇熙熛熡熨熩熲熳燋燔燙燹燠
燬燸燹燾爁爇爍爔爆爚爟爨爸爹牂牋牓牖牚牙牞牴牢犇犍犒犖
犴犴犵犺狂狒狠狢狨狴狷狺狻狽狿猁猊猓猗猘猴獃獎獘獬獠獡獩獩
獫獬獯獷獼玁玈玒玦玠玦玲玫环玴玷玻玼珣玿珈珒珖珠琉琅琉珮琨琦琿
琄琲琯琰琲琤琱琲琯琨琿琯琲琯琲琯琲琯琲琯琲琯琲琯琲琯琲琯琲琯
瑛璐瓆璫璱璶璸璫璫璫

粤 蕣 粼 糅 糕 糗 糙 糟 糜 糝 糯 糱 糲 糴 糵 糶 糺 糾 紇 紓 紕 紜 紱 紲 紸 紼 純 紿 紵 紺 絆 絶
絖 絙 絛 絜 絣 絩 絞 絰 絵 絺 綃 綆 綈 綉 綏 綟 綜 綣 綩 綦 綧 綪 綫 綮 綰 綹 綾 緇 緌 緡 緤 緦 緬 緲
緶 緹 緻 緽 緾 緿 縈 縋 縐 縑 縗 縟 縠 縢 縲 縛 縵 縹 縻 繁 繅 繈 繒 繕 繖 繙 繚 繢 繩 繪 繯 繽
繾 纁 纈 纊 纏 纍 纔 纜 缺 罅 罄 罅
羆 羈 羖 胖 羝 羨 羣 羥 羯 羶 羽 翎 翛 翟 翦 翬 翮 翳 翹 翻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翼

謷謼謾謔譆譌譓譖譙譟譱譴譽讓讚讟讌讎讒讖讙豇豉豎豐豕豢豨豳貊
貍貓貌貘負貤貲貶貺賍賄贊賟賡賥賭輝賤贏贐贔贛赧赭赮赶趁趣趎趨趨
趫趲跂跎跕跖跗跟跪跫跬路跱跨跳跾踈踉踔踝踟踢踣踧蹀蹌蹠蹣蹤蹦蹤
蹲蹻躄躅躉躋躐躑躔躕躙躡躥躲躬躬軀軌軔軟軩軼輅輊輒輙輜輟輟輦輩輳
輳轆轇轉轔轕轖轗轘轙轢轤辟辣辮辿迂迄迆迓迕迟迢迤迥迳迺迸迹迺迺
迹迥迪迺逖逭逵逶逾逋逌遘遛遇遨遭遯遴遷遷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
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邇

髣髦髫髭髭髮髯髹髻鬃鬆鬘鬚鬍鬢鬢鬖鬘鬟鬢鬣鬣黧鬨鬩鬮鬺魃魋魈魊魎魑魘魅魯魴魴魴

7. 『한글재민체3.0』 로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및 주요 문장부호

韓契在民體3.0 羅馬字母, 阿拉伯數字, 文章符號
Roman Alphabet, Arabic Numerals & Special Characters

! ”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_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ㄸ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ㆀ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ㅡ ㅣ ㄱ ㄱ ㄱ ㄴ ㅏ
ㅜ ㅓ ㅗ ㅓ ㅡ ㅣ ㄱ ㄱ ㄱ ㄴ ㅏ ㅜ ㅓ ㅗ ㅓ ㅏ ㅜ ㅓ ㅗ ㅓ ㅏ ㄱ ㄱ ㄱ ㄱ ㄴ ㄴ
ㄱ ㄱ ㅏ ㅏ ㅏ ㅏ ㅓ ㅓ ㅓ ㅓ ㄱ ㄱ ㄱ ㄱ ㄴ ㄴ ㄴ ㅓ ㅏ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ㅏ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 ㊐ ` ® € ㊗ — £ ¥ ff fi fl ffi ffl

제5장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作品

한글정자체 작품으로는

언해류諺解類 관련하여 7 작품

임서 1.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455년
임서 2.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1459년
임서 4. 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임서 14.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임서 15.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1755년
임서 16. 고문진보언해古文眞寶諺解, 영조년간
임서 20. 학석집(익종)鶴石集, 19세기

어서류御書類 관련하여 7 작품

임서 6. 선조가 숙의에게宣祖가 淑儀에게, 1597년, 선조3 0년
임서 7. 선조어필宣祖御筆, 1603년, 선조 36년 11월 19일
임서 8. 선조대왕어필언간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임서 9. 효종대왕어서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임서 10. 숙종대왕언찰어필肅宗大王諺札御筆, 1685년, 숙종 11년 6월
임서 11. 숙종어필간찰 명안공주방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임서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肅宗大王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 25년, 1699년

육성六聖 즉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의 편지와 장렬왕후의 편지를 장정裝幀하면서 신한첩宸翰帖 곤坤의 첫 장에 정진석이 직접 써넣은 1 작품

임서 18. 언서첩諺書帖, 1802년

옥책문玉冊文, 홀기笏記, 제문祭文, 애책문哀冊文 관련하여 6 작품

임서 13. 소훈이씨제문昭訓李氏祭文, 1721년
임서 19. 유빈박씨애책문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임서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1827년
임서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임서 2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도홀기外進宴時舞童各呈才舞圖笏記, 1901년
임서 29. 책황귀비홀기冊皇貴妃笏記, 19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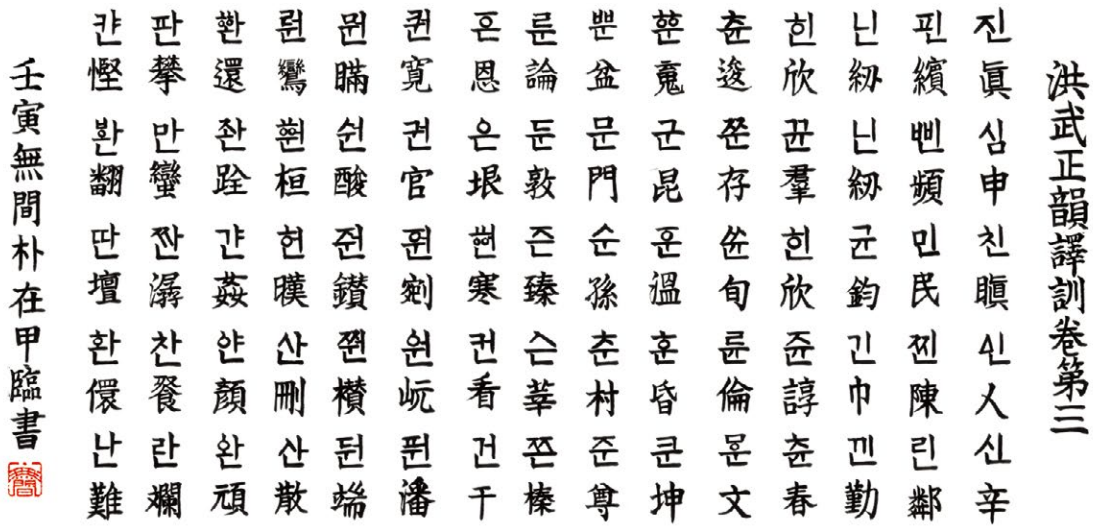
유서諭書, 국서國書, 밀서密書, 칙서勅書 관련하여 8 작품

임서 5.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1593년
임서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1883년 6월 12일
임서 23.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 1883년 9월 18일
임서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왕실고문서 622
임서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왕실고문서 613
임서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왕실고문서 617
임서 30. 고종황제의 밀서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 29일
임서 3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그리고 권선문勸善文, 예지법豫知法, 일기日記 관련하여 3 작품

임서 3.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임서 17. 임산예지법(18세기)臨産豫知法
임서 32.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총 32 작품을 임서하였다.

1.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455년



원본 크기 : 31.3x21.0cm
작품 크기 : 32.0x42.0cm
자료 제공 : 정광

홍무정운역훈권3(3~21쪽)의 목활자로 된 큰 글자 한글과 한자를 한장에 모아 임서하였다

전서를 적극 권면하였던 세종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고전古篆의 자형을 훈민정음의 기본 필체로 선정하였다. 이는 새로 만든 문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용성을 뒤로 미룬 결과였다.
문자는 필사의 편리성을 좇아서 형태가 변모하고 발전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 발간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에서는 이미 한글의 자형이 전서체에서 벗어나 해서체楷書體의 자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종이 추구하였던 고전체의 자형은 실용성에 의해 아주 빠른 시간에 무너져갔다.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1455년 홍무정운역훈이 완성된 당시의 한자음은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한국어식 한자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이른바 중국어식 한자음이다. 『동국정운』은 바로 우리식 한자음을 표기한 자전이요, 『홍무정운역훈』은 중국어식 한자음을 표기한 것으로 이제 모든 한자음을 표준화된 한글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글은 노랫말 짓기와 한자음의 음값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말과 한자음 표기의 표준화를 일차적으로 완성해가고 있었다.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68쪽

『홍무정운역훈 권3~16(洪武正韻譯訓 卷三~十六)』은 조선 단종 3년(1455)에 출판된 금속활자본이다. 이것은 세종 때에 작업을 착수하였는데,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한글에서의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세종 29년(1447)에 『동국정운』을 완성했다. 한자의 중국 음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명나라에서 엮은 한자의 운韻에 관한 책인 『홍무정운』의 음을 한글로 나타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홍무정운역훈』으로, 단종 3년(1455)에 16권 8책으로 완성되었다.

현재 1책인 권1과 권2는 없어지고 권3에서 16까지 14권 7책만이 남아 있다. 한글과 한자, 큰 글자는 목활자*로, 작은 글자는 갑인자*로 찍었다. 또한 이 책을 편찬한 취지, 연기 등은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 권15에 『홍무정운역훈서』가 있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시의 국문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목활자

정의

나무로 만든 활자.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목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찍었는지 전하는 기록과 초기의 활자본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고려 말기 1377년(우왕 3) 흥덕사興德寺에서 주자鑄字로 찍어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에 목활자가 다소 혼용되고 있음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목활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는 왕조 교체의 혼란 상태에서 경제질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요한 자료를 손쉽게 찍어내기 위하여 목활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예로서 1395년(태조 4) 서적원書籍院이 백주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든 목활자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찍어 형률의 적용에 참고하였고, 1397년 공신도감功臣都監이 목활자를 만들어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을 찍어 공신들에게 반사해 준 것을 들 수 있다. 그 중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것이 오늘에 전하여 국보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목활자의 인쇄술이 정교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때부터였다. 1448년(세종 30)에 인행, 반포한 동국정운의 한글과 한자 큰 자는 목활자로 찍어냈는데, 그 새김이 정교하여 그 중 한자 활자는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瑈의 필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묵개자墨蓋子의 음문陰文은 안평대군 용安平大君瑢의 글씨체를 잘 나타내 준다.
1455년(단종 3)에 찍어낸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도 한글과 한자의 큰 자가 모두 목활자이다. 이것들은 모두 관서에서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정교하여 인쇄상태가 아주 깨끗하다.

갑인자

정의

1434년에 왕명으로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 계유자·무신자·임진자·정유자·신묘자

내용

1420년에 만든 경자자庚子字의 자체가 가늘고 빽빽하여 보기가 어려워지자 좀 더 큰 활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1434년 갑인년甲寅年에 왕명으로 주조된 활자이다.

이천李蕆·김돈金墩·김빈金鑌·장영실蔣英實·이세형李世衡·정척鄭陟·이순지李純之 등이 두 달 동안에 20여 만의 큰 중자中字인 대자大字와 소자小字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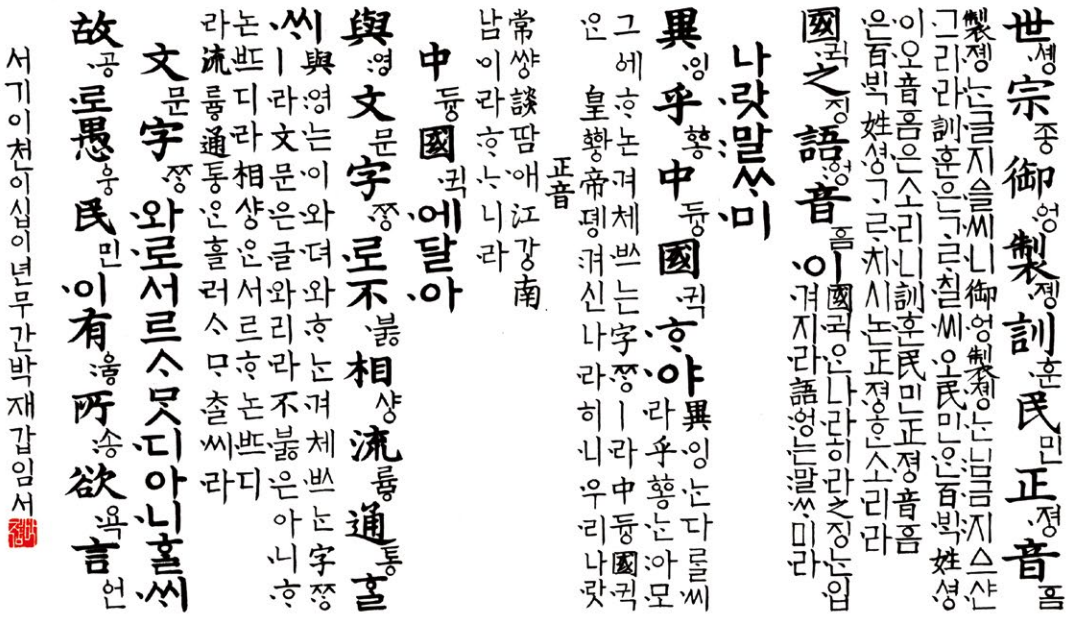
갑인자 자본字本은 경연청經筵廳에 소장된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즐爲善陰騭』·『논어』 등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뒤에 세조가 된 진양대군晉陽大君 유瑈가 써서 보충하였다. 자체가 매우 해정楷正(글씨체가 바르고 똑똑함)하고 부드러운 필서체로 진晉나라의 위부인 자체衛夫人字體와 비슷하다 하여 일명 '위부인자'라 일컫기도 한다.

이 활자를 만드는 데 관여한 인물들은 당시의 과학자나 정밀한 천문기기를 만들었던 기술자였으므로 활자의 모양이 아주 해정하고 바르게 만들어졌다.

경자자와 비교하면 대자와 소자의 크기가 고르고 활자의 네모가 평정平正하며, 조판組版도 완전한 조립식으로 고안하여 납蠟을 사용하는 대신 죽목竹木으로 빈틈을 메우는 단계로 개량,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하루의 인출량印出量이 경자자의 배인 40여 장으로 많이 늘어났다. 현재 전하고 있는 갑인자본을 보면 글자획에 필력筆力의 약동이 잘 나타나고 글자 사이가 여유 있게 떨어지고 있으며, 판면이 커서 늠름하다. 또 먹물이 시커멓고 윤이 나서 한결 선명하고 아름답다. 우리나라 활자본의 백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활자 인쇄술은 세종 때 갑인자에 이르러 고도로 발전하였으며, 이 활자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이나 개주改鑄되었다. 뒤의 개주와 구별하기 위해 특히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라 하였다.
이 초주갑인자는 1580년(선조 13)에 재주再鑄될 때까지 140여년간에 걸쳐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해지고 있는 인본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 소장의 『대학연의大學衍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분류보주이태백시分類補註李太白詩』 등을 초인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갑인자에 붙여 특기할 것은 이 활자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글 활자가 만들어져 함께 사용된 점이다. 만든 해와 자체가 갑인자와 전혀 다르므로 '갑인자병용한글활자' 또는 처음으로 찍은 책의 이름을 따서 '월인석보한글자'라 한다.
이 한글 활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수양대군 등이 세종의 명을 받고 1446년에 죽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47년 7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편찬하여 국역한 석보상절과 그것을 세종이 읽고 지었다는 국한문본 월인천강지곡이 이 활자로 찍혀졌으므로 세종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인자 한글 활자는 획이 굵고 강직한 인서체印書體인 것이 특징이며, 세종이 우리의 글자를 제정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초주갑인자는 오래 사용하는 사이에 활자가 닳고 이지러지고 부족한 글자가 생겨 1499년(연산군 5) 성종실록을 찍어낼 때와 1515년(중종 10)에 보주補鑄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도 수시로 목활자를 만들어 보충하며 선조 초까지 사용되었다. 1580년(선조 13) 경진庚辰에 주조한 활자를 그 해의 간지를 따서 경진자라 하고, 이것이 갑인자를 두 번째로 다시 주조한 것이므로 재주갑인자라 일컫는다. 이 활자의 재주에 관하여는 1573년(선조 6) 계유년과 1580년 경진년에 이루어졌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 훈민정음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1459년



원본 크기 : 32.5x22.5cm x2장
작품 크기 : 31.0x52.0cm
자료 제공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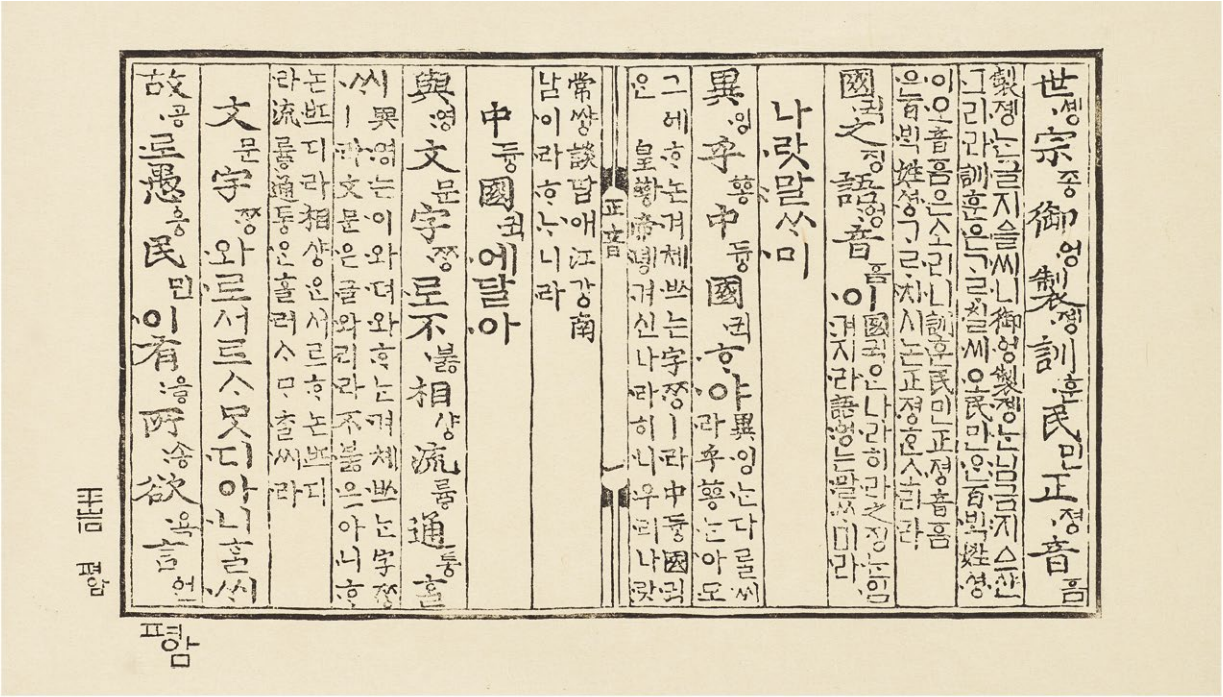
2007년 12월 문화재청에 제출된『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학술연구 용역사업 보고서(연구책임자 : 국어사학회 조규태 회장, 공동연구원 : 김주원, 이현희, 정우영, 이호권, 연구보조원 : 정상훈, 이유미)를 2008년 1월 16일 문화재청 간행물로 공개하였다. 필자는 이 보고서를 한재영으로부터 받았으며 정본 1a와 1b를 합하여 한장으로 필사하였다.

언해諺解

중국어 곧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번역飜譯은 어떤 언어로 표기된 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표현할 경우에 두루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인 데 대하여 '언해'는 주로 중국어나 한문을 국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에만 사용된 번역 용어이다. 이 밖에도 내용상 약간 차이는 있으나 현토懸吐·석의釋義·음해音解·훈의訓義·역훈譯訓·언석諺釋 등의 명칭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국어로 표현하는 경우는 '번역' '신역' '신번新飜' 등으로 불리었다. 최초의 언해는『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이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약 50년간에 출현한 번역서는 전·부전傳不傳을 합하여 40여 책, 200여 권에 이른다.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복각 1. 훈민정음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희방사본喜方寺本, 15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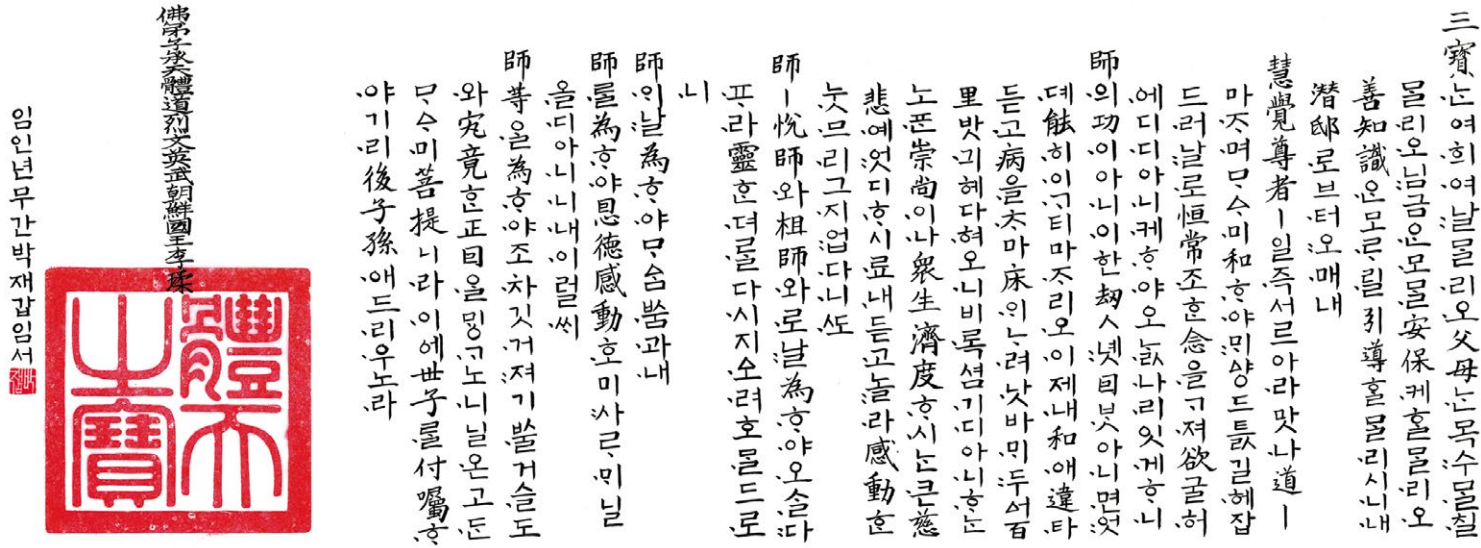
원본 크기 : 31.8x21.9cmx2장
작품 크기 : 30.0x52.0cm
자료 제공 : 정진웅

나무에 복각, 박재갑, 2018. 5.

한국서각사 송전 정진웅으로부터 2016년부터 서각을 배우며 어려워도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훈민정음 언해본 판각을 시작하였다. 정진웅으로부터 목판 인쇄된 언해본 첫 장을 받고 의문이 들었다. 이 인쇄된 내용의 출처가 어디인가? 국어학자 박갑수에게 문의를 한 결과 희방사본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첫 장의 오각誤刻이 증거라고 하였다. 즉 우리나랏을 우리나탓으로 즉 랏을 탓으로 오각한 것이 희방사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탓을 랏으로 바꾸어 판각하였다. 2016년 12월 14일 은행나무에 서각을 시작하였지만 마무리는 2018년 5월 25일에 하였다. 2018년 5월 28일과 6월 3일 한지에 프린팅 잉크로 목판 인쇄하였다.

관지款識에 새겨진 아호雅號 평암平巖은 붕우朋友 관정觀亭 박상철이 박재갑을 위하여 지어 주었다. 평平은 고르게平平 한다는 의미와 평정平征한다는 의미가 병존하며, 암巖은 바위, 특히 험한 바위를 뜻하며 발음상 암癌과 상통하므로, 평암의 세 가지 의미는 1)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는 의미, 2) 인류의 숙원인 암을 정복하고 무병장수 시대를 열게 된다는 의미, 3) 그리고 본인의 성격을 잘 다스려서 큰 인물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三寶ᄂᆞᆫ여희여날ᄆᆞᆯ리오父母ᄂᆞᆫ목ᄉᆞᆫᄆᆞᆯ칠
ᄆᆞᆯ리오님금ᄋᆞᆫ모ᄆᆞᆯ安保케ᄒᆞᆯᄆᆞᆯ리오
善知識ᄋᆞᆫ모ᄅᆞᆫᄅᆡᆯ引導ᄒᆞᆯᄆᆞᆯ리시니내
潛邸로브터오매내
慧覺尊者ㅣ일즉서르아라맛나道ㅣ
마ᄌᆞ며ᄆᆞᅀᆞ미和ᄒᆞ야ᄆᆡ샹드틄길헤잡
드러날로恒常조ᄒᆞᆫ念을ᄀᆞ져欲굴허
에디디아니케ᄒᆞ야오ᄂᆞᆰ나리잇게ᄒᆞ니
師의功이아니이한刹ㅅ녯目붓아니면엇
뎨能히이ᄀᆞ티마ᄌᆞ리오이제내和애違타
듣고病을ᄎᆞ마床의ᄂᆞ려낫바ᄆᆡ두서ᄇᆞ
里밧긔혜다혀오니비록셤기디아니ᄒᆞᆫᄃᆞ
노픈崇尙이나衆生濟度ᄒᆞ시ᄂᆞᆫ큰慈
悲예엇디ᄒᆞ시료내듣고놀라感動ᄒᆞᆫ
ᄂᆞᆺᄆᆞ리그지업다니ᅀᆞ
師ㅣ悅師와祖師와로날爲ᄒᆞ야오ᄉᆞᆯ따
ᄑᆞ라靈ᄒᆞᆫ뎌를다시지ᅀᆞ려호ᄅᆞᆯ드로
니
師의날爲ᄒᆞ야ᄆᆞᅀᆞᆷ뽐과내
師를爲ᄒᆞ야恩德感動ᄒᆞ미ᄉᆞᄅᆞ미닐
ᄋᆞᆷ디아니니내이럴씨
師等ᄋᆞᆯ爲ᄒᆞ야조차깃거져기뽈거ᄉᆞᆯ도
와宛竟ᄒᆞᆫ正目을밍ᄀᆞ노니닐온고ᄃᆞᆫ
ᄆᆞᅀᆞ미菩提ㅣ라이예世子를付囑ᄒᆞ
야기리後子孫애드리우노라

佛法僧體道烈文英武朝鮮國王李瑈

임인년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32.5x12.0cmx첩
작품 크기 : 32.5x145.0cm
자료 제공 : 성파, 문화재청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우리聖上이귀天命을받ᄌᆞ오샤東녁나
라흘다시밍ᄀᆞ르시니만ᄒᆞᆫ民이다ᄉᆞ라
便安ᄒᆞ며네ᄀᆞ시便安ᄒᆞ야져그니업ᄉᆞ
며크니업시다天地ㅅ아ᄅᆞᆷ恩을닙ᄉᆞ
오니쇼히며쥬이뉘갑ᄉᆞ올뜬디업ᄉᆞ
리오마ᄅᆞᆫ오직뫼딴ᄒᆞᆫ恩이므거우시
고터럭만ᄒᆞᆫ히믄젹ᄉᆞ오니江陵ᄯᆞᆺ五
臺ᄂᆞᆫ天下애일흠난山이며文殊겨신
ᄯᆞ히라靈異ᄒᆞ미번ᄃᆞ기나ᄃᆞ니上院
寺ᄂᆞᆫ더욱勝ᄒᆞᆫᄯᆞ히라우리衣鉢다
내야이뎌를다시지ᄉᆡ福비ᄉᆞ올ᄯᆞ홀
삼고져ᄒᆞ숩다소니

兩殿이듣ᄌᆞ오시고特別히
綸命을ᄂᆞ리오샤니ᄅᆞ샤ᄃᆡ증내날爲ᄒᆞ야
뎌를지ᄉᆞ려ᄒᆞᆯ씨내반ᄃᆞ기도아나랏
사ᄅᆞᆷ과로利를너표려ᄒᆞ시고

御衣현ᄇᆞᆯ내시며ᄇᆞᆯ와布貨와土木ᄇᆞᆯ
ᄭᆡ슬주라ᄒᆞ시니우리特別히달이맛니
몰받ᄌᆞ와죠고맛精誠으로뫼ᄀᆞ튼
목ᄉᆞ믈돕숩고져ᄒᆞ숩다소니힝혀
님ᄀᆞᆺ귀예ᄉᆞ믜차이큰布施겨시니

三寶ㅣ일로더욱노프며法輪이일로다시올
ᄆᆞ리니너비願ᄒᆞᆫ듣모ᄃᆞ어ᄃᆡᆫ施主와보
며드로매미ᄎᆞ닌다歡喜를내야ᄒᆞᆫ가지
로菩提心을내야모다德ㅅ根源을심거
우흐론

聖壽를ᄀᆞᆺ업수믈비ᄉᆞ오며아래론큰福을
億萬歲예길에ᄒᆞ야福利ᄀᆞᆺ업서現在
와未來왜다利益게ᄒᆞᆯ뜨니라

天順八年騰月 十八日 信眉

世間애ᄂᆞᆷ금重ᄒᆞᆫ이리잇ᄂᆞ니
三寶와父母와님금과善知識괘니

훈민정음 창제 20년 후에 쓰인 필사본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의 경우는 오히려 당시 유행하던 해서楷書나 행서行書에 가까운 운필運筆의 리듬으로 필사되었다.

이는 훈민정음의 초기 자형이었던 고전체가 실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한다. 그만큼 세종의 선택은 문자로서의 실용성을 희생하는 인위적인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전서의 권위성을 훈민정음에 이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청주, 국립청주박물관, 2011년, 43~55쪽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씀

우리 성상聖上께서 크게 천명天命을 받으셔서 동녘 나라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民]이 다스려져 편안便安하며, 네 가[邊方]가 편안便安하여 적은 이 없으며 큰 이 없이 다 천지天地의 아람치의 은전恩典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속인俗人이며, 승가僧伽 중 누가 〈은혜를〉 갚을 뜻이 없으리오마는 오직 산山만한 은혜恩惠가 무겁고 터럭만한 힘은 적습니다. 강릉江陵 땅의 오대五臺는 천하天下에 이름난 산이며, 문수보살文殊菩薩이 계신 땅이어서 영이靈異함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상원사上院寺는 더욱 수승殊勝한 땅이어서 우리들이 의발衣鉢을 다 내어 이 절을 다시 지어 복福 빌 땅을 삼고자 하였었습니다.

양전兩殿께서 들으시고 특별特別히 윤명綸命을 내리게 하시어 이르시되, "승려들이 나를 위하여 절을 지으려 하므로 내가 반드시 도와서 나라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利를 넓히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의御衣 몇 벌을 내시며, "쌀과 포화布貨와 토목 공사土木工事에 쓸 것을 주어라."라고 하시니, 우리가 특별特別히 달리 만남을 받들어 조그마한 정성精誠으로 산과 같은 〈임금의〉 목숨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임금의 귀에 들리어 이와 같은 큰 보시布施가 계시니 삼보三寶가 이로써 더욱 높으며, 법륜法輪이 이로써 다시 구를 것이니, 널리 원願하는 것은 모든 어진 시주施主와 보고 들음에 다다른 이는 다 환희심歡喜心을 낼 것입니다. 〈또한〉 함께 보리심菩提心을 내어 모두 덕德의 근원根源을 심어서 위로는 성수聖壽가 끝이 없음을 빌며, 아래로는 큰 복福을 억만세億萬歲에 길게 하여 복리福利가 끝이 없어 현재現在와 미래未來가 다 이익利益되게 할 것입니다.

천순 팔년 섣달 열여드렛날 신미 수결, 수결, 행담, 성민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씀」,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권선문 어첩 - 세조世祖 씀

세간世間에는 일곱 중重한 일이 있느니, 삼보三寶와 부모父母와 임금과 선지식善知識이다. 삼보三寶는 여의어 나는 으뜸이고, 부모父母는 목숨을 기르는 으뜸이고, 임금은 몸을 안보安保케 하는 으뜸이고, 선지식善知識은 모르는 이를 인도引導하는 으뜸이시니라.

내가 잠저潛邸로부터 옴에 나와 혜각존자慧覺尊者가 일찍이 서로 알았다. 만나 도道가 맞으며 마음이 화和하여, 매양 티끌 길(험한 세상)에서 붙들어 나로 하여금 항상恒常 깨끗한 생각을 가지게 했다. 〈또한〉 욕망慾望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대사大師의 공功이 아니겠느냐?

여러 겁(劫)의 옛 인연因緣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이 맞겠느냐. 이제 내가 화和에 어긋나다 듣고 병病을 참고 상床에서 내려 낮과 밤에 수백리數百里 밖에서 분주히 다니어 오니, 비록 섬기지 아니하는 높은 숭상崇尙이나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시는 큰 자비慈悲에 어찌 하시겠느냐.

내가 듣고 놀라 감동感動한 눈물이 그지없었다. 또 대사大師가 학열學悅 스님, 학조學祖 스님과 함께 옷을 다 팔아서 영靈한 절을 다시 지으려 함을 들었다. 대사大師가 나를 위하여 마음을 씀과 내가 대사를 위하여 은덕恩德에 감동함이 사람이 이를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러므로 대사大師 등을 위하여 좇아 기뻐하여 조금 쓸 것을 도와서 구경究竟한 정인正因을 만드니, 이른바 '곧은 마음이 보리菩提'이니라.

이에 세자世子를 부촉付囑하여 길이 후자손後子孫에 드리우노라.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어첩 - 세조世祖 씀」,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1.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씀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惟我聖上誕膺天命冉[再]造東夏兆民乂安四〖域〗寧謐無小無大共被天地之私若蒙若釋[釋]疇無報效之志頭[顧]丘山恩重毫髮力微江陵五臺天下名山文殊住處[處]靈異現顯上院寺尤其勝地某等[等]竭衣鉢之貯重創於是寺以爲祝釐之所兩殿聞之特降綸命 若曰僧等[等]為[爲]我欲創伽藍余當

補助與國人廣利出御衣若干襲命〖輸〗米布土木之費以某等[等]特承殊遇區〃洎埃之誠欲裨岡陵之筭幸徹宸聰有此

大施三寶以之增崇法輪以之重轉普願[願]諸善檀那見聞所及悉[悉]生歡喜同發[發]菩提共植德[德]本上祝聖壽於無彊〖疆〗下延洪祚於億載福利無邊現〖未〗俱益云

天順八年臘月十八日

信眉, (수결), (수결), 行湛, 性敏

2. 권선문(어첩) - 세조世祖 씀

世間有七重三寶及父母君善知識三寶爲出離之宗父母爲育命之宗君爲保身之宗善知識爲導迷之宗自予潛[潛]邸以来[來]我慧覺尊者早相知遇道合心和每提

攝於塵路使我恒懷淨念不沉[沈]欲坑致有今日非師之功耶非多刼[劫]之宿因安能如是契合耶今聞我違和力疾下床晝夜奔來數百里之外雖不事之高尚若度生之大悲予聞驚動感淚無窮又

聞師與悅師祖師爲我盡賣衣資重創靈刹師之爲我用心我之爲師感恩非人所〖述〗我故爲師等[等]隨[隨]喜畧助所費爲宄[究]竟之正因所謂直心菩提者也於是付囑世子永垂後嗣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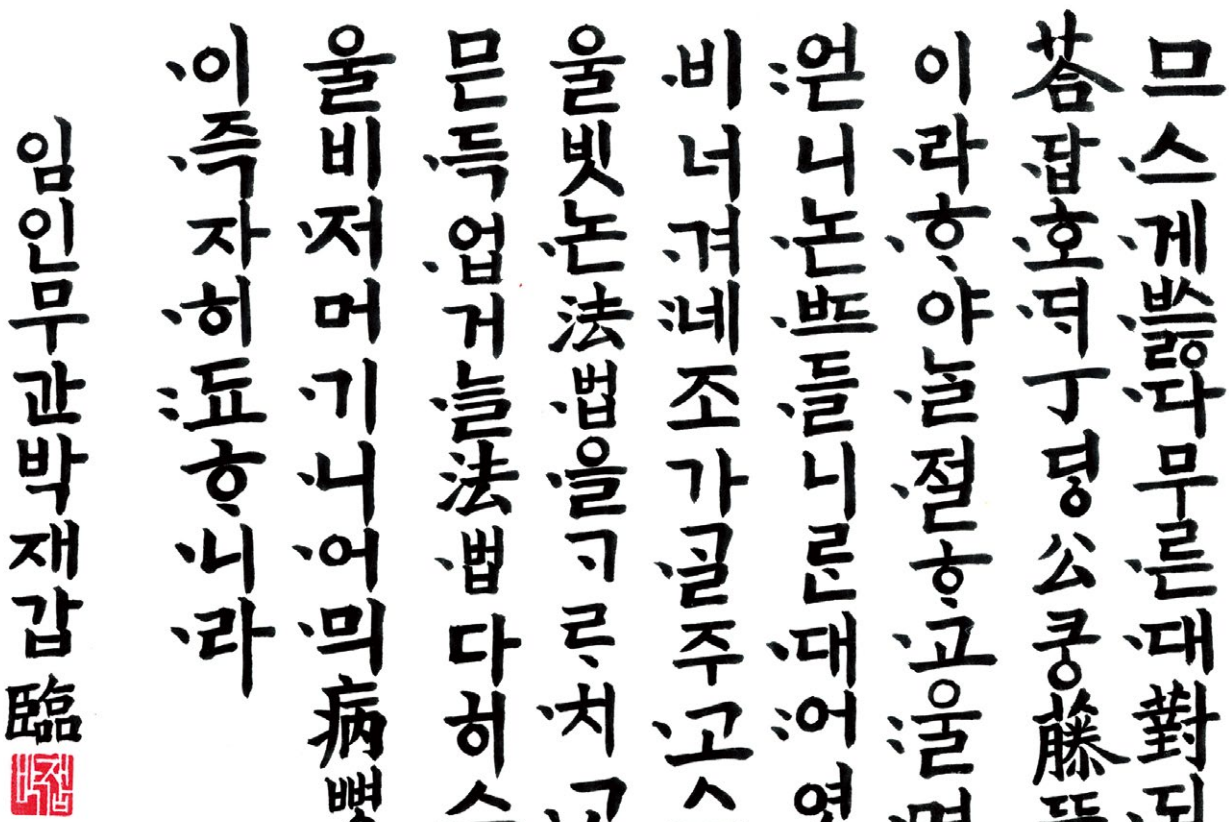
박은 임서시 행담行湛과 성민性敏은 생략하고 신미信眉만 필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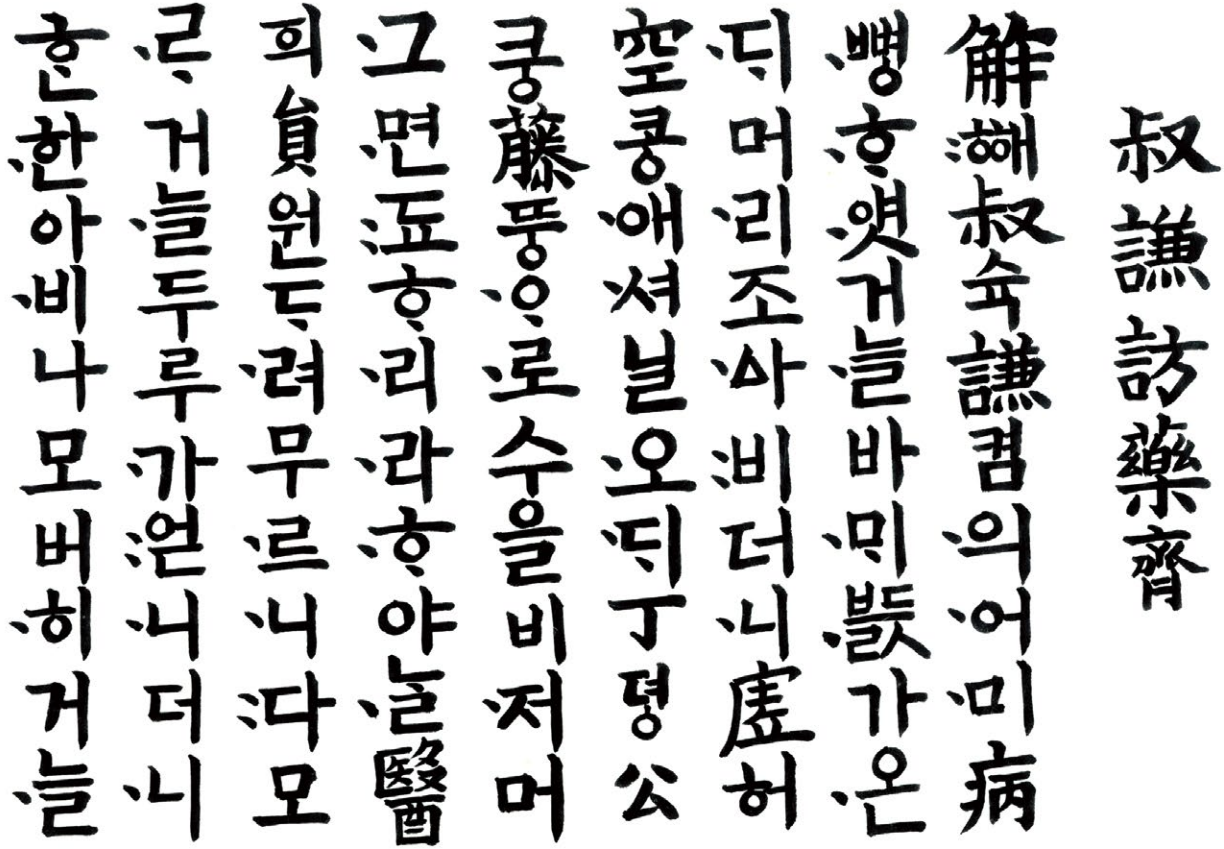
『역주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책에 실려있는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의 원문이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에도 그대로 공유되고 있는데 잘못 입력된 한자가 다섯군데〖하늘색〗으로 표시)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이체자異體字로 입력된 스무자[초록색]으로 표시)는 향후 필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체자正體字를 넣었다.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1. 8.

김무봉,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 『역주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35~56쪽

4. 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원본 크기 : 4.5x11.0cm 추정(김정수, 2023.1.4.)
작품 크기 : 32.0x69.0cm
자료 제공 : 최홍식,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를 최초로 편찬한 것은 1431년(세종 13)이며, 이를 세종은 다시 국역(언해)하도록 세종 26년에 시행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종 12년인 148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언해본에 실린 인물은 한문본의 330인 중에서, 효자, 충신, 열녀 각각 35인을 뽑아 모두 105인을 그림과 함께 엮고 있으니, 이는 세종 16년에 간행된 한문본『삼강행실도』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여기에 실린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의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인물이 16명이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3권 1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필사에 사용한 모본은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이 제공한『역주삼강행실도』에 수록된 그림 위에 실린 언해를 사용하였다. 이 역주의 저본으로,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도서 기호 15113.e.2)에 간수된『삼강행실도』(1481년 추정)의 그림 위에 실린 언해이다.

「숙겸방약叔謙訪藥」, 제나라

해 숙겸叔謙의 어미 병들었기에 밤에 뜰 가운데 머리 조아려 빌더니, 허공에서 이르되, "정공등丁公藤으로 술 빚어 먹으면 나으리라." 하기에, 의사한테 물으니 다 모르므로 두루 가서 얻으러 다니는데, 한 할아비가 나무 베기에 "무엇에 쓸 것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정공등이다." 하기에 절하고 울며 얻으러 다니는 뜻을 말하니까, 어여삐 여겨 네 조각을 주고 술 빚는 법을 가르치고 문득 사라지니, 법대로 술 빚어 먹이니 어미 병이 즉시 나았다.

김정수,『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45쪽

『삼강행실도』에 관하여

김정수(한양대학교 교수)

1. 서언

세종이 명을 내려 간행한『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등 당시 백성의 교육을 위해 일련의 조선시대 윤리와 도덕 교과서 중 가장 먼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읽힌 책으로서 기념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효孝·충忠·정貞의 삼강三綱이 조선시대의 사회, 나아가서 나라 존립의 정신적 기반으로 되어 있던 만큼 사회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 서지학적으로도『삼강행실도』는 조선 삽화揷畵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 간본의 변천은 곧 조선 삽화의 변천이 될 수 있어 문화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2. 삼강행실도의 편찬과 간행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한문본과 언해본이 있다.

조선 세종 10년(1428)에 진주의 김화金禾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서 대신들과 의논하게 되었는데, 세종은 직제학 설순偰循이 책임자가 되어 집현전에서 백성을 교화敎化시킬 수 있는 새로운 책을 편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 세종은 특히 효孝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십사효二十四孝(원나라 곽거경 편찬)에 새로 중국의 이름난 효자 20여 명을 증보하고, 또 우리나라 삼국三國과 고려高麗 시대의 효자로서 특출한 자들도 함께 모아 엮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책은 세종 14년(1432) 6월에 초고가 완결되어 임금에게 올려졌는데, 이듬해에 각판이 완료되자 정초鄭招에게 발문을 작성케 하여 16년(1434) 11월 25일 인출印出함으로써 종친과 신료들, 그리고 각 도各道에 반포하게 되었다. 권채權採의 서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기록된 것 가운데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속에서 효자, 충신, 열녀를 각각 110명씩을 뽑아 그림을 앞에 새겨놓고, 그 행적을 뒤에 적되 찬시讚詩를 한 수씩 붙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한문본 삼강행실도』이다.

이 책은 이후 후대에서 여러 번 간행되었으며, 성종 12년에는 열녀도만을 언해 하여 언문 삼강행실 열녀도를 찍어 간행한 적도 있지만, 이른바『언해본 삼강행실도』가 나온 것은 성종 21년의 일이다.

성종 20년(1489) 6월, 경기 관찰사 박숭질朴崇質이 성종에게 아뢰기를, '세종조에는『삼강행실도』를 중외에 반포해서 민심을 선도하였는데, 이제 책이 귀해져서 관청에서조차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일반이 읽기 힘드니, 이것을 선

록選錄하여 축소하되 목판인쇄는 매우 어려우니 활자活字로 인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성종이 즉석에서 이를 받아들여 내용을 추려 1책으로 산정본刪定本을 간행케 명하였다. 이 언해본은 성종 21년(1490) 4월에 인출 반포되었는데 현존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산정본을 그대로 중종 5년(1506)에 재간행하였으니 이것이 지금 남아 전한다. 이후 중중, 명종, 선조, 영조 때에 계속해서 간행된 이본들이 전하고 있다. 이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효자, 충신, 열녀를 각각 35명씩 뽑아 모두 105명, 즉 원래 3권 3책인 것을 1책으로 대폭 축소하여 펴내게 된 것이다.

3. 세종의 『삼강행실도』 간행 기록

원고 검토가 끝난 원고본 『삼강행실도』는 권채의 서문에 의하면 곧 주자소에 넘겨져서 판각에 들어간 모양이며, 이 목판 작성은 원고본 완료부터 8개월 뒤인 세종 15년(1433) 2월에 완료되고 있다. 주자소는 이름 그대로 활자로 정부의 간행물을 간행하는 인쇄소였지만 목판 인쇄도 하였으며 세종 초간본의 글자체가 태종 조의 계미자도 아니고 바로 그해에 새로 주조한 갑인자甲寅字와도 다르며, 명나라 초기의 관간官刊본에서 볼 수 있는 위부인체衛夫人體의 소위 한림체일 뿐 아니라 중국 명초 판본처럼 구두점까지 찍혀 있어서 이 특별본 출판을 위해서는 명체明體에 능한 문신이나 사자원寫字員을 시켜서 원고를 고치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해서 1433년 2월에 판각이 완료되자 세종은 예문 대제학 정초에게 발문을 작성케 하였고, 다시 1년 2개월 뒤인 1434년 4월에는 중추원사 윤회에게 『삼강행실도』 간행 반포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는 임금의 교서를 쓰게 하였으며, 이 교서를 붙여서 인출하여 마침내 그해 11월 25일 삼강행실도 간행본이 종친과 신료들, 그리고 각도로 반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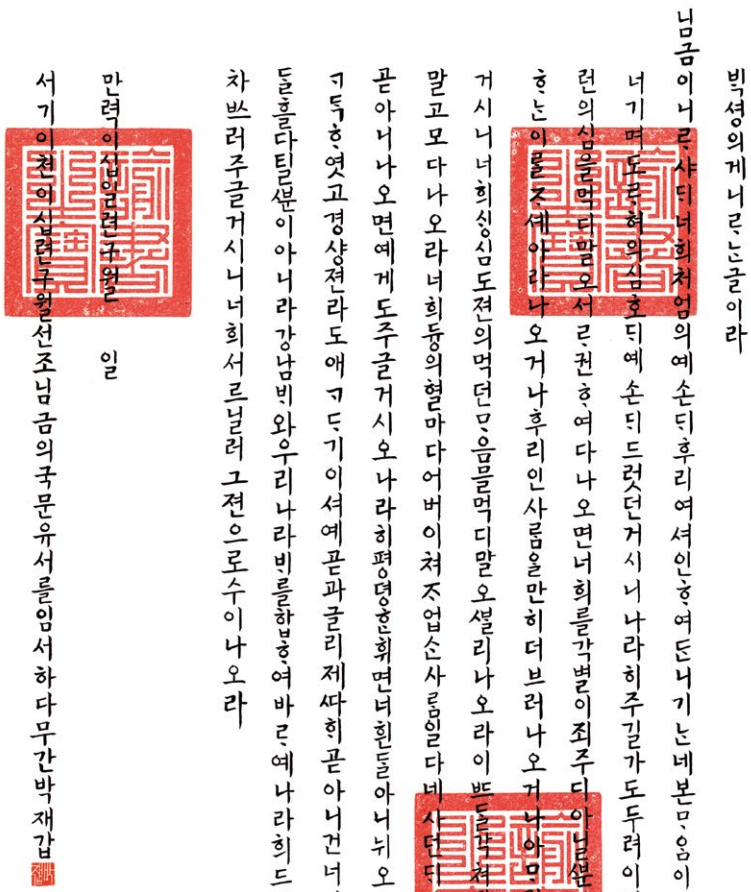
이상의 『삼강행실도』 초간본 간행 경위를 연대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 10년(1428) 10월 『삼강행실도』 편찬 하명
세종 14년(1432) 6월 원고본 완료 진상
세종 15년(1433) 2월 주자소 판각 완료. 발문 작성
세종 16년(1434) 4월 교지 작성
세종 16년(1434) 11월 내외 반포

이상과 같은 진행 경위를 볼 때 언제 인쇄하였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433년 2월 판각 완료와 함께 발문이 만들어졌고, 그 발문이 추각된 단계에서 인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초인본初印本이 임금에게 진상되어 그것을 검토한 후 반포의 교지가 1434년 4월에 작성되고, 그 교지가 또 추각되어 드디어 완성본으로서 인쇄되고 제본 완료된 것이 1434년 11월인 것이다. 따라서 1433년 2월에서 1434년 4월까지의 14개월 동안은 『진삼강행실도進三綱行實圖』에서 발문에 이르는 중심부의 인쇄와 세종의 재검토 기간이었고, 그 뒤 교지를 추각 제본하는 데 143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이 걸린 셈이다.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7-10쪽

5.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1593년



빅셩의게니ᄅᆞ는글이라

님금이니ᄅᆞ샤ᄃᆡ너희처엄의예손ᄃᆡ후리여셔인ᄒᆞ여ᄃᆞ니기ᄂᆞ는네본ᄆᆞ음이아니라나오다가예손ᄃᆡ들려주글가도

너기며ᄃᆞᆫᄒᆞ여의심호ᄃᆡ예손ᄃᆡ드럿ᄃᆞᆫ거시니나라히주길가도두려이제드리나오ᄃᆡ아니ᄒᆞ니이제란너희그

런의심을먹ᄃᆡ말오서ᄅᆞ권ᄒᆞ여다나오면너희를각별이죄주ᄃᆡ아ᄂᆞᆫ셔아니라그등에예를자바나오거나예

ᄒᆞ는이를ᄌᆞ세아라나오거나후리인사람을만히더브러나오거나아ᄆᆞ란공이시면냥쳔물론ᄒᆞ여벼슬도ᄒᆞ일

거시니너희ᄉᆡᆼ심도젼의먹ᄃᆞᆫᄆᆞ음을먹ᄃᆡ말오셜리나오라이ᄯᆞᆫ로처쟝슈의손ᄃᆡ다알외여시니ᄉᆡᆼ심도의심

말고모다나오라너희등의혈마다어버이쳐ᄌᆞ업손사람일다네시ᄃᆞᆫᄃᆡ도라와네대로도로살면우연ᄒᆞ랴이제

곧아니나오면예게도주글거시오나라히평뎡ᄒᆞᆫ휘면너희ᄃᆞᆯ아니뉘오ᄎᆞ랴ᄒᆞ믈며당병이황히도와평안도애

ᄀᆞᄃᆞᆨᄒᆞ엿고경샹젼라도애ᄀᆞᄃᆞ기이셔예곧과글리제ᄯᆞ히곧아니건너가면요ᄉᆞ이합병ᄒᆞ여부산동ᄂᆡ인ᄂᆞᆫ예

ᄃᆞᆯ흘ᄃᆞ틸분이아니라강남빅와우리나라빅를합ᄒᆞ여바ᄅᆞ예나라희드러가다분탕흘거시니그저기면너희조

차쁘러주글거시니너희서ᄅᆞ닐러그젼으로수이나오라

만력이십일년구월ᄂᆞᆯ 일

서기이천이십년구월선조님금의국문유서를임서하다무간박재갑

원본 크기 : 80.0x40.0cm
작품 크기 : 91.0x59.0cm
자료 제공 : 부산시립박물관

선조 백성유환 교서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다.

임금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처음에 왜에게 속임을 당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기는 너희 본 마음이 아니라, 나오다가 왜의 손에 들려 죽을까도 여기며 도로 의심하되 왜에게 들었던 것이니, 나라가 죽일까도 두려워 이제 들어가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는 너희가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두 나오면 너희를 각별히 벌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왜를 잡아 나오거나, 왜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 나오거나, 속인 사람을 많이 더불어 나오거나, 아무 공이라도 있으면 양천을 가리지 않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생심도 전에 먹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너라. 이 뜻을 각처의 장수에게 모두 알게 하였으니, 생심도 의심하지 말고 모두 나와라. 너희 중에 설마 모두 어버이,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살던 곳에 돌아와, 옛날처럼 도로 살면 훌륭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왜에게도 죽을 것이요, 나라가 평정한 이후이면 너희인들 아니 뉘우치랴? 하물며 당병이 황해도 평안도에 가득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왜가 곧 급히 제 땅에 곧 아니 건너가면, 요사이 합병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들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나라에 들어가 다 분탕할 것이니, 그때면 너희조차 쓸어 죽을 것이니, 너희가 서로 일러 그 전에 빨리 나오너라.

선조 26년 서기 1593 9월 일

한재영, 심보경, 「선조교서(백성유환교서)」,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15~18쪽

* 본 작품은 부산시립박물관 유물 관리팀을 통하여 선조국문유서를 기탁한 안동권씨 판결공파 종친회로부터 2020년 5월 8일 사용 허락을 받고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아 글자의 배열을 가지런히 한 후에 모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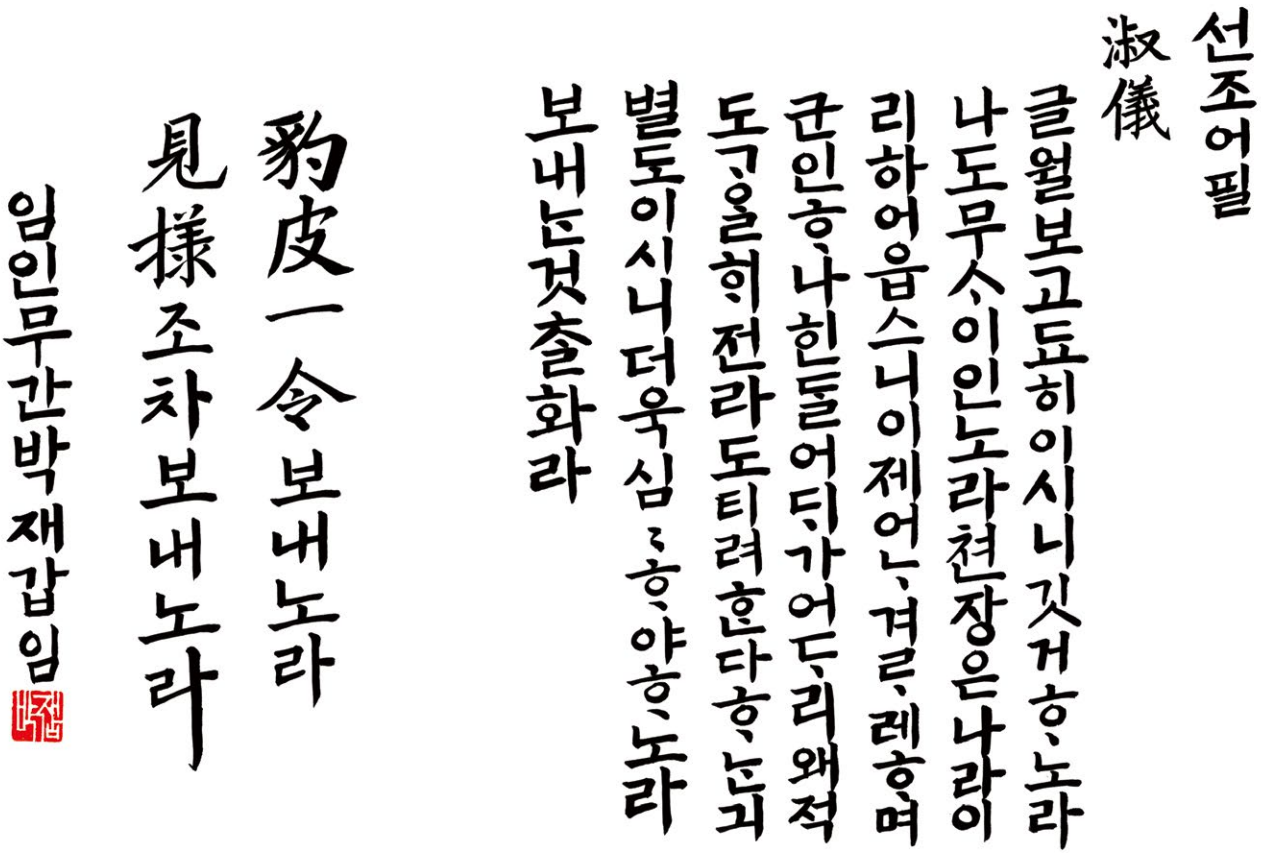
『선조국문유서 宣祖國文諭書』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에 피신해 있을 당시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교서이다. 장지에 10행 429자로 작성했으며,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세 군데 찍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조선인이 포로가 되어 왜군에게 협력했는데, 선조는 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교서를 반포함으로써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해 돌아오게 하였다. 이 유서는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오기 한 달 전에 내려진 것인데, 당시 김해성을 지키던 장수 권탁權卓(1544~1593)은 이 문서를 가지고 적진에 침투해 적병 수십 명을 죽이고 포로 100여 명을 구출해 돌아왔다. 이 교서는 권탁의 후손이 보관하다가 1854년, 철종 5, 김해시 흥동에 어서각御書閣이 건립되면서 이곳에 보관되었다. 유서의 내용은 강제로 왜인에게 붙들려 간 백성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왜군을 잡아 오거나 왜군의 정보를 알아오는 사람, 또는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들을 설득해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천민, 양민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사용된 한글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선조 찬, 1593년(선조 26), 1장, 필사, 80.0x40.0cm, 부산시립박물관(권이도 기탁), 보물 제95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6. 선조가 숙의에게宣祖가 淑儀에게, 1597년, 선조 30년



원본 크기 : 19.8x31.5,
작품 크기 : 36.0x47.0cm,
자료 제공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2022. 10. 11.
자료 출처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11쪽

숙의에게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나도 무사히 있다. 천장遷葬은 나라 일이 너무 어이없으니 이제 어느 겨를에 하며, 군인 하나인들 어디 가서 얻을까. 왜적도 가을에 전라도를 치려 한다고 하는 소식도 있으니, 더욱 심란하여 한다. 보내는 것 챙겨라.

표피1영 보낸다. 견양(본)도 함께 보낸다.

일본이 동병하여 전라·제주를 유린할 것이라는 내용의 비밀 장계가 오다. 경상우도 병사慶尙右道兵使 김응서金應瑞의 비밀 장계秘密狀啓가 왔다.【그 대략은 정승헌鄭承憲이 왜장倭將 풍무수豊茂守와 문답한 왜의 정세에 대한 일로 관백關白이 50만의 군대를 일으키면서 우선 30만의 군사를 먼저 내보내 전라도·제주도 등을 유린하고, 의령宜寧·경주慶州의 산성은 기필코 공파攻破한 뒤에야 그만둘 것인데 6～7월 사이에 발동시킨다 하였다.】

○慶尙右道兵使金應瑞秘密狀啓。【大槪鄭承憲與倭將豐茂守問答倭情事。 關白起五十萬, 三十萬爲先發送, 蹂躪全羅、慶尙、濟州等, 宜寧、慶州山城, 期於攻破而後乃已, 六七月間發動云。】

【태백산사고본】57책 8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23책 246면

【분류】외교-왜倭 / 군사-통신通信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4일, 계유 3번째 기사, 1597년

비고備考

이 간찰簡札은 선조宣祖 30년 8월 왜군倭軍 남원南原 재침再侵의 예보를 듣고 당시 총애를 받고 있던 일궁인一宮人 숙의淑儀에게 보낸 답서答書이다. 따라서 거금距今 360년 전의 현존 최고 언찰이다. 선조 30년 6월 중순에 쓴 것 같음. 천장운운遷葬云云은 누구의 묘墓인지는(덕빈德嬪·공빈恭嬪) 미상未詳이지만, 난중亂中을 당하여 국사國事에 초전焦煎한 일면一面 궁인宮人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염려해 주는 인정人情의 풍만豊滿이 역연歷然하다.

물론, 이 무렵엔 궁전宮殿의 탕폐蕩弊로 말미암아 의주義州에서 환도還都 이후로 월산대군月山大君 사저私邸 석어당昔禦堂에 있었으니, 왕족王族 궁인宮人이 각각 산재散在하면서 늘 안부를 교환하였던 것으로 본다.

점선點線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피봉皮封과 본문과 별기別記 삼부분三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문은 판각자版刻字로 쓰고 별기別記는 개성적인 자유필自由筆로 된 것은 흥미 있는 점이다.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13~14쪽

宣祖大王 御筆 諺簡

(※……은 각각 딴 종이라는 표)

淑儀

……

글월 보고 됴히 이시니 깃거ᄒᆞ노라 나도 무사이 인노라 천장 은 나라 이리 하어읍스니 이제 어나 겨라레 하며 군인 한나힌달 어다 가 어다리 왜적도 가알해 전라도 티려한다 하난 긔별 도 이시니 더욱 심심하야 하노라 보내난 것 찰화라

글월 보고 됴히 이시니 깃거ᄒᆞ노라 나도 무ᄉᆞ이 인노라 천장은 나라 이리 하어읍스니 이제 어ᄂᆞ 겨ᄅᆞ레 ᄒᆞ며 군인 ᄒᆞ나힌ᄃᆞᆯ 어ᄃᆡ가 어ᄃᆞ리 왜적도 ᄀᆞ올히 전라도 티려ᄒᆞᆫ다 ᄒᆞᄂᆞᆫ 긔별도 이시니 더욱 심〃 ᄒᆞ야 ᄒᆞ노라 보내 ᄂᆞᆫ 것 ᄎᆞᆯ화라

……

표피豹皮 일령一令 보내노라

견양見樣 조차 보내노라

淑儀 : 內命婦(後宮)의 한 사람. 從二品, 姓名 未詳.[後記 F1]皮封 正面에 記錄되었으며, 이 簡札의 受信人이다

遷葬 : 移葬, 德嬪尹氏 或은 恭嬪에 關한 일이 아닌가? 같은 內命婦로서 그들의 葬事에 關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읍스니 : 〈어업스니〉 〈에업스니〉의 誤記로 보고 〈틈이 없다. 정신없다〉? 顯宗御筆에 〈에보아 못오ᄋᆞᆸ시리잇가〉또 權相老님의 말에 依하면 現用語에 〈틈이 없다〉는 뜻으로 〈에가 있어야지〉란 말이 있다 함.

倭賊도… : 宣祖 30年 8月에 倭軍南原再侵의 豫報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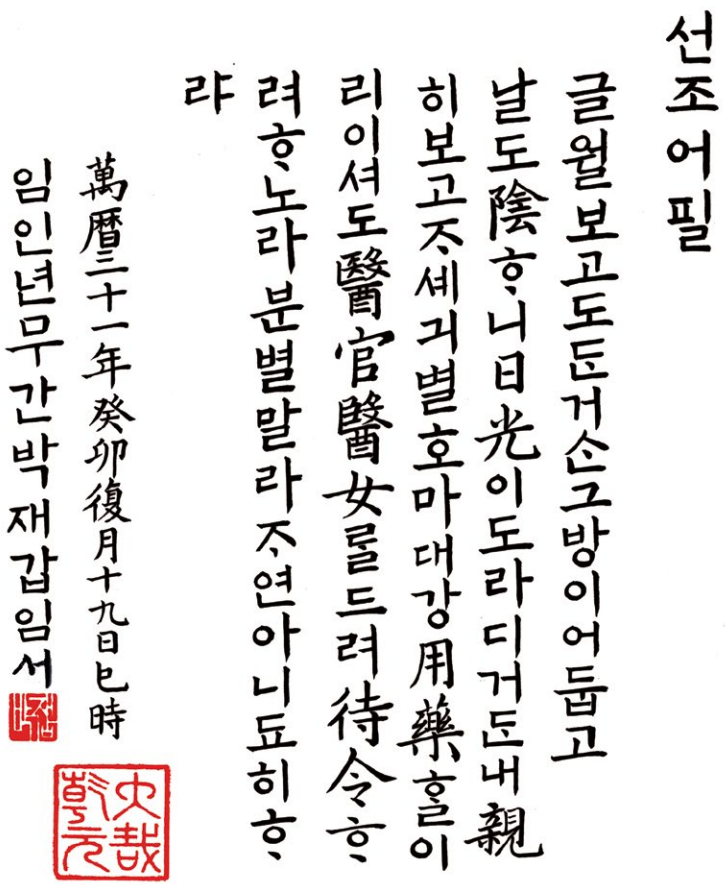
긔별… : 긔字는 完全히 消滅되었음. 連絡

심심하다 : 마음이 〈설레다〉〈걱정되다〉. 語義의 變動을 볼 수 있음.

찰화라 : 촐호아라〉 整理하라 = 챙겨라.

見樣 : 見本, 樣式, 寸法.

7. 선조어필宣祖御筆, 1603년, 선조 36년 11월 19일



원본 크기 : 28.0x21.2cm
작품 크기 : 38.5x30.0cm
자료 출처 : 金一根, 『諺簡의 硏究 - 한글書簡의 硏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259쪽
자료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10.6 선조 36년(160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M/F85-35-11-D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본 인목왕후필적仁穆王后筆蹟이란 필첩筆帖 첫 장에 있는 것이다. 다음 전 7장에 걸쳐 인목왕후필仁穆王后筆 대자해서大字楷書가 있고, 뒷 표지 속 장에 소예한시小隸漢詩 1수首가 첩부貼付되어 있으니, 이 필첩의 첫 장에 있는 본 언간諺簡도 의례 인목왕후필仁穆王后筆이라 간주될 가능성은 전항前項에서 말한 바와 같다. 역시 대재건원大哉乾元이란 어보御寶가 있고, 만력삼십일

년萬曆三十一年 계묘복월십구일사시癸卯復月十九日巳時란 일부日付가 있으며, 내용도 타자료他資料와 일연성一聯性이 있는 것이니 정숙옹주貞淑翁主에게 쓴 선조宣祖의 언간諺簡임은 확실하다. 이 언간에서 특기할 사항이 있으니, 곧 서지상書誌上·고문서상古文書上의 면에 새로운 현상이 발견된 것이니, 편지의 우측 하단에 서간 내용과 관계없는, 태부위관지휘장겸돈수배太府委官指揮張謙頓首拜란 기록이 있고, 그것이 먹줄로 그어져 있다. 이것은 상대방에서 온 편지의 후미여백後尾餘白에 이 편지를 쓴 까닭에, 그 편지의 후미 서명 부분이 그대로 잔류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궁중宮中과 여염간閭閻間 왕래문서往來文書의 금기禁忌에서 말미암은 현상이다.

요컨대, 명明나라 위관委官 장겸張謙이 궁중宮中에 올린 서간書簡의 후미여백後尾餘白에, 선조宣祖가 이와 같은 단간短簡을 써서 정숙옹주貞淑翁主에게 보내 버림으로써, 외부민간外部民間의 필적이 신성神聖한 궁중에 잔류 않도록 한 결과이다.

이 태부위관지휘장겸돈수배太府委官指揮張謙頓首拜라는 기록 흔적은, 선조 및 여타 군왕언간君王諺簡의 친필 여부 문제를 판명하는 절대적인 근거이다. 만약 궁인 내지 유사有司의 대필代筆이라면, 이런 용지에 신한宸翰을 쓰고 또 자획字劃을 수정하는 불경不敬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머지 다른 자료와 더불어 친필원본親筆原本임에 의심이 없다.

金一根, 『諺簡의 硏究 - 한글書簡의 硏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55~56쪽

안내 정보

이 편지는 선조(연령 52세)가 딸 정숙옹주(연령 17세)에게 보낸 것이다. 수신자가 적혀 있지 않으나, 1603년 11월 중에 보낸 선조의 다른 편지 가운데에 수신자가 정숙옹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어서 이 편지의 수신자도 정숙옹주로 추정하기도 하나, 역시 11월 중에 보낸 선조의 한문 편지에 수신자가 정혜옹주로 적혀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수신자가 누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편지지 여백에 "太府委官 指揮 張謙 頓首拜"라는 구절이 다른 필체로 적혀 있고 줄을 그어 지운 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태부 위관인 장겸이 선조에게 올린 글의 종이 여백을 잘라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다. 『仁穆王后筆蹟』의 첫 장에 성첩되어 있어, 인목왕후의 필적으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원문 텍스트

글월 보고 도ᄃᆞᆫ 거ᄉᆞᆫ 그 방이 어둡고[너 역질ᄒᆞ던 방]
날도 陰ᄒᆞ니 日光이 도라 디거ᄃᆞᆫ 내 親
히 보고 ᄌᆞ셰 긔별호마 대강 用藥ᄒᆞᆯ 이
리 이셔도 醫官 醫女ᄅᆞᆯ 드려 待令ᄒᆞ
려 ᄒᆞ노라 분별 말라 ᄌᆞ연 아니 됴히ᄒᆞ랴
萬曆 三十一年 癸卯 復月 十九日 巳時 인신(大哉乾元)

<주석문>

글월 보고 도ᄃᆞᆫ 거ᄉᆞᆫ 그 방(房)이 어둡고[너 역질疫疾1) ᄒᆞ던 방房] 날도 陰 ᄒᆞ니2) 日光이 도라 디거 ᄃᆞᆫ 내 親히 보고 ᄌᆞ세仔細 긔별寄別호마 대강大綱 用藥 ᄒᆞᆯ 이리 이셔도 醫官 醫女ᄅᆞᆯ 드려 待令 ᄒᆞ려 ᄒᆞ노라 분별分別3) 말라 ᄌᆞ연自然 아니 됴히ᄒᆞ랴4) 萬曆 三十一年 癸卯 復月 十九日 巳時 인신大哉乾元

<주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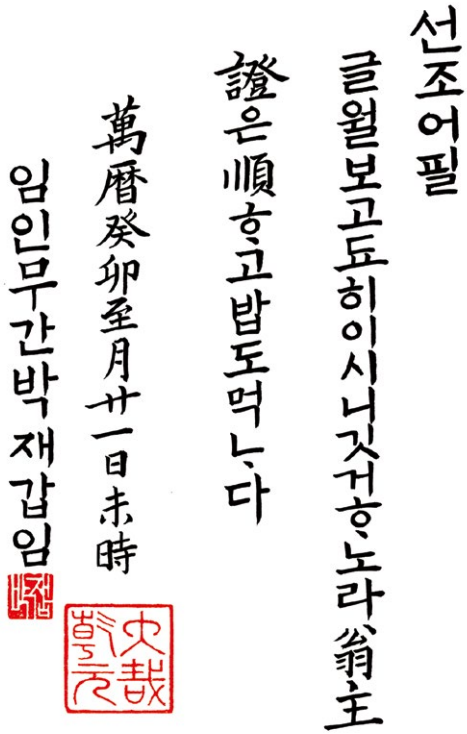
1)역질疫疾 : 천연두天然痘
2)陰ᄒᆞ니 : (날이) 흐리니
3)분별分別 : 걱정. 염려念慮
4)됴히ᄒᆞ랴 : (병이) 나으랴

현대어 역

글월 보고 돋은 것은 그 방이 어둡고(네가 천연두를 앓던 방) 날도 흐리니 햇빛이 돌아 지거든 내 친히 보고 자세히 기별하마. 대강 약을 쓸 일이 있어도 의관과 의녀를 들여 대령하려고 한다. 염려 마라. 자연히 낫지 않으랴. 만력 31년 계묘(1603년) 복월(11월) 19일 사시. 인신大哉乾元

『한글서예변천전』, 예술의전당, 1991.
『조선 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2002.
『朝鮮王朝御筆』 예술의전당, 2002.
「1603년 선조가 옹주에게 보낸 편지」,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

8. 선조대왕어필언간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원본 크기 : 32.6x18.0cm
작품 크기 : 35.0x25.0cm
자료 출처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9쪽

글월 보고 됴히 이시니 깃거ᄒᆞ노라
옹주翁主 증證은 순順ᄒᆞ고 밥도 먹ᄂᆞ다
만력 계묘萬曆 癸卯 지월至月 이십일일廿一日 미시未時 대재건원大哉乾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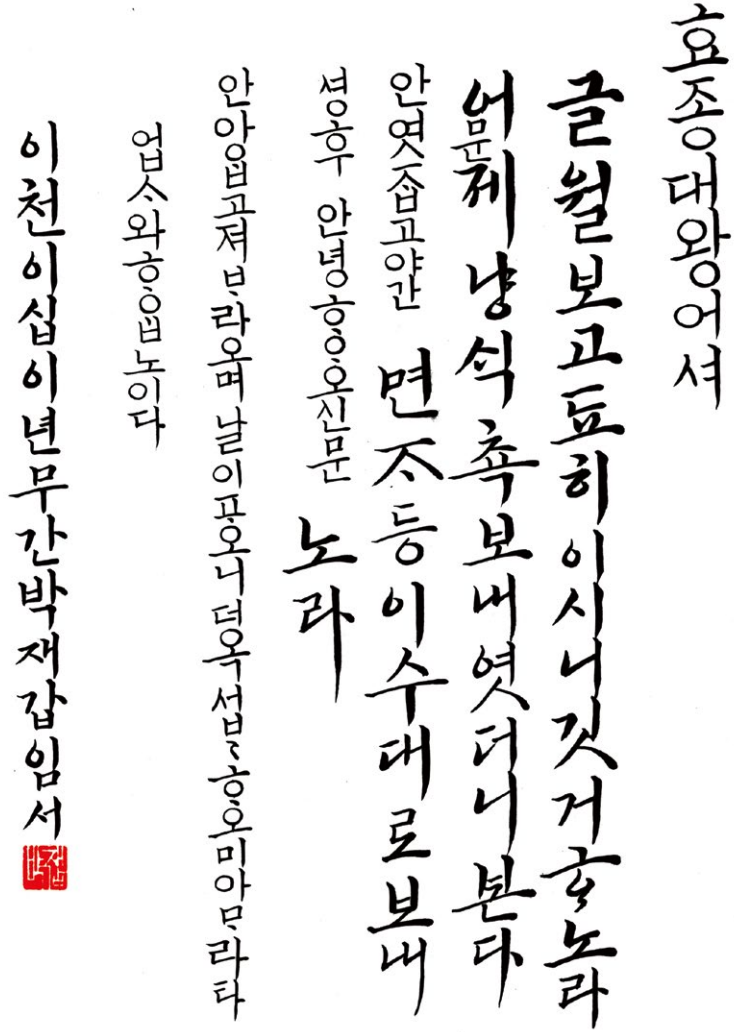
비고備考

정숙옹주貞淑翁主가 동양위東陽尉 심익성沈翊聖께 하가下嫁한 것은 기해년己亥年(선조 32년)이니 만약萬若 이 서간書簡의 수신인受信人이 정숙옹주貞淑翁主라면 하가下嫁 후後 사년四年째의 일이 되는 셈이다. 『근조내간선近朝內簡選』 9면面에서 13면面 사이에 정숙옹주貞淑翁主께 쓴 선조宣祖 간찰簡札이 8편篇이 있는데 그 일자日字가 전부全部 계묘년癸卯年 동짓冬至달 20일日 전후前後이며, 어느 옹주翁主의 두역痘疫에 관關한 것이니, 상기上記 간찰簡札도 그와 일연一連의 것임이 추측推測된다.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5, 7, 13쪽

옹주 : 선조 제삼옹주 정숙옹주께 낸 간찰로 추측이 되는 까닭에 사연중詞緣中의 옹주는 미출가한 어린 옹주의 한 사람을 가리킴. 그 당시 왕세자가 두질痘疾로 서거한 기록이 있음.
만력 계묘 萬曆 癸卯 : 선조36년
지월 입일일 미시 至月 廿一日 未時 : 동짓달 이십일일 오후 3~4시
대재건원大哉乾元 : 선조대왕의 어인

9. 효종대왕어서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원본 크기 : 35.2x18.0+cm
작품 크기 : 46.0x43.0cm
자료 제공 : 국립청주박물관, 2022. 10. 05.
자료 출처 : 金一根, 『諺簡의 硏究 – 한글書簡의 硏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262쪽

이 편지는 효종孝宗(1619~1659)이 둘째 딸 숙명공주淑明公主(1640~1699)에게 보낸 것이다. 발신 시기는 숙명공주가 심익현과 혼인한 1652년부터 효종이 승하한 1659년까지로 추정하였다.

글월 보고 됴히 이시니 깃거ᄒᆞ노라
어제 냥식 쵹 보내엿더니 본다
면ᄌᆞ등 이 수대로 보내
노라

<주석문>

글월 보고 됴히 이시니 깃거ᄒᆞ노라 어제 냥兩 식쵹色燭1) 보내엿더니 본다2) 면ᄌᆞ등3) 이 수數대로 보내노라

<주석 내용>

1)식쵹色燭 : 물명. 색촉色燭. 색으로 물들인 초.
2)본다 : 보았느냐?
3)면ᄌᆞ등 : 물명. 면자등緜子燈?. 명주로 만든 등. '면ᄌᆞ綿子'는 흔히 목화씨, 솜 등의 뜻으로 쓰였다. '綿'의 본자인 '緜'은 명주의 뜻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등의 틀을 명주로 씌워 만든 등으로 이해했다.

현대어 역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어제 두 색촉(물들인 초)을 보내었는데 받아 보았느냐 초꽂이등을 이 초의 수만큼 보낸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05 https://archive.aks.ac.kr/

원문 텍스트

문
안 엿줍고 야간
셩후 안녕ᄒᆞᆞ오신 문
안 아옵고져 ᄇᆞ라오며 날이 ᄑᆞ오니 더옥 섭섭ᄒᆞ오미 아ᄆᆞ라타
업ᄉᆞ와ᄒᆞ옵노이다

<주석문>

문안問安 엿줍고 야간夜間 셩후聖候1) 안녕安寧 ᄒᆞᆞ오신 문안問安 아옵고져 ᄇᆞ라오며 날이 ᄑᆞ오니2) 더옥 섭섭ᄒᆞ오미 아ᄆᆞ라타 업ᄉᆞ와 ᄒᆞ옵노이다

<주석 내용>

1)셩후聖候 : 성후聖候. 임금의 안부와 기후.
2)ᄑᆞ오니 : 거듭되니. 'ᄑᆞ다'는 '거듭되다, 겹치다'의 뜻을 지닌 동사. 'ᄑᆞ-'에 접사 '-오'가 결합하여 파생한 '포'가 다시 접사화하여 '날포, 달포, 해포'와 같이 쓰였다.

현대어 역

문안 여쭙고, 밤사이 아바마마께서는 안녕하신지 알고자 바라오며, 뵙지 못한 채 날이 거듭 지나니 더욱 섭섭함이 무어라고 할 말 없어 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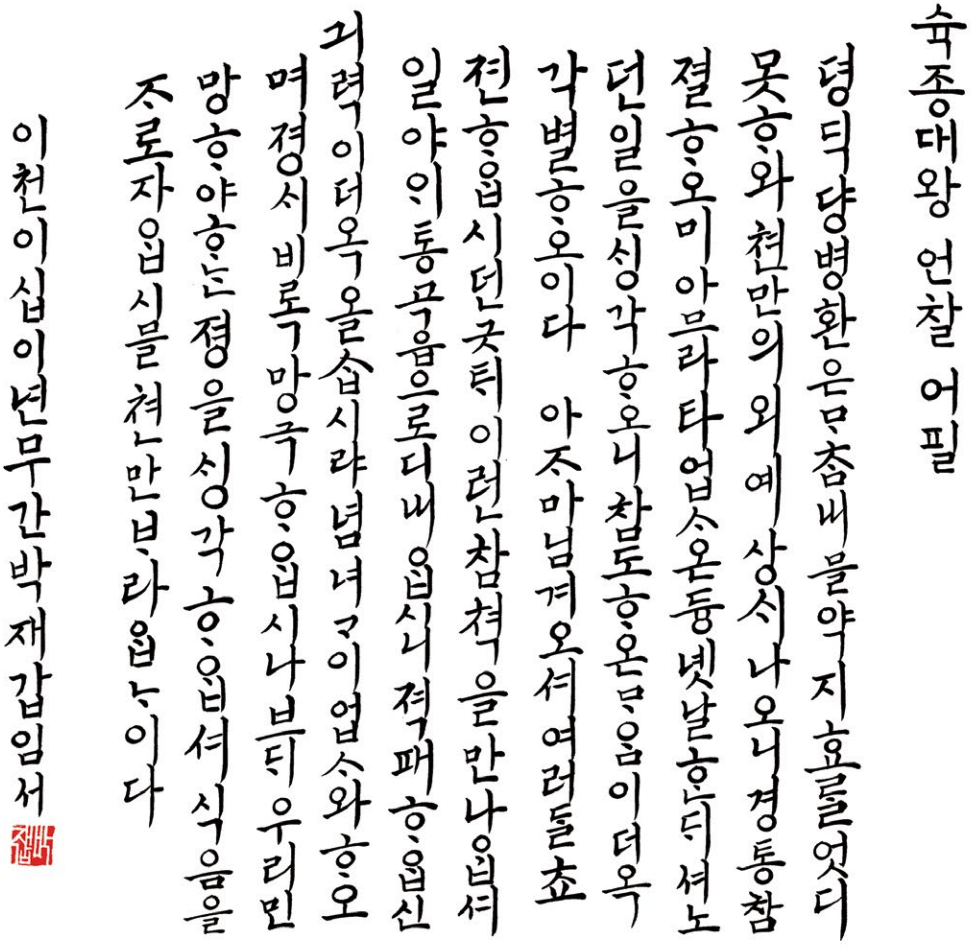
보내는 이 효종 / 받는 이 숙명공주 / 때 1652~1659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어제 양색 초를 보내었는데 보았느냐? 면자등을 이 수대로 보낸다.

보내는 이 숙명공주 / 받는 이 효종 / 때 1652~1659
문안 여쭙고 밤사이 성후 안녕하신 문안 아옵고자 바라오며 날이 거듭되니 더욱 섭섭함이 아무렇다고 할 말이 없어 하옵나이다.

효종대왕,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 66~69쪽

신한첩宸翰帖 : 조선시대 왕과 왕비 등이 쓴 편지를 모아놓은 서간집을 지칭하는 용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숙종대왕언찰어필肅宗大王諺札御筆, 1685년, 숙종 11년 6월



원본 크기 : 27.5x23.8cm
작품 크기 : 39.0x36.0cm
자료 제공 : 계명대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2022. 10. 5.
자료 출처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43쪽

현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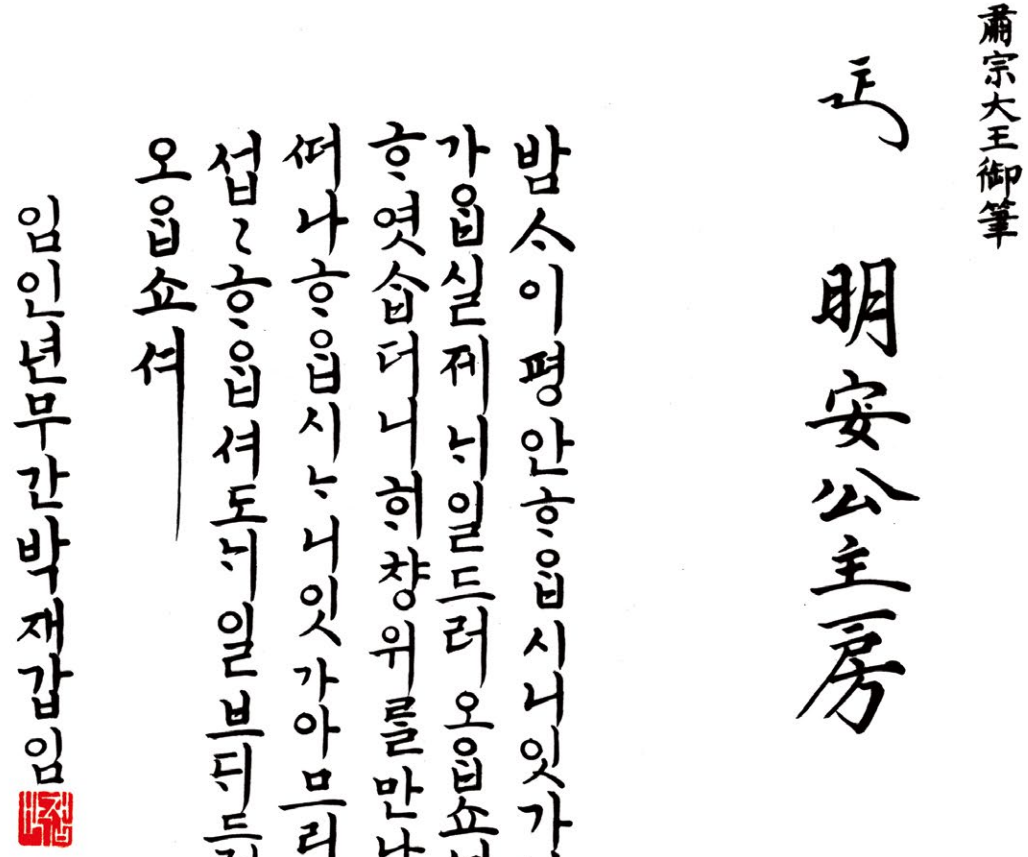
정 직장鄭 直長(숙휘공주의 둘째 아들 정태일鄭台一이다) 병환은 마침내 물약지효를 얻지 못하여 천만 이외의 상사가 났으니 경통참절하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에 옛날 한 데에서 놀던 일을 생각하오니 참도하온 마음이 더욱 각별하오이다. 아주마님께서 여러 달을 초전하시던 끝에 이런 참척을 만나시어 일야로 애통곡읍으로 지내셨으니 적패하신 기력이 더욱 옳으시랴? 염려 가히 업사와하오며 정사가 비록 망극하오나 부디 우리 민망한 정을 생각하셔서 식음을 자주 자시기를 천만 바라옵니다.

언간 취지

숙종이 고모 숙휘공주에게 쓴 편지로, "뎍딕댱…. 상시 나오니"의 내용으로 보아 이 편지는 숙종이 아들 정태일의 상사로 슬퍼하고 있는 고모 숙휘공주에게 쓴 편지로 추정된다. 일종에 조상弔喪 편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녯날 ᄒᆞᆫᄃᆡ셔 노 던 일을 ᄉᆡᆼ각ᄒᆞ오니 참도ᄒᆞ온ᄆᆞ음이 더옥 각별ᄒᆞ오이다"의 내용을 보면 숙종과 정태일이 어린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것 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정태일의 상사 직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 시기는 정태일의 졸년(숙종 11년(1685년))으로 판단된다.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71~74쪽

11. 숙종대왕어필, 명안공주방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원본 크기 : 22.7x27.2cm
작품 크기 : 35.0x38.0cm
자료 제공 : 오죽헌시립박물관, 2022. 10. 11.
자료 출처 : 조선(17세기) 보물 제1220호 https://www.gn.go.kr/museum/

숙종이 명안공주방房에 보낸 어찰이다. 명안공주저邸에 나간 자전慈殿(명성왕후明聖王后) 혹은 웃전(대왕대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명안공주방이라 했지만 명안공주는 숙종의 누이동생이므로 왕이 극존칭을 쓸리 없다. 자전이나 대왕대비가 명안공주 사저私邸에 다니러 간 후, 공주의 남편인 오태주吳泰周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지체를 하자, 환궁을 재촉하고 있는 간찰이다.

이 편지는 숙종(연령: 20세~23세)이 시집간 셋째 딸 명안공주 집에 가 있는 모후 명성왕후(연령: 39세~42세)에게 보낸 것이다. 명안공주는 1680년에 해창위 오태주와 혼례를 올렸고, 명성왕후는 1683년에 승하하였으므로 이 편지는 1680년에서 1683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밤ᄉᆞ이 평안ᄒᆞ옵시니잇가 나
가옵실 제 ᄂᆡ일 드러오옵쇼셔
ᄒᆞ엿ᄉᆞᆸ더니 히챵위를 만나 못
ᄡᅥ나 ᄒᆞ옵시ᄂᆞ니잇가 아므리
섭섭ᄒᆞ옵셔도 ᄂᆡ일 브ᄃᆡ 드러
오옵쇼셔

<주석문>

밤ᄉᆞ이 평안平安ᄒᆞ옵시니잇가 나가옵실 1) 제 ᄂᆡ일來日 드러오옵쇼셔2) 엿ᄉᆞᆸ더니 히챵위海昌尉 3)를 만나 못ᄡᅥ나ᄒᆞ옵시ᄂᆞ니잇가 아므리 섭섭 옵셔도 ᄂᆡ일 브ᄃᆡ 4) 드러 오옵쇼셔

<주석 내용>

1)나가옵실

나가실

2)오옵쇼셔

오십시오. 웃어른에 대한 청원의 뜻이 담겨 있다.

3)히챵위海昌尉

인명. 해창위. 해창위는 명안공주의 남편 해창위 오태주(吳泰周, 1668~1716)를 가리킨다.

4)브ᄃᆡ

부디

「숙종이 모후 명성왕후에게 보낸 편지」, 『조선 시대 한글 편지』, https://archive.aks.ac.kr/

밤사이평안하셨습니까? 나가실 때
내일 들어오소서 하였사온대
해창위(사위 오태주)를 만나 못 떠나
오십니까? 아무리(떠나오기
섭섭하셔도 내일 부디
들어오시옵소서.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3쪽

명안 공주

숙종이 사랑한 누이

숙종은 하나 남은 누이 명안공주를 지극히 사랑하여 공주가 땅을 달라고 청하자 솔개 뜬 아래는 모두 네 땅이라고 하며 땅을 하사하였다. 숙종은 4남매 중에서 단 한 사람 남은 동기 명안공주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한다. 청나라에서 고급 비단이 들어오면 사랑하는 후궁을 주지 않고 이 동생에게 보냈을 정도였다. 공주의 집을 일찍이 전례가 없는 1,826간으로 지어 주자 논란이 많이 일었다. 원래 공주 궁의 정례는 1,200간이었는바, 인조 초 정명공주에게 1,400간을 내렸을 때도 반론이 있었는데, 명안공주의 경우는 거기에서도 426간이 초과한 것이었다. 결국 조정의 논의에 못 이기어 1,400간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명안공주는 그 복록을 못다 누리고 23세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 숙종 13년 5월 공주가 죽자 왕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슬퍼하고 10일간 육식을 안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한여름 날씨에 입관 전에 조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주집에 친히 나갈 정도였다. 명안공주는 광주 월곡리에 장사지냈다 하는데 바로 그곳이 현재의 월곡동으로 숙종과 누이 명안공주에 관한 궁중의 전승담이 아마도 그곳에서 비롯된 것 같다. 공주 묘를 화성군으로 옮긴 것은 그 후인 듯이 보인다

「명안 공주」, 『문화원형백과 e조선궁중여성, 2004』,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네이버 지식백과

숙종 경신년 7월에 대사간 신익상申翼相이 상소하기를, "듣자오니, 나라에서 지금 바야흐로 명안공주明安公主의 집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옛날 효종조 때에 4공주의 집을 세웠는데, 규모의 웅장함과 간 수의 많기가 건국 이래 일찍이 없던 바로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선왕조(현종조)에 와서, 공주의 제택第宅은 한결같이 법에 정한 제도를 좇아야 한다는 논의가 비로소 생겨나니, 당시 선왕께서는 그 일이 선왕조에서 있던 일이므로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누차 경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교하기를, '앞으로 공주의 집을 지어 줄 날이 머지않았으니, 한결같이 정한 제도를 따를 것을 마땅히 나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심이 정녕할 뿐만이 아니셨습니다. 어느 사이에 선왕께서 승하하셨으니 오늘 전하께서 선왕의 딸을 시집보냄을 당하여 감회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전하의 돈독하신 우애가 높은 집과 아로새긴 담장을 지어 주심에 있지 않사오며, 옛말에도 높고 굉장한 집에는 귀신이 그 집을 엿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법제는 책에 뚜렷하게 적혀 있으며, 검소 절약하는 정치는 반드시 귀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지금 만일 조종조께서 남기신 제도를 좇고, 선왕의 남기신 뜻을 따라서 제도를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않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모두, '선왕의 말씀대로 우리 사왕嗣王께서 계승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술이述而』

「국조전고國朝典故, 공주公主 · 부마駙馬」, 『연려실기술 별집 제1권』, 한국고전종합DB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肅宗大王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25년, 1699년

숙종대왕 언찰 어필

謹 淑明公主房 封

몬졔는창망듕덧업시드녀오
니그새심회야어이내-뎍소리
잇가병환은나날낫조셔즉금은
거의여샹ᄒᆞ오신가시브오니 ᄒᆞᆫ힝
ᄒᆞ오미아ᄆᆞ라탑업소와ᄒᆞ오며언제
다시반가이뵈올고기ᄃᆞ리고잇숩
ᄂᆞ이다

幼學金元澤處
賜給 草注紙二卷
各色筆十五柄
各揉墨十笏

임인년무간박재갑임

원본 크기 : 21.5x33.2cm
작품 크기 : 37.0x53.5cm
자료 출처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4, 105쪽

肅宗大王 御筆 諺簡

(※……은 각각 딴 종이라는 표)

謹　淑明公主房　封

……

몬졔ᄂᆞᆫ창망듕 덧 업시ᄃᆞᆫ녀 오오니 그 ᄯᅢ 심회야 어이 내〃 덕ᄉᆞ오리잇가 병환은 나날 낫ᄌᆞ오셔 즉금은 거의 여상 ᄒᆞ오신가 시브오니 흔힝ᄒᆞ오미 아ᄆᆞ라타 업ᄉᆞ와 ᄒᆞ오며 언제 다시 반가이 뵈올고 기ᄃᆞ리고 잇ᄉᆞᆸᄂᆞ이다

……

幼學 金元澤　處

賜給 草注紙 二卷

各色筆 十五

各樣墨 十笏

비고備考

봉투封套와 간찰簡札과 김원택처金元澤處 사급賜給 기록記錄과 삼부三部로 나뉘어 있다. 김원택金元澤은 영의정領議政 김상복金相福(숙종肅宗 갑오甲午 생生 - 영종英宗 임인壬寅 졸卒)의 부父이며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이요,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와 동종同宗이며, 판윤判尹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종顯宗 혹은 숙종肅宗으로부터 여사如斯한 사급賜給의 총寵을 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운석유고雲石遺稿]. 사급賜給 문건文件은 만약 왕의 친필이라면 그 필체로 봐서 현종顯宗에 가깝다.

본문本文

숙종肅宗 간찰簡札과의 관계는 미상未詳이나, 이 별지別紙 문건에 의해서 현종顯宗 어필첩御筆帖을 간직해 온 것은 김원택金元澤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이 간찰簡札의 시기는 거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기록이 숙종肅宗 실록實錄에 나타난다. 즉 숙명공주淑明公主가 졸卒한 것은 숙종 이십오년 삼월 계유癸酉인데, 그 전에 이월 경술庚戌에 숙종肅宗이 창황愴惶히 문병問病을 가서 너무나 위독한 바람에 수작酬酌도 못 하고 환궁還宮했고, 그 뒤 왕비의 문병행問病行을 명령한 바 있고, 삼월 계유癸酉에는 재행차再行次를 하여 차복差復을 즐거워하는 율일수律一首를 하사下賜했다. 결국 그달 병술丙戌에 서거逝去하여 진도震悼마지않았다.

여상如上으로 봐서 이 간찰簡札이 숙종어필肅宗御筆임은 필적과 사연辭緣과 사실의 일치로 확증을 얻을 수 있으며 아마 김상복金相福의 부父 김원택金元澤이 현종顯宗 어필첩御筆帖을 작성하고, 그 뒤 자子 김상복金相福 혹은 그 후손이 이 간찰을 입수하여 어필이라고 말미 여백에 첨부하고, 또 현종顯宗으로부터 받은 하사 문건도 같이 첨부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신한첩宸翰帖의 출현이 없었다면 이 간찰簡札은 현종顯宗 어필御筆이라고 간주看做될 뻔했다.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38~39쪽

봉투 : 근 숙명공주방 봉

먼저는 창망한 가운데 덧없이 다녀오니, 그때 마음이야 어찌 내내 적으리까, 병환은 나날 나으셔서 지금은 거의 평소와 다름없으신가 싶으니 기쁘고 다행함을 무어라 할 말이 없어 하오며 언제 다시 반가이 뵐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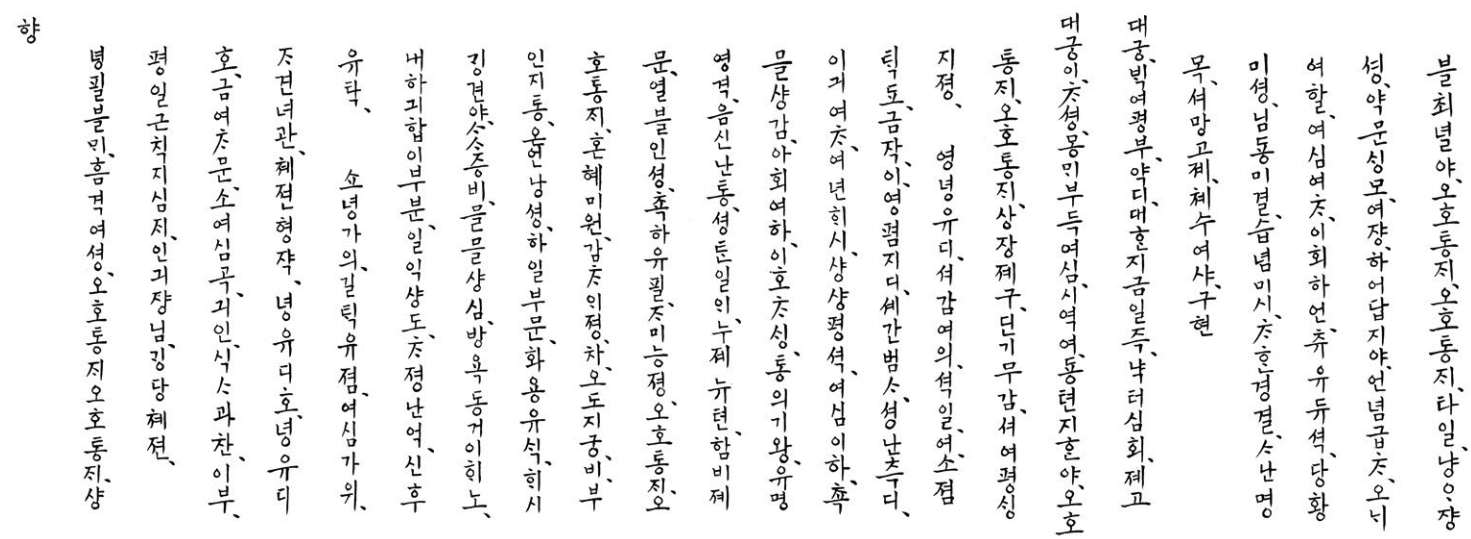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7쪽

먼저는 : 肅宗이 淑明公主의 問病갔던 날.實錄에 依해서 肅宗 二十五年二月庚戌日로 推測됨. 病이 危重해서 갑자기 行次했음

即今은 : 이 書簡을 쓴 富時, 三月 癸酉에 두 번째 問病하기 前.

金元澤 : 英宗 時 領議政 金相福의 父, 判尹을 지냈으나 富時엔 仕官을 하지 않았던 모양

13. 소훈이씨제문昭訓李氏祭文, 1721년



원본 크기 : 27.9x152.8cm
작품 크기 : 37.0x155.0cm
자료 출처 : 디지털장서각 『1721년 11월 소훈이씨昭訓李氏 치제문』 - 王室古文書
크기 : 31.0 X 170.0
원문 : RD02784_001

昭訓李氏祭文
維歲次辛丑十一月庚子朔十九日丙午
王世弟遣尙宮李氏 以淸酌庶羞 哀奠于
昭訓李氏靈柩之前曰 嗚呼痛哉 世間豈無哀
慽之痛 而豈有余今日所遭之事乎嗚呼以婉順之
性柔雅之質生自良家蚤歲入宮爾之選入也
余亦年幼旣自幼時其所處身盡有規度寔余
所以暗嘆者也至於身居小室翼翼小心夙宵
敬謹余有過焉輒必窺諫余嘗悔悟而改之
者是豈引愛而然哉誠服善心而然也名雖男女
意則朋友知余心者爾也知爾心者余也慶毓閨中
螽斯詵詵余嘗曰積善之人必有餘日後獜趾
振振之喜必不止此百年爲期以享其福不意一
疾奚至此境嗚呼痛哉念爾之事言亦慘矣七

쇼훈니시졔문

유셰ᄎᆞ신튝십일월경ᄌᆞ삭십구일병오

왕셰졔젼샹궁니시이쳥쟉셰슈의

젼우

쇼훈니시녕구디젼왈오호통지셰간긔무의쳑지
통이긔유여금일소조지ᄉᆞ호오호이완슌지셩유
아지질싱ᄌᆞ냥가조셰입궁이지션입야여역년
유긔ᄌᆞ유시기소쳐신딘유규ᄃᆞ식여ᄉᆞ이암탄쟈
야ᄃᆡ어신거쇼실익익쇼심슉쇼경근여유파언
쳡필규간여샹회오이기지쟈시긔인의이연지
셩복션심이연야명슈남녀의ᄌᆞ붕우ᄃᆡ여심
쟈이야ᄃᆡ이심쟈여야경유규즁용ᄉᆞ선선여샹
왈젹션지인필유여경일후닌지딘딘지희필
블ᄃᆡᄎᆞ빅년위긔이향기복블의일질희지ᄎᆞ
경오호통지념이지ᄉᆞ언역참의칠년지ᄂᆡ년조
거창최마미희거이쟝셔싱어ᄉᆞ셰위낙희ᄉᆞ언
지식의ᄉᆞ지통의평일조심유이졍지벽쳐블
원명니지영욕샹샹ᄌᆞ획쟈여긔부ᄃᆡ이긔슈
기쟉당유ᄌᆞ녀ᄃᆞ겹블가인지외졔부득이
ᄉᆞ지입쳐궐ᄂᆡ금즁번요지ᄃᆡ비이소심고ᄆᆡᄌᆞ
공구젼익블편용지어칠안난의지경시슈지구실
여지티야츄회하급오호통의ᄃᆞᄃᆞ디여이언셕
ᄃᆞ침ᄌᆞ이블어이일경샹지참졀긔인언지
긔인언지시내명야비명야위이명야ᄃᆞ방년
습팔긔비졍츈우이비명야ᄃᆞ복셩화음
지니과안지지슈블념급여여ᄃᆞ블념급어
유하냥ᄋᆞ호안복지호모슈졀셕심쟝긔

年之內連遭巨愴衰麻未解遽以長逝生於斯
世爲樂奚似言之塞矣思之痛矣平日操心惟
[원문:RD02784_002]
以靜在僻處不願名利之榮辱常嘗自劃者
余豈不知而旣受其爵堂有子女則決不可仍在
外第不得已使之入處闕內禁中繁擾之地非
爾素心故每自恐懼轉益不便終至於沉疴難
醫之境是誰咎實余之致也追悔何及嗚呼痛
矣朝則對余而言夕則沈潛而不語伊日景象之慘
切豈忍言哉豈忍言哉是乃命耶非命耶謂
以命也則芳年卄八豈非靑春謂以非命也則
福善禍淫之理果安在哉雖不念及於獨不
念及於乳下兩兒乎萬福之呼母雖鉄石心腸
豈不摧裂耶嗚呼痛哉嗚呼痛哉他日兩

兒長成若問生母余將何語答之耶言念及此
五內如割余心如此爾懷何言追惟疇昔便成一
[원문:RD02784_003]
夢眞乎非乎倘怳未醒臨終未訣襲斂未視
此恨耿結死難瞑目西望故第涕淚如瀉歸見
大宮白余平否若知大恨之今日則略攄心懷替告
大宮而此誠夢昧不得如心是亦余終天之恨也嗚呼
痛哉嗚呼痛哉喪葬諸具盡其無憾叙余生平
之情英靈有知庶感余意昔日余所占宅
兆今作爾永窆之地世間凡事誠難測知爾旣
如此余年奚恃像想平昔余心伊何觸物傷
感我懷如何已乎此生慟矣其往幽明永隔
音信難通聲呑一哀淚制流泉含悲製文
咽不忍成燭下濡筆字未能精嗚呼痛哉嗚

呼痛哉魂兮未遠鑒此哀情嗟吾道之窮非
夫人之慟溫言朗聲何日復聞和容柔色奚
時更見耶事事增悲物物傷心方欲同居而
[원문:RD02784_004]
偕老奈何旣合而復分日益傷悼此情難抑
身後有托 昭靈可倚吉宅有占余心可慰玆
遣女官替奠泂酌靈有知乎靈有知乎今余
此文訴余心曲豈忍飾辭過讚以負平日謹
敕之心哉靷期將臨更當替奠 靈必不昧 歆
格余誠 嗚呼痛哉 嗚呼痛哉 尙饗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훈이씨 제문」, 『英祖妃嬪資料集2 碑誌, 冊文, 敎旨, 祭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1년, 60~63쪽

『소훈이씨제문 昭訓李氏祭文』

한글 : 1721년(경종 1) 11월 / 필사. 1장 / 世弟(英祖)睿製 / 27.9x152.8cm / 2786

해설

1721년(경종 1) 11월 19일에 정빈 이 씨를 위해 왕세제였던 영조가 친히 지은 제문이다. 정빈은 이보다 1달 앞선 10월 3일에 소훈昭訓의 작위를 받고서 처음으로 영조의 후궁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1월 16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제문은 지난날의 회상과 정빈에 관한 추억, 영조 자신의 비통한 심정 등을 담고 있다. 정빈이 온순한 성품과 법도 있는 행실을 갖고 있었고, 영조와는 어릴 적부터 얼굴을 익혀왔던 사이로 지기知己와도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때문에 영조의 슬픔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이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제문은 같은 내용을 한글과 한문으로 각각 기록해 두었는데, 한글 제문(2786)은 한문 제문(2784)의 한자음을 한글로 쓴 것으로, 실제로 제문을 대신 읽을 때 사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본 자료집에서는 한문을 입력하고 번역하였다. 한문과 한글을 비교하면 몇 군데 서로 가감되거나 다른 점이 있다. 번역하 FEO 한문의 문맥이 어색한 곳은 한글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번역

신축년 1721(경종 1) 초하루의 간지가 무자戊子 인 11월 19일 병오丙午에 왕세제는 상궁이씨를 보내어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소훈이씨昭訓李氏의 영구靈柩 앞에서 슬프게 제사를 지낸다.

오호라! 아프도다.

세상에 슬프고 쓰라린 아픔이 어찌 없겠냐마는, 내가 오늘날 만난 일 같은 것이 어찌 있으랴? 오호라! 그대는 온순한 성품과 부드럽고 바른 자질을 가지고 양가良家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궁궐에 들어왔소. 그대가 선발되어 들어올 때 나 또한 나이가 어렸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대가 처신하는 바가 모두 규범과 법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내가 넌지시 감탄했던 바라오. 그대 몸이 소실로 있게 되어서는 조심조심 밤낮으로 공경하고 삼갔지. 내게 과실이 있으면 그때마다 내 안색을 살피고서 충고했는데, 내가 늘 뉘우치고 고친 것이 어찌 애정에 이끌리어 그런 것이었겠는 가? 그 선한 마음에 정말 감복하여 그런 것이라오. 성별은 비록 남자와 여자이지만 마음으로는 벗이어서 내 마음을 아는 자가 그대이고 그대 마음을 아는 자가 나였지. 규중에서 자손을 낳아서 자손이 많았으니 내가 언젠가 "선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으리니 뒷날 자손들이 창성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아 백 년을 기약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병 하나에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오호라! 아프도다.

그대의 일을 생각하자니 말하기도 참담하오. 7년 내에 큰 슬픔을 연이어 만나 최마복衰麻服을 벗기도 전에 갑자기 영영 떠나 버리다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즐거워했던 것이 얼마나 되었던가. 말하자니 답답하고 생각하니 아프구려. 오직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있으면서 명예와 이익의 영욕榮辱은 원치 않음으로써 항상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 그대 평소의 마음가짐이었음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였으랴마는, 그 작위爵位를 받고 집에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결코 계속해서 궁궐 밖의 집에 있을 수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그대를 궁궐 안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였지. 번거롭고 어지러운 땅, 금중禁中은 그대 평소의 마음이 아니었으므로 늘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갈수록 불편해하다가 종내에는 고질이 되어 낫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누구를 탓할까? 실

로 나의 소치일세.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는가. 오호라! 아프도다. 아침에는 나를 대하여 말하더니 저녁에는 깊이 숨어서는 말을 않으니, 그날 광경이 비참하고 처절함을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이것이 천명인가? 천명이 아닌가? 천명이라고 말한다면 꽃다운 스물여덟이 어찌 청춘이 아니겠으며, 천명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사악한 이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비록 생각이 나에게 미치지 않더라도, 생각이 두 젖먹이에게 만큼은 미치지 않는가? 만복萬福이가 어미를 부르짖으면 비록 심장이 쇠나 돌로 되었다고 해도 어찌 찢어지지 않겠는가?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훗날 두 아이가 장성하여 낳아준 어미를 묻는다면 내 장차 무슨 말로 답해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하오. 내 마음이 이와 같은데 그대 정회는 어떠할까. 저 옛날을 추억하니 일장춘몽이 되었구려. 참인가, 거짓인가? 어렴풋하여 정신이 깨질 않소.

임종할 때 영결하지 못하고 염습할 때 보지 못했으니 이 한이 마음에 꽉 맺혀 죽어도 눈을 감기 힘들겠소. 서쪽으로 옛집을 바라보니 눈물 콧물이 쏟아지듯 하오. 돌아가 대궁大宮 을 뵙고서 내 안부를 아뢸 때, 그대가 만일 나의 대단히 한스러운 오늘을 안다면 심회心懷를 대략 늘어놓고 대궁大宮께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것은 진실로 몽매하여 마음처럼 되지 않으리니, 이 또한 내 죽을 때까지의 한이라오.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상례와 장례의 여러 도구는 서운하지 않도록 다하여 내 평소의 정을 펴놓았으니 영령英靈은 지각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감응하길 바라오. 지난날 내가 잡아놓은 택조宅兆:墓地는 이제 그대가 영원히 묻힐 땅이 되었구려. 세상의 모든 일이 진실로 미리 헤아려 알기가 어렵소. 그대가 이미 이처럼 되었는데 내 나이를 어찌 믿을까. 지난날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떠할까? 끝이구나! 이 삶이여. 비통하구려! 떠나감이여. 저승과 이승은 영원히 막혀있어 소식도 통하기 어렵구려. 울음을 삼키며 애통해하자니 눈물은 흐르는 샘이 되었고, 슬픔을 머금고 제문을 짓자니 목이 메어 차마 짓지 못하겠소. 촛불 아래서 붓을 적시니 글자가 깔끔하지 못하구려.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혼이여! 멀리 가지 않았거든, 이 애통한 심정을 살펴보오. 아! 나의 도道가 다하였는가! 저 사람을 위해 애통해하지 않으면 누굴 위해 애통해하겠는가! 따뜻한 말과 낭랑한 음성을 어느 날에 다시 들으며, 온화한 모습과 부드러운 얼굴을 어느 때에 다시 본단 말인가? 일이면 일마다 슬픔을 더하게 하고 경물이면 경물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려. 이제 막 같은 곳에 거처하며 함께 늙자고 하였건만, 만났다가 또 헤어짐을 어찌한단 말이오! 날이 갈수록 더욱 아프고 슬프니 이 정을 누르기 어렵구려. 죽은 뒤에 의탁할 곳이 있으면 밝고 신령스러운 그대 영혼이 의지가 될 것이라, 길택吉宅을잡았으니 내 마음이 위로되는구려. 이에 여관女官을 보내 형작泂酌을 대신 올리게 하노니, 혼령이여 지각이 있는가? 혼령이여 지각이 있는가?

이제 나의 이 글로 내 마음속을 하소연하노니, 어찌 차마 글을 꾸미고 지나치게 칭찬하여 평소에 근신하던 마음을 저버리겠소? 발인發靷의 기일이 닥쳐오면 또 사람을 시켜 대신 잔을 올리게 하겠소. 혼령은 반드시 어둡지 않으리니 내려와서 내 정성을 흠향하오. 오호라! 아프도다. 오호라! 아프도다. 흠향하오.

무자戊子 : 원문에는 '庚子'로 되어있으나 1721년 11월 1일의 실제 간지에 따라 바로 잡았다.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으리니 : 한문본에는 '必有餘로만 되어 있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한글본에 '필유여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必有餘慶"으로 유추하여 번역하였다.

그 작위爵位를 받고 : 정빈이 궁녀로 있다가 1721년 10월 3일 소훈昭訓에 책봉되어 왕세제였던 영조의 후궁이 되었던 일을 이른다. 소훈이씨는 다음 달인 11월 16일에 세상을 떠났다.

만복萬福 : 정빈의 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이르는 듯하다.

대궁大宮 : 숙종을 이르는 듯하다.

형작泂酌 : 제사에 올리는 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인 박주薄酒의 의미이다 형작泂酌은본디 제사에 올리기 위하여 멀리서 떠온물을가리키는말로 『시경詩經』「대아大雅·생민지십生民之什」의 형작장泂酌章에서 유래하였다 「시경」에 따르면 멀리서 물을 떠와서 큰 그릇에 붓고 다시 그것을 작은 그릇에 옮겨 부은 다음 그것으로 제수용 음식이나 술을 빚는데, 이렇게 하는 까닭은 충신의 덕과 정결하게 재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제사에 바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4.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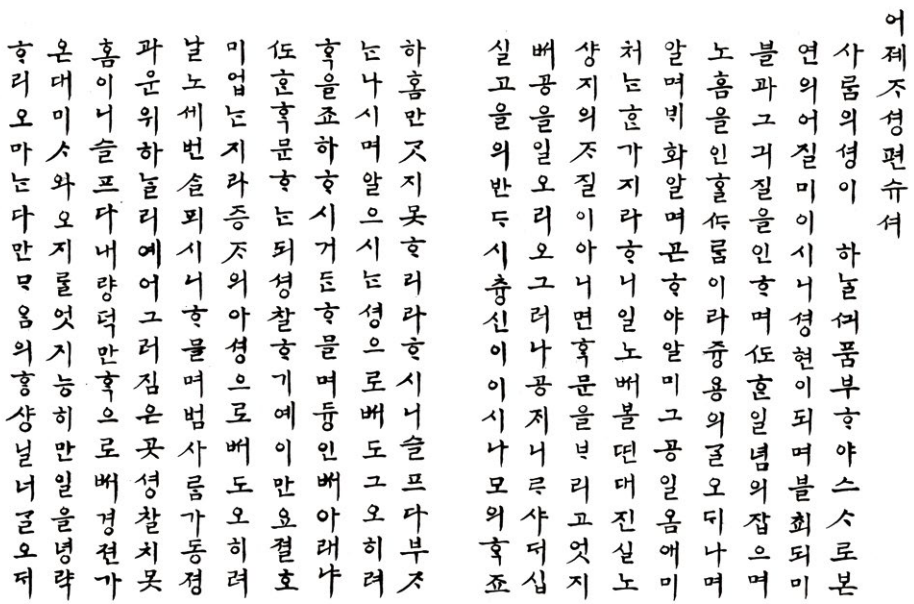
영조가 자신을 성찰하고 왕세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역대 제왕의 사적 중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편찬한 「자성편自省編」을 언해한 책이다. 한문본은 1746년 문정전文政殿에서 2권 2책으로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본래 한문본과 함께 간행하려 한 초본草本으로 추정된다. 서체가 정연하고 흘림이 없으며, 편집이 잘 되어있고 표지 장정이 호화롭다. 언해본의 언해자 및 필사자, 시기 등은 알 수 없다. 책의 체제는 「수서首序」, 「외편外篇」, 「소지小識」, 「고교제신함명古敎諸臣啣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서」와 「후발」에는 1746년 2월 17일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내편」은 심신心身, 「외편」은 감계監戒를 위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영조는 「수서」에서 이 책이 평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난 일을 생각하며 감흥이 있는 것[追慕而興感], 생각하여 하나라도 얻은 것[思慮而一得], 잘못했다가 문득 깨달은 것[過差而施悟], 역사 기록을 보다가 반성한 것[看史而反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세자에게 보여 감계하려는 의도에서 저술했음을 밝히며, 영조 자신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신념과 사업이 세자에 의해 계승되기를 기대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70~71쪽

한문본의 저술 의도는 원량에게 감계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언해본을 필사한 동기까지 원량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해본은 여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책 역시 왕실의 여성을 위하여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언해본의 한글 필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글 필사가 원칙적으로 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글 필사본 어제자성편(언해)는 왕실의 여성을 위하여 왕실 주변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배영환,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1) – 어제자성편(언해)와 어제속자성편(언해)를 중심으로」,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 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파주, 2007년, 42쪽

14-1, 2



어제자성편슈셔

사룸의셩이 하늘ᄭᅦ품부ᄒᆞ야스ᄉᆞ로본
연의어질미이시니셩현이되며불쵸되미
불과그긔질을인ᄒᆞ며또ᄒᆞᆫ일념의잡으며
노홈을인ᄒᆞᆯᄯᆞ름이라즁용의ᄀᆞᆯ오ᄃᆡ나며
알며ᄇᆡ화알며곤ᄒᆞ야알미그공일옴에미
처ᄂᆞᆫᄒᆞᆫ가지라ᄒᆞ니일노버볼ᄃᆡᆫ대진실노
샹지의ᄌᆞ질이아니면ᄒᆞᆨ문을ᄇᆞ리고엇지
버공을일오리오그러나공지니ᄅᆞ샤ᄃᆡ십
실고을의반ᄃᆞ시츙신이이시나모의ᄒᆞᆨ죠
하홈만ᄌᆞ지못ᄒᆞ리라ᄒᆞ시니슬프다부ᄌᆞ
ᄂᆞᆫ나시며알으시ᄂᆞᆫ셩으로버도그오히려
ᄒᆞᆨ을죠하ᄒᆞ시거ᄃᆞᆫᄒᆞ물ᄆᆡ듕인버아래냐
또ᄒᆞᆫᄒᆞᆨ문ᄒᆞ ᄂᆞᆫ되셩찰ᄒᆞ기예이만요졀호
미업ᄂᆞᆫ지라증ᄌᆞ의아셩으로버도오히려
날노세번ᄉᆞᆯ피시니ᄒᆞ물ᄆᆡ범사룸가동졍
과운위하ᄂᆞᆯ리예어그러짐은곳셩찰치못
홈이니슬프다내량덕만ᄒᆞᆨ으로버경젼가
온대미ᄉᆞ와오지ᄅᆞᆯ엇지능히만일을녕략
ᄒᆞ리오마ᄂᆞᆫ다만ᄆᆞ음의항샹ᄂᆞᆯ너ᄀᆞᆯ오ᄃᆡ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자료 출처 : 영조(조선왕,1694-1776)찬 英祖(朝鮮王,1694-1776)撰,
『어제자성편언해(상하)御製自省編諺解(上下)』,
K4-4106, MF16-366,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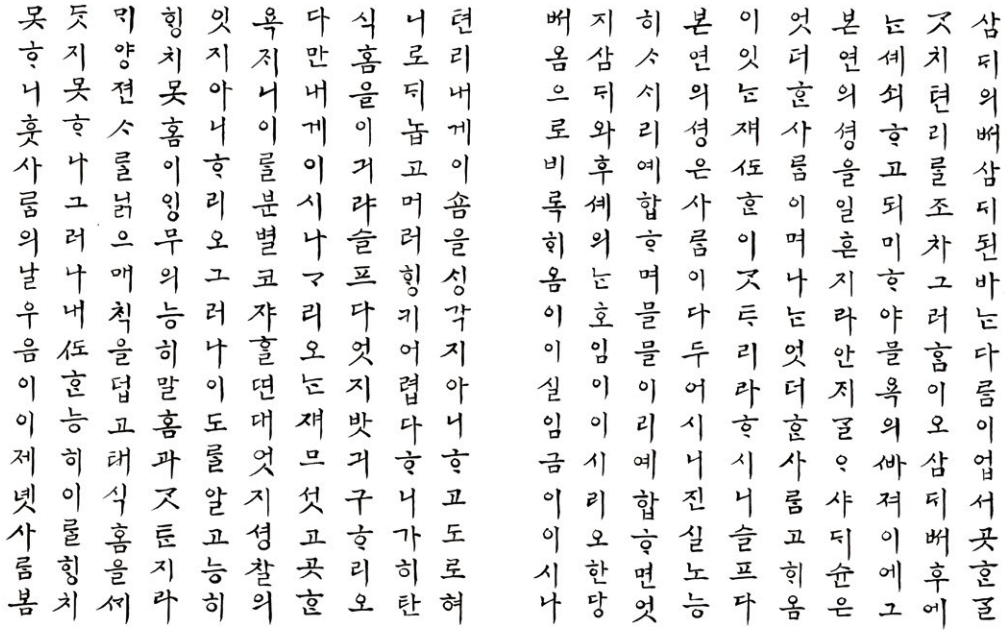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1a>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 수서首序

사람의 성性이 하늘로부터 품부稟賦, 선천적으로 타고남으로 하여 스스로 본연本然의 어짊이 있으니 성현聖賢이 되며 불초不肖가 되는 것이 불과 그 기질氣質로 인因하며, 또한 일념一念을 잡으며 놓음에 인할 따름이라. 중용中庸에 가로되 '나며 알며, 배워 알며, 곤困하여 앎이 그 공功을 이룸에 이르러서는 한가지라' 하니 이로써 볼진대 진실로 상지上智(가장 뛰어난 지혜)의 자질이 아니면 학문을 버리고 어찌(써) 공功을 이루리요? 그러나 공자孔子께서 이르시기를 "십실十室 고을에 반드시 충신忠信이 있으나 모丘의 학學 좋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1b>

아함만 같지 못하리라" 하시니 슬프다, 부자夫子는 나시며 아시는 성聖으로도 (그) 오히려 학문을 좋아하셨는데 하물며 중인中人 (써) 아래야 (말해서 무엇하리요)? 또한 학문하는 도道는 성찰省察하기에 이만큼 요절要節(문장에서 요긴한 마디)한 것이 없는지라, 증자曾子가 아성亞聖(유학에서 공자 다음 가는 성인)으로서도 오히려 날로(=날마다) 세 번 살피시니 하물며 범인凡人이야 (말하여 무엇하리요)? 동정動靜(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과 운위云爲(말과 행동)가 하늘의 이치天理에 어그러짐은 곧 성찰省察하지 못함이니 슬프다, 내 양덕凉德(덕이 적음) 만학晩學으로 경전經傳 가운데 미사微辭(조용히 하는 말)와 오지奧旨(깊은 뜻)를 어찌 능히 만일(萬一=萬分之一)을 영략領略(대강을 짐작하여 앎)하리요마는 다만 마음에 항상 일러 가로되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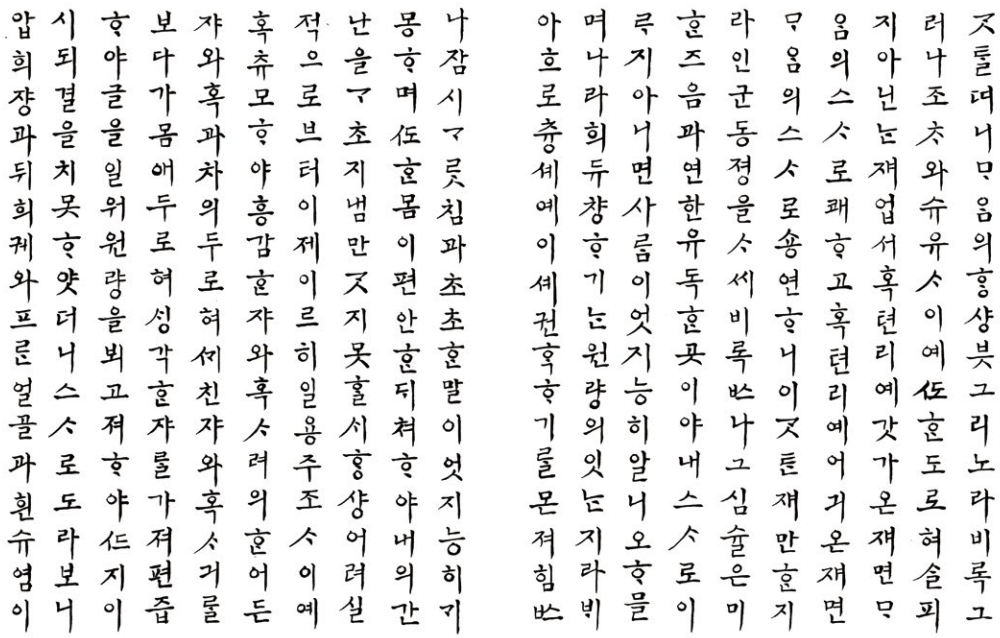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2a>

삼대三代의 (써) 삼대三代 된 바는 다름이 없어 곧 한결같이 천리天理를 좇아 그러함이요, 삼대 (써) 후에는 세쇠世衰(세상이 어지러움)하고 도道가 미微하여 물욕物慾에 빠져 이에 그 본연本然의 성性을 잃은지라.' 안자顔子가 가로되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함이 있는 자者가 또한 이 같으리라" 하시니 슬프다, 본연本然의 성性은 사람이 다 가졌으니, 진실로 능히 사사事事(일마다)가 이치에 합合하며, 물물物物(물마다)이 이치에 합하면 어찌 삼대三代와 후세後世가 나뉨이 있으리요? 한당漢唐부터 (써) 오므로(=이래로) 비록 함이 있을 임금이 있으나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2b>

천리天理가 내게 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르되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렵다'하니 가히 탄식歎息함을 이기겠는가? 슬프다, 어찌 밖에서 구하리요? 다만 내게 있으나 가리는 것[者]이 무엇인가? 곧 욕慾자字 하나이니 이를 분별하고자 할진대 어찌 성찰省察에 있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도道를 알고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앵무鸚鵡가 (능히) 말하는 것과 같은지라, 매양 전사前史를 읽음에 책을 덮고 태식太息(한숨)함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나 또한 능히 이것을 행行하지 못하니 훗사람이 나를 (보고) 웃음이 이제 사람이 옛사람을 보는 것과

14-5, 6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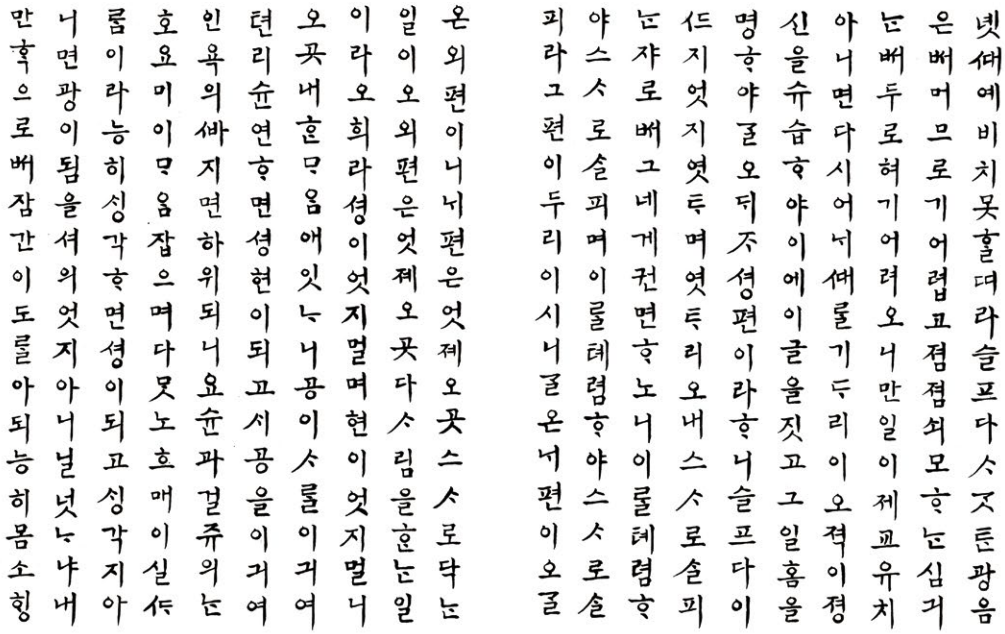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3a>

같을지니 마음에 항상 부끄러워하노라. 비록 그러나 조차造次(짧은 시간)와 수유須臾(잠시) 사이에 또한 도리어 살피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 혹 천리天理에 가까운 것이면 마음에 스스로 쾌하고, 혹 천리天理에 어그러진 것이면 마음에 스스로 송연竦然(두려워 몸을 오싹거림)하니 이 같은 것이 많은지라. 인군人君(임금)의 동정動靜을 사씨史氏가 비록 쓰나 그 심술心術(마음을 쓰는 방법)은 미微한 즈음과 연한燕閑(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한가함) 유독幽獨(조용히 홀로 있음)한 곳이야(오죽하랴). 내가 스스로 이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어찌 능히 알리요? 하물며 나라의 주창主唱하기는 원량元良(왕세자)에게 있는지라. 바야흐로 충세沖歲(어린나이)에 이 세 가지 권학勸學하기를 먼저 힘쓰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3b>

나 잠시 가르침과 초초草草(몹시 간략함)한 말이 어찌 능히 개몽開蒙(어리석음을 깨침)하며 또한 몸이 편안한 데 처處하여 나의 간난艱難(고생)을 갖추어 지냄만 같지 못하므로 항상 어릴 적으로부터 이제(=지금에) 이르도록 일용日用 주조注措(일을 처리함) 사이에 혹 추모追慕하여 흥감興感(마음이 움직여 느낌)한 것과 혹 사려思慮(여러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함)하여 한 가지 얻은 것과 혹 과차過差,過失에 돌이켜(=반성하여) 깨친 것과 혹 사기史記를 보다가 몸에(=스스로에게) 돌이켜 생각한 것을 가지고 편집編輯하여 글을 이루어 원량元良(왕세자)에게 보이고자 하여 뜻은 있으되 겨를을 내지 못하였는데 스스로 돌아보니 앞의 장杖과 뒤의 궤几와 푸른 얼굴과 흰 수염이

14-7, 8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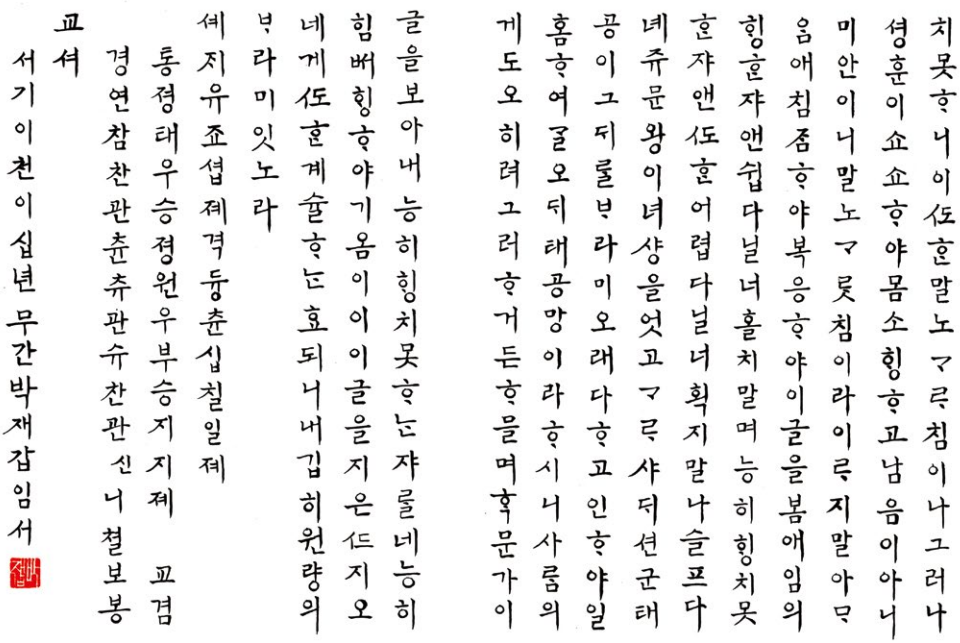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4a>

옛 때에 비하지 못할지라. 슬프다, 사駟(말 넷이 끄는 빠른 수레) 같은 광음光陰은 (써) 머물게 하기 어렵고, 점점 쇠모衰耗(쇠퇴하여 줄어듦)하나ㅡㄴ 심기心氣는 (써) 돌이키기 어려우니 만일 이제 교유敎諭(가르치고 타이름)하지 아니하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리요? 적이 정신을 수습收拾하여 이에 이 글을 짓고 그 이름을 명하여 가로되 ≪자성편自省編≫이라 하니 슬프다, 이 뜻이 어찌 옅으며 옅으리요? 내가 스스로 살피는 것으로써 (그) 네게 권면勸勉하니 이를 체념體念(깊이 생각함)하여 스스로 살피며 이를 체념體念하여 스스로 살피라. 그 편編이 둘이 있으니 이른바 내편內篇이요, 이른바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4b>

외편外篇이니 내편은 어떠한가(=어떠한 내용인가)? 곧 스스로 닦는 일이요, 외편은 어떠한가(=어떠한 내용인가)? 곧 다스림을 하는 일이라. 오희라(=아아, 탄식하는말), 성聖이 어찌 멀며 현賢이 어찌 멀리요? 곧 내 한마음에 있으니, 공公이 사私를 이기어 천리天理가 순연純然(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온전함)하면 성현聖賢이 되고, 사私가 공을 이기어 인욕人慾(사람의 욕심)에 빠지면 하우下愚(아주 어리석고 못남)가 되니, 요순堯舜(堯임금과 舜임금)과 걸주桀紂(桀王과 紂王)의 나뉨이 이 마음을 잡으며(더불어) 놓음에 있을 따름이라. 능히 생각하면 성聖이 되고 생각지 아니하면 광狂이 되는 것을 서書(=書傳)에 어찌 아니 일렀느냐? 내 만학晩學(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함)으로서 조금 이 도道를 알되 능히 몸소 행行

14-9, 10



원본 크기 : 37.6x24.2cmx2장
작품 크기 : 41.0x52.0cm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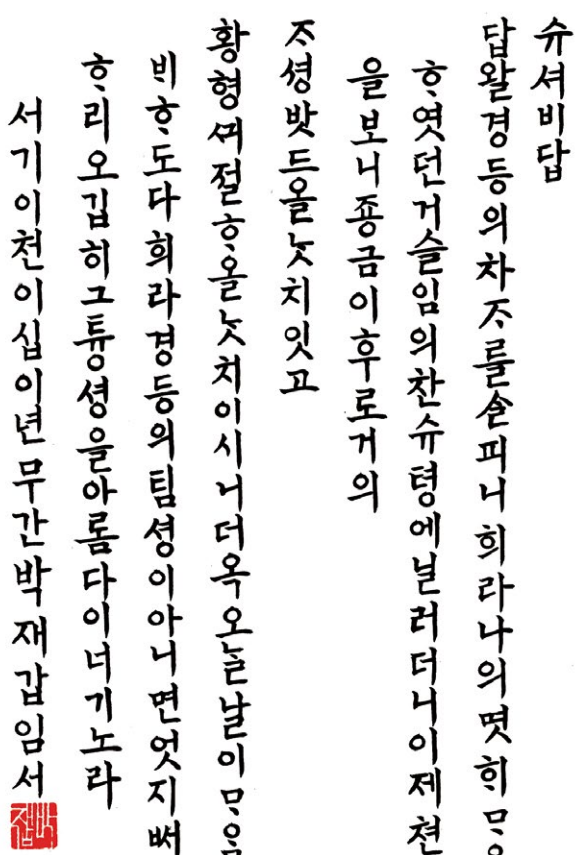
하지 못하니 이 또한 말로 가르침이나 (그러나) 성훈聖訓(성인이나 임금의 교훈)이 소소昭昭(사리가 밝고 또렷함)하여 몸소 행行하고 남는 것이 없지 않으니 말로 가르침이라 이르지 말고 마음에 침잠沈潛(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물속 깊숙이 가라앉거나 숨음)하여 복응服膺(교훈 따위 마음에 간직하여 잠시도 잊지 아니함)하여 이 글을 봄에 능히 이미 행行한 것에는 쉽다 일러 소홀하지 말며 행行하지 못한 것에는 또한 어렵다 일러 한계를 긋지 말라. 슬프다, 옛 주周 문왕文王이 여상呂尙(태공망의 다른 이름)을 얻고 가로되 "선군先君(선대의 임금) 태공太公이 그대를 바란 것이 오래다" 하고 (인하여) 이름하여 가로되 '태공망太公望'이라 하시나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학문이야 (말하여 무엇하리요)? 이

<어제자성편(언해) 상上 : 5b>

글을 보아 내 능히 행行하지 못하는 것을 네 능히 힘써 행行하여 깁는(=보완하는) 것이 이 글을 지은 뜻이요, 네게 또한 계술繼述(선조나 부형의 뜻과 사업을 이어 나감)하는 효도孝道이니 (=효도가 되니) 내 깊이 원량元良(왕세자)에게 바람이 있노라. 세재歲在 유조柔兆(十干 중 '丙'의 옛이름) 섭제격攝提格(천간天干중 '寅'의 옛 이름) 중춘仲春(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2월을 달리 이르는 말) 십칠十七 일日 제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 신臣 이철보李喆輔 봉교奉敎 서書

조항범, 김주필, 황문환, 박용만, 『역주 어제자성편(언해)』, 도서출판 역락, 서울, 2006년, 27~36쪽

15.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1755년



원본 크기 : 36.5x23.2cm
작품 크기 : 36.5x23.2cm
자료 출처 : 『쳔의쇼감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년, 0003쪽

임금께서 손수 글을 써 비답批答하셨다. "경등의 차자箚子를 살펴보니 기쁘다! 내가 몇 해 동안 마음에 두었던 것을 이미 찬수청에 일렀는데 이제 「천의소감闡義昭鑑」을 보게 되니 지금 이후로 자성慈聖을 받들 낯과 황형皇兄께 절할 낯이 있으니 오늘 이 마음이 한층 더하다. 기쁘다. 경 등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였겠는가. 그 충성을 아름답게 여기노라."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7쪽

『천의소감闡義昭鑑』은 영조英祖(1694~1776)가 소론의 집권 명분을 제거하고 노론의 집권 의리를 천명하기 위하여 편찬을 명한 도서이다. 영조의 명을 받들어 천의소감찬수청闡義昭鑑纂修廳이 설치되었고, 김재로金在魯 이천보李天輔 조재호趙在浩 등이 1755년(영조 31)에 편찬하였다. 천의소감이 완성된 직후 원경하元景夏 신만申晩 두 사람이 언해한 천의소감언해 필사본(4권 3책)이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1756년(영조 32)에 4권 4책으로 이루어진 목판본 천의소감언해가 편찬되었다. 역사의 측면에서 천의소감언해는 세제 책봉 때부터 왕위 계승의 취약성을 의식한 영조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천명해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편찬하였는데, 왕위 계승을 둘러싼 노론과 소론 간의 당쟁이 충역의리론忠逆義理論적인 성격을 가지며 발전한 당쟁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신임사화를 비롯한 노론과 소론 간의 당쟁 양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영조의 탕평책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다만 노론의 입장에서 편찬되었기에 소론의 사정이 무시된 사료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천의소감언해에는 1721년 연잉군(영조)의 세제 책봉과 이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 간의 쟁론(권1), 영조의 즉위와 소론 정권의 실각 과정(권2), 정미환국丁未換局과 무신란(권3), 나주괘서사건(권4)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의 즉위 과정과 소론과 노론의 갈등, 계속해서 벌어지는 역모 사건, 환국換局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암투 등 영조 재위 기간의 풍부한 스토리성 때문에 이를 소재로 하여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만들어졌다.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5쪽

1755년(영조英祖 31) 영조英祖의 명命으로 천의소감찬수청闡義昭鑑纂修廳을 실치하여, 김재로金在魯·이천보李天輔·남유용南有容 등이 난적亂賊을 징계하고 윤강倫綱을 바로잡아 왕세자王世子를 세우는 의義를 천명하기 위하여 찬진한 ≪『천의소감闡義昭鑑』≫을 연해한 책이다. 4권 4책의 목판본木板本으로 목록目錄에 간년刊年이 1755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천의소감闡義昭鑑』≫이 간행刊行된 연대라고 볼 수 있으며, 언해본諺解本이 간행된 연대라고는 볼 수 없다. 아마 남유용南有容이 발문跋文을 쓴 연대가 175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번역한 언해본에도 1755년이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천의소감찬수청의궤闡義昭鑑纂修廳儀軌』≫[奎14206]의 1755년 11월 24일의 감결甘結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진상進上) 천의소감 언서諺書 번역시飜譯時에 정서차正書次 의궁義宮에 송규빈宋奎斌 등을 대령시키라"는 기록과, 동년同年 12월 1일의 『언서번역정서책諺書飜譯正書冊』, 4일의 "언서책제목諺書冊題目 서사시書寫時", 5일의 『천의소감언책闡義昭鑑諺冊』영이진상令已進上" 등의 기록으로 보아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진상進上한 책은 간인본刊印本이 아니라 정서본正書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행刊行은 1755년이 아니라 [奎5437] 본本의 끝에 있는 『병자윤구월일황해감영개간丙子閏九月日黃海監營開刊』이라는 기록과 같이 1756년에 처음 간행되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본서本書의 언해 목적은 앞의 『찬수청의궤纂修廳儀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대왕대비大王大妃를 비롯한 궁내宮內의 여인女人들에게 ≪『천의소감』≫의 내용을 읽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겠다. ≪『천의소감』≫과의 차이는 수서차비手書箚批 범례凡例가 ≪『천의소감』≫에 있으나 본서에는 없는 것뿐이며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내용에 대하여는 ≪『천의소일闡義昭鎰』≫ [奎1177,1545]의 해제 참조, p.144]. 규장각奎章閣에는 [奎1118], [奎3233], [奎5437]본本 등의 판본板本이 다른 3종이 있는데, 그것들의 선후관계는 잘 알 수 없다. [奎3233]본本은 {권4}(제4책)만 남은 영본零本이다. 본서本書는 18세기 국어를 연구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英祖(朝鮮) 命撰,『쳔의쇼감언해』, 英祖31年(17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214-v.1-4

영조 대에 이루어진『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의 편찬 경위를 살펴보면 한글 필사본의 언해나 필사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옥영정에 따르면『천의소감찬수청의궤闡義昭鑑纂修廳儀軌』등에 의거할 때 아래와 같이 출초出草, 정서正書, 장황裝績, 책 제목 서사書寫, 진상進上의 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드러난다.

한문본『천의소감』의 간행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언해서 편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영조31년(1755) 11월 7일에 언해 번역서를 만들면『감란록戡亂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임금의 뜻에 따라 언해서의 편찬에 대한 명命이 있었으며 이후로 번역이 시작되었고, 출초出草, 정서正書를 위한 물품의 조달과 대왕대비전에 진상할 천의소감 언서諺書 번역 시에 정서를 위하여 4인을 대령시키라는 기록, 장황을 위한 재료의 취용 내용, 천의소감언해서를 장황하는 데 들어가는 언해서 4권의 표지, 면지, 후배지 등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한글 글씨를 쓴 4인은 어의궁於義宮 담당 송규빈宋奎斌 형제, 제용감濟用監 서원書員 이유담李惟聃, 옥당玉堂 서사書寫 유세관柳世寬 등이 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필사본筆寫本『천의소감언해』가 현재 이 기록에 가장 가까운 유물로 보여진다.

위에 따르면 언해와 필사는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필사는 여러 곳의 서원書員이나 서사書寫가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천의소감언해』필사본은 대왕대비전에 올린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글 필사본은 대비전에 진상할 목적으로 한문본 편찬과 동시에 언해가 진행된 것도 알 수 있다.

황문환,「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 필사본의 가치」,『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12~313쪽

16. 고문진보언해古文眞寶諺解, 영조 연간

古고 文문 真진 寶보 卷권之지一일

真진 宗종 皇황 帝뎨 勸권學학文문

부가블용ᄆᆡ냥뎐 집을가음열게ᄒᆞ매써곰

富家不用買良田 됴흔밧틀사디말라

셔듕ᄌᆞ유쳔죵속 글가온대스스로쳔죵곡

書中自有千鍾粟 셕이잇ᄂᆞ이라

안거블용가고당 살기ᄅᆞᆯ편안히ᄒᆞ려ᄒᆞ매

安居不用架高堂 써곰놉흔당을짓디말라

서기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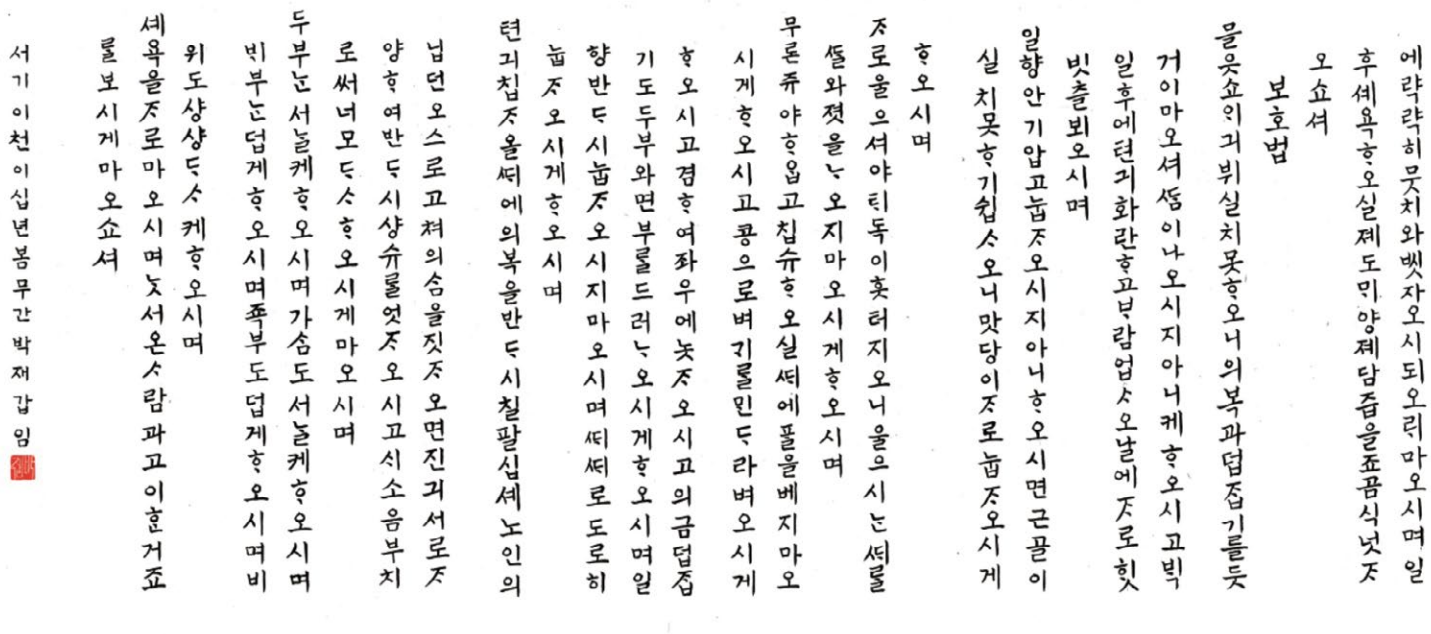
학문을 권하는 글 勸學文	진종황제眞宗皇帝
富家不用買良田하라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좋은 밭 사려 말라,
書中自有千鍾粟이라네	책 속에 본래부터 천 종의 곡식이 있다네.
安居不用架高堂하라	편히 기거하려고 높은 집 지으려 말라,

송나라 황견黃堅이 편찬한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을 조선 후기에 한글로 번역한 언해서諺解書이다. 이 책은 본래 전집 12권, 후집 10권, 모두 22권으로 되어 있으나 본 장서각본 「고문진보언해」는 전집권1~5·7과 후집 권6·7만이 현전한다. 번역한 연대와 번역자는 알 수는 없다. 「고문진보」는 옛글의 참된 보배라는 뜻으로, 중국의 고전 작품 중 훌륭한 작품을 가려 뽑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문인들의 시문詩文을 수련하기 위한 교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내용은 주나라 전국시대 굴원屈原의 초사楚辭로부터, 진나라·한나라, 그리고 육조시대 및 당나라·송나라 등 역대의 유명한 시문을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본 장서각 소장본은 그 한글 표기나 영빈이씨暎嬪李氏(1696~1764)의 장서인藏書印을 보아 영조 연간(1694~1762)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문진보」를 모두 언해한 것은 아니고 발췌하여 언해한 것이다. 상하 2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단에는 한자음을 한글로 먼저 쓰고 그 왼쪽에 한문 원문을 싣고 있고, 하단에는 상단의 한문을 언해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52~253쪽

원본 크기 : 30.3x23.5cm
작품 크기 : 31.5x24.5cm
자료 출처 : 『쳔의쇼감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년, 0003쪽

17. 임산예지법臨産豫知法, 18세기



원본 크기 : 26.5x10.2cmx첩
작품 크기 : 34.0x240.0cm
임산예지법 Limsanyejibeob (Manual for Pregnant Women)
박재갑 Park, Jae-Gahb
작품 크기 : 34x24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MF35-004657)
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8.~11. 1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의 결락된 뒷 부분의 내용 한글 낱자는 국민대학교 부설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에서 복원하고 모본을 만들어주어 임모하였다.

임신한 여인이 출산 전후에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이다. 소장처, 지질, 서체, 본문 중의 높임법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서의 독자는 왕실여성이 분명하다. 수록 내용은 임산예지법臨産豫知法, 해만후근신제방解娩後謹愼諸方, 해태독법解胎毒法, 단제법斷臍法, 진유법進乳法, 세욕법洗浴法, 보호법保護法이다. 출산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여러 사항을 비롯해 해산 후 몸가짐, 태독 제거법, 탯줄 자르는 법, 수유법, 목욕법, 갓난아이를 보호하는 방법 등 출산 전후의 단계별 지침이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본 자료의 문서명으로 붙여진 '임산예지법'은 첫 번째 수록 내용의 제목인 셈이다. 왕실의 출산은 국가의 명운을 짊어질 왕위계승자를 생산하는 의식이므로 왕실 여성의 삶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문서는 조선왕실의 출산 지침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졀금긔ᄒᆞ오시며
유즙이쳐음모이신ᄯᅴ의비록긴이알프오시나ᄌᆞᆷ
ᄌᆞᆸ시고손으로셔셔이쥬무르오셔유즙을유
하ᄒᆞ오시게ᄒᆞ와응쳬결힉ᄒᆞ오실환이업게ᄒᆞ
오쇼셔

ᄒᆡᆫᆡ독법

아기시탄강ᄒᆞ오신후쇼리나오기를기다리지마
오시고외신부녜급히보ᄃᆞᆺ온연쥬로올혼손
뎨이지에감아황련감초탕에ᄌᆞᆷ가구즁을두로
빗ᄌᆞ오시고ᄯᅩ손가락에ᄉᆞᆯ쥬사를뭇쳐구즁에
두로발나ᄉᆞᆷ키오시게ᄒᆞ오시고즉시졋을 ᄂᆞ
오시지마오시고ᄉᆞᆯ쥬사를다ᄉᆞᆷ키오시기를기
ᄃᆞ려호도육을콩만치보ᄃᆞᆺ온김에빠와구즁
에먹음으시게ᄒᆞ오쇼셔

단졔법

ᄐᆡᆫᆡᆯ을ᄇᆡ끔브터두치남즉이머무르오시고실노
단단이ᄆᆡ온후에ᄉᆞᆷ가ᄉᆞᆫᄌᆞ오시고일졀잡아달
로이게마오시고즉시힛소음으로덥ᄌᆞ와ᄉᆞᆷ가
풍한을피ᄒᆞ오쇼셔

진유법

졋을 ᄂᆞ오실ᄯᅴᄆᆡ양뽓ᄇᆞ리온후 ᄂᆞ오시고밤
ᄌᆞ졋을ᄉᆞᆫ도ᄒᆞᆫᄆᆡ양뽓ᄇᆞ리온후 ᄂᆞ오시고비록
ᄌᆞ로는 ᄂᆞ오시나ᄆᆡ양부죡히 ᄂᆞ오시고ᄒᆞᆫ
번에과히 ᄂᆞ오시게마오시며
유모잠자올ᄯᅴ는졋을아스시며
울으시는소리굿치지아니ᄒᆞ오신ᄯᅴ는문득졋을
ᄂᆞ오시지마오쇼셔

셰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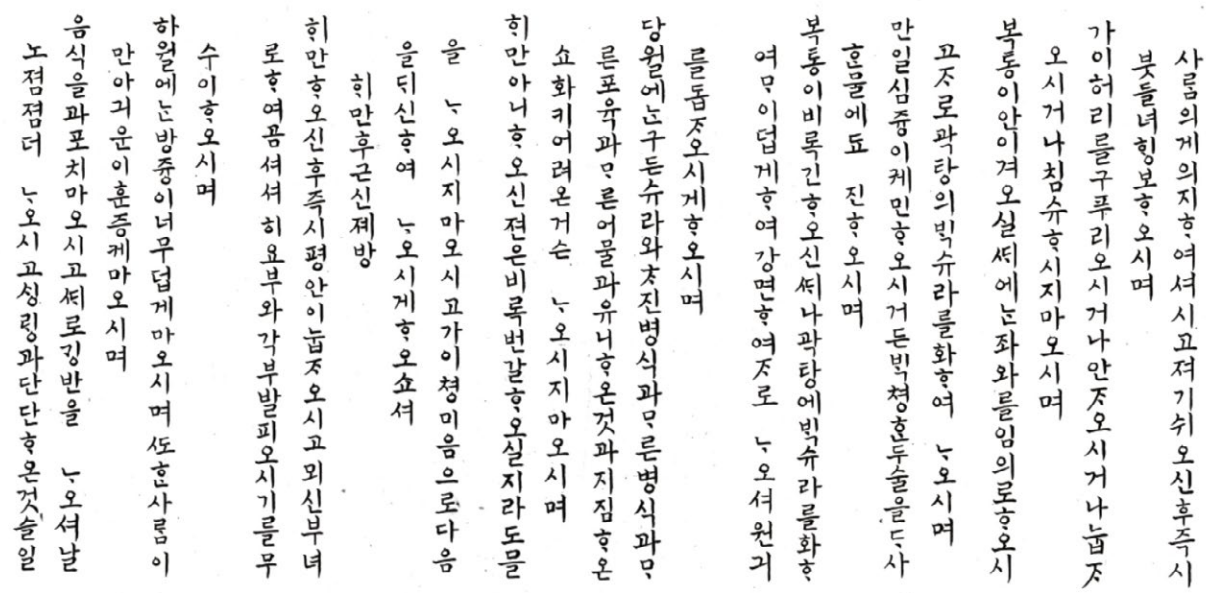
ᄒᆡᆫᆡ만ᄒᆞ오신후뎨삼일에셔욕ᄒᆞ오실탕슈를약원
이당일에맛당이젼임ᄒᆞ올거시오니다만슈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82~83쪽

임산예지법臨産豫知法

출산이 임박하여 사소한 증세를 가지가지 의녀에게 하교하시어 때에 맞추어 거행하도록 하시며, 출산할 때 산실의 방 안과 방 밖의 시끄러운 소리와 급한 걸음걸이를 못 하게 하시고, 마땅히 문과 창문을 굳게 닫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며, 산실의 방 안에 병풍과 장막을 치되 다만 풍한을 피할 뿐 여러 겹을 두르지 않도록 하시고, 공기가 막히고 답답해져져 더운 기운이 치받지 말도록 하시며, 옷가지의 온량을 반드시 적중하도록 하여 너무 덥거나 너무 서늘하게 하지 마시며, 출산이 임박하여 나이가 많고 유식하고 순근한 부녀자 서 너 명을 가려 좌우에 두고 모시도록 하시고, 나이 어리고 성질이 경박하고 급한 사람과, 단지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일절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출산이 임박하여 매우 더운 날을 만나면 당연히 깊고 조용한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거처하시고, 창문을 열어두며 맑은 물을 많이 담아놓아 열기를 막게 하시며, 복통이 비록 긴급하지만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며, 힘주는 것을 일찍 하지 마시어 기다리시고, 자연스럽게 힘주시게 되면 더 주의하여 힘을 주시며, 의도적으로 평안히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며, 복통이 비록 심하더라도 사람을 붙드시고 천천히 걷도록 하시고, 만일 피곤할 때는 사람에 의지하여 서시고 조금 쉰 후에 즉시 붙들고 행보하시며, 자주 허리를 구부리거나 안거나 눕거나 잠들지 마시고, 복통이 없을 때는 앉고 눕는 일을 임의로 하면서 자주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 드시며, 만일 가슴이 답답하거든 흰 꿀 한두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복통이 매우 긴박할 때는 미역국에 흰

17. 임산예지법臨産豫知法, 1



사름의게의지ᄒᆞ여셔시고져기쉬오신후즉시
븟들녀힝보ᄒᆞ오시며
가이허리를구루리오시거나안ᄌᆞ오시거나눕ᄌᆞ
오시거나침슈ᄒᆞ시지마오시며
복통이안이겨오실ᄯᅢ에ᄂᆞ좌와를임의로ᄒᆞ오시
고ᄌᆞ로곽탕의빅슈라를화ᄒᆞ여 ᄂᆞ오시며
만일심즁이케민ᄒᆞ오시거든빅쳥호두술을ᄃᆞ사
흐믈에됴 진ᄒᆞ오시며
복통이비록긴ᄒᆞ오신ᄯᅢ나곽탕에빅슈라를화ᄒᆞ
여ᄆᆞ이덥게ᄒᆞ여강면ᄒᆞ여ᄌᆞ로 ᄂᆞ오셔원긔
를돕ᄌᆞ오시게ᄒᆞ오시며
당월에ᄂᆞ구든슈라와ᄎᆞ진병식과ᄆᆞ른병식과ᄆᆞ
른포육과ᄆᆞ른어물과유니ᄒᆞ온것과지짐ᄒᆞ온
쇼화키어려온거슨 ᄂᆞ오시지마오시며
ᄒᆡ만아니ᄒᆞ오신젼은비록번갈ᄒᆞ오실지라도물
을 ᄂᆞ오시지마오시고가이쳥미음으로다음
을ᄃᆡ신ᄒᆞ여 ᄂᆞ오시게ᄒᆞ오쇼셔
ᄒᆡ만후근신졔방
ᄒᆡ만ᄒᆞ오신후즉시평안이눕ᄌᆞ오시고ᄆᆡ신부녀
로ᄒᆞ여곰셔셔 히요부와각부발피오시기를무
수이ᄒᆞ오시며
하얼에ᄂᆞ방즁이너무덥게마오시며ᄯᅩᄒᆞᆫ사름이
만아귀운이훈증케마오시며
음식을과포치마오시고ᄯᅢ로깅반을 ᄂᆞ오셔날
ᄂᆞ졈졈더 ᄂᆞ오시고싱링과단단ᄒᆞ온것슬일

쌀밥을 말아 아주 따뜻하게 하여 억지로 자주 드시어 원기元氣를 돕도록 하시며, 해산 당월에는 굳은 수라와 차진 떡이나 만두 등과 마른 포육과 마른 어물과 기름진 음식과 기름에 지진 것 등 소화하기 어려운 것은 드시지 마시며 해만 하기 전에는 비록 목이 마르더라도 물을 먹지 마시고, 자주 청미음으로 물을 대신하여 드시도록 하소서.

해만 후 근신제방解娩後謹愼諸方 : 해만 하오신 후, 즉시 평안히 누우시고 모시고 있는 부녀로 하여금 서서히 허리와 다리 부위를 무수히 밟게 하시며, 여름철에는 방 안이 너무 덥게 하지 마시며, 또한 사람들이 많아 기운이 훈증케 하지 마시며,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때때로 국에 말은 밥을 드시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드시고, 날 것이나 찬 것이나 단단한 것을 일절 금지하시며, 유즙이 처음 모였을 때 비록 매우 아프지만 참으시고, 손으로 서서히 주물러 유즙을 흘러내리도록 하시어 멍울이 질 걱정이 없도록 하소서.

해태독법解胎毒法 : 아기씨 탄강하신 후 울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모시고 있는 부녀가 급히 보드라운 명주를 오른손 둘째손가락에 감아 황련감초탕에 담가 입안을 두루 씻으시고, 또 손가락에 꿀에 버무린 주사를 묻혀 입안에 두루 발라 삼키게 하시고 즉시 젖을 먹이지 마시고 꿀 주사를 모두 삼키기를 기다린 후 호두살을 콩알만 하게 부드러운 비단에 싸서 입안에 머금도록 하소서.

단제법斷臍法 : 탯줄을 배꼽으로부터 두 치 정도 남겨두고 실로 단단히 맨 후 조심해서 끊어내고 일절 잡아당기지 마시고 즉시 햇솜으로 덮어 삼가 풍한을 피하소서.

진유법進乳法 : 젖을 먹이실 때 매번 짜 버린 후에 먹이시고 밤에 자고 나면 젖을 또한 매번 짜 버린 후에 먹이시고, 비록 자주 먹이시지만

림산예지법

시산ᄒᆞ오실ᄯᆡ로브터쇼쇼 증후를ᄌᆞᄌᆞ의녀의
게 하교ᄒᆞ오셔ᄯᆡ밋쳐거힝ᄒᆞ옵게ᄒᆞ오시며
시산ᄒᆞ오실ᄯᆡ에 산실방즁방외에훤뇨와급ᄒᆞᆫ
거름을못ᄒᆞ게ᄒᆞ오시고맛당이문호를구지닷
ᄉᆞᆸ고고요히ᄯᆡ를기ᄃᆞ리오시며 산실방즁에
병풍과장을다만풍ᄒᆞᆫ을피ᄒᆞ오시고가이즁텹
지아니케ᄒᆞ옵고응울ᄒᆞ여더운거운이증핍케
마오시며의ᄃᆡ온량을반ᄃᆞ시ᄃᆞᆨ즁이ᄒᆞ오셔너
모ᄃᆞᄉᆞᄒᆞ며너모셔늘ᄒᆞ게마오시며

시산ᄒᆞ오실ᄯᆡ에년고ᄒᆞ고유식ᄒᆞ고슌근ᄒᆞᆫ부녀
삼ᄉᆞ인을갈히여좌우에붓드러뫼시게ᄒᆞ옵고
년쇼ᄒᆞ고셩졍이경조ᄒᆞᆫ사람과다못힝경ᄒᆞ는
사람은일졀출입을말게ᄒᆞ오시며

림산ᄒᆞ오실ᄯᆡ에셩셔를당ᄒᆞ오시면맛당이깁고
고요ᄒᆞᆫ집ᄒᆡ빗먼곳에거쳐ᄒᆞ오시고창호도여
르시고만이맑근물을담아노으사열귀를막게
ᄒᆞ오시며

복통이비록긴ᄒᆞ오시나경동치마오시며힘주오
시물일즉마오셔기ᄃᆞ리시고ᄌᆞ연힘주오시거
든가의ᄒᆞ여힘을쥬오시며

가의ᄒᆞ여평안이ᄆᆞ음을너기럽게ᄒᆞ오시고공겁
지마오시며

복통이비록긴ᄒᆞ오시나사람을붓드오시고완완
이힝보ᄒᆞ오시고만일곤ᄒᆞ오실ᄯᆡ겨오시거든

매번 부족하게 먹이시고 한 번에 지나치게 먹이지 마시며, 유모가 잠잘 때는 젖을 먹이지 마시고, 울음이 그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젖을 먹이시지 마소서.

세욕법洗浴法 : 분만하신 후 3일째에 목욕하는데, 탕수를 내의원에서 당일 마땅히 들일 것이니 다만 수건에 약간씩 묻혀 씻으시되 오래 하지 마시며 이후 목욕하실 때 매번 돼지 쓸개의 즙을 조금씩 넣으소서.

보호법保護法 : 무릇 소아의 살갗이 실하지 못하니 의복과 덮는 것을 두껍게 하지 마시어 땀이 나지 않게 하시고 백일 후에 날씨가 온화하고 바람 없는 날에 자주 햇볕을 쬐도록 하시고, 항상 안아주고 눕히지 않으면 근골이 튼튼하지 못하기 쉬우니 자주 누이시며, 자주 울어야 태독이 흩어지는데, 울 때마다 젖을 드시게 하지 마시고 밤낮을 막론하고 잠잘 때는 팔을 베도록 하지 마시고, 콩으로 만든 베개를 베도록 하시고 함께 좌우에 누우시고, 옷과 이부자리는 따뜻하게 하지만 머리와 얼굴은 드러나도록 하시고 항상 반듯하게만 누이지 마시고 때때로 엎드려 눕게 하시며, 추운 날에는 의복을 반드시 칠팔십세 노인이 입던 옷을 고쳐 아이 옷을 만들면 진기가 서로 길러주어 반드시 장수하시고, 새 솜을 사용하여 옷을 너무 덥게 하지 마시며, 머리는 서늘하게 하시며 가슴도 서늘하게 하시며 등은 따뜻하게 하시며 다리도 따뜻하게 하시며 배 부위도 항상 따뜻하게 하소서. 목욕을 자주 하지 마시며 낯선 사람과 괴이한 행동을 보지 말도록 하소서.

김호, 국역, 개인 교신, 2023. 3. 13.

18. 언서첩諺書帖, 1802년

언셔텹
공손히싱각ᄒᆞᄂᆞᆫ디이두텹이ᄀᆞᆫ인즉
ᄉᆞᆫ조 어필이시오곤인즉
뉵셩 언찰이시라 혹도위ᄅᆞᆯ
명ᄒᆞ여주오심이오혹공쥬ᄅᆞᆯ
온혜로뭇ᄌᆞ오심이니이르히
슉묘 어졔ᄒᆞᆫ옵신시뉼과
영고 친찬ᄒᆞᆫ옵신발문ᄀᆞᆺ툴은더욱이
죵으로주오심이라가장ᄒᆞᆫ구본이ᄀᆞᆺ며젹음이가ᄌᆞ지아니ᄒᆞ여편안히
ᄆᆡ시ᄋᆞᆯ도리에편치못ᄒᆞᆫ배잇ᄂᆞᆫ고로이제고처쟝ᄒᆞ며합ᄒᆞ여부쳐두
권올밍골아
언셔텹ᄉᆞᆺ힌공경히
인현왕후 친히밍골ᄋᆞ옵신비단으로부친션낭쌍룹을부쳐ᄒᆞ여 곰길히
ᄃᆡ로젼홈을ᄃᆞᆺ노니이거시이에ᄌᆞ손이되야ᄂᆞᆫ다 힝홈이오인신ᄋᆡ이
심앤영홰라가히후곤으로ᄒᆞ여곰셕실과금궤의 감초고호위ᄒᆞ여쟝
ᄎᆞ써텬디와더불며
국가와ᄒᆞᆫ가지로그오림ᄋᆞᆯᄌᆞ치흘거시니엇디감히심샹ᄒᆞᆫ츙보로만써
의논ᄒᆞ리오
당져이년입슐중츄의 외예신진셕황공경지
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서

언서첩

공손히 생각하는데 이 두 첩이 건인즉 사조 어필이시고 곤인즉 육성 언찰이시다. 혹은 도위에게 명하여 주신 것이고 혹은 공주에게 은혜로 물으신 것이니 숙종께서 어제하신 시율과 영조께서 친히 찬하신 발문 등에 이르러서 더욱이 은총으로 주심이다. 가장한 구본이 크고 적음이 가지런하지 아니하여 편안히 모실 도리에 편치 못한 바 있는 고로 이제 다시 장정하며 합하여 붙여 두 권을 만들어 언서첩 끝에 공경히 인현왕후께서 친히 만드신 비단으로 붙인 선낭 쌍 몸을 붙여서 길이 대대로 전함을 짓노니 이것이 이에 자손이 되어서는 다행인 것이고 인신으로 있어서는 영화이다. 가히 후손으로 하여금 석실과 금궤에 감추고 호위하여 장차 천지와 더불어 국가와 한가지로 그 오램을 같이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예사로운 중보로만 여겨 의논하리오.

당저 이년 임술 중추에 외손이며 신하인 진석이 황공하옵게도 받들어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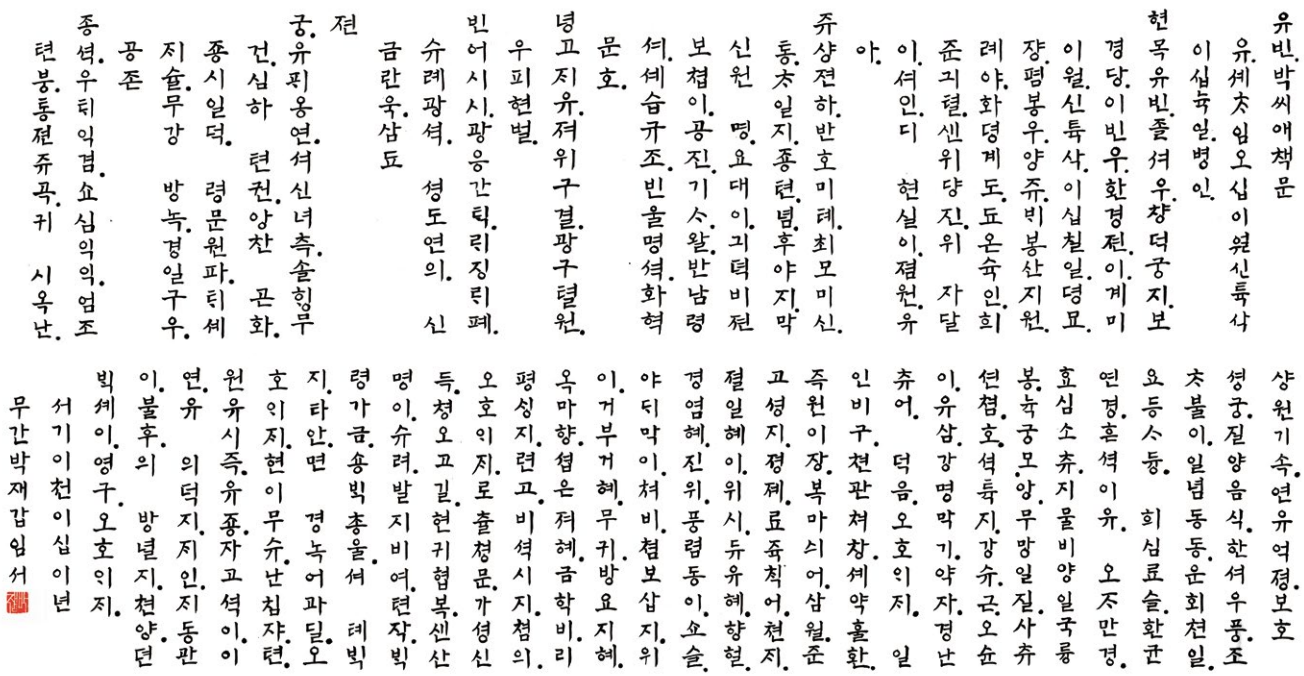
원본 크기 : 24.9x9.9cmx첩
작품 크기 : 39.0x31.0cm
자료 출처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21쪽
자료 제공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2022. 10. 5.

언간 취지

이 '언셔텹'은 신한첩宸翰帖 곤坤의 첫 장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정진석鄭晋錫이 편지를 장정裝幀하면서 직접 써넣은 것이다. '언셔텹'에는 장정의 경위, 목적, 방법, 시기 등이 실려 있다. 한편, 책의 표제와 달리 '언셔텹'이라 쓴 것은 왕이나 왕비, 공주 등이 쓴 한글 편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언셔텹'의 앞 부분을 보면, 당시 이 책이 '건乾'과 '곤坤'으로 나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ᄉ'조 , 즉 효종, 현종, 숙종, 영조 4대의 편지가 '건乾'이고 '뉵성', 즉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의 편지가 '곤坤'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계명대학교 소장본 신한첩宸翰帖 곤坤은 이 곤坤에 해당한다. 물론 이 책에는 '뉵성'외에 장렬왕후의 편지도 있다. 한편 '건乾'과 '곤坤'을 각각 '어필'과 '언찰'로 달리 명칭하였는데 김일근, 이종덕(2000)에 따르면 '건乾'은 한문으로 작성된 편지로 추정된다, '언셔텹'의 말미에 있는 "당져이년임슐즁츄 외예신진셕황공경지 堂宁二年壬戌仲秋 外裔臣晋錫惶恐敬識"를 통해 간행자(정제현의 5대손인 정진석鄭晋錫, 1779~?)와 간행 시기(1802년, 순조 2년(壬戌) 중추仲秋)를 알 수 있다.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44~48쪽

19. 유빈박씨애책문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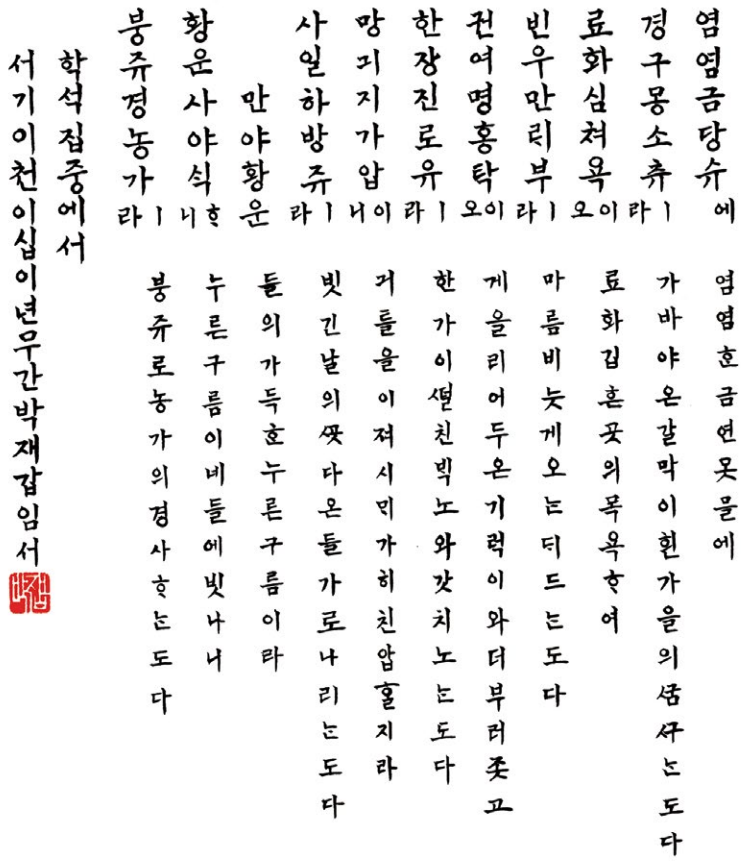
원본 크기 : 19.0x15.9cm
작품 크기 : 23.0x155.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30~231쪽

1823년 2월 27일에 유빈박씨綏嬪朴氏, 1770~1822를 양주 배봉산에 안장하며 지은 애책문을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유빈박씨는 정조의 후궁이며 순조의 생모로, 1822년 12월 26일 창덕궁 보경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애책문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지었다. 애책문은 발인 전에 거행하는 견전遣奠때 읽는다. 왕실의 여성이 주관하는 예식에는 남성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문을 알지 못하는 여관女官을 위해 한문본을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다. 붉은 먹으로 칸을 그리고 반듯한 정자체로 한글을 적었다. 또한 의미 구분을 위해 끊어 읽어야 하는 위치에 붉은 먹으로 표점을 찍었다. 유빈박씨 명칭에 대해 그동안 '綏'의 음을 '수'로 읽기도 하고 '유'로 읽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자의 독음을 옮긴 이 자료에서 '수綏'를 '유'로 표기하고 있어 명칭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글은 유빈박씨의 깊고도 아름다운 성품을 칭송하며, 세상을 떠났지만 아름다운 덕은 영원히 사람들에게 남아 전할 것이라는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공철 찬, 1823년(순조23), 1첩, 필사본, 19.0x15.9cm, 2-30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230~231쪽

20. 학석집(익종)鶴石集, 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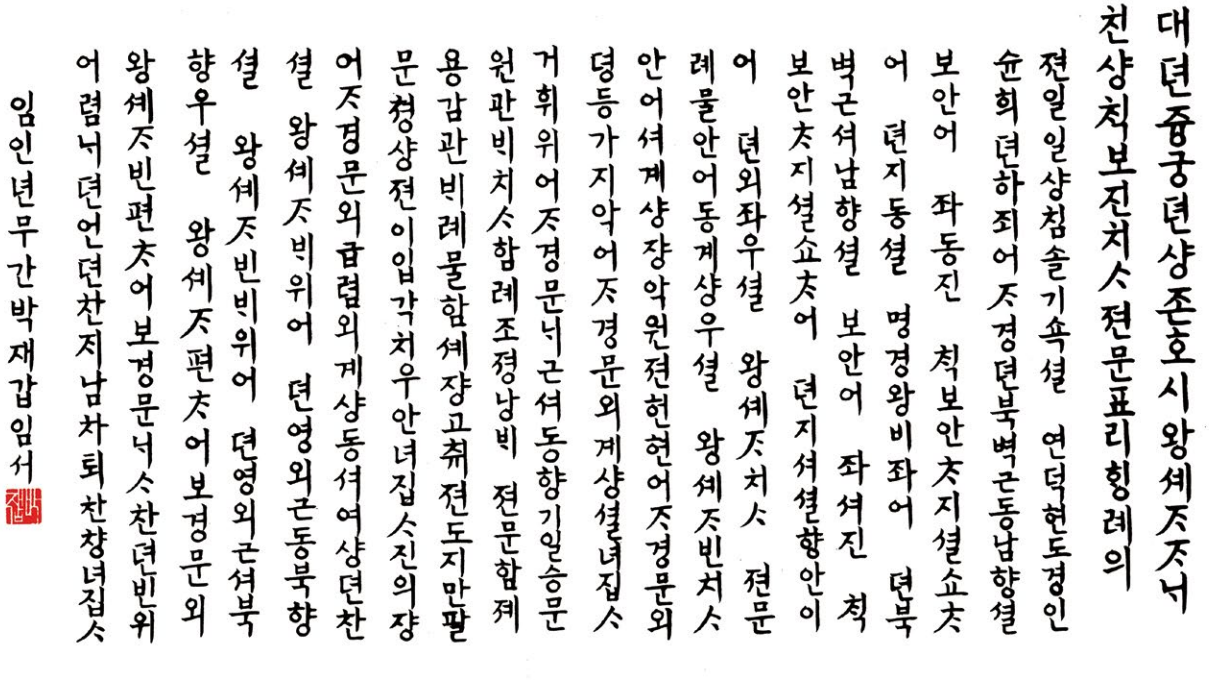


원본 크기 : 25.7x18.9cm
작품 크기 : 27x20cm
자료 출처 : 효명세자 지음, 19세기, 종이에 필사, 25.7x18.9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학석鶴石은 덕온공주의 오빠 효명세자의 호이다. 덕온공주의 오빠 효명세자孝明世子(익종 추존, 1809~1830)가 쓴 초기 시를 모은 것이다. 한문본 학석집 일부를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남성들의 문집 중 유일하게 한글본이 남아 있는 사례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누이들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효명세자가 그 마음을 누이들과 나누고자 한글로 시를 번역하였다. 상층부 남성이 여성 가족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한글 사용을 확대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국립한글박물관,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 공쥬 글시 뎍으시니』,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년, 18~19쪽

21. 대전중궁전상존호후황세자자내진작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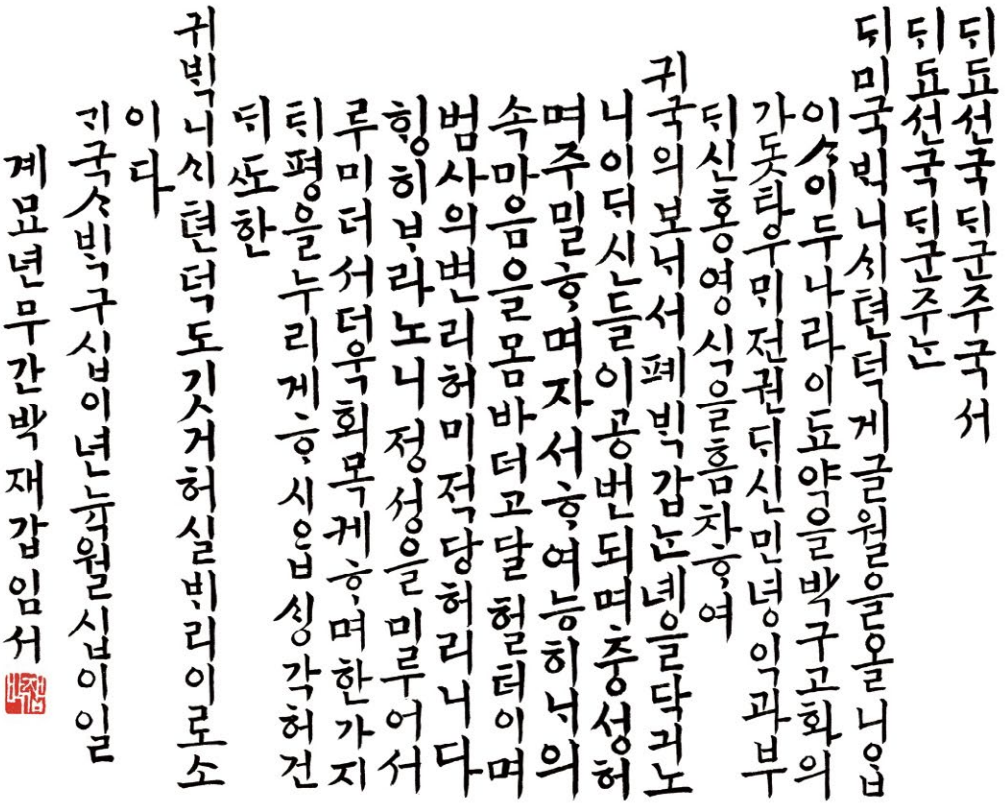

대뎐즁궁뎐상존호시왕셰ᄌᆞᄌᆞ니
천상칙보진치ᄉᆞ젼문표리힝례의
젼일일상침솔기쇽셜 연덕현도경인
슌희뎐하죄어ᄌᆞ경뎐북벽근동남향셜
보안어 좌동진 칙보안ᄎᆞ지셜쇼ᄎᆞ
어 뎐지동셜 명경왕비좌어 뎐북
벽근셔남향셜 보안어 좌셔진 칙
보안ᄎᆞ지셜쇼ᄎᆞ어 뎐지셔셜향안이
어 뎐외좌우셜 왕셰ᄌᆞ치ᄉᆞ 젼문
례물안어동계샹우셜 왕셰ᄌᆞ빈치ᄉᆞ
안어셔계샹장악원젼헌현어ᄌᆞ경문외
뎡등가지악어ᄌᆞ경문외계샹셜녀집ᄉᆞ
거휘위어ᄌᆞ경문ᄂᆡ근셔동향기일승문
원판빅치ᄉᆞ함례조졍낭빅 젼문함졔
용감관빅례물함셰장고취 젼도지만팔
문졍샹젼이입각치우안녀집ᄉᆞ진의쟝
어ᄌᆞ경문외급렴외계샹동셔여샹뎐찬
셜 왕셰ᄌᆞ빅위어 뎐영외근동북향
셜 왕셰ᄌᆞ빈빅위어 뎐영외근셔북
향우셜 왕셰ᄌᆞ편ᄎᆞ어보경문외
왕셰ᄌᆞ빈편ᄎᆞ어보경문ᄂᆡᄉᆞ찬뎐빈위
어렴ᄂᆡ뎐언뎐찬지남차퇴찬챵녀집ᄉᆞ
임인년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25.3x12.5cmx첩
작품 크기 : 32.5x48.0cm
자료 제공 : 禮曹(朝鮮) 編,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 奎27613, M/F82-16-61-F,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순조純祖와 순조비純祖妃에게 존호尊號를 올릴 때 왕세자王世子와 왕세자빈王世子嬪이 책보冊寶와 치사전문致詞箋文을 올리는 의례儀禮의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 홀기笏記.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서명의 한자표기는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이다. 순조를 "연덕현도경인순희전하", 순조비를 "명경왕비"로 각각 호칭하고 있다. 『대젼즁궁뎐상존호시왕ᄌᆞᄌᆞ니진쟉힝례홀긔』<奎 27612>와 함께 작성된 것이다. (윤경진)

禮曹(朝鮮) 編,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 奎27613, M/F82-16-61-F,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1883년 6월 12일



작품 크기 : 34.0x40.0cm. 한지에 먹. 2023년 2월
자료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갓든 이약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20쪽

1853년, 조선이 처음 미국과 마주했을 때, 미국은 미지의 나라였다.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 이후 미국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려 한 무지한 오랑캐, 즉 양이洋夷가 되었다. 1882년 조선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다각적 외교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양 국가와는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하 조미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체결 이후 1883년 미국으로 파견된 보빙사報聘使는 미국의 발전된 도시와 기술을 경험했다. 당시 보빙사 대표였던 민영익이 미국을 '광명 세계'라 칭할 만큼, 미국은 '오랑캐 나라'에서 '배워야할 나라'로 탈바꿈했다.

1883년(고종20) 7월 민영익閔泳翊(1860~1914년), 홍영식洪英植(1855~1884년), 서광범徐光範(1859~1897년) 등 11명의 보빙사報聘使 일행은 조선 최초로 미국을 견문했다. 보빙사는 미국 제21대 대통령 아서(Chester Alan Arthur, 재임 1881~1885년)를 직접 만나 국서國書를 전달했다. 국서에 '대조선국大朝鮮國'임을 밝히고 조선 개국 연호를 사용했다. 보빙사 일행은 보스턴 산업 시설을 시찰한 후, 여러 나라를 거쳐 인천항에 귀국하기까지 총 11개월간 세계 일주를 했다. 이때 경험한 선진 물물은 조선 정부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들이 습득한 근대 문물과 지식은 이후 국내 개화 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

보빙사 일행은 1883년 7월 미국 해군함정을 타고 인천을 떠나 일본에 도착했고,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거쳐 다시 여객선을 탄 뒤 태평양을 건너 9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했다. 이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시카고와 워싱턴D.C.를 거쳐 9월 18일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fifth Avenue)호텔에 머물던 아서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국서를 전달했다.

1883년 9월 18일 보빙사 일행은 아서 대통령에게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와 대조선국대군주회답大朝鮮國大君主回答을 전달했다. 뉴욕헤럴드는 이 중 대조선국대군주국서와 국서제정사의 한글 번역문과 영문 번역문을 함께 실었고, 기사를 통해 조선이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보빙사 방문에 대한 당시 미국 언론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이다.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갓든 이약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12~21쪽

이「한글 국서」는 한문으로 된 국서를 번역하여 미국신문에 전문이 게재되었다. 한글문서가 미국신문에 소개되기는 처음이다. 원문은 구철자 순한글로 되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기했다.

대조선국군주大朝鮮國大君主께서 아서大美國伯理璽天德, 대통령게 글월을 올립니다. 이 두 나라가 조약條約을 맺어 화의和誼가 두터워지며 전권대신全權大臣 민영익閔泳翊과 부대신副大臣 홍영식洪英植을 흠차欽差하여 귀국貴國의 보ᄂᆡ서 폐 빅 幣帛 갑ᄂᆞᆫ 녜禮을 닥 ᄀᆡ노니 이 ᄃᆡ신大臣들이 공번公反되며 충성忠誠허며 주밀周密ᄒᆞ며 자서仔細ᄒᆞ여 능能히 ᄂᆡ의 속마음을 몸바더 고달告達헐 터이며 범사凡事의 변리辨理허미 적당適當허리니 다힝多幸히 ᄇᆞ라노니 정성精誠을 미루어 서루 미더서 더욱 화목和睦케 ᄒᆞ며 한가지 ᄐᆡ평泰平을 누리게 ᄒᆞ시옵 싱각허건ᄃᆡ 또한 귀빅니ᄉᆡ텬덕貴伯理璽天德도 깃거허실비리이로 소이다

개국 사백구십이년 유월 십이일開國 四百九十二年 六月 十二日(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 ≪舊韓國外交文書≫ 권 10, 21쪽).

현대어 역:

대조선국 대군주는

대미국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에게 글월을 올립니다.

요사이 두 나라가 조약을 바꾸고 화의가 도타움에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을 흠차하 여 귀국에 보내서 폐백 갚는 예를 닦게 하니 이 대신들이 공번 되며 충성하며 주밀하며 자서 하여 능히 나의 속마음을 몸받아 고달할 터이며 범사에 변리함이 적당하리니 다행히 바라노니 정성을 미루어 서로 믿어서 더욱 화목케 하며 한가지로 태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생각하건대 또한 귀 백리새천덕도 기뻐하실 바이로소이다.

개국 492년 6월 12일

이현주 책임연구원 국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조선국왕의 國書

His following is a translation of the credentials of the Ambassadors from the King of Corea to President Arthur, given in fac-simile above:

His Majesty the King of Tah Chosun To His Excellency Chester A. Arthu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ratifications of the treaty concluded between our countries having now been exchanged and friendly relations established, I now send to the United States [page 11] of America as Minister Plenipotentiary and envoy extraordinary, Min Yong Ik, and as vice minister, Hong Yong Sik, in order to convey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gratification. Being in my confidence and instructed so fully to express my ideas, they will no doubt satisfactorily perform their duties, and I hope that full faith and credence will be given to them, in order that the friendship of our countries may be increased and that perfect harmony may be attained.

I have no doubt that your excellency will fully share my views. Done under my own hand and seal in the four hundred and ninety second year of My House, sixth moon, eleventh day (14 july, 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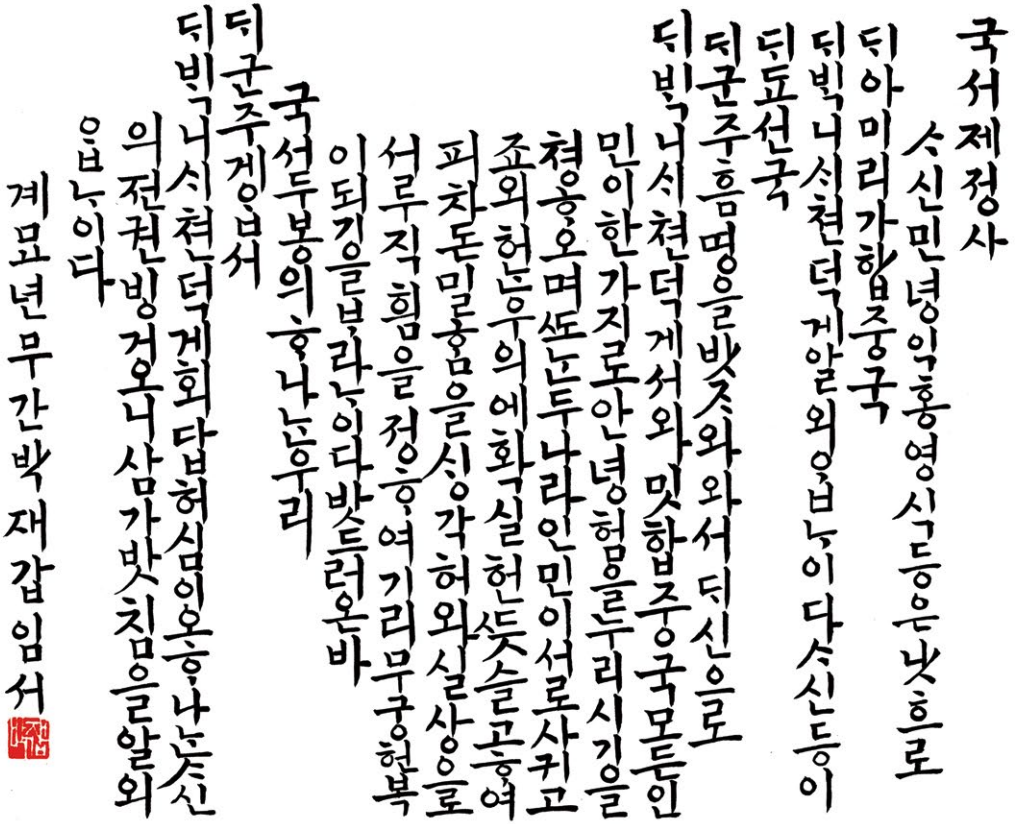
(seal) THE KING OF TAH CHOSUN.

By order

(seal) MIN YONG MOK,

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

23.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 1883년 9월 18일



작품 크기 : 34.0x40.0cm, 한지에 먹, 2023년 2월
자료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갓든 이약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20쪽

민영익은 국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제정사提呈辭를 했다.
ᄉᆞ신使臣 민녕익閔泳翊 홍영식洪英植 등等은 낫흐로 ᄃᆡ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 國 ᄃᆡ빅니ᄉᆡ천덕大伯理璽天德게 알외옵ᄂᆞ이다 ᄉᆞ신등使臣等이 ᄃᆡ됴선국大朝鮮國 ᄃᆡ군주大君主 흠명欽命을 밧ᄌᆞ와 와서 ᄃᆡ신代身으로 ᄃᆡ빅니ᄉᆡ천덕게서와 밋 합중국 모든 인민人民이 한가지로 안녕安寧험을 누리시기을 청請ᄒᆞ오며 ᄯᅩᆫ 두나라 인민이 서로 사귀고 죠와허ᄂᆞᆫ 우의友誼에 확실헌 ᄯᆞᆺ슬 고ᄒᆞ여 피차 돈밀敦密을 ᄉᆡᆼ각허와 실상實狀으로 서 루 직힘을 정定ᄒᆞ여 기리 무궁無窮헌 복福이 되기을 ᄇᆞ라ᄂᆞ이다 밧드러온 바 국서國書 두 봉封의 ᄒᆞ나ᄂᆞᆫ 우리 ᄃᆡ군주게옵서 ᄃᆡ빅니ᄉᆡ천덕게 회답回答허심이오나ᄂᆞᆫ ᄉᆞ신의 전 권빙거全權憑據오니 삼가 밧침을 알외옵ᄂᆞ이다 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현대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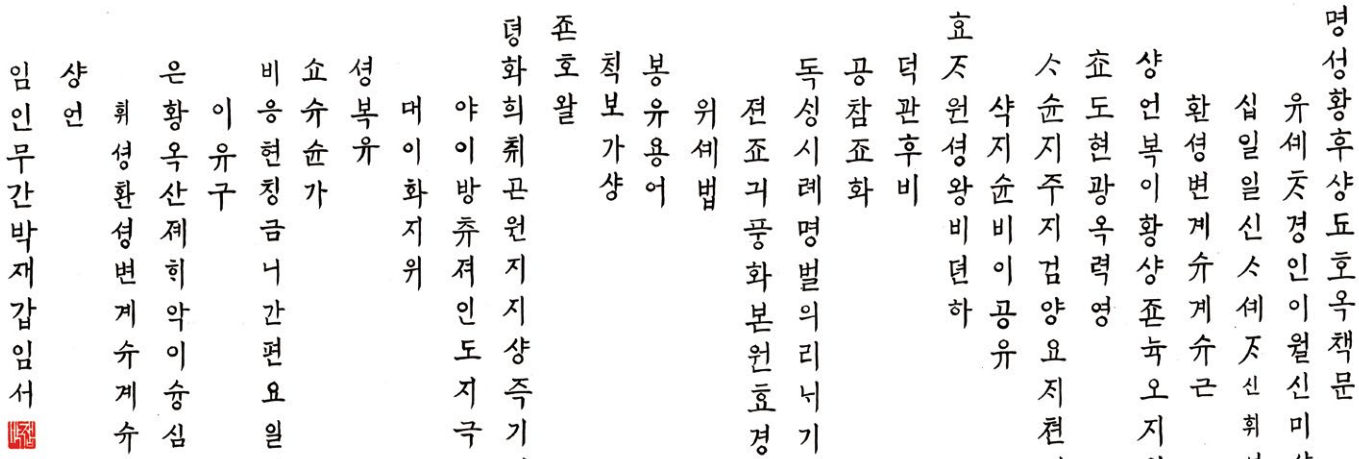
사신使臣 민영익閔泳翊 홍영식洪英植 등等은 낯으로 대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 國 대백리새천덕大伯理璽天德께 아뢉니다. 사신등使臣等이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 흠명欽命을 받자와 와서 대신代身으로 대백리새천덕께서와 및 합중국 모든 인민人民이 한가지로 안녕安寧함을 누리시기를 청請하며 또는 두 나라 인민이 서로 사귀고 좋아하는 우의友誼에 확실한 뜻을 고하여 피차 돈밀敦密함을 생각하여 실상實狀으로 서로 지킴을 정定하여 길이 무궁無窮한 복福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받들어온바 국서國書 두 봉 封의 하나는 우리 대군주께서 대백리새천덕께 회답回答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사신의 전 권빙거全權憑據이오니 삼가 받침을 아뢰옵나이다. 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이현주 책임연구원 국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사절단의 提呈辭

Following is the text of the address delivered by the ambassadors on the part of the King to the President:
To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e, Min Yong Ik and Hong Yong Sik, are present in person to address Your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gether we have come to Your Excellency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ah Chosun. We desire to convey to Your Excellency from our hearts our sincere wishes for the health and welfare of Your Excellency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of our countries having entered into friendly intercourse with each other and having both on our side and yours bound themselves mutually to continue these happy relations, we pray that the people of both our lands may live forever without change in peace and happiness. We beg to offer to Your Excellency two official papers from our government. The first is a reply to Your Excellency from His Majesty the King of Tah Chosun. The second is our letter of credentials, which we herewith ask leave to present.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명성황후샹됴호옥책문
유셰ᄎᆞ경인이월신미샥
십일일신ᄉᆞ셰ᄌᆞ신휘셩
환셩변계슈계슈근
샹언복이황샹죤뉵오지위
죠도현광옥력영
ᄉᆞ슌지주지검양요지젼경
샥지슌비이공유
효ᄌᆞ원셩왕비뎐하
덕관후비
공참죠화
독싱시례명벌의리ᄂᆡ기가
젼죠긔풍화본원효경시
위셰법
봉유용어
칙보가샹
죤호왈
뎡화희취곤원지지샹즉기뎡
야이방츄져인도지극공
뎨이화지위
셩복유
쇼슈슌가
비응현칭금ᄂᆡ간편요일셩
이유구
은황옥산졔희악이슝심신
휘셩환셩변계슈계슈
샹언
임인무간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26.9x15.9cm
작품 크기 : 31.0x80.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24~225쪽

[정의]

1890년(고종27) 2월에 고종비高宗妃에게 존호 올리는 책문을 한글로 필사한 것.

1890년(고종27) 2월 11일 고종비高宗妃의 보령寶齡이 망오望五인 41세되는 것을 기념하여 왕세자의 주청으로 가상존호도감에서 존호를 올렸다. 제술관 및 서술관은 "옥책문제술관玉冊文製述官 자헌대부지돈녕부사資憲大夫知敦寧府事 홍문관대제학지춘추관지성균관사弘文館大提學知春秋館知成均館事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신臣 한장석韓章錫","서사관書寫官 자헌대부資憲大夫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 신臣 민영소閔泳韶",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議政

府右議政 겸영兼領 경연사감춘추관사經筵事監春秋館事 총리내무부사總理內務府事 신臣 조병세趙秉世" 등이다.

[체재 및 내용]

명성황후明成皇后(1851(철종哲宗 2)~1895(고종高宗 32))는 고종의 비로 흔히 민비라고 불린다. 본관本官은 여흥驪興.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치록致祿의 딸이다. 여덟살에 고아가 되었으며, 1866년(고종3) 왕비로 간택되어 고종의 비로 입궁하였다. 소녀시절부터 『춘추春秋』를 읽을 정도로 총명했다. 왕후였으나 정치에 간여하여 정적政敵인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켰으며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을 움직여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는 등 개화시책을 승인하게 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충주에 피신해 있으면서 청나라와 연락하여 대원군을 청나라에 납치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명성황후가 청나라와 가까워지자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은 대원군을 내세워 민비세력을 제거하려하였고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대항하였다. 1895년 8월 일본군대의 정치 낭인들이 왕궁을 습격하여 민비를 시해한 뒤 정권을 탈취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때 정부는 친일 정책을 펴서 폐비시켰다가 10월 10일 복위시켜 태원전泰元殿에 빈전을 설치하고 숭릉崇陵 우강에 능호를 숙릉肅陵이라 하여 국장을 준비시켰다. 1897년 명성황후로 추책되고 난 뒤 11월 양주 천장산天藏山 아래 국장되어 홍릉洪陵이라 하였다. 1919년 고종이 죽자 2월 미금시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다. 이 책문은 1890년(고종27) 명성황후의 보령寶齡이 망오望五인 40세 되는 것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린 것으로 이해 2월 11일 세자의 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용은 효자원성孝慈元聖왕비전하가 덕과 공이 뛰어나고 효경孝敬하여 대왕대비를 잘 받들었으며, 왕비가 된 뒤 보필을 잘하여 나라에 온갖 복이 들게 하였다고 하면서 40세 이후에도 송백松柏같기를 바라며 '정화正化'라는 존호를 올린다고 하였다.

1890년(고종 27)에 고종비高宗妃의 망오望五인 41세를 기념하여 고종高宗, 익종비翼宗妃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 헌종계비憲宗繼妃 명헌왕후明憲王后 홍씨洪氏, 그리고 고종비高宗妃에 대해 존호가 가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례의 양상이 『가상존호도감의궤加上尊號都監儀軌』(2-2794)에 기술되어 있다.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이 책문은 『명성황후가상존호옥책문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2-4045)의 한글본으로 당대 한글 연구에 도움을 준다.[소장현황 및 이본관계]

藏書閣에 유일본이 전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1.

『승정원일기』, 民族文化推進會, 2000.

『藏書閣所藏儀軌解題』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2,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2-40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8. 13.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왕실고문서 622

大朝鮮國
大君主致復于
大法國
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前大伯理璽天德卆로ㅌ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續聞
貴大伯理璽天德外시월ㅐ리예因議會公舉光登
寶位其在友睦之誼曷勝忻賀從此益敦前好以盡相與愛
好之意堅固不渝悉如
來諭誠朕之所大願也惟
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大朝鮮國開國五百三年朕御極之三十一年十月十一日
在漢陽景福宮親署名鈐寶

大君主 李熙

奉
勅外務大臣金允植
壬寅在民朴在甲臨

원본 크기 : 40.7x51.5cm
작품 크기 : 41.0x51.0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22 / 開國 50년(1894년) 10월 11일 / 40.7x51.5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大法國] 대통령 사디 카르노(Sadi Carnot)가 서거하고 장 카시미르 페리에(Jean Paul Pierre Casimir-Perier)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호를 지속하자는 내용으로 보내기 위해 작성한 국서. 1894년(고종 31) 10월 11일에 작성하였고, 고종의 친필 서명과 『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②前大伯理璽天德싸로노 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
③績聞貴大伯理璽天德싸싸시월 쎄리예 因議會公擧光登寶位 其在友睦之誼曷勝忻賀
④從此益敦前好以盡相與愛好之意堅固不渝悉如來諭誠朕之所大願也 惟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⑤大朝鮮國 開國五百三年 朕御極之三十一年 十月 十一日 在漢陽 景福宮 親署名鈐寶
⑥大君主 李熙『大朝鮮國寶』
⑦奉勅外務大臣 金允植『外務大臣之印』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大法國(프랑스) 대통령大伯理璽天德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전 대통령 카르노(Sadi Carnot)께서 불행하게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어서 귀 대통령 카시미르 페리에(Jean Casimir-Perier)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의와 친목의 입장에서 어찌 기쁨과 축하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
④이를 계기로 기존의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서로 간의 우호의 뜻을 변함없이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과 같으며, 진실로 짐이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귀 대통령께서 살펴 헤아려주십시오.
⑤대조선국 개국 503년, 짐의 등극 31년(1894) 10월 11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⑥대군주 이희『대조선국보』
⑦칙령을 받든 이 외무대신 김윤식『외무대신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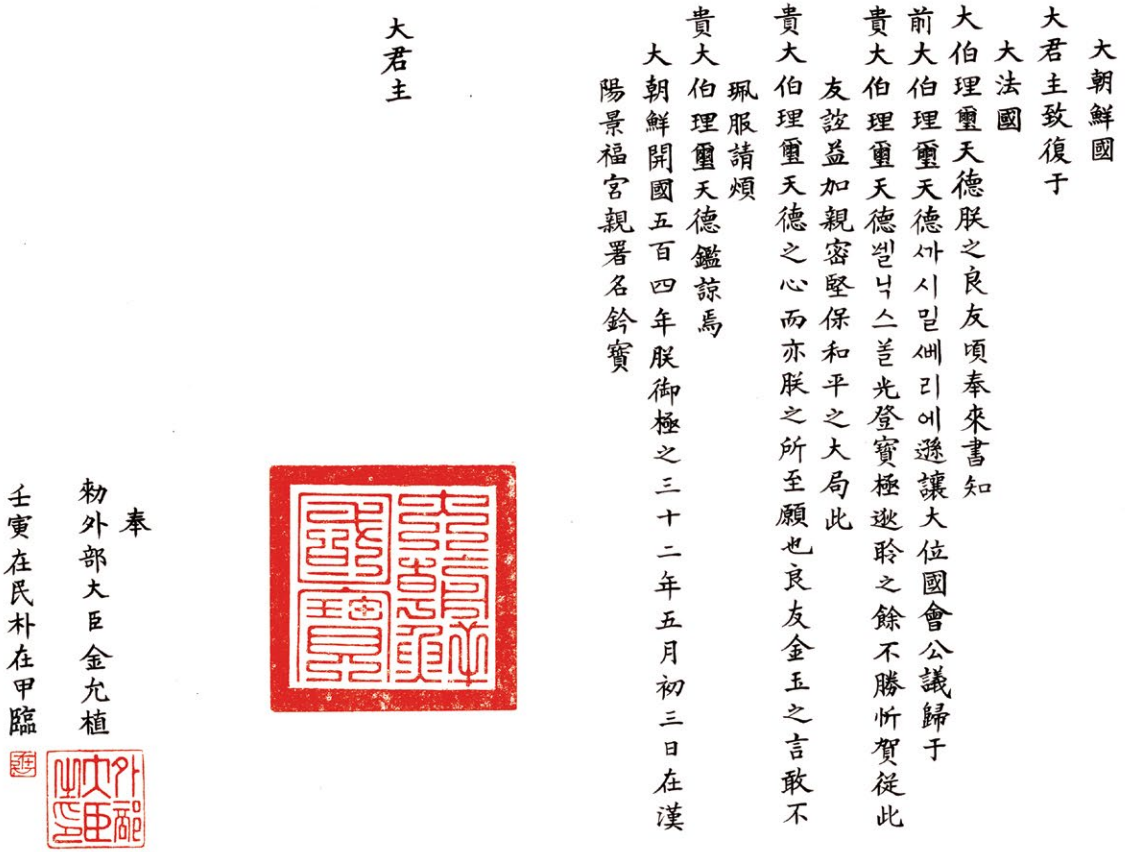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1894년 국서

1894년 10월 11일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의 즉위를 축하하며 양국兩國의 우위를 기원하는 국서의 부본이다. 전 대통령 카르노(Carnot)가 서거하고 이어서 카시미르 페리에(Jean Paul Pierre Casimir-Perier, 재임 1894~1895)가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오르자 축하한다는 내용이다. 실록을 참조해 보면, 10월 10일 고종이 함화당咸和堂에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를 접견하였는데, 이때 프랑스 대통령 즉위 사실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압御押이 없고 국왕의 성명을 기입하였고,『대조선국새大朝鮮國璽』가 안보安寶로 되어있다.(장서각 소장)

김건우,『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114~115쪽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왕실고문서 613



大朝鮮國
大君主致復于
大法國
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頃奉來書知
前大伯理璽天德사시밀쎄리에遜讓大位國會公議歸于
貴大伯理璽天德씰닉스쏠光登寶極逖聆之餘不勝忻賀從此
友誼益加親密堅保和平之大局此
貴大伯理璽天德之心而亦朕之所至願也良友金玉之言敢不
珮服請煩
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大朝鮮開國五百四年朕御極之三十二年五月初三日在漢
陽景福宮親署名鈐寶

大君主

奉
勅外部大臣金允植
壬寅在民朴在甲臨

원본 크기 : 40.7x51.5cm
작품 크기 : 41.0x51.0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613 / 開國 504년(1895년) 5월 3일 / 42x53.5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大法國] 대통령 장 카시미르 페리에(Jean Casimir-Perier)가 물러나고 펠릭스 포르(Felix Faure)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화평한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5년(고종 32) 5월 3일에 작성하였고, 『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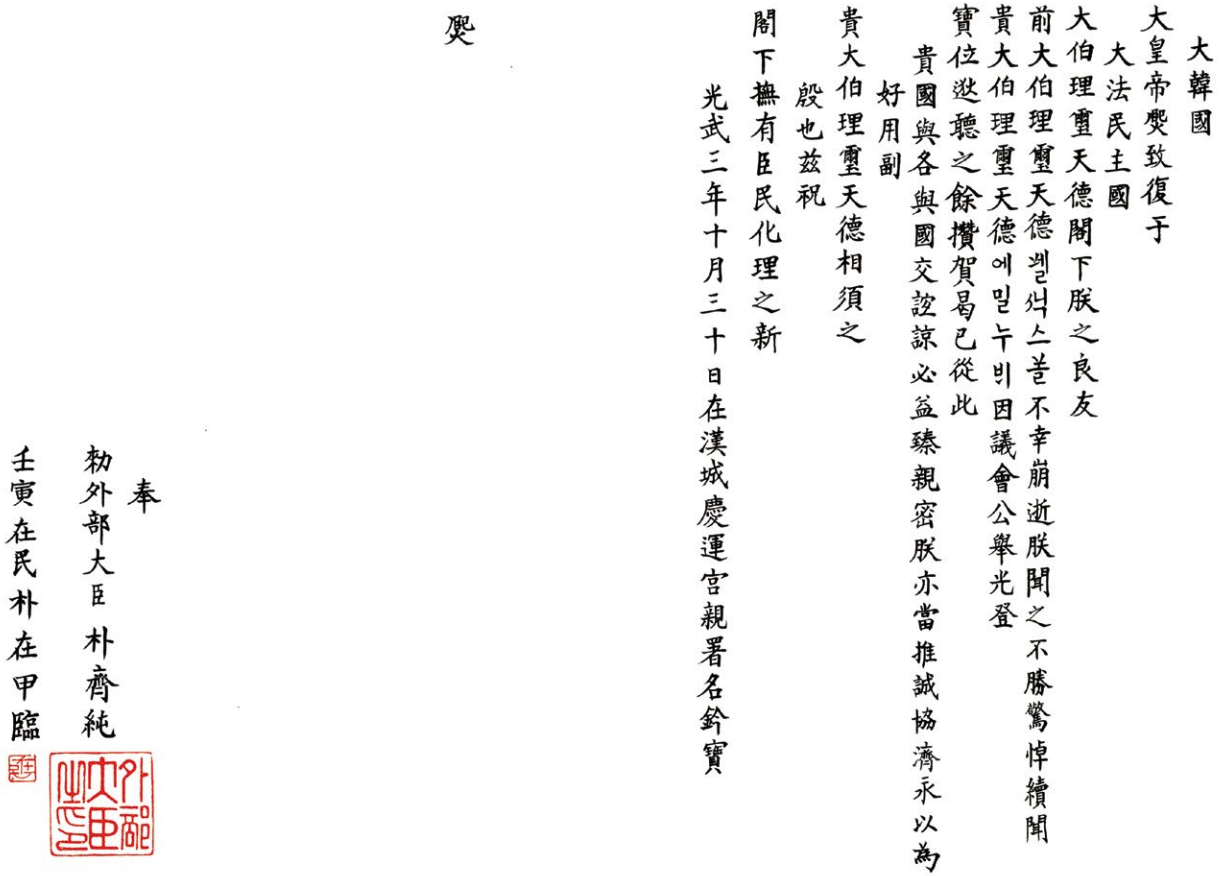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②頃奉來書知前大伯理璽天德싸시밀 쎄리에遜讓大位 國會公議歸于貴大伯理璽天德펠닉스폴光登寶極 逖聆之餘不勝忻賀
③從此友誼益加親密 堅保和平之大局 此貴大伯理璽天德之心而亦朕之所至願也
④良友金玉之言敢不珮服 請煩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⑤大朝鮮開國五百四年 朕御極之三十二年 五月 初三日 在漢陽景福宮 親署名鈐寶
⑥大君主『大朝鮮國寶』
⑦奉勅外部大臣 金允植『外部大臣之印』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大法國(프랑스) 대통령大伯理璽天德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얼마 전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 전 대통령 카시미르 페리에(Jean Casimir-Perier)가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났고, 국회의 공의가 귀 대통령 펠릭스 포르(Felix Faure)에게 돌아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기쁨과 축하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를 계기로 우의가 더욱더 친밀해져서 평화의 큰 장이 굳건하게 보전될 것입니다. 이는 귀 대통령의 생각이오, 또한 짐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④훌륭한 친구의 금옥金玉 같은 말씀을 감히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귀 대통령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⑤대조선 개국 504년, 짐의 등극 32년(1895) 5월 초3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⑥대군주『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⑦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김윤식『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 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왕실고문서 617



大韓國
大皇帝陛致復于
大法民主國
大伯理璽天德閣下朕之良友
前大伯理璽天德쎌쉬스불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續聞
貴大伯理璽天德에밀누비因議會公舉光登
寶位遂聽之餘攢賀曷已從此
貴國與各與國交誼諒必益臻親密朕亦當推誠協濟永以為
好用副
貴大伯理璽天德相須之
殷也茲祝
閣下撫有臣民化理之新
光武三年十月三十日在漢城慶運宮親署名鈐寶

璽

奉
勅外部大臣 朴齊純
壬寅在民朴在甲臨

원본 크기 : 40.7x51.5cm
작품 크기 : 41.0x51.0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17 / 光武 3년(1899년) 10월 30일 / 41.5x51.8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大法國] 대통령 펠릭스 포르(Felix Faure)가 서거하고 에밀 루베(Emile Loubet)가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직에 오르자 고종 황제가 즉위 축하와 더불어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협조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9년(광무 3) 10월 30일에 작성하였고, 말미에 고종의 어휘御諱가 씌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①大韓國大皇帝熙致復于大法民主國大伯理璽天德閣下朕之良友
②前大伯理璽天德펠[ㅍ + ㅣ + ㄱ]스폴不幸崩逝 朕聞之不勝驚悼
③績聞貴大伯理璽天德에밀누비因議會公擧光登寶位 逖聽之餘 攢賀曷已
④從此貴國與各與國交誼諒必益臻親密　朕亦當推誠協濟　永以爲好用副貴大伯理璽天德相須之殷也
⑤玆祝閣下撫有臣民化理之新
⑥光武三年 十月三十日在漢城 慶運宮 親署名鈐寶
⑦熙
⑧奉勅外部大臣 朴齊純『外部大臣之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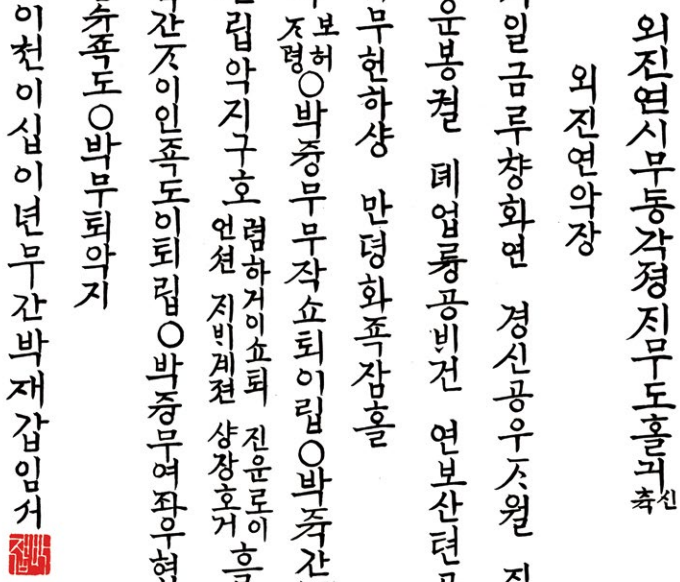
①대한국 대황제 희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민주국(大法民主國: 프랑스) 대통령(大伯理璽天德) 각하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전 대통령 펠릭스 포르(펠닉스 폴, Felix Faure)께서 불행히도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어서 귀 대통령 에밀 루베(에밀누비, Emile Loubet)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축하를 금할 수 없습니다.
④이를 계기로 귀국은 여러 우방[與國]과 우의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짐 역시 당연히 정성껏 협력하여 영원히 우호를 다질 것이며, 이로써 귀 대통령의 성대한 우정에 부응할 것입니다.
⑤이에 각하께서 새롭게 신민臣民을 잘 다스려나가시길 축원합니다.
⑥광무 3년(1899) 10월 30일 한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⑦희熙
⑧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조선이 대한으로 바뀐것은 1897년 10월 국제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때문이다.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2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도홀기外進宴時舞童各呈才舞圖笏記, 1901년


외진연시무동각졍지무도홀긔 츅신
외진연악장
셔일금루챵화연 경신공우ᄌᆞ원 질쥬함영쇼쇼
오운봉궐 뎨업룡공비건 연보산텬공개물 쳔관
비무헌하샹 만뎡화폭잠홀
박 보허ᄌᆞ령○박중무무작쇼퇴이립○박쥭간ᄌᆞ이인죡도이
진립악지구호 렴하거이쇼퇴 진운로이 언션 지비계젼 샹장호거 홀○박 보허ᄌᆞ령○박
쥭간ᄌᆞ이인죡도이퇴립○박중무여좌우협무진이립○박
렴슈죡도○박무퇴악지
이천이십이년무간박재갑임거

원본 크기 : 24.8x7.0cmx첩
작품 크기 : 36.0x28.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222쪽

1901년(광무 5) 고종황제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행한 진연進宴 중 7월 26일 외진연外眞宴의 공연에 대해 한글로 기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랐다. 표지 장황은 붉은색 비단으로 하였다. 제첨題簽은 흰색 비단 위에 묵서墨書하였는데, 흰색 비단 뒤에는 파란색 비단을 덧대었다. 서등을 푸른 비단으로 감싼 호접장蝴蝶裝이다. 본문은 주사란朱絲欄에 4행行 21자字로 기록하였다. 정재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변란 위쪽에 노란색 첨지를 붙여 찾아보기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앞표지 이면에 『장서각인藏書閣印』을 날인하였다. 순 한글본이다.

체제 및 내용

1901년 고종황제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월 경운궁의 함녕전咸寧殿에서 진연進宴을 베풀었다. 진연은 7월 26일에는 『외진연外眞宴』, 27일에는 『내진연內進宴』과 『야진연夜進宴』, 29일에는 『회작연會酌宴』과 『야연夜讌』으로 다섯 차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이 자료는 외진연에서 무동舞童이 공연했던 呈才와 관련하여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황태자가 지은 악장인 『만년환萬年歡』과 외진연에서 무동이 공연한 『초무初舞』, 『봉래의鳳來儀』 등 19종의 정재 배열 및 절차, 『태평가太平歌』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각각은 먼저 춤의 제목이 나오고 다음 줄에 춤추는 대형을 그림으로 그린 후 각 무인舞人의 이름을 해당 위치에 기록하였다. 다음 줄에는 연주하는 악곡명을 제시하고 춤추는 순서를 동작별로 읽기 쉽도록 흰 권점으로 구분하여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하는 가사를 중간중간에 써 놓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가사가 실려 있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15세기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비교할 때 표기뿐 아니라 표현이 바뀐 곳도 많고 당시의 음운 변화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또 "블근 글을 무러 침실의 펴 안즈니"와 같은 예에서는 '잎'이란 단어를 알지 못하여 가사가 완전히 왜곡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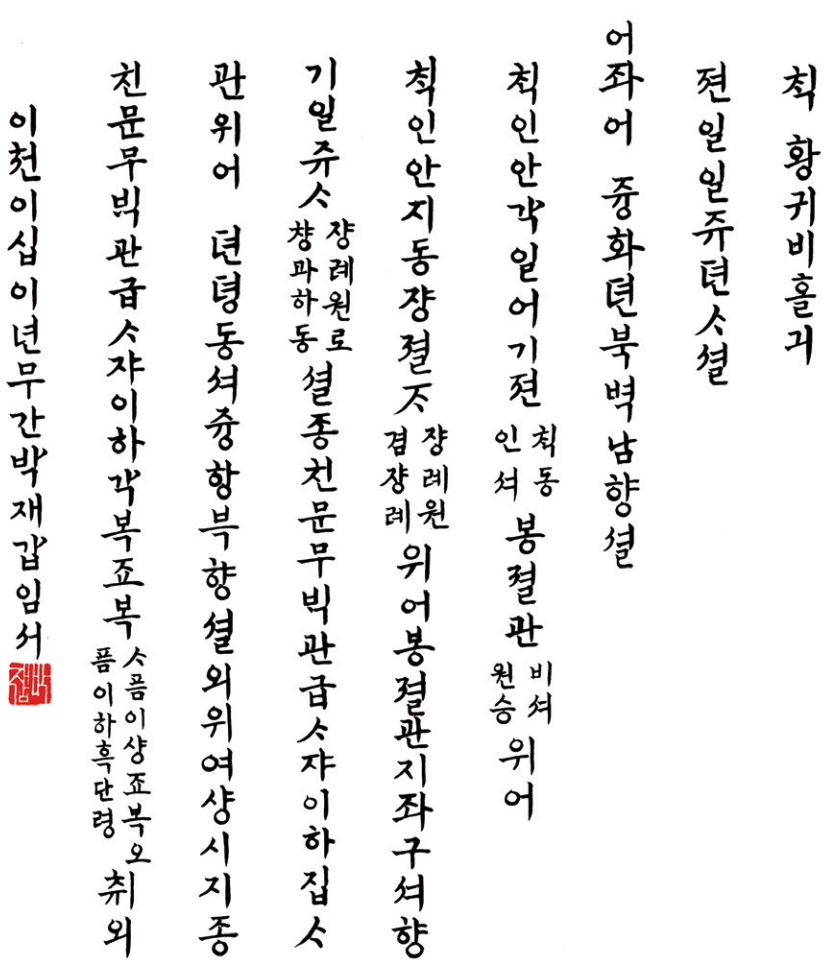
이 자료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내용이 동일한 『외진연시무동각졍지무도 홀긔』(K2-2891)가 있고 진연 후 29일에 베푼 『회작연會酌宴』과 관련된 『회작시녀령각졍지무도홀기』(K2-2894)가 있다.

특성 및 가치

이 자료는 1901년 고종황제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행한 진연進宴 중 7월 26일 외진연에서의 공연과 관련된 노래와 춤, 악기, 이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20세기 초의 궁중 풍속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모든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 20세기 말의 한자음 연구 및 한글 서체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박부자, 『장서각소장 등록류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9. 책황귀비홀기冊皇貴妃笏記, 1903년



원본 크기 : 27.6x9.2cmx첩
작품 크기 : 39.0x32.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성남시, 2016년, 220~221쪽

정의

1903년(광무 7) 11월 7일에 고종高宗의 계비繼妃인 순비淳妃 엄씨嚴氏를 황귀비皇貴妃로 진봉進封할 때 의주를 순 한글로 적은 홀기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칙황귀비홀긔'이다. 표지가 붉은색인 절첩본折帖本으로 필사본筆寫本이다. 서명은 흰 종이에 써서 표지 좌측에 붙여 놓았다. 본문의 필사에는 붉은색으로 상하단변上下單邊을 그려서 만든 주사란朱絲欄 4행의 장지壯紙가 사용되었다. 서배書背를 파란색 종이로 감싸 놓았다. 본문 1면 우측 상단에『장서각인藏書閣印』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903년 9월 27일 순비 엄씨를 황귀비皇貴妃로 진봉進封하는 의절을 장례원掌禮院에서 거행하라는 조칙詔勅에 따라서 장례원에 책인조성소冊印造成所가 설치되고 10월 27일 시역始役, 10월 6일 책인冊印 봉과내입封裹內入, 내궁內宮 습의習儀를 거친 후 11월 7일 책인冊印을 내출內出하여 내궁內宮에서『진봉예進封禮』가 거행되었다. 진봉進封 시時의 정사正使에는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이, 부사副使에는 특진관特進官 이용식李容植이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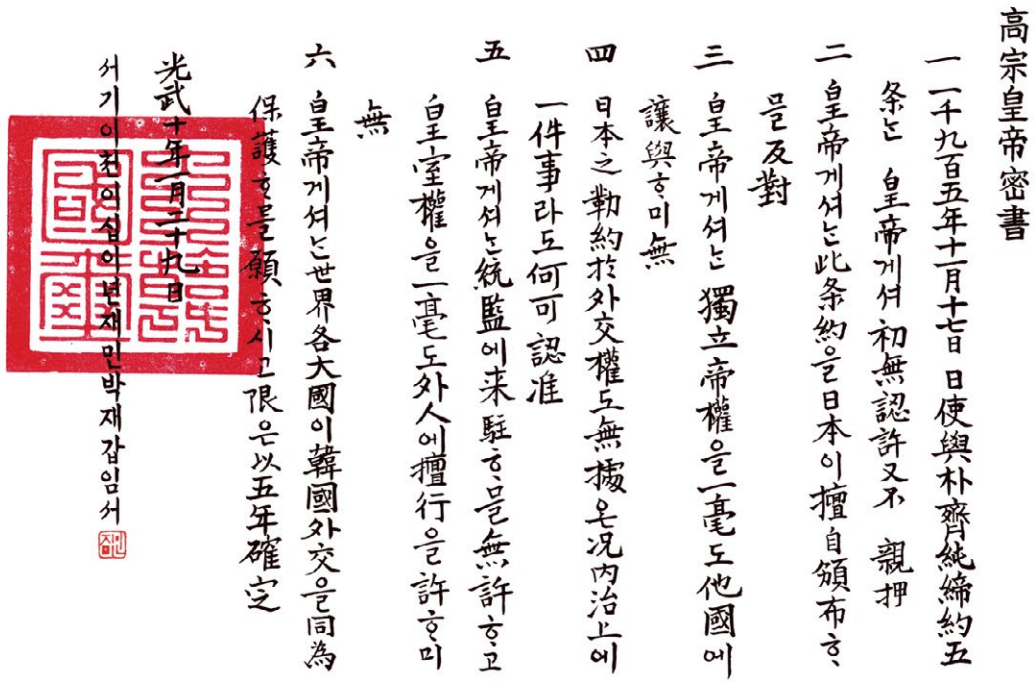
이 홀기는『진봉황귀비의궤進封皇貴妃儀軌』(奎13211)의「의주儀註」중 책황귀비의冊皇貴妃儀의 내용을 한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하루 전에 주전사主殿司에서 중화전 북벽에 남향하여 어좌를 설치한 후 책인안冊印案을 그 앞에 설치하고 비서원승秘書院丞인 낭관郞官이 책인안의 동쪽에 위치한다. 장례원 겸 장례인 낭자郞者는 낭관의 좌측에 서향하여 위치한다. 그날 주사인 장례원 여창과臚唱課에서 전정殿庭에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使者 이하 집사관의 자리를 동서로 중행重行으로 설치하고 북향하여 외위外位를 설치한다.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 이하는 조복朝服을 입고 외위에 선다. 장례원관이 책함, 인록을 각각 받들어 책인안에 놓고 비서원승이 전내殿內로 나눠 들어가 부복俯伏하면 주사가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 이하를 인솔하여 자리에 선 후 국궁사배를 하고, 승제관承制官이 어좌 앞에 부복하여 일어나 정문으로 나가면 집사자執事者가 책인안을 마주 들고 승제관을 따른다. 승제관이 중계中階로 내려가 사자에게 동북서향으로 서게 하면 집사관도 안案을 중계에 내려놓고 승제관의 남쪽으로 천천히 물러가 동향한다. 사자 이하와 종친, 문무백관이 무릎을 꿇고 승제관이 순비 엄씨를 황귀비로 진봉進封한다고 말하면 사배례를 행하고, 집사자가 각각 책함과 인록印盝을 승제관에게 주면 승제관은 책함을 받아 정사에게 주고 인록은 부사에게 주어 책인안에 놓게 한다. 이후 다시 사배례를 행하고 주사는 사자를 인솔하여 동문으로 나가고 장랑자掌郞者는 정문으로 나가 책인안을 인도하고, 그 뒤로 사자들은 각각 책함, 인록을 각각 요채여腰彩輿에 놓고 그 뒤로 장랑자, 책여冊轝, 인여印轝, 채장彩仗, 사자使者 이하가 차례로 따르고, 내궁內宮에 이르러 문무백관, 종친이 사배례를 하고 주사가 종친,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사자 이하가 내궁에 이르러 행례行禮를 마치고 복부명復命한다.

특성 및 가치

『진봉황귀비의궤進封皇貴妃儀軌』(奎13211)의「의주儀註」중『황귀비수책의皇貴妃受冊儀』,『황귀비조견황제의皇貴妃朝見皇帝儀』와 함께 대한제국기 황귀비의 책봉 의례의 절차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은주,『進封皇貴妃儀軌』(奎13211)

30. 고종황제의 밀서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29일



高宗皇帝密書

一 一千九百五年十一月十七日 日使與朴齊純締約五
条는 皇帝게서 初無認許又不 親押

二 皇帝게서는 此条約을 日本이 擅自頒布ᄒᆞ
믈及對

三 皇帝게서는 獨立帝權을 一毫도 他國에
讓與ᄒᆞ미無

四 日本之勒約於外交權도 無援은 況內治上에
一件事라도 何可認准

五 皇帝게서는 統監에 来駐ᄒᆞ믈 無許ᄒᆞ고
皇室權을 一毫도 外人에 擅行을 許ᄒᆞ미
無

六 皇帝게서는 世界各大國이 韓國外交을 同為
保護ᄒᆞ믈 願ᄒᆞ시고 限은 以五年確定

光武十年一月二十九日

서기 이천 이십 이년 제 민박재 감임서

원본 크기 : 23.5x36.2cm?
작품 크기 : 33.5x47.0cm
자료 출처 :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글내음, 서울, 2004년, 별첨

매섭게 추운 일월의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필자(더글라스 스토리)는 궁궐 밀사로 인해 잠에서 깨었는데, 그는 황제의 밀서를 그의 옷에서 꺼냈다. 그것은 황제의 명령과 상반되고, 황제의 동의 없이 겨우 다수가 된 겁에 질린 대신들에 의해 서명되어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보다 훨씬 유효한 문서였고, 이 밀서에는 황제의 인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이 밀서에는 여섯 조목의 명확한 주장이 기록되어 있었고, 한국의 입장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 고종황제의 밀서 -

Ⅰ. 1905년 11월 17일 박제순과 하야시Hayashi가 서명한 조약에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서명도 하지 않았다.

Ⅱ.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의 언어로 공포된 조약의 조항들을 반대한다.

Ⅲ.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였고, 그 주권이 외국 강대국에 넘겨지는 어떤 조치도 반대한다.

Ⅳ. 일본에 의해 공포된 조약에 관련된 조건은 외국 강대국들과 외교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내정을 지배하는 일본의 장악을 결코 공인한 적 없다.

Ⅴ.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으로부터 통감 지명을 결코 승인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황제의 권한을 행사할 일본인의 임명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Ⅵ.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의 외교 업무를 성의를 가지고 관장하는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동 보호로 활동하기를 초대한다.

한국 황제 폐하의 손과 인장 하에서 마쳐짐.

1906년 1월 29일

-끝-

이 밀서를 소지하고, 필자는 밀사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한국인의 집을 떠나 어둠 속에서 급히 친구 집으로 향했다. 동양에서 이런 문서들을 소지하기에 위험한 것이며, 그 문서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동시에 문서 조항들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처음으로 필자는 유럽인을 신임하여 두 증인 앞에서 밀서의 사본을 만들고 봉인하여 그것을 안전한 곳에 두었다. 필자가 호텔에 돌아왔을 때, 서류 가방이 찢어져 열려 있었고, 내용물들이 뒤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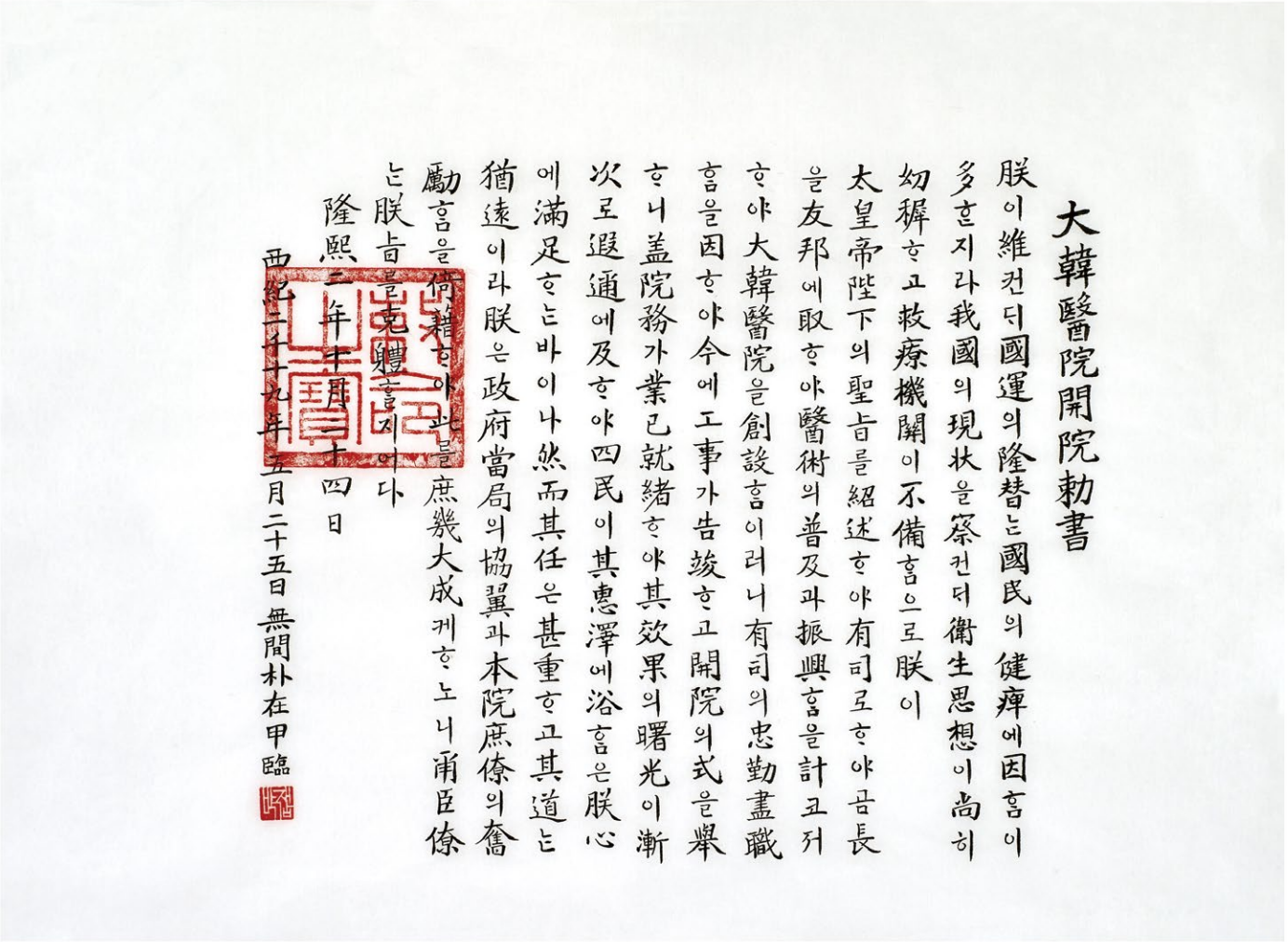
그날 밤, 미국 총영사와 함께 도시 대문을 통과하는데, 어둠 속 가까운 곁에서 라이풀rifle 총의 총알이 소리를 내며 필자의 귀를 지나쳐 장식한 돌에 박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서울은 필자가 살기에 위험해지고 있었다. 필자는 가장 빨리 출발하는 기선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글내음, 서울, 2004년, 71~73쪽

더글라스 스토리씨는 100여년 전 아시아와 중동에 관하여 연구 관찰한 영국인 전문 종군기자이며, 홍콩에 있는 일간지의 편집인이었다. 그의 저서 『To-morrow in the East』는 10년간 조사한 필자의 연구 결과이며, 1907년 런던 George Bell & Sons에서 발간하였다. 인도와 영국령에만 발간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To-morrow in the East의 내용 중 한국에 관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더글라스 스토리씨는 더글라스 참고문헌에 대한 설명임

3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大韓醫院開院勅書

朕이維컨ᄃᆡ國運의隆替ᄂᆞᆫ國民의健痺에因ᄒᆞᆷ이
多ᄒᆞᆫ지라我國의現狀을察컨ᄃᆡ衛生思想이尚히
幼稚ᄒᆞ고救療機關이不備ᄒᆞᆷ으로朕이
太皇帝陛下의聖旨를紹述ᄒᆞ야有司로ᄒᆞ야금長
을友邦에取ᄒᆞ야醫術의普及과振興ᄒᆞᆷ을計ᄒᆞ고저
ᄒᆞ야大韓醫院을創設ᄒᆞᆷ이러니有司의忠勤盡職
ᄒᆞᆷ을因ᄒᆞ야今에工事가告竣ᄒᆞ고開院의式을擧
ᄒᆞ니盖院務가業已就緖ᄒᆞ야其效果의曙光이漸
次로遐通에及ᄒᆞ야四民이其惠澤에浴ᄒᆞᆷ은朕心
에滿足ᄒᆞᄂᆞᆫ바이나然而其任은甚重ᄒᆞ고其道ᄂᆞᆫ
猶遠이라朕은政府當局의協翼과本院庶僚의奮
勵ᄒᆞᆷ을倚賴ᄒᆞ야此를庶幾大成케ᄒᆞ노니甫臣僚
ᄂᆞᆫ朕旨를克體ᄒᆞᆷ지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西紀二千九百九十九年五月二十五日 無間朴在甲臨

원본 크기 : 43.0x59.5cm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전시 : 「명사서예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9. 10. 12. ~ 11. 10., 299쪽

大韓醫院開院勅書

朕이維컨대國運의隆替는國民의健痺에因함이多한지라我國의現狀을察컨대衛生思想이尙히幼穉하고救療機關이不備함으로朕이太皇帝陛下의聖旨를紹述하여有司로하여금長을友邦에取하여醫術의普及과振興함을計코저하여大韓醫院을創設함이러니有司의忠勤盡職함을因하여今에工事가告竣하고開院의式을擧하니盖院務가業已就緖하여其效果의曙光이漸次로遐邇에及하여四民이其惠澤에浴함은朕心에滿足하는바이나然而其任은甚重하고其道는猶遠이라朕은政府當局의協翼과本院庶僚의奮勵함을倚藉하여此를庶幾大成케하노니爾臣僚는朕旨를克體할지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西紀二千十九年五月二十五日無間朴在甲臨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I, the Emperor, believe that the rise and fall of a country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health and disease status of its people. Given our overall hygiene conditions, which are marked by a poor percep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absence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I ordered thos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to embark on the establishment of Daehan Hospital through the utilization of friendly nations' merits with the aim of fostering the active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medicine in accordance with the sacred intention of His Majesty Grand Emperor Gojong. The faithful performance of these duties has led to today's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and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and I am highly gratified at Daehan Hospital's vision for the gradual expansion of medical benefits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re is still a long road ahead to achieve many of the expected missions of great importance. I envision Daehan Hospital's attainment of its grand ambition through the harmonious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the arduous effort of its staff. You,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hereby commanded to obey my will.

October 24, 1908 (2nd year of Yunghui's reign of Emperor Sunjong)

*This Edict was proclaimed by Emperor Sunjong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김지명 한국통번역사협회 초대회장, 영문국역 및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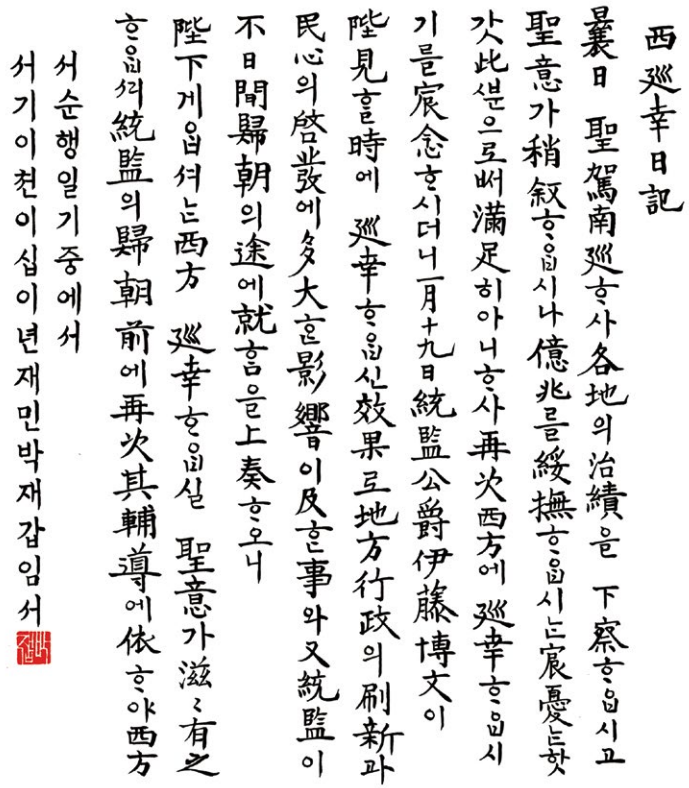
짐朕과 과인寡人

'짐'은 1인칭 '나'라는 뜻이고, '과인'은 '과덕지인寡德之人'의 줄임말로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한 표현이다.

'짐'은 황제가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과인'은 제후와 같은 임금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짐'이라는 표현과 '과인'이라는 표현이 고르게 쓰이고 있다.

한재훈, 자료 제공, 2022. 10. 28.

32.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西巡幸日記
曩日 聖駕南巡ᄒᆞ사各地의治績을 下察ᄒᆞ옵시고
聖意가稍敍ᄒᆞ옵시나億兆를綏撫ᄒᆞ옵시ᄂᆞᆫ宸憂ᄂᆞᆫ핫
갓此샨으로써滿足히아니ᄒᆞ사再次西方에 巡幸ᄒᆞ옵시
기를宸念ᄒᆞ시더니一月十九日統監公爵伊藤博文이
陛見ᄒᆞᆯ時에 巡幸ᄒᆞ옵신效果로地方行政의刷新과
民心의啓發에多大ᄒᆞᆫ影響이及ᄒᆞᆫ事와又統監이
不日間歸朝의途에就ᄒᆞᆷ을上奏ᄒᆞ오니
陛下게옵서ᄂᆞᆫ西方 巡幸ᄒᆞ옵실 聖意가滋々有之
ᄒᆞ옵서統監의歸朝前에再次其輔導에依ᄒᆞ야西方
서순행일기중에서
서기이천이십이년재민박재갑임서

원본 크기 : 26.8x19.0cm
작품 크기 : 39.0x30.0cm
자료 출처 : 화봉문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정의]

1909년(융희 3) 1월 말 ~ 2월 초 순종 황제가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방을 순행한 일.

[개설]

1909년 1월 27일 ~ 2월 3일 동안 순종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양서 지방을 순행하였다. 이는 1909년 1월 초에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순행한 남순행(南巡幸)에 이은 두 번째 순행이었다.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7년(융희 1) 새 황제에 등극한 순종이 대한제국인에게 황제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자 순종을 순행하게 하여 대중에 노출함으로써 황제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배종하여 통감부(統監府)의 힘을 과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순종의 서순행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진 남순행에 이은 행차였다. 이러한 순종의 순행은 역대 왕이 도성 내의 종묘나, 도성 주변 선왕의 능에 행차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바로 일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순행을 본뜬 것이었다. 메이지 천

황은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8년(일본 명치 1)부터 20년간 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를 순행하였으며, 이러한 순행은 신격화되어 있는 천황을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써 유신 직후 불안한 일본 정세를 가라앉히고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통합과 자주적 국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순종의 순행은 메이지 천황의 순행과도 다른 것이었다. 순행을 계획한 주체가 순종 자신이 아니라 통감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통감부였다. 이 순행은 당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통감 정치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달래고, 대한제국 황제의 건재함을 보여 통감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절차 및 내용]

서순행은 19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루어졌으며 도시 간의 이동은 특별 궁정 열차를 이용하였다. 1월 27일 순종은 오전 8시에 남대문역을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정주를 거쳐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29일에 신의주에서 의주로 이동하여 머물렀으며, 30일에는 다시 신의주로 돌아와 머물렀다. 31일에는 정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평양에 도착하였다. 31일과 2월 1일에 평양에 머물렀으며 2월 2일 평양을 출발하여 황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개성에 도착하였다. 2월 3일 개성을 출발하여 오후 3시에 남대문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순종의 서순행에는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 통감부의 3개 부처에서 279명이 선발되어 호종하였다. 호종원 가운데에는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궁내부 대신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侍從院 경卿 윤덕영尹德榮, 내각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內部 대신 송병준宋秉畯, 군부軍部 대신 이병무李秉武, 학부學部 대신 이재곤李載崑 등 궁내부에서 201명, 내각에서 49명이 호종하였다. 일본인으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궁내부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 내장원內藏院 이사理事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대한의원大韓醫院』 의관醫官 겸 전의典醫 스즈키 겐노스케[鈴木兼之助] 등 29인이 호종하였다[『순종실록』 2년 1월 21일].

서순행에서는 순종의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모든 절차가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었다. 지방 역에 열차가 도착하면 노부식을 먼저 설치한 후 순종을 모셨다. 순종이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음악대가 먼저 하차하여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순종이 기차에 오를 때에는 오르기 전에 음악대가 먼저 탑승하여 열차 내에서 애국가를 연주하였다.

서순행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지방 민인들과의 만남이었다. 각 지방에서 순종을 폐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식관이 조사하고, 차관, 대신, 통감에게 의논한 뒤에 상주하였다. 그러면 순종은 칙어를 내리거나 알현을 받아주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순종은 서순행 시 서구식 대례복인 대원수복을 착용하였으며, 머리도 단발을 갖추었다. 이러한 순종의 차림은 사람들의 단발과 양복에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순행 기간 동안 순종의 기거는 여관女官 5명이 종사하였으며, 의사와 이발사에 이르기까지 궁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직책의 인물들이 호종하였다. 순종은 열차 안과 행재소에서 조선 전통 음식과 서양식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를 담당하는 전선사典膳司는 손탁호텔에서 나온 10인의 요리사가 담당하였다.

순종의 서순행시 통감부에서는 연도에 마중 나온 만민들에게 한일 양국 기를 들도록 하였는데, 이때 오산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장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 · 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2007.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2단계, http://waks.aks.ac.kr/

제6장 한글재민체 작품

한글재민체를 적용하여 모사하게 된 대상 자료들의 범주와 선택 배경은 아래와 같다.
박재갑의 한글재민체 관련 필사 작품들은 김민과 함께 작품 내용과 구도를 논의한 후 김민이 만들어준 모본에 따라 모사하였다.

국사國事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국사國事와 관련한 작품으로는 잃어버린 영토 대마도 관련 내용과 임진왜란의 쓰라린 체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러한 수난을 겪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하고자 쓰인 징비록,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에 피신해 있을 당시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교서인 선조국문유서(임서 5)를 현대문으로 고친 내용,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시기의 고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삼일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내용을 필사하였다.

작품 1. 정대마도교서征對馬島敎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건국 사흘 뒤인 1948년 8월 18일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마도對馬島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는 상도上島와 하도下島의 두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일본의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시부터 기산起算해야 한다"면서 대마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하여 와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의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949년 12월 31일 대통령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거듭 "대마도 반환은 우리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이승만의 대마도對馬島 반환 요구~국제사회 공

식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논단, 68~79쪽, 2011.

1419년 이종무李從茂의 대마도 정벌 때 어변갑魚變甲(1380～1434)이 세종을 대신하여 작성한 『정대마도교서征對馬島敎書』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는 대외 전쟁에서 적국을 정벌하는 정당성을 선포한 명문이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필자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분명히 밝힌 정대마도교서를 한글재민체 필사 작품으로 선택하였으며, 한자를 아는 일본인들도 볼 수 있도록 재민한자체도 필사(작품 1)하였다.

작품 2. 징비록서문懲毖錄自書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를 겸임하였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 선생이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벼슬을 떠나 귀향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저자는 임진란의 쓰라린 체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러한 수난을 겪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한다는 민족적 숙원에서 책명을 「징비록懲毖錄」으로 하였다.

이 징비록(국보 132호)을 통해 임진왜란 전의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비롯하여, 전란戰亂에 임한 국민적 항쟁과 명나라의 구원 및 바다의 제패에 대한 당시의 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임진왜란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역사 자료가 된다.

필사본 징비록은 조수익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필자 손자의 요청으로 인조 25년에 16권 7책으로 간행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숙종 21년 일본 교토 야마토야에서도 간행되어 1712년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일본 유출을 금할 정도로 귀중한 사료로 평가 받았다.

징비록의 저술 동기에 대하여 서문序文에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란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거기에 임진란 전의 일도 간혹 기록한 것은 임진란의 발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아! 임진란의 전화戰禍는 참혹하였다. 수십 일 동안에 삼도三都를 지키지 못하고 팔도八道가 산산이 깨어졌으며, 임금께서 피란避亂하셨으니 그리고서도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은 천운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내 지난 일을 징계懲하여 뒷근심이 있을까 삼가毖노라.' 고 했으니 이것이 징비록懲毖錄을 쓰는 연유라 하겠다. ....."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징비록 서문을 국한문으로 필사(작품 2)하였다.

『징비록』에는 『초본 징비록草本懲毖錄』과 간행본으로 『징비록 16권본懲毖錄 十六卷本』 및 『징비록 2권본懲毖錄 二卷本』이 있어서, 모두 3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초본 징비록』이 가장 원천이지만, 간행본인 『징비록 16권본』에는 『초본 징비록』에 실려 있는 것 외에도 『근폭집芹曝集 2권』과 『진사록辰巳錄 9권』 및 『군문등록軍門謄錄 2권』이 포함시켰으며 『징비록 2권』본은 『초본 징비록』에서 맨 끝의 「잡록雜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저서를 통해 임진왜란 전의 일본과의 교린交隣 사정을 비롯하여, 전란戰亂에 임한 국민적 항쟁과 명나라의 구원 및 바다의 제패에 대한 당시의 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임진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역사 자료가 된다.

안동 하회마을 사이트 검색 http://www.hahoe.or.kr/

필자는 징비록의 서문을 한글재민체(국한문)로 필사(작품 2)하였다.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이다.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끈질긴 저항으로 이겨내고 각성과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민족의 운명을 새로 개척해나간 계기가 된 전쟁이다. 명의 원조도 있었지만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거족적인 저항으로, 이순신에 의한 제해권의 장악과 전국에서 봉기한 의병의 활동은 불리했던 전쟁 국면을 전환시킨 결정적인 힘이었다. 이 전란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명과 청이 교체되면서 병자호란이라는 시련을 예고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품 3.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선조국문유서』(작품 3)는 임진왜란 중 선조가 의주에 피신해 있을 당시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교서이다. 장지에 10행 429자로 작성했으며,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세 군데 찍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조선인이 포로가 되어 왜군에게 협력했는데, 선조는 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교서를 반포함으로써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해 돌아오게 하였다. 이 유서는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오기 한 달 전에 내려진 것인데, 당시 김해성을 지키던 장수 권탁權卓(1544~1593)은 이 문서를 가지고 적진에 침투해 적병 수십 명을 죽이고 포로 100여 명을 구출해 돌아왔다. 이 교서는 권탁의 후손이 보관하다가 1854년, 철종 5, 김해시 흥동에 어서각御書閣이 건립되면서 이곳에 보관되었다. 유서의 내용은 강제로 왜인에게 붙들려 간 백성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왜군을 잡아오거나 왜군의 정보를 알아 오는 사람, 또는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들을 설득해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천민, 양민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사용된 한글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쪽. 안동권씨 판결공파 종친회 총무님께 2020년 5월 8일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사님께서 연락드려 선조국문유서의 이미지 사용 목적을 설명드렸으며, 임진왜란 전시 중에 작성된 유서라서 세로줄이 고르지 못하고 행마다 글자수도 일정치 않아 필자가 선조국문유서 속의 단어배열을 새로 정리하여 모사하였다.

작품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御製諭八道四郡耆老人民等綸音』(작품 4)은 1882년 7월 20일 고종이 임오군란으로 흐트러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전국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에게 내린 윤음이다. 1882년 6월 9일 군료 지급에 불만을 품은 훈국파 병사들이 개화파를 몰아내고 대원군을 내세웠으나 1882년 7월 13일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고 개화파가 다시 집권하게 되자, 고종은 자신의 실정을 전국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치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윤음이다.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 해제」,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345~355쪽

필자는 조선 국왕 고종황제가 "~~ 나의 죄요"로 고백하는 11가지 죄목

① 임금의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 오면서,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에게 재물을 억지로 거두어서, 가난하거나 부유한 모두로 하여금 다 피곤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② 여러 번 돈을 고치고 죄 없는 백성을 많이 죽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③ 사당과 서원을 허물고 철폐하여 충현에게 제사를 못 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④ 좋아하는 물품을 널리 구하고 상을 주고 하사하는 일을 무분별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⑤ 기도하는 일을 지나치게 믿고, 헛되이 내탕고의 재물을 허비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⑥ 사람 쓰기를 널리 못하고 종친과 외척만 숭상하니 이도 나의 죄요

⑦ 궁궐의 위엄이 엄숙하지 못하여 궁녀와 환시가 은택을 간섭하니 이도 나의 죄요

⑧ 뇌물을 주고받음이 드러나게 행하되 탐관오리를 징계하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이 근심하고 괴로운 정상이 위에 도달하지 못하니 이것도 나의 죄요

⑨ 저축한 재물이 오래 비어서 군사와 아전이 먹을 것을 잃고 공가를 부족하게 하는 일이 많으매 시장 상인이 폐업하니 이도 나의 죄요

⑩ 각국을 이어 우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에 시세에 마땅한 일이나, 시행을 계획하고 조처하기가 법에 어그러져서 한갓 백성에게 의혹을 더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이니라.

⑪ 마침내는 신령이 노하시고 사람이 원망하여 온갖 변고가 쏟아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수이 여기매 재앙이 육친에까지 미쳐서, 위로 천자에게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 만민에 사는 것을 요란하게 하고, 신의를 이웃 나라에 잃어버리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니, 이도 또한 나의 죄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을 한글재민체로 필사(작품 5)하고 2021년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11.05.~12.05.)의 명사서예전에 출품하였다.

작품 5. 삼일독립선언서

작품 6. 宣言書

삼일독립선언서 번역본을 한글재민체로 필사(작품 5, 2021년 전시)하고 삼일독립선언서의 원문을 재민체로 필사(작품 6, 2021년 전시)하였다.

안병욱, 개인 교신, 『기미 3.1 독립선언서』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값진 문건입니다. 그러한 상징적 가치에 맞게 품격을 갖춰 재현해 낸 선생님의 귀중한 작품이, 소중하게 널리 감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작품 7. 대한민국임시헌장원문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안병욱이 이준식(지청천 장군의 외증손자)과 논의하여 추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원문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을 재민체로 필사(작품 7, 2021년 전시)하고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특별전에 출품하였다.

의학醫學

의학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작품 8.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국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의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지석영 선생님이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한문 편지인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를 한글로 해석하고 한글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8, 2021년 전시),

작품 9.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한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의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지석영 선생님이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한문 편지인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를 재민한자체로 쓴 작품(작품 9, 2021년 전시),

작품 10. 학부대신답서

『학부대신답서』 원문 및 번역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쓴 작품(작품 10, 2021년 전시),

작품 11. 칙령제7호勅令第七號

의학교 관제에 관한 『칙령제7호勅令第七號』(작품 11, 2022년 전시)

작품 12. 칙령제9호勅令第九號

대한의원 관제에 관한 『칙령제9호勅令第九號』(작품 12, 2022년 전시)

작품 13.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국한문 혼용의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하고 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3, 2020년 전시),

작품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서문京城醫學專門學校 螢雪記念 寫眞帖 序文

경성의학전문학교 제8회 한국인 졸업생들의 졸업앨범 형설기념 머리말인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서문京城醫學專門學校 螢雪記念 寫眞帖 序文』을 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4, 2022년 전시),

작품 15. 역질 관련 윤음綸音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영조대왕 시절의 『역질 관련 윤음綸音』을 한글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5, 2020년 전시),

작품 16. 무오년 독감

그리고 정조대왕 시절의 『무오년 독감』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쓴 작품(작품 16, 2021년 전시)이다.

사상思想

사상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작품 17. 천화天和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부지와 관련한『천화天和』를 한글재민체로 쓴 작품(작품 17, 2022년 전시)과

작품 18.천물무간天物無間

『천물무간天物無間』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쓰고 돌에 새긴 후한지에 인주로 찍은 작품(작품 18, 2022년 전시) 및

작품 19.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을 한글재민체와 재민한자체로 쓰고 돌에 새긴 후 한지에 인주로 찍은 작품이다(작품 19, 2022년 전시).

의학교 ~ 경성의학전문학교 주요 연표[1]

대한제국 시기

1898.11.07. 상학부대신서[2], 지석영
1898.11.09. 학부대신답서[3], 이도재
1899.03.24. 칙령 제7호[4], 의학교 관제, 의학교 개교 (3년제)
1899.04.24. 칙령 제14호, 병원(훗날 광제원) 관제
1902.07. 제1회 졸업생 19명 배출
1903.07. 제2회 졸업생 13명 배출
1905.07. 제3회 졸업생 4명 배출
1905.02.26. 칙령 제18호, 광제원 관제
1907.03.10.[5] 칙령 제9호[6], 대한의원 관제
의학교는 광제원,
대한국적십자병원과 통합되어 대한의원이 됨
이때 의학교는 대한의원 교육부로 개편됨 (4년제)
1907.12.27. 대한의원 교육부는 대한의원 의육부로 개편됨 (4년제)
1908.10.24. 대한의원개원칙서[7]
1909.02.04. 대한의원 의육부는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로 개편됨 (4년제)

일제강점기

1910.09.30.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강등됨 (4년제)
1916.04.01. 경성의학전문학교 규정,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독립, 승격됨 (4년제)
1917.03. 경성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배출 (한국인 48명)
1924.03. 경성의학전문학교 제8회 졸업생 배출 (한국인 49명, 『螢雪記念[8]』 제작)

해방 후

1946.08.22. 경성의학전문학교는 경성대학 의학부와 통합되어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됨[9]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의학사연구실 김상태 실장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듦.

2. 『함께쓰기-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11.2.~12.14.

3. 『함께쓰기-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11.2.~12.14.

4.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5.25.~6.30.

5. 대한의원관제 시행일은 1907년 3월 15일임.

6.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5.25.~6.30.

7.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10.8.~11.12.

8.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5.25.~6.30.

9. 법령(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 차원에서 1946년 8월 22일임. 실제로는 1946년 10월에 단과대학별로 개강함. 10월 14일에 의과대학이 마지막으로 개강했음.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은 10월 15일임.

1. 정대마도교서征對馬島敎書 King Sejong's Message for the Conquest of Tsushima

정대마도교서

상왕이중외에교유하기를병력을기울여무력을행하는것은진실로성현이경계한것이요죄있는이를다스리고군사를일으키는것은제왕으로서부득이한일이라옛적에성탕이농사를제쳐놓고하나라를정벌하고주나라선왕이더운유월에험윤을토벌했으니그일에있어비록대소는다르나모두가죄를토벌하는거사라는점에서는한가지다대마도는본래우리나라땅이나다만궁벽하게막혀있고또좁고누추하므로왜놈들이거류하게두었더니개같이도적질하고쥐같이훔치는버릇을가지고경인년부터변경에뛰놀기시작하여마음대로군인과민간인을살해하고부형을잡아가고그집에불을질러서고아와과부가바다를바라보고우는일이해마다없는때가없었다뜻있는선비와어진사람들이팔뚝을걷어붙이고탄식하며그고기를먹고그가죽위에서숙식하기를생각함이여러해이다생각하건대우리태조강헌대왕이용이나는천운에응하여위덕이널리펴지고빛나서어루만지고편안하게해주시는덕을입어그렇지않으리라믿었더니그음흉하고탐욕이많은버릇이더욱방자하여그치지않았다병자년에는동래병선십여척을탈취하고군사를살해하였으며내가대통을이어즉위한이후병술년에는전라도에무자년에는충청도에들어와서혹은운수하는물품을빼앗고혹은병선을불사르며만호를죽이기까지하니그포학함이극에달하였다제주에다시들어와살상함이또한많았으니이는기분이좋으면사람같지만성이나면짐승이되는자들로서간교한생각을숨기고있기때문이라신파사람이한가지로분개하는바이다내가도리어귀들의거칠고더러움을널리포용하여자잘하게따지지않고귀들의배고픈것도구제해주고귀들과통상을허락하기도하였으며무릇요구하는것이있으면들어주지않은것이없어서다같이살아가기를기약하였노라뜻밖에이제또우리나라의허실을엿보아비인포에몰래들어와서인민거의삼백여명을죽이고노략질하였으며배를불사르고우리장사를해치고황해에떠서평안도까지이르러우리백성들을소란하게하며장차명나라지경까지범하고자하니그은혜를잊고의리를배반하며하늘의떳떳한도리를어지럽게함이녀무심하지아니한가내가생을좋아하는마음으로한사람이라도살곳을잃어버리는것을오히려하늘과땅에죄를짓는것같이두려워하거든하물며이제왜구가탐독한행동을제멋대로하여뭇백성을학살하여천벌을자청하여도오히려용납하고참아토벌하지않는다면어찌나라에사람이있다하겠는가이제한창농사짓는달을맞아장수를보내출병하여그죄를바로잡으려하는것은또한부득이해서하는일이다아아간흉한무리를쓸어버리고생령을수화에서건지고자하여여기에이릅고해로움을말하여나의뜻을일반신민들에게널리알리노라

세종일년유월구일

서기이천이십이년오월재민박재갑쓰다

征對馬島敎書

上王敎中外曰窮兵黷武固聖賢之所戒討罪興師非帝王之獲已昔成湯舍穡事而征有夏宣王以六月而伐玁狁其事雖有大小之殊然其皆爲討罪之擧則一而已矣對馬爲島本是我國之地但以阻僻隘陋聽爲倭奴所據乃懷狗盜鼠竊之計歲自庚寅始肆跳梁於邊徼虔劉軍民俘虜父兄火其室屋孤兒寡婦哭望海島無歲無之志士仁人扼腕歎息思食其肉而寢其皮蓋有年矣惟我太祖康獻大王龍飛應運咸德光被撫綏相信然其凶狠貪婪之習曷然未已歲丙子攘奪東萊兵船二十餘隻殺害軍士予承大統卽位以後歲丙戌於全羅道歲戊子於忠淸道或奪漕運或燒兵船至殺萬戶其暴極矣再入濟州殺傷亦衆蓋其好人怒獸包藏姦狡之念神人所共憤也予尙包荒含垢不與之校賑其飢饉通其商賈凡厥需索無不稱副期于竝生不意今又窺覘虛實潛入庇仁之浦殺掠人民幾三百餘燒焚船隻戕害將士浮于黃海以至平安擾亂吾赤子將犯上國之境其忘恩背義悖亂天常豈不甚哉以予好生之心苟有一夫之失所猶恐獲戾于上下矧今倭寇肆行貪毒賊殺群黎自速天禍尙且容忍不克往征猶爲國有人乎今當農月命將出師以正其罪蓋亦不得已焉爾矣於戲欲掃姦兇拯生靈於水火斯陳利害諭予志于臣民

世宗一年六月九日

西紀二千二十二年五月在民朴在甲書

국역

상왕이 중외中外에 교유하기를,

"병력을 기울여서 무력을 행하는 것은 과연 성현이 경계한 것이요, 죄 있는 이를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제왕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라, 옛적에 성탕成湯이 농삿일을 제쳐 놓고 하夏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6월 같이 더운 때에 험윤玁狁을 토벌했으니, 그 일에 있어 비록 대소는 다름이 있으나, 모두가 죄를 토벌하는 행동은 한 가지라.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생각건대 우리 태조 강헌대왕이 용이 나는(飛) 천운에 응하여 위덕이 널리 퍼지고 빛나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 주시는 덕을 입어 그렇지 않으리라 믿었더니, 그러나 그 음흉하고 탐욕 많은 버릇이 더욱 방자하여 그치지 않고, 병자년에는 동래東萊 병선 20여 척을 노략질하고 군사를 살해하니, 내가 대통을 이어 즉위한 이후, 병술년에는 전라도에, 무자년에는 충청도에 들어와서, 혹은 운수하는 물품을 빼앗고, 혹은 병선을 불사르며 만호를 죽이기까지 하니, 그 포학함이 심하도다. 두 번째 제주에 들어와 살상함이 많았으니, 대개 사람을 좋아하는 성낸 짐승처럼 간교姦狡한 생각을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은 신과 사람이 한 가지로 분개하는 바이지마는, 내가 도리어 널리 포용하여 더러움을 참고 교통하지 않았노라. 그 배고픈 것도 구제하였고, 그 통상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며, 온갖 구함과 찾는 것을 수응酬應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같이 살기를 기약했더니, 뜻밖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아 비인포庇仁浦에 몰래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거의 3백이 넘고, 배를 불사르며 우리 장사將士를 해치고, 황해에 떠서 평안도까지 이르러 우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며, 장차 명나라 지경까지 범하고자 하니, 그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반하며,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어지럽게 함이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내가 삶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하늘과 땅에 죄를 얻은 것같이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이제 왜구가 탐독貪毒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여, 뭇 백성을 학살하여 천벌을 자청하여도 오히려 용납하고 참아서 토벌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랴. 이제 한창 농사짓는 달을 당하여 장수를 보내 출병하여, 그 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아아, 신민들이여, 간흉한 무리를 쓸어 버리고 생령을 수화水火에서 건지고자 하여, 여기에 이해利害를 말하여 나의 뜻을 일반 신민들에게 널리 알리노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

작품 크기 : 90.0x60.0cm

자료 출처 :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

정대마도교서

상왕이중외에교유하기를병력을기울여무력을행하는것은진실로성현이경계한것이요죄있는이를다스리고군사를일으키는것은제왕으로서부득이한일이라옛적에성탕이농사를제쳐놓고하나라를정벌하고주나라선왕이더운유월에험윤을토벌했으니그일에있어비록대소는다르나모두가죄를토벌하는거사라는점에서는한가지다대마도는본래우리나라땅이나다만궁벽하게막혀있고또좁고누추하므로왜놈들이거류하게두었더니개같이도적질하고쥐같이훔치는버릇을가지고경인년부터변경에뛰놀기시작하여마음대로군인과민간인을살해하고부형을잡아가고그집에불을질러서고아와과부가바다를바라보고우는일이해마다없는때가없었다뜻있는선비와어진사람들이팔뚝을걷어붙이고탄식하며그고기를먹고그가죽위에서숙식하기를생각함이여러해이다생각하건대우리태조강헌대왕이용이나는천운에응하여위덕이널리펴지고빛나서어루만지고편안하게해주시는덕을입어그렇지않으리라믿었더니그음흉하고탐욕이많은버릇이더욱방자하여그치지않았다병자년에는동래병선십여척을탈취하고군사를살해하였으며내가대통을이어즉위한이후병술년에는전라도에무자년에는충청도에들어와서혹은운수하는물품을빼앗고혹은병선을불사르며만호를죽이기까지하니그포학함이극에달하였다제주에다시들어와살상함이또한많았으니이는기분이좋으면사람같지만성이나면짐승이되는자들로서간교한생각을숨기고있기때문이라신과사람이한가지로분개하는바이다내가도리어저들의거칠고더러움을널리포용하여자잘하게따지지않고저들의배고픈것도구제해주고저들과통상을허락하기도하였으며무릇요구하는것이있으면들어주지않은것이없어서다같이살아가기를기약하였노라뜻밖에이제또우리나라의허실을엿보아비인포에몰래들어와서인민거의삼백여명을죽이고노략질하였으며배를불사르고우리장사를해치고황해에떠서평안도까지이르러우리백성들을소란하게하며장차명나라지경까지범하고자하니그은혜를잊고의리를배반하며하늘의떳떳한도리를어지럽게함이너무심하지아니한가내가생을좋아하는마음으로한사람이라도살곳을잃어버리는것을오히려하늘과땅에죄를짓는것같이두려워하거든하물며이제왜구가탐독한행동을제멋대로하여뭇백성을학살하여천벌을자청하여도오히려용납하고참아토벌하지않는다면어찌나라에사람이있다하겠는가이제한창농사짓는달을맞아장수를보내출병하여그죄를바로잡으려하는것은또한부득이해서하는일이다아아간흉한무리를쓸어버리고생령을수화에서건지고자하여여기에이롭고해로움을말하여나의뜻을일반신민들에게널리알리노라

세종일년유월구일

서기이천이십이년오월재민박재갑쓰다

정대마도교서 : 김채식 박사와 박갑수 교수의 도움으로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다.

征對馬島敎書

上王敎中外曰

窮兵黷武固聖賢之所戒討罪興師非帝王之獲已昔成湯舍穡事而征有夏宣王以六月而伐玁狁其事雖有大小之殊然其皆爲討罪之擧則一而已矣對馬爲島本是我國之地但以阻僻隘陋聽爲倭奴所據乃懷狗盜鼠竊之計歲自庚寅始肆跳梁於邊徼虔劉軍民俘虜父兄火其室屋孤兒寡婦哭望海島無歲無之志士仁人扼腕歎息思食其肉而寢其皮蓋有年矣惟我太祖康獻大王龍飛應運威德光被撫綏相信然其凶狠貪婪之習囂然未已歲丙子攘奪東萊兵船二十餘隻殺害軍士予承大統卽位以後歲丙戌於全羅道歲戊子於忠淸道或奪漕運或燒兵船至殺萬戶其暴極矣再入濟州殺傷亦衆蓋其好人怒獸包藏姦狡之念神人所共憤也予尙包荒含垢不與之校賑其飢饉通其商賈凡厥需索無不稱副期于竝生不意今又窺覘虛實潛入庇仁之浦殺掠人民幾三百餘燒焚船隻戕害將士浮于黃海以至平安擾亂吾赤子將犯上國之境其忘恩背義悖亂天常豈不甚哉以予好生之心苟有一夫之失所猶恐獲戾于上下矧今倭寇肆行貪毒賊殺群黎自速天禍尙且容忍不克往征猶爲國有人乎今當農月命將出師以正其罪蓋亦不得已焉爾矣於戲欲掃姦兇拯生靈於水火斯陳利害諭予志于臣民

世宗一年六月九日

西紀二千二十二年五月在民朴在甲書

2. 징비록 서문懲毖錄自書 Preface to the Book of Correction

징비록서문

징비록이란무엇인가임진왜란이후의일을기록한것이다임진왜란전에있었던것도이따금기록한것은임진왜란이시작된이유를궁구해보려는까닭이다아임진왜란의재앙은참혹했다열흘남짓사이에한양개성평양을지키지못했고팔도가와해되었으며선조임금이서울을떠나피란을나갔다그러고도우리나라가오늘날이있게된것은하늘이도왔기때문이다또한선대여러임금들의어질고두터운은덕이백성들에게굳게맺히어나라를생각하는마음이끊이지않았고임금께서명나라를섬기는정성이신종황제를감동시켜우리나라를보존해주기위하여중국의군대가여러차례출정하였기때문이다그렇지않았더라면우리나라는위태로웠을것이다시경에말하기를내가큰상처를입었으므로뒷날의환난을대비하노라라고하였으니이것이바로징비록을저술하게된까닭이다나와같이보잘것없는사람이어지러운난리통에나라의중책을맡아서그위태로움을바로잡지못하고넘어지는형세를붙잡지못했으니그죄는죽어도용서를받을수가없을것이다그런데아직도시골구석에서살아가며구차하게목숨을이어가고있으니어찌임금님의너그러우신은전이아니겠는가걱정스럽고두려운마음이조금진정되어지난날의일을생각하니황공하고부끄러워몸둘바를모르겠다이에한가한틈을이용하여귀와눈으로듣고본것을임진년부터무술년에이르기까지대략서술하니모두약간이되었고이어서장계와소차와문이및잡록을그뒤에붙였다비록볼만한것은못되나모두그당시의사실을기록한것이므로버릴수가없었다이것으로내가시골에살면서나라에충성하고자하는간절한뜻을나타내고또어리석은신하가나라에보답하지못한죄를드려내는바이다

선조삼십칠년서기일천육백사년서애류성룡짓고

서기이천이십이년재민박재갑옮겨쓰다

懲毖錄自書

懲毖錄者何記亂後事也其在亂前者往往亦記所以本其始也嗚呼壬辰之禍慘矣浹旬之間三都失守八方瓦解乘輿播越其得有今日天也亦由祖宗仁厚之澤固結於民而思漢之心未已聖上事大之誠感動皇極而存邢之師屢出不然則殆矣詩曰予其懲而毖後患此懲毖錄所以作也若余者以無似受國重任於流離板蕩之際危不持顚不扶罪死無赦尙視息田畝間苟延性命豈非寬典憂悸稍定每念前日事未嘗不惶愧靡容乃於閑中粗述其耳目所逮者自壬辰至于戊戌總若干言因以狀啓疏箚文移及雜錄附其後雖無可觀者亦皆當日事蹟故不能去旣以寓昧畝惓惓忠之意又以著愚臣報國無狀之罪云

宣祖三十七年西紀一千六百四年西厓柳成龍著

西紀二千二十二年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90.0x60.0cm
자료 제공 : 한국국학진흥원

징비록서문

징비록이란무엇인가임진왜란이발생한후의일을기록한것이다임진왜란전에있었던것도이따금기록한것은임진왜란이시작된이유를궁구해보려는까닭이다아임진왜란의재앙은참혹했다열흘남짓사이에한양개성평양을지키지못했고팔도가와해되었으며선조임금이서울을떠나피란을나갔는데그러고도우리나라가오늘날이있게된것은하늘이도왔기때문이다또한선대여러임금들의어질고두터운은덕이백성들에게굳게맺어져서나라를생각하는마음이그치지않았고임금께서명나라를섬기는정성이신종황제를감동시켜우리나라를보존해주기위하여중국의군대가여러차례출정하였기때문이다그렇지않았더라면우리나라는위태로웠을것이다시경에말하기를내가큰상처를입었으므로뒷날의환난을대비하노라라고하였으니이것이바로징비록을저술하게된까닭이다나와같이보잘것없는사람이어지러운난리통에나라의중책을맡아서그위태로움을바로잡지못하고넘어지는형세를붙잡아주지못했으니그죄는죽어도용서를받을수가없는데아직도시골구석에서살아가며구차하게목숨을이어가고있으니어찌임금님의너그러우신은전이아니겠는가걱정스럽고두려운마음이조금진정되어지난날의일을생각하니황공하고부끄러워몸둘바를모르겠다이에한가한틈을이용하여귀와눈으로듣고본것을임진년부터무술년까지에이르기까지대략서술하니모두얼마가량되었고이어서장계와소차와문이및잡록을그뒤에붙여놓았다비록볼만한것은없지만모두그당시의사실을기록한것이므로버릴수가없었다이것으로내가시골에살면서나라에충성하고자하는간절한뜻을나타내고또어리석은신하가나라에보답하지못한죄를드러내는바이다.

선조삼십칠년서기일천육백사년서애류성룡

서기이천이십일년재민박재갑쓰다

懲毖錄自書

懲毖錄者何記亂後事也其在亂前者往往亦記所以本其始也嗚呼壬辰之禍慘矣浹旬之間三都失守八方瓦解乘輿播越其得有今日天也亦由祖宗仁厚之澤固結於民而思漢之心未已聖上事大之誠感動皇極而存邢之師屢出不然則殆矣詩曰予其懲而毖後患此懲毖錄所以作也若余者以無似受國重任於流離板蕩之際危不持顚不扶罪死無赦尙視息田畝間苟延性命豈非寬典憂悸稍定每念前日事未嘗不惶愧靡容乃於閑中粗述其耳目所逮者自壬辰至于戊戌總若干言因以狀啓疏箚文移及雜錄附其後雖無可觀者亦皆當日事蹟故不能去旣以寓畎畝惓惓忠之意又以著愚臣報國無狀之罪云

宣祖三十七年西紀一千六百四年西厓柳成龍著

西紀二千二十一年在民朴在甲書

징비록 서문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이 발생한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것도 이따금 기록한 것은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유를 궁구해보려는 까닭이다. 아 임진왜란의 재앙은 참혹했다. 열흘 남짓 사이에 한양, 개성, 평양을 지키지 못했고 팔도가 와해되었으며 선조 임금이 서울을 떠나 피란을 나갔는데 그러고도 우리나라가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대 여러 임금의 어질고 두터운 은덕이 백성들에게 굳게 맺어져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고 임금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신종 황제를 감동하게 해 우리나라를 보존해주기 위하여 중국의 군대가 여러 차례 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위태로웠을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내가 큰 상처를 입었으므로 뒷날의 환난을 대비하노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징비록을 저술하게 된 까닭이다.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지러운 난리통에 나라의 중책을 맡아서 그 위태로움을 바로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붙잡아주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아직도 시골구석에서 살아가며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어찌 임금님의 너그러우신 은전이 아니겠는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니 황공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에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을 임진년부터 무술년까지에 이르기까지 대략 서술하니 모두 얼마가량 되었고 이어서 장계와 소차와 문이 및 잡록을 그 뒤에 붙여 놓았다. 비록 볼 만한 것은 없지만 모두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므로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내가 시골에 살면서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나타내고 또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는 바이다.

선조 삼십칠년 서기 일천육백사년 서애 류성룡

서기 이천이십일년 재민 박재갑 쓰다

김채식, 박갑수 국역, 개인 교신

3. 선조국문유서 宣祖國文諭書 Royal edict of King Seonjo written in Hangeul

백성에게이르는글이라

임금이이르시되너희처음에왜적에게쫓겨서이로인하여왜적에게끌려다니는것은너희본마음이아니라왜적의주둔처에서도망쳐나오다가왜적에게들켜죽을까도여기며도리어의심하되왜적에게들었던것이니우리나라에서죽일까도두려워이제왜진에들어가나오지아니하니이제그너희들그런의심을먹지말고서로권하여다나오면내희를각별히죄주지않을뿐아니라그가운데왜적을잡아다오거나왜적이하는일을자세히알아서나오거나포로가된사람을많이데불어나오거나아무런공이라도있으면양민과천민은물론하여벼슬도시킬것이니너희들생심도전에먹던마음을먹지말고빨리나오라이뜻을가져장수들에게다알려놓았으니생심도의심말고모두나오라너희중에설마다어버이와처자식없는사람이있겠는가너희들살던데돌아와옛날대로도로살면얼마나좋겠는가이제곧아니나오면왜에게도죽을것이고나라가평정한후면너흰들아니뉘우치겠는가하물며당병이황해도와평안도에가득했고경상전라도에가득히있어왜적들이곧빨리제땅에아니건너가면근간에명나라군사와합병하여부산동래에있는왜적들을다칠뿐아니라명나라지원해군배와우리나라배를합하여바로왜나라에들어가다토벌할것이니그때면너희들조차휩쓸려죽을것이니너희서로일러서그전에빨리나오라

만력이십일년사월일

기이천이십년시월선조임금의국문유서를무간박재갑쓰다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라.

임금이 이르시되
너희 처음에 왜적에게 쫓겨서 이로 인하여 왜적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너희 본마음이 아니라 왜적의 주둔처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왜적에게 들켜 죽을까도 여기며, 도리어 의심하되 왜적에게 들었던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죽일까도 두려워 이제 왜진에 들어가 나오지 아니 하니 이제는 너희들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서로 권하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히 죄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왜적을 잡아 나오거나 왜적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서 나오거나 포로가 된 사람을 많이 더불어 나오거나 아무런 공이라도 있으면 양민과 천민은 물론하여 벼슬도 시킬 것이니 너희들 생심도 전에 먹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
이 뜻을 각처 장수들에게 다 알려놓았으니 생심도 의심 말고 모두 나오라. 너희 중에 설마 다 어버이와 처자식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들 살던 데 돌아와 옛날대로 도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왜에게도 죽을 것이고 나라가 평정한 후면 너흰들 아니 뉘우치겠는가?
하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했고 경상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왜적들이 곧 빨리 제 땅에 아니 건너가면 근간에 명나라 군사와 합병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적들을 다 칠 뿐 아니라 명나라 지원 해군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나라에 들어가 다 토벌할 것이니 그때면 너희들조차 휩쓸려 죽을 것이니 너희 서로 일러서 그 전에 빨리 나오라.

만력 이십일년 서기 일천오백구십삼년 구월
서기 이천이십년 시월 선조 임금의 국문유서를 무간 박재갑쓰다

작품 크기 : 91.0x59.0cm
자료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Message of King Gojong

고종이지어팔도와사도의노인과백성들에게내린윤음

임금이이렇듯이말씀하시기를아부텨한내가외람되이백성의위에의탁한지열아홉해라덕을밝히지못하여정사를손실하였기에백성이
흩어지고허물이위로쌓이고앙화가몸에모이니이것은나로말미암아불러온바이니비록뉘우친들무슨소용이있으리오임금의자리에올
라지금까지오면서 크게토목공사를일으켜백성에게재물을억지로거두어서가난하거나부유한모두로하여금다피곤하게하였으니이
것도나의죄요 여러번돈을고치고죄없는백성을많이죽였으니이것도나의죄요 사당과서원을허물고철폐하여충현에게제사를못하
게하였으니이도나의죄요 좋아하는물품을널리구하고상을주고하사하는일을무분별하게하였으니이도나의죄요 기도하는일을지
나치게믿고헛되이내탕고의재물을허비하였으니이도나의죄요 사람쓰기를널리못하고종친과외척만숭상하니이도나의죄요 궁궐
의위엄이엄숙하지못하여궁녀와환시가은택을간섭하니이도나의죄요 뇌물을주고받음이드려나계행하되탐관오리를징계하지못하
고가난한백성이근심하고괴로운정상이위에도달하지못하니이것도나의죄요 거축한재물이오래비어서군사와아컨이먹을것을잃고
공가를부족하계하는일이많으매시장상인이폐업하니이도나의죄요 각국을이어우호관계를이루는것이이에시세에마땅한일이나시
행을계획하고조처하기가법에어그러져서한갓백성에게의혹을더하였으니이도나의죄이니라 마침내는신령이노하시고사람이원망
하여온갖변고가쏟아져아랫사람이윗사람을업수이여기매재앙이육친에까지미쳐서위로천자에게근심을끼치고아래로만민에사는것
을요란하게하고신의를이웃나라에잃어버리고천하의웃음거리가되니이도또한나의죄이다 아나의죄가이에이르니오히려무슨면목
으로다시온나라신하백성을대하리오슬프고두렵고부끄럽고몹시두려워실로이임금으로누리는즐거움이없으니오직녀희대소신민들
이즐거이나의이전의허물을용서하고내가스스로새로이하려는것을허락할까보냐나도장차마음을씻고생각을새롭게하여앞일을징계
하고뒷일을삼가서정사와명령이전으로부텨백성에게편하지못한것들은모두제거할것이요어진관리를가리어모든생민을기르매실제
로효험을강구하여온나라백성으로더불어다시새롭게시작하기를생각하니녀희무리도또한마땅히각각녀희일에힘쓰고아름다운의견
으로고해준다면말씀이비록합당하지아니하여도반드시책망할리없으니만약앞의허물을고치고바로잡아한가지로큰기업을지킨다면
종묘사직에큰다행이겠다이제수천병사가바다를건너오매난역한놈을토죄하되무력을행사함을극단적으로아니하고나머지무리를녀
그러이용서하여장차나라안에크게사면을내려한가지로더불어새롭게하리니나도바야흐로허물을뉘우치매어느겨를에사람을책망하
리오아나라를흥하계함도항상여기서할것이요나라를망하계함도항상여기서할것이다평안하고위태한기틀이두려워하기가한터력과
같으매오히려가히경계하지아니하겠는가이제마음을텨놓고고하니생각건대마땅히다알지어다

고종십구년서기일천팔백팔십이년칠월이십일
서기이천이십년시월무간박재갑쓰다

작품 크기 : 128.0x70.0cm
자료 출처 :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윤음」,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년, 347~355쪽
전시 : 「명사서예전」,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21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 11. 05. ~ 12. 05., 251쪽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임금이 이렇듯이 말씀하시기를, 아! 부덕한 내가 외람되이 백성의 위에 의탁한 지 열아홉 해라. 덕을 밝히지 못하여 정사를 손실하였기에, 백성이 흩어지고 허물이 위로 쌓이고 앙화가 몸에 모이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불러온 바이니 비록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임금의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 오면서,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에게 재물을 억지로 거두어서, 가난하거나 부유한 모두로 하여금 다 피곤하게 하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여러 번 돈을 고치고 죄 없는 백성을 많이 죽였으니 이것도 나의 죄요, 사당과 서원을 허물고 철폐하여 충현에게 제사를 못 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좋아하는 물품을 널리 구하고 상을 주고 하사하는 일을 무분별하게 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기도하는 일을 지나치게 믿고, 헛되이 내탕고의 재물을 허비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요, 사람 쓰기를 널리 못하고 종친과 외척만 숭상하니 이도 나의 죄요, 궁궐의 위엄이 엄숙하지 못하여 궁녀와 환시가 은택을 간섭하니 이도 나의 죄요, 뇌물을 주고받음이 드러나게 행하되 탐관오리를 징계하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이 근심하고 괴로운 정상이 위에 도달하지 못하니 이것도 나의 죄요, 저축한 재물이 오래 비어서 군사와 아전이 먹을 것을 잃고 공가를 부족하게 하는 일이 많으매 시장 상인이 폐업하니 이도 나의 죄요, 각국을 이어 우호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에 시세에 마땅한 일이나, 시행을 계획하고 조처하기가 법에 어그러져서 한갓 백성에게 의혹을 더하였으니 이도 나의 죄이니라. 마침내는 신령이 노하시고 사람이 원망하여 온갖 변고가 쏟아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수이 여기매 재앙이 육친에까지 미쳐서, 위로 천자에게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 만민에 사는 것을 요란하게 하고, 신의를 이웃나라에 잃어버리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니, 이도 또한 나의 죄이다. 아! 나의 죄가 이에 이르니 오히려 무슨 면목으로 다시 온 나라 신하 백성을 대하리오? 슬프고 두렵고, 부끄럽고 몹시 두려워, 실로 이 임금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없으니, 오직 너희 대소 신민들이 즐거이 나의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스스로 새로이 하려는 것을 허락할까 보냐? 나도 장차 마음을 씻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앞일을 징계하고 뒷일을 삼가서 정사와 명령이 전으로부터 백성에게 편하지 못한 것들은 모두 제거할 것이요, 어진 관리를 가리어 모든 생민을 기르매, 실제로 효험을 강구하여 온 나라 백성으로 더불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생각하니, 너희 무리도 또한 마땅히 각각 너희 일에 힘쓰고 아름다운 의견으로 고해 준다면 말씀이 비록 합당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책망할 리 없으니, 만약 앞의 허물을 고치고 바로 잡아 한가지로 큰 기업을 지킨다면 종묘사직에 큰 다행이겠다. 이제 수천 병사가 바다를 건너오매 난역한 놈을 토죄하되, 무력을 행사함을 극단적으로 아니 하고, 나머지 무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장차 나라 안에 크게 사면을 내려, 한가지로 더불어 새롭게 하리니, 나도 바야흐로 허물을 뉘우치매 어느 겨를에 사람을 책망하리오? 아! 나라를 흥하게 함도 항상 여기서 할 것이요, 나라를 망하게 함도 항상 여기서 할 것이다. 평안하고 위태한 기틀이 두려워하기가 한 터럭과 같으매, 오히려 가히 경계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고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다 알지어다.

고종 19년 (1882년) 7월 20일

高宗(朝鮮) 撰, 『어제유팔도사군기로인민등윤음』, 『御製諭八道四郡耆老人民等綸音』, 奎2061, 1冊(5張), 高宗19年(188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2년(高宗 19) 7월 20일 高宗이 전국의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이다. 본 奎章閣 소장본은 3種 ([奎2061,3164,7862])이 있는데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冊 末尾에는 諺解가 첨부되어 있다. 내용은 高宗이 왕위에 오른지 19년이 되는 동안 不德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失政, 즉 < 自嗣服以來大興土木勤斂民財 使貧富俱困 > , < 屢改錢幣多殺無辜 > , < 毁撤祠院忠賢不祀 > 등의 여러 條目을 들면서, 이제 洗心滌慮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훌륭한 관리들을 택하고, 실효성 있는 政治를 펴보겠다는 내용의 뜻을 담고 있다. 본서는 開港이후 外勢의 韓半島 간여, 大院君의 攝政, 壬午軍亂을 비롯한 복잡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高宗이 스스로 실정失政으로 들고 있는 여러가지 조목條目은 대부분 大院君에 의해 주도된 治政을 들고 있는 점은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대원군大院君의 청淸나라 압송과 함께 민비세력閔妃勢力 등의 등장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본 윤음이 반포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이 된다고 하겠다.

5.삼일독립선언서 三一獨立宣言書 The March Fir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삼일독립선언서

우리는오늘조선이독립한나라이며조선인이이나라의주인임을선언한다우리는이를세계모든나라에
알려인류가모두평등하다는큰뜻을분명히하고우리후손이민족스스로살아갈정당한권리를영원히누
리게할것이다이선언은오천년동안이어온우리역사의힘으로하는것이며이천만민중의정성을모은것
이다우리민족이영원히자유롭게발전하려는것이며인류가양심에따라만들어가는세계변화의큰흐름
에발맞추려는것이다이것은하늘의뜻이고시대의흐름이며전인류가함께살아갈정당한권리에서나온
것이다이세상어떤것도우리독립을가로막지못한다 낡은시대의유물인침략주의와강권주의에희생
되어우리민족이수천년역사상처음으로다른민족에게억눌리는고통을받은지십년이지났다그동안우
리스스로살아갈권리를빼앗긴고통은헤아릴수없으며정신을발달시킬기회가가로막힌아픔이얼마인
가민족의존엄함에상처받은아픔또한얼마이며새로운기술과독창성으로세계문화에기여할기회를잃
은것이얼마인가 아그동안쌓인억울함을떨쳐내고지금의고통을벗어던지려면앞으로닥쳐올위협을
없애버리고억눌린민족의양심과사라진국가정의를다시일으키려면사람들이저마다인격을발달시키
고우리가여운자녀에게고통스러운유산대신완전한행복을주려면우리에게가장급한일은민족의독립
을확실하게하는것이다오늘우리이천만조선인은저마다가슴에칼을품었다모든인류와시대의양심은
정의의군대와인도의방패가되어우리를지켜주고있다그러므로우리는나아가싸우면어떤강한적도꺾
을수있고설령물러난다해도이루려한다면어떤뜻도펼칠수있다 우리는일본이일천팔백칠십육년강
화도조약뒤에갖가지약속을지키지않았다고해서일본을믿을수없다고비난하는게아니다일본의학자
와정치가들이우리땅을빼앗고우리문화민족을야만인대하듯하며우리의오랜사회와민족의훌륭한심
성을무시한다고해서일본의의리없음을탓하지않겠다스스로를채찍질하기에도바쁜우리에게는남을
원망할여유가없다우리는지금의잘못을바로잡기에도급해서과거의잘잘못을따질여유도없다지금우
리가할일은우리자신을바로세우는것이지남을파괴하는것이아니다양심이시키는대로우리의새로운
운명을만들어가는것이지결코오랜원한과한순간의감정으로샘이나서남을쫓아내는것이아니다우리
는단지낡은생각과낡은세력에사로잡힌일본정치인들이공명심으로희생시킨불합리한현실을바로잡
아자연스럽고올바른세상으로되돌리려는것이다처음부터우리민족이바라지않았던조선과일본의강
제병합이만든결과를보라일본이우리를억누르고민족차별의불평등과거짓으로꾸민통계숫자에따라
서로이해가다른두민족사이에화해할수없는원한이생겨나고있다과감하게오랜잘못을바로잡고진정
한이해와공감을바탕으로사이좋은새세상을여는것이서로재앙을피하고행복해지는지름길임이분명
하지않은가또한울분과원한에사무친이천만조선인을힘으로억누르는것은동양의평화를보장하는길
이아니다이는동양의안전과위기를판가름하는중심인사억만중국인들이일본을더욱두려워하고미워

하게하여 결국동양전체를함께망하는비극으로이끌것이분명하다오늘우리조선의독립은조선인이정당한번영을이루게하는것인동시에일본이잘못된길에서빠져나와동양에대한책임을다하게하는것이다또중국이일본에땅을빼앗길것이라는불안과두려움으로부터벗어나게하는것이며세계평화와인류행복의중요한부분인동양평화를이룰발판을마련하는것이다조선의독립이어찌사소한감정의문제인가 아새로운세상이눈앞에펼쳐지는구나힘으로억누르는시대가가고도의가이루어지는시대가오는구나지난수천년갈고닦으며길러온인도적정신이이제새로운문명의밝아오는빛을인류역사에비추기시작하는구나새봄이온세상에다가와모든생명을다시살려내는구나꽁꽁언얼음과차디찬눈보라에숨막혔던한시대가가고부드러운바람과따뜻한볕에기운이돋는새시대가오는구나온세상의도리가다시살아나는지금세계변화의흐름에올라탄우리는주저하거나거리낄것이없다우리는원래부터지닌자유권을지켜서풍요로운삶의즐거움을마음껏누릴것이다원래부터풍부한독창성을발휘하여봄기운가득한세계에민족의우수한문화를꽃피울것이다 그래서우리는떨쳐일어나는것이다양심이나와함께있으며진리가나와함께나아간다남녀노소구별없이어둡고낡은옛집에서뛰쳐나와세상모두와함께즐겁고새롭게되살아날것이다수천년전조상의영혼이안에서우리를돕고온세계의기운이밖에서우리를지켜주니시작이곧성공이다다만저앞의밝은빛을향하여힘차게나아갈뿐이다

세가지약속

하나 오늘우리의독립선언은정의와인도와생존과존영을위한민족의요구이니
오직자유로운정신을드날릴것이요결코배타적감정으로함부로행동하지말라
하나 마지막한사람까지마지막한순간까지민족의정당한뜻을마음껏드러내라
하나 모든행동은질서를존중하여우리의주장과태도를떳떳하고정당하게하라

조선을세운지사천이백오십이년삼월일일서기일천구백십구년삼월일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서기이천이십일년팔월재민박재갑쓰다 (印)

작품 크기 : 114.5x62.0cm
자료 출처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 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

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서기 이천이십일년 팔월 재민 박재갑 쓰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 펴낸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조선 : 우리나라

조선인 : 우리나라 사람

도의 : 인도와 정의

존영 : 고귀하고 세상에 빛남

6. 선언서 宣言書 The Declaration

니今日吾人의朝鮮獨立은朝鮮人으로하야금正當한生榮을遂케하는同時에日本으로하야
금邪路로서出하야東洋支持者인重責을全케하는것이며支那로하야금夢寐에도免하지못
하는不安恐怖로서脫出케하는것이며亞東洋平和로重要한一部를삼는世界平和人類幸福
에必要한階段이되게하는것이라이엇지區區한感情上問題ㅣ리오
아아新天地가眼前에展開되도다威力의時代가去하고道義의時代가來하도다過去全世紀
에鍊磨長養된人道的精神이바야흐로新文明의曙光을人類의歷史에投射하기始하도다新
春이世界에來하야萬物의回蘇를催促하는도다凍氷寒雪에呼吸을閉蟄한것이彼一時의勢
ㅣ라하면和風暖陽에氣脈을振舒함은此一時의勢ㅣ니天地의復運에際하고世界의變潮를
乘한吾人은아모躊躇할것업스며아모忌憚할것업도다我의固有한自由權을護全하야生旺
의樂을飽享할것이며我의自足한獨創力을發揮하야春滿한大界에民族的精華를結紐할지
로다
吾等이玆에奮起하도다良心이我와同存하며眞理가我와幷進하는도다男女老少업시陰鬱
한古巢로서活潑히起來하야萬彙羣象으로더부러欣快한復活을成遂하게되도다千百世祖
靈이吾等을陰佑하며全世界氣運이吾等을外護하나니着手가곳成功이라다만前頭의光明
으로驀進할싸름인뎌

公 約 三 章

一, 今日吾人의此擧는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爲하는民族的要求ㅣ니오즉自由的精
神을發揮할것이오決코排他的感情으로逸走하지말라
一, 最後의一人까지最後의一刻까지民族의正當한意思를快히發表하라
一, 一切의行動은가장秩序를尊重하야吾人의主張과態度로하야금어대까지던지光明
正大하게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鎭 權秉悳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西紀二千二十一年六月在民朴在甲쓰다

작품 크기 : 59.5x114.5cm
자료 제공 : 유홍준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宣言書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此로써世界萬邦에告하야人類平等의大義를克明하며此로써子孫萬代에誥하야民族自存의正權을永有케하노라半萬年歷史의權威를仗하야此를宣言함이며二千萬民衆의誠忠을合하야此를佈明함이며民族의恒久如一한自由發展을爲하야此를主張함이며人類的良心의發露에基因한世界改造의大機運에順應并進하기爲하야此를提起함이니是ㅣ天의明命이며時代의大勢ㅣ며全人類共存同生權의正當한發動이라天下何物이던지此를沮止抑制치못할지니라

舊時代의遺物인侵略主義强權主義의犧牲을作하야有史以來累千年에처음으로異民族箝制의痛苦를嘗한지今에十年을過한지라我生存權의剝喪됨이무릇幾何ㅣ며心靈上發展의障礙됨이무릇幾何ㅣ며民族的尊榮의毁損됨이무릇幾何ㅣ며新銳와獨創으로써世界文化의大潮流에寄與補裨할機緣을遺失함이무릇幾何ㅣ뇨

噫라舊來의抑鬱을宣暢하려하면時下의苦痛을擺脫하려하면將來의脅威를芟除하려하면民族的良心과國家的廉義의壓縮銷殘을興奮伸張하려하면各個人格의正當한發達을遂하려하면可憐한子弟에게苦恥的財産을遺與치안이하려하면子子孫孫의永久完全한慶福을導迎하려하면最大急務가民族的獨立을確實케함이니二千萬各個가人마다方寸의刃을懷하고人類通性과時代良心이正義의軍과人道의干戈로써護援하는今日吾人은進하야取하매何强을挫치못하랴退하야作하매何志를展치못하랴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의金石盟約을食하얏다하야日本의無信을罪하려안이하노라學者는講壇에서政治家는實際에서我祖宗世業을植民地視하고我文化民族을土昧人遇하야한갓征服者의快를貪할뿐이오我의久遠한社會基礎와卓犖한民族心理를無視한다하야日本의少義함을責하려안이하노라自己를策勵하기에急한吾人은他의怨尤를暇치못하노라現在를綢繆하기에急한吾人은宿昔의懲辦을暇치못하노라今日吾人의所任은다만自己의建設이有할뿐이오決코他의破壞에在치안이하도다嚴肅한良心의命令으로써自家의新運命을開拓함이오決코舊怨과一時的感情으로써他를嫉逐排斥함이안이로다舊思想舊勢力에羈縻된日本爲政家의功名的犧牲이된不自然又不合理한錯誤狀態를改善匡正하야自然又合理한正經大原으로歸還케함이로다當初에民族的要求로서出치안이한兩國併合의結果가畢竟姑息的威壓과差別的不平과統計數字上虛飾의下에서利害相反한兩民族間에永遠히和同할수업는怨溝를去益深造하는今來實績을觀하라勇明果敢으로써舊誤를廓正하고眞正한理解와同情에基本한友好的新局面을打開함이彼此間遠禍召福하는捷徑임을明知할것안인가至二千萬含憤蓄怨의民을威力으로써拘束함은다만東洋의永久한平和를保障하는所以가안일뿐안이라此로因하야東洋安危의主軸인四億萬支那人의日本에對한危懼와猜疑를갈스록濃厚케하야그結果로東洋全局이共倒同亾의悲運을招致할것이明하

宣言書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此로써世界萬邦에告하야人類平等의大義를克明하며此로써子孫萬代에誥하야民族自存의正權을永有케하노라半萬年歷史의權威를仗하야此를宣言함이며二千萬民衆의誠忠을合하야此를佈明함이며民族의恒久如一한自由發展을爲하야此를主張함이며人類的良心의發露에基因한世界改造의大機運에順應幷進하기爲하야此를提起함이니是ㅣ天의明命이며時代의大勢ㅣ며全人類共存同生權의正當한發動이라天下何物이던지此를沮止抑制치못할지니라

舊時代의遺物인侵略主義强權主義의犧牲을作하야有史以來累千年에처음으로異民族箝制의痛苦를嘗한지今에十年을過한지라我生存權의剝喪됨이무릇幾何ㅣ며心靈上發展의障礙됨이무릇幾何ㅣ며民族的尊榮의毁損됨이무릇幾何ㅣ며新銳와獨創으로써世界文化의大潮流에寄與補裨할機緣을遺失함이무릇幾何ㅣ뇨

噫라舊來의抑鬱을宣暢하려하면時下의苦痛을擺脫하려하면將來의脅威를芟除하려하면民族的良心과國家的廉義의壓縮銷殘을興奮伸張하려하면各個人格의正當한發達을遂하려하면可憐한子弟에게苦恥的財産을遺與치안이하려하면子子孫孫의永久完全한慶福을導迎하려하면最大急務가民族的獨立을確實케함이니二千萬各個가人마다方寸의刃을懷하고人類通性과時代良心이正義의軍과人道의干戈로써護援하는今日吾人은進하야取하매何强을挫치못하랴退하야作하매何志를展치못하랴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의金石盟約을食하얏다하야日本의無信을罪하려안이하노라學者는講壇에서政治家는實際에서我祖宗世業을植民地視하고我文化民族을土昧人遇하야한갓征服者의快를貪할뿐이오我의久遠한社會基礎와卓犖한民族心理를無視한다하야日本의少義함을責하려안이하노라自己를策勵하기에急한吾人은他의怨尤를暇치못하노라現在를綢繆하기에急한吾人은宿昔의懲辦을暇치못하노라今日吾人의所任은다만自己의建設이有할뿐이오決코他의破壞에在치안이하도다嚴肅한良心의命令으로써自家의新運命을開拓함이오決코舊怨과一時的感情으로써他를嫉逐排斥함이안이로다舊思想舊勢力에羈縻된日本爲政家의功名的犧牲이된不自然又不合理한錯誤狀態를改善匡正하야自然又合理한正經大原으로歸還케함이로다當初에民族的要求로서出치안이한兩國併合의結果가畢竟姑息的威壓과差別的不平과統計數字上虛飾의下에서利害相反한兩民族間에永遠히和同할수업는怨溝를去益深造하는今來實績을觀하라勇明果敢으로써舊誤를廓正하고眞正한理解와同情에基本한友好的新局面을打開함이彼此間遠禍召福하는捷徑임을明知할것안인가또二千萬含憤蓄怨의民을威力으로써拘束함은다만東洋의永久한平和를保障하는所以가안일뿐안이라此로因하야東洋安危의主軸인四億萬支那人의日本에對한危懼와猜疑를갈스록濃厚케하야그結果로東洋全局이共倒同亾의悲運을招致할것이明하니今日吾人의朝鮮獨立은朝鮮人으로하야금正當한生榮을遂케하는同時에日本으로하야금邪路로서出하야東洋支持者인重責을全케하는것이며支那로하야금夢寐에도免하지못하는不安恐怖로서脫出케하는것이며또東洋平和로重要한一部를삼는世界平和人類幸福에必要한階段이되게하는것이라이엇지區區한感情上問題ㅣ리오

아아新天地가眼前에展開되도다威力의時代가去하고道義의時代가來하도다過去全世紀에鍊磨長養된人道的精神이바야흐로新文明의曙光을人類의歷史에投射하기始하도다新春이世界에來하야萬物의回穌를催促하는도다凍氷寒雪에呼吸을閉蟄한것이彼一時의勢ㅣ라하면和風暖陽에氣脈을振舒함은此一時의勢ㅣ니天地의復運에際하고世界의變潮를乘한吾人은아모躊躇할것업스며아모忌憚할것업도다我의固有한自由權을護全하야生旺의樂을飽享할것이며我의自足한獨創力을發揮하야春滿한大界에民族的精華를結紐할지로다

吾等이玆에奮起하도다良心이我와同存하며眞理가我와幷進하는도다男女老少업시陰鬱한古巢로서活潑히起來하야萬彙羣象으로더부러欣快한復活을成遂하게되도다千百世祖靈이吾等을陰佑하며全世界氣運이吾等을外護하나니着手가곳成功이라다만前頭의光明으로驀進할짜름인뎌

公約三章

一. 今日吾人의此擧는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爲하는民族的要求

ㅣ니오즉自由的精神을發揮할것이오決코排他的感情으로逸走하지말라

一. 最後의一人까지最後의一刻까지民族의正當한意思를快히發表하라

一. 一切의行動은가장秩序를尊重하야吾人의主張과態度로하야금어대까지던지光明正大하게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鎭 權秉悳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　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西紀二千二十一年八月在民朴在甲書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8일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3월 1일 배포되었다. 여기에 실린 『3·1독립선언서』는 보성사판을 따랐지만 조선朝鮮을 선조鮮朝로 잘못 표기한 부분은 바로 잡았다.
보성사판 원문에는 선조鮮朝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7.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The Proclamation of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神人一致로中外協應하야漢城에起義한지三十有日에平和的獨立을三百餘州에光復하고國民의信任으로完全히다시組織한臨時政府는恒久完全한自主獨立의福利로我子孫黎民에世傳키爲하야臨時議政院의決議로臨時憲章을宣布하노라

大韓民國臨時憲章

第一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制로함

第二條 大韓民國은臨時政府가臨時議定院의決議에依하야此를統治함

第三條 大韓民國의人民은男女貴賤及貧富의階級이無하고一切平等임

第四條 大韓民國의人民은信敎·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身體及所有의自由를享有함

第五條 大韓民國의人民으로公民資格이有한者는選擧權及被選擧權이有함

第六條 大韓民國의人民은敎育納稅及兵役의義務가有함

第七條 大韓民國은神의意思에依하야建國한精神을世界에發揮하며進하야人類의文化及平和에貢獻하기爲하야國際聯盟에加入함

第八條 大韓民國은舊皇室을優待함

第九條 生命刑身體刑及公娼制를全廢함

第十條 臨時政府난國土恢復後滿一個年內에國會를召集함

大韓民國元年四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承晩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法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李東暉

交通總長 文昌範

宣誓文

尊敬하고熱愛하난我

二千萬同胞國民이어

民國元年三月一日我大韓民族이獨立을宣言함으로브터男과女와老와少와모든階級과모든宗派를勿論하고一致코團結하야東洋의獨逸인日本의非人道的暴行下에極히公明하게極히忍辱하게我民族의獨立과自由를渴望하난實思와正義와人道를愛好하난國民性을表現한지라今에世界의同情이翕然히我國民에集中하엿도다此時를當하야本政府ㅣ全國民의委任을受하야組織되엿나니本政府ㅣ全國民으로더부러專心코戮力하야臨時憲法과國際道德의命하난바를遵守하야國土光復과邦基確國의大使命을果하기를玆에宣誓하노라

同胞國民이어奮起할지여다·우리의流하난一滴의血이子孫萬代의自由와福榮의價ㅣ요神의國의建設의貴한基礎이니라·우리의人道ㅣ마참내日本의野蠻을敎化할지오우리의正義ㅣ마참내日本의暴力을勝할지니同胞여起하야最後의一人까지鬪할지어다

政綱

一·民族平等·國家平等及人類平等의大義를宣傳함

二·外國人의生命財産을保護함

三·一切政治犯人을特赦함

四·外國에對한權利義務난民國政府와締結하난條約에一依함

五·絶對獨立을誓圖함

六·臨時政府의法令을違越하난者난敵으로認함

大韓民國元年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西紀二千二十一年八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96.0x54.0cm

자료 출처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神人一致로 中外 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 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大韓民國臨時憲章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定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擧權及 被選擧權이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야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난 國土恢復後 滿 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承晩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法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李東暉

交通總長　文昌範

宣 誓 文

尊敬하고 熱愛하난 我 二千萬 同胞國民이어

民國 元年 三月 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브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난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國民에 集中하엿도다. 此 時를 當하야 本政府ㅣ 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엿나니 本政府ㅣ 全國民으로 더부러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난 바를 遵守하야 國土光復과 邦基確國의 大使命을 果하기를 玆에 宣誓하노라

同胞國民이어 奮起할지여다. 우리의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榮의 價ㅣ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ㅣ 마참내 日本의 野蠻을 敎化할지오 우리의 正義ㅣ 마참내 日本의 暴力을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ㅅ가(까)지 鬪할지어다

政 綱

一. 民族平等·國家平等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二.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三.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四. 外國에 對한 權利 義務난 民國政府와 締結하난 條約에 一依함

五. 絶對獨立을 誓圖함

六.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난 者난 敵으로 認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西紀二千二十一年八月在民朴在甲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국사편찬위원회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8.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上學部大臣書 Letter to Minister of Education

곤궁하여먹고사는데급급하고견문과경험이적을뿐더러의서는모두버려진가운데전해오는것들입니다약재는대부분
묵은나무뿌리나썩은풀정도이어우연히약이맞아혹가벼운병에효험이있기도하나독한약을잘못써서목숨을위협하기
도합니다서양여러나라에서해부를통해명확히밝혀낸방법과사물의이치를궁구하여지식을온전히하고통달한이론정
수를뽑아정제한약의조제와우리의의학을비교하면기술의공교함과졸렬함정교함과투박함의차이가하늘과땅의차이
에그칠뿐만이아니니부끄러울뿐입니다무릇인민들의질병을구제하는방법이적은것이격정되나더욱급박한것은태의
와군의가필요한것입니다제어리석은생각으로는빨리서울에의학교를설립하여서양말도잘하는일본의명의를초빙하
여교사로삼고일어와영어를배우는우리학생들가운데서한문에도뛰어난총명한몇사람을선발하여학도로하여열심히
배우게하고졸업한뒤에그가운데서태의와군의의재목을뽑고녁녁하게여유가있으면각도에파송하여그곳에의학교를
설립하고학생들을가르쳐야합니다그리고사제간에자주도를전하면의서와뛰어난의사들이나라안에가득차서상하의
군인과백성들이다같이장수하는경지에오르게될것입니다처음에는샘물의근원과같은적은노력이나마침내대해와같
은덕을보게될것입니다엎드려바라건대각하께서깊이살피시어결행하시옵소서진실로이와같이한다면훌륭하기더할
수없을것입니다교사는정부가맡아편안하게해주고학도는교사가맡아지도하니어찌다시쓸데없는혹이생길수있겠습
니까다만풍토와기후가다르고육신에필요한자양분이같지않아서혹귀들에게맞으나우리에게는맞지않는폐단이있지
않을까합니다그러므로교사와학도들사이를화목하게하기위해이들의관계를참작하여화목할수있도록도와줄사람이
하나있어야합니다그런뒤에비로소전반적으로원만한성과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이러한사람은중국의학과서양의학
에정통한사람이아니면안됩니다넓은세상많은사람가운데는반드시이련사람이있을것이나격정되는것은진주가잿더
미에묻혀있듯진품은숨어있기쉽고판자위의촛불같이허황한명성만이간혹드러난다는것입니다석영은어리석고아는
것이없습니다만어려서부터오직의학을좋아하여중국의학의대강을섭렵하였고서양의의학서적도또한자못널리찾고
멀리구하여올바로열람했습니다병의증세에대처하여약을처방함에감히능하다고는할수없으나내외과피차의이로움
과해로움약의처방과조제의우열과취사에대하여도치우치지않을입장에서조절하는안목이없지는않습니다만일제가
실제로운영하고조치하며이책임을전담하게된다면옛것을익히고새로운것을배워반드시조금이나마보탬이되게할것
이며남들보다먼저안것을바탕삼아후진들을이끌것이며또한이일에절대로물러서거나양보하지않을것입니다세상사
람의공론이어떠한지알지못하면서자신을스스로천거한다는혐의를피하지않고우려려고명하신각하께이련저런말씀
을올리자니망령되고부끄럽고두려운나머지땀이비오듯합니다하지만이는진실로공적충정에서우려나온것으로사사
로이도모하는겉꾸밈이아닙니다겉은비록사사로운듯이보이나속마음이스스로공적인것은옛날의어질고지혜로운분
들도또한가로막지아니한적이많았습니다어찌구차하게하찮은절의에얽매여세상을살아가며얻는교훈의이익과혜택
에분발하지않겠습니까온근히청송하여논하기를의사들이눈으로보고귀로듣고말로묻고손으로진단하는것은곧대학
에서말하는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도라하였습니다눈으로보는것은몸을닦는것과같고귀로듣는것은집안을바르게하
는것과같고말로묻는것은나라를다스리는것과같고손으로진단하는것은천하를평안하게하는것과같으니순서와조목
이이치가같습니다안으로쌓아수양하는도는한몸을치료하는것이며밖으로널리구제하는법은세상을치료하는것이라
하겠으니몸에병이있으면어찌몸을닦을수있으며몸을닦지못하면집안을바르게하고나라를다스리고세상을평안하게
하는것을어찌이루겠습니까그러므로다시말씀드리거니와세상의학문가운데의학만큼소중한것이없습니다두루밝게
살펴주시기바랍니다

서기일천팔백구십팔년십일월칠일정삼품지석영

학부대신이도재각하

서기이천이십일년구월재민박재갑쓰다

학부대신께 올리는글

삼가아뢰옵고자하는것은세상의학문가운데의학만큼소중한것이없다는것으로사람의삶과목숨에관련된것이기때문입니다이런까닭에신농과황제는의약을만들고질병을치료하였으니생명을보전하여오래살게한공이크며생명을아낀덕이크다하겠습니다무릇역대의곁인과뛰어난선비들은신령한성인들이널리구제하는자애로움과어지심을사모하지않음이없어때로의학에뜻을두었고더욱독실하게원한분들은훌륭한재상이아니라당연히훌륭한의사가되었는데범중엄이그런사람입니다훌륭한장군이아니라훌륭한의사가된분으로는장개빈이있습니다서양의인물로근래에영특하고걸출하여세상에이름을날린분은의사에서시작하여일어서지않은경우가없으니정위량애약슬합신씨같은분들이이들입니다이로볼때어찌의학을홀대할수있겠습니까가령무병하게하여어린이가기운이왕성하고노인이건강할수있다면약은필요없을것입니다하지만맹분과하육의용맹함일지라도병이들면시들고사광의밝은귀일지라도병이들면어두워지고소진의말솜씨일지라도병이들면어눌해지고서시의미모일지라도병이들면파리해질것이니사람에게병이엄중하지않다고할수있겠습니까의약에능하면병든사람을낫게하고죽을사람도살리는데이는훌륭한의사가사람을살리는것입니다의약에능하지못하면병을더악화시키고산사람을죽게하는데이는변변치못한의사가사람을죽이는것입니다그러니신중치않을수있겠습니까우리나라가혁신하면서여러가지일이날로새로워지고있습니다만의학에있어서는개혁의겨를이없었으니진실로심히개탄스럽습니다오늘날개명한여러나라에서는모두의사를부커커렴존경하고약을신커렴중히여기고곳곳에의학교를세우고교사의자질을갈고닦으며생명을보호하기에미치지못할까두려워합니다그런데우리나라의풍속은의학을하찮은기술로보며의사를천한기술자같이대합니다그리하여의업에종사하는사람은태반이

작품 크기 : 73.0x105.0cm
자료 제공 : 박갑수, 허성도, 전광배, 김채식 국역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1]

삼가 아뢰옵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 가운데 의학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사람의 삶과 목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농神農과 황제黃帝는 의약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였으니, 생명을 보전하여 오래 살게 한 공이 크며, 생명을 아낀 덕이 크다 하겠습니다. 무릇 역대의 철인과 뛰어난 선비들은 신령한 성인들이 널리 구제하는 자애로움과 어지심을 사모하지 않음이 없어, 때로 의학에 뜻을 두었고, 더욱 독실하게 원한 분들은 훌륭한 재상이 아니라, 당연히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데, 범중엄[2]이 그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군이 아니라, 훌륭한 의사가 된 분으로는 장개빈[3]이 있습니다. 서양의 인물로 근래에 영특하고 걸출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린 분은 의사에서 시작하여 일어서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정위량丁韙良(William A.P. Martin), 애약슬艾約瑟(Joseph Edkins), 합신合信(Benjamin Hobson) 씨 같은 분들이 이들입니다. 이로 볼 때 어찌 의학을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무병하게 하여 어린이가 기운이 왕성하고, 노인이 건강할 수 있다면 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분과 하육의 용맹함일지라도 병이 들면 시들고, 사광師曠의 밝은 귀 일지라도 병이 들면 어두워지고, 소진蘇秦의 말솜씨일지라도 병이 들면 어눌해지고, 서시西施의 미모일지라도 병이 들면 파리해질 것이니 사람에게 병이 엄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약에 능하면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데 이는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약에 능하지 못하면 병을 더 악화시키고 산 사람을 죽게 하는데, 이는 변변치 못한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혁신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만 의학에 있어서는 개혁의 겨를이 없었으니 진실로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오늘날 개명한 여러 나라에서는 모두 의사를 부처처럼 존경하고, 약을 신처럼 중히 여기고, 곳곳에 의학교를 세우고, 교사의 자질을 갈고 닦으며 생명을 보호하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속은 의학을 하찮은 기술로 보며, 의사를 천한 기술자같이 대합니다. 그리하여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태반이 곤궁하여 먹고사는 데 급급하고, 견문과 경험이 적을뿐더러 의서는 모두 버려진 가운데 전해오는 것들입니다. 약재는 대부분 묵은 나무뿌리나 썩은 풀 정도 이어, 우연히 약이 맞아 혹 가벼운 병에 효험이 있기도 하나, 독한 약을 잘못 써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서양 여러 나라에서 해부를 통해 명확히 밝혀낸 방법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온전히 하고 통달한 이론, 정수를 뽑아 정제한 약의 조제와 우리의 의학을 비교하면 기술의 공교함과 졸렬함, 정교함과 투박함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에 그칠 뿐만이 아니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무릇 인민들의 질병을 구제하는 방법이 적은 것이 걱정되나, 더욱 급박한 것은 태의太醫(황실의)와 군의軍醫(군의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빨리 서울에 의학교를 설립하여 서양말도 잘하는 일본의 명의를 초빙하여 교사로 삼고, 일어와 영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한문에도 뛰어난 총명한 몇 사람을 선발하여 학도로 하여 열심히 배우게 하고, 졸업한 뒤에 그 가운데서 태의와 군의의 재목을 뽑고,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각 도에 파송하여 그곳에 의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 간에 자주 도를 전하면 의서와 뛰어난 의사들이 나라 안에 가득 차서 상하의 군인과 백성들이 다 같이 장수하는 경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샘물의 근원과 같은 적은 노력이나 마침내 대해와 같은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각하께서 깊이 살피시어 결행하시옵소서.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훌륭하기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는 정부가 맡아 편안하게 해주고, 학도는 교사가 맡아 지도하니, 어찌 다시 쓸데없는 혹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풍토와 기후가 다르고, 육신에 필요한 자양분이 같지 않아서 혹 저들에게 맞으나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도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관계를 참작하여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비로소 전반적으로 원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국 의학과 서양 의학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넓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나, 걱정되는 것은 진주가 잿더미에 묻혀 있듯, 진품은 숨어있기 쉽고, 판자 위의 촛불같이 허황한 명성만이 간혹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석영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오직 의학을 좋아하여 중국 의학의 대강을 섭렵하였고 서양의 의학서적도 또한 자못 널리 찾

고, 멀리 구하여 올바로 열람했습니다. 병의 증세에 대처하여 약을 처방함에 감히 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내외과 피차의 이로움과 해로움, 약의 처방과 조제의 우열과 취사에 대하여도 치우치지 않을 입장에서 조절하는 안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조치하며 이 책임을 전담하게 된다면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워 반드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할 것이며, 남들보다 먼저 안 것을 바탕삼아 후진들을 이끌 것이며, 또한 이 일에 절대로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공론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천거한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우러러 고명하신 각하께 이런저런 말씀을 올리자니 망령되고, 부끄럽고, 두려운 나머지 땀이 비오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로 공적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사사로이 도모하는 겉 꾸밈이 아닙니다. 겉은 비록 사사로운 듯이 보이나 속마음이 스스로 공적인 것은 옛날의 어질고 지혜로운 분들도 또한 가로막지 아니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찌 구차하게 하찮은 절의에 얽매여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교훈의 이익과 혜택에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칭송하여 논하기를 의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묻고, 손으로 진단하는 것은 곧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라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몸을 닦는 것과 같고, 귀로 듣는 것은 집안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고, 말로 묻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진단하는 것은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순서와 조목이 이치가 같습니다. 안으로 쌓아 수양하는 도는 한 몸을 치료하는 것이며, 밖으로 널리 구제하는 법은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라 하겠으니 몸에 병이 있으면 어찌 몸을 닦을 수 있으며, 몸을 닦지 못하면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어찌 이루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의 학문 가운데 의학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두루 밝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일천팔백구십팔년 십일월 칠일

정삼품 지석영

학부대신 이도재 각하

서기 이천이십일년 구월 재민 박재갑 쓰다

---

1.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 지석영 상학부대신서의 한글번역본(1993년 3월 표정훈, 황상익 옮김)을 황상익 교수님으로부터 받고, 허성도 교수님, 박갑수 교수님의 도움으로 문장을 다듬어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2020. 10. 8,~11. 1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특별전) 도록에 실렸던 지석영 상학부대신서의 한글번역을 박갑수 교수님, 허성도 교수님, 전광배 편집장님, 김채식 박사님의 도움으로 문장을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2. 범중엄范仲淹 : 989~1052. 북송北宋의 이름난 재상이다. 범중엄이 벼슬하기 전에 한번은 절에 가서 재상이 되거나 아니면 의원이 되기를 기도한 일이 있었다. 후일 의원이 되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물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원이라 하면서 의학의 중요성을 설파한 일이 있다. 《能改齋漫錄 卷13 記事 文正公願爲良醫》

3. 장개빈張介賓 : 1563~1640. 명明나라 의원醫員으로 자는 혜경惠卿, 호는 경악景嶽·통일자通一子이다. 중국 절강성浙江省 소흥紹興 출신이다. 의술이 뛰어났고, 특히 숙지황을 잘 써서 사람들이 장숙지張熟地라고 불렀다. 저서로는 《경악전서景嶽全書》, 《유경類經》, 《고방팔진古方八陣》, 《신방팔진新方八陣》 등이 있다.

9. 상학부대신서 上學部大臣書 Letter to Minister of Education

海之德也伏願閣下淵察而決行焉誠如是也美無
倫矣教師則　政府自當安之學徒則教師自當囿
之復何贅疣之有哉但恐風土寒溫之有異腸腑滋
養之不同也或有適彼不適我之端然則宜於其教
師學徒之間不得不有一箇參酌贊成之人然後可
得以全提圓就也此等人苟非會通中西醫學者不
可也浩浩芸芸必有其人而惟所虞者珠沒灰中眞
品易隱蠟光板上虛譽或顯也錫永鹵也無知自幼
性偏好醫中土醫學略有涉躐太西醫書亦頗廣搜
遠求閱覽雅矣對症投劑不敢曰能至於內外科目
之彼此利害方藥品劑之優劣取捨非無如干權衡
於其中也若使實地運措專擔此責則溫故知新必
有幾兮增益而緣於先知飾之後進亦不敢萬萬退
讓也世人公議未知如何而不避自薦之嫌顒仰云
云於　高明之下誕妄慚惶有汗如雨然實出公濟
之衷而不在私謀之表也表雖如私衷自是公古人
賢智亦多不閑何必苟拘小節不奮於世教之利澤
者乎窃賞論之醫家望聞問切之法卽是大學修齊
治平之道也望者如修聞者如齊問者如治切者如
平次第節目其致同也蘊而養之道醫一身廣而濟
之法藥四海其身有病從安得修修身不得齊家治
國平天下從何而達乎故曰天下之學莫如醫重也
統希　照亮
光武二年十一月七日
正三品池錫永
學部大臣李道宰　閣下
西紀二千二十一年五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1.5x127.5cm
자료 출처 : 上學部大臣書 : 池錫永上疏/ 池錫永(朝鮮) 著,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上學部大臣書

敬啓者天下之學莫如醫重關係乎人生性命也是以神農黃帝造醫藥治疾病壽世之功深矣好生之德至矣逮夫歷代之哲人達士莫不慕古神聖普濟之慈仁往往有志於醫學而尤其篤願者不爲良相當爲良醫范仲淹是也未作良將乃作良醫張介賓是也至於西土人物近以英傑名世者莫不從醫士起如丁韙良艾約瑟合信氏等是也由此觀之醫可忽乎若使無病嬰孩可旺老耄可康無須乎藥也賁育之勇焉而有病則委師曠之聰焉而有病則昏蘇秦之辯焉而有病則訥西施之美焉而有病則瘁病之於人可不嚴乎能於醫藥則病者愈死者生是良醫之活人也不能於醫藥則病者加生者死是庸醫之殺人也可不愼乎自我更張庶務日新而至於醫學未遑有擧誠甚慨然也現今開明諸國悉皆尊醫如佛重藥如神遍設學校師資琢磨保護生靈如恐不及我邦風俗視醫學如末技待醫士如賤工故爲醫業者太半困窮求食薄聞徑涉而方書則盡汗漫遺典也藥料則多陳根腐草也偶中順劑微痾或效妄用峻藥壽命橫促比諸太西解剖明確之方格致窮通之法撮精取露之劑工拙精麤不啻天淵可愧也已凡諸人民之疾病已患少濟而尤所急者太醫軍醫之需用也以愚意之亟設醫學校於都下雇聘日本名醫之兼通西語者以爲敎師選我日英語學生中稍優漢文之聰俊幾人以爲學徒使之勤篤講習待其卒業拔其尤勝太醫軍醫之材品綽有餘裕而派送各道設校授徒一再傳薪則靑囊國手遍于闔境上下軍民共躋壽域始之源泉之功而終之滄

上學部大臣書*

敬啓者天下之學莫如醫重關係乎人生性命也是以神農黃帝造醫藥治疾病壽世之功深矣好生之德至矣逮夫歷代之哲人達士莫不慕古神聖普濟之慈仁往往有志於醫學而尤其篤願者不爲良相當爲良醫范仲淹是也未作良將乃作良醫張介賓是也至於西土人物近以英傑名世者莫不從醫士起如丁韙良艾約瑟合信氏等是也由此觀之醫可忽乎若使無病嬰孩可旺老耄可康無須乎藥也賁育之勇焉而有病則委師曠之聰焉而有病則昏蘇秦之辯焉而有病則訥西施之美焉而有病則瘁病之於人可不嚴乎能於醫藥則病者愈死者生是良醫之活人也不能於醫藥則病者加生者死是庸醫之殺人也可不愼乎自我更張庶務日新而至於醫學未遑有擧誠甚慨然也現今開明諸國悉皆尊醫如佛重藥如神遍設學校師資琢磨保護生靈如恐不及我邦風俗視醫學如末技待醫士如賤工故爲醫業者太半困窮求食薄聞徑涉而方書則盡汗漫遺典也藥料則多陳根腐草也偶中順劑微疴或效妄用峻藥壽命橫促比諸太西解剖明確之方格致窮通之法撮精取露之劑工拙精麤不啻天淵可愧也已凡諸人民之疾病已患少濟而尤所急者太醫軍醫之需用也以愚意之亟設醫學校於都下雇聘日本名醫之兼通西語者以爲敎師選我日英語學生中稍優漢文之聰俊幾人以爲學徒使之勤篤講習待其卒業拔其尤勝太醫軍醫之材品綽有餘裕而派送各道設校授徒一再傳薪則靑囊國手遍于闔境上下軍民共躋壽域始之源泉之功而終之滄海之德也伏願閣下淵察而決行焉誠如是也美無倫矣敎師則　政府自當安之學徒則敎師自當囿之復何贅疣之有哉但恐風土寒溫之有異腸腑滋養之不同也或有適彼不適我之端然則宜於其敎師學徒之間不得不有一箇參酌贊成之人然後可得以全提圓就也此等人苟非會通中西醫學者不可也浩浩芸芸必有其人而惟所虞者珠沒灰中眞品易隱蠟光板上虛譽或顯也錫永鹵也無知自幼性偏好醫中土醫學略有涉躐太西醫書亦頗廣搜遠求閱覽雅矣對症投劑不敢曰能至於內外科目之彼此利害方藥品劑之優劣取捨非無如干權衡於其中也若使實地運措專擔此責則溫故知新必有幾兮增益而緣於先知飾之後進亦不敢萬萬退讓也世人公議未知如何而不避自薦之嫌顒仰云云於　高明之下誕妄慚惶有汗如雨然實出公濟之衷而不在私謀之表也表雖如私衷自是公古人賢智亦多不閑何必苟拘小節不奮於世敎之利澤者乎窃賞論之醫家望聞問切之法卽是大學修齊治平之道也望者如修聞者如齊問者如治切者如平次第節目其致同也蘊而養之道醫一身廣而濟之法藥四海其身有病從安得修修身不得齊家治國平天下從何而達乎故曰天下之學莫如醫重也統希　照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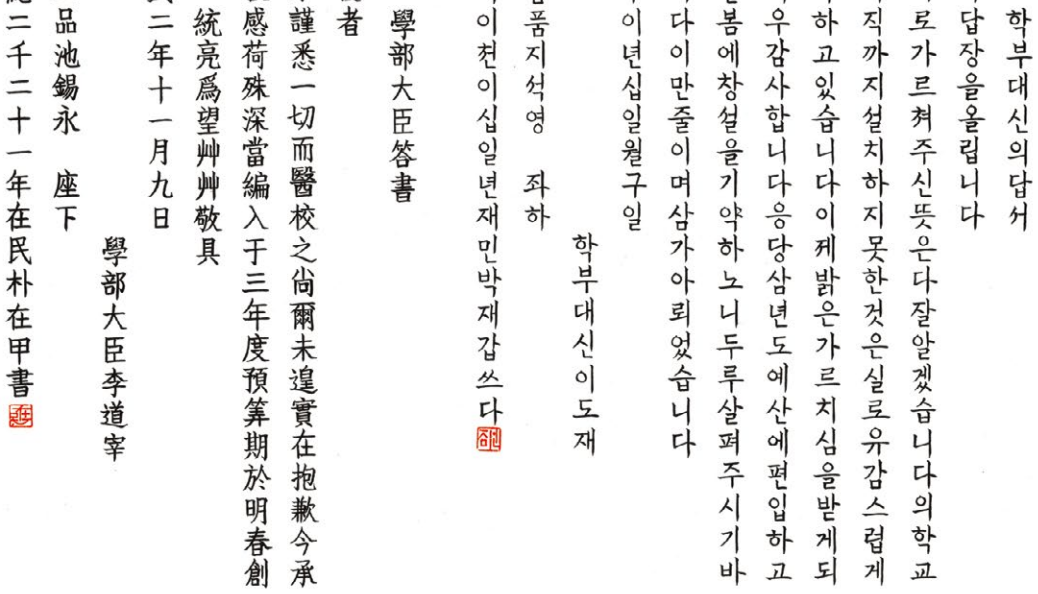
光武二年十一月七日

正三品池錫永

學部大臣李道宰閣下

西紀二千二十一年五月在民朴在甲書

10. 학부대신답서 學部大臣答書 Reply by Minister of Education



학부대신의답서
삼가답장을올립니다
편지로가르쳐주신뜻은다잘알겠습니다의학교
를아직까지설치하지못한것은실로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이제밝은가르치심을받게되
니매우감사합니다응당삼년도예산에편입하고
내년봄에창설을기약하노니두루살펴주시기바
랍니다이만줄이며삼가아뢰었습니다
광무이년십일월구일
학부대신이도재
정삼품지석영 좌하
서기이천이십일년재민박재갑쓰다

學部大臣答書
敬覆者
函示謹悉一切而醫校之尙爾未遑實在抱歉今承
明敎感荷殊深當編入于三年度預筭期於明春創
設 統亮爲望艸艸敬具
光武二年十一月九日
學部大臣李道宰
正三品池錫永 座下
西紀二千二十一年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2.5x58.5cm
자료 출처 : 池錫永(朝鮮)著, 『學部大臣答書』, 『池錫永上疏』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학부대신의답서**

삼가답장을올립니다편지로가르쳐주신뜻은다잘알겠습니다
의학교를아직까지설치하지못한것은실로유감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제밝은가르치심을받게되니매우감사합니다응당삼년도예산에편입
하고 내년봄에창설을기약하노니두루살펴주시기바랍니다이만줄이며
삼가아뢰었습니다
광무이년십일월구일학부대신이도재정삼품지석영좌하
서기이천이십일년재민박재갑쓰다

**** 학부대신의 답서 :** 김채식 박갑수 옮김

學部大臣答書 *

敬覆者 函示謹悉一切 而醫校之尙爾未遑 實
在抱歉 今承明教 感荷殊深 當編入于三年度
預筭 期於明春創設 統亮爲望 艸艸敬具
光武二年十一月九日 學部大臣李道宰
正三品池錫永 座下
西紀二千二十一年在民朴在甲書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第一條　醫學校는國民에게內外各種醫術을專門으로敎授ᄒᆞ는處로定ᄒᆞᆷ이라

第二條　醫學校에修業年限은三箇年으로定ᄒᆞᆷ이라

第三條　醫學校는學部의直轄이니經費는國庫로서支辦ᄒᆞᆷ이라

第四條　醫學校에學科及程度와其他規則은學部大臣이定ᄒᆞᆷ이라

第五條　醫學校에左開ᄒᆞ는職員을置ᄒᆞᆷ이라

學校長　一人　奏任

敎官　三人以下　奏任或判任

書記　一人　判任

第六條　學校長은醫學에熟鍊ᄒᆞ는人으로任命ᄒᆞ야一切校務를掌理ᄒᆞ며所屬職員과學徒를監督ᄒᆞᆷ이라

第七條　敎官은學徒의敎授를掌ᄒᆞ며또學徒를監督ᄒᆞᆷ이라

第八條　書記는上官의命을承ᄒᆞ야庶務會計에從事ᄒᆞᆷ이라

第九條　時宜를因ᄒᆞ야學校長을學部奏任官이兼任ᄒᆞ고ᄒᆞ며敎官을學校長이兼任ᄒᆞᆷ도得ᄒᆞᆷ이라

第十條　敎官은或外國人을雇用ᄒᆞ야充ᄒᆞᆷ도得ᄒᆞ나其員數는學部大臣이必要ᄒᆞ는데應ᄒᆞ야從宜妥定ᄒᆞᆷ이라

第十一條　敎官을外國人으로以ᄒᆞ야充ᄒᆞᆯ時에는敎授만掌ᄒᆞᆷ이라

第十二條　地方情況에依ᄒᆞ야醫學校를地方에도置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本令은須布日로붓터施行ᄒᆞᆷ이라

光武二年二月二十四日奉

勅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學部大臣申箕善

西紀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第一條 醫學校는國民에게內外各種醫術을專門으로敎授하는處로定함이라

第二條 醫學校에修業年限은三箇年으로定함이라

第三條 醫學校는學部의直轄이니經費는國庫로서支辦함이라

第四條 醫學校에學科及程度와其他規則은學部大臣이定함이라

第五條 醫學校에左開한職員을置함이라

學校長 一人 奏任

敎官 三人以下 奏任或判任

書記 一人 判任

第六條 學校長은醫學에熟鍊한人으로任命하야一切校務를掌理하며所屬職員과學徒를監督함이라

第七條 敎官은學徒의敎授를掌하며또學徒를監督함이라

第八條 書記는上官의命을承하야庶務會計에從事함이라

第九條 時宜를因하야學校長을學部奏任官이兼任도하며敎官을學校長이兼任함도得함이라

第十條 敎官은或外國人을雇用하야充함도得하나其員數난學部大臣이必要한데應하야從宜妥定함이라

第十一條 敎官을外國人으로以하야充할時에는敎授만掌함이라

第十二條 地方情況에依하야醫學校를地方에도置함을得함이라

第十三條 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함이라

光武三年三月二十四日奉

勅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學部大臣申箕善

西紀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출처 : 議政府(朝鮮) 編,『勅令, 奎17706-7冊』, 筆寫本, 19世紀 末-20世紀 初(高宗 31年, 隆熙 4年, 1894~1910)
전시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12. 칙령제9호 勅令第九號 Imperial Edict No.9

勅令第九號

大韓醫院官制

第一條 大韓醫院은議政府에直隷ᄒᆞ야此를漢城에設置ᄒᆞ고衛生醫育治病의事를掌케ᄒᆞᆷ이라

第二條 大韓醫院에左開職員을置ᄒᆞᆷ이라

院長 一人
顧問 一人
醫員 十七人
教官 七人
藥劑師 九人
通譯官 三人
通譯官補 十人
事務員 十人
技師 三人

但事宜를隨ᄒᆞ야醫員以下職員은增減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三條 院長은內部大臣이兼ᄒᆞᆷ이라

第四條 院長은顧問과協議ᄒᆞᆫ後에院務를整理ᄒᆞᆷ이라

第五條 院長官房에서ᄂᆞᆫ重要ᄒᆞᆫ文書를處辨ᄒᆞ고全院의庶務及會計를總括ᄒᆞᆷ이라

第六條 大韓醫院을左開三部로分ᄒᆞᆷ이라

一 治療部
二 教育部
三 衛生部

第七條 治療部ᄂᆞᆫ左開事를掌ᄒᆞᆷ이라

一 疾病救療
二 貧民施療

第八條 教育部ᄂᆞᆫ左開事를掌ᄒᆞᆷ이라

一 醫師養成
二 藥劑師養成
三 産婆及看護婦養成
四 教科書編纂

第九條 衛生部ᄂᆞᆫ左開事를掌ᄒᆞᆷ이라

一 醫師藥劑師及産婆의業務並藥品取締에關ᄒᆞᆫ調査
二 傳染病及地方病의豫防種痘其他總히公衆衛生에關ᄒᆞᆫ調査
三 檢徵檢疫及停船에關ᄒᆞᆫ調査
四 衛生會及地方病院에關ᄒᆞᆫ調査

第十條 各部員은相互로兼務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一條 地方情況에依ᄒᆞ야大韓醫院支司를置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二條 現今開은本院職員中外國人을招聘ᄒᆞ야其事務를代辨케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三條 大韓醫院은大韓國赤十字社의囑託을受ᄒᆞ야該病院에屬ᄒᆞᄂᆞᆫ一切業務를掌ᄒᆞᆷ이라

第十四條 各部의細則은別로히議政府令으로此를定ᄒᆞᆷ이라

附則

第十五條 本令은光武十一年三月十五日로붓터施行ᄒᆞᆷ이라

第十六條 本令施行日로붓터光武九年勅令第十八號廣濟院官制及光武三年勅令第七號醫學校官制를並廢止ᄒᆞᆷ이라

光武十一年三月十日奉

勅

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 朴齊純
內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李址鎔
度支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閔泳綺
學部大臣勳二等 李完用

西紀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勅令第九號 大韓醫院官制

第1條 大韓醫院은議政府에直隷하야此를漢城에設置하고衛生醫育治病의事를掌케함이라

第2條 大韓醫院에左開職員을置함이라

院長 一人
顧問 一人
醫員 十七人
教官 七人
藥劑師 九人
通譯官 三人
通譯官補 十人
事務員 十人
技師 三人

但事宜를隨하야醫員以下職員은增減함을得함이라

第3條 院長은內部大臣이兼함이라

第4條 院長은顧問과協議한後에院務를整理함이라

第5條 院長官房에서는重要한文書를處辨하고全院의庶務及會計를總括함이라

第6條 大韓醫院을左開三部로分함이라

一 治療部
二 教育部
三 衛生部

第7條 治療部는左開事를掌함이라

一 疾病救療
二 貧民施療

第8條 教育部는左開事를掌함이라

一 醫師養成
二 藥劑師養成
三 産婆及看護婦養成
四 教科書編纂

第9條 衛生部는左開事를掌함이라

一 醫師藥劑師及産婆의業務並藥品取締에關한調査
二 傳染病及地方病의豫防種痘其他総히公衆衛生에關한調査
三 檢黴檢疫及停船에關한調査
四 衛生會及地方病院에關한調査

第10條 各部員은相互로兼務함을得함이라

第11條 地方情況에依하야大韓醫院支司를寘함을得함이라

第12條 現今間은本院職員中外國人을招聘하야其事務를代辨케함을得함이라

第13條 大韓醫院은大韓國赤十字社의囑託을受하야該病院에屬하는一切業務를掌함이라

第14條 各部의細則은別로히議政府令으로此를定함이라

附則

第15條 本令은光武十一年三月十五日로붓터施行함이라

第16條 本令施行日로붓터光武九年勅令第十八號廣濟院官制及光武三年勅令第七號醫學校官制를 並廢止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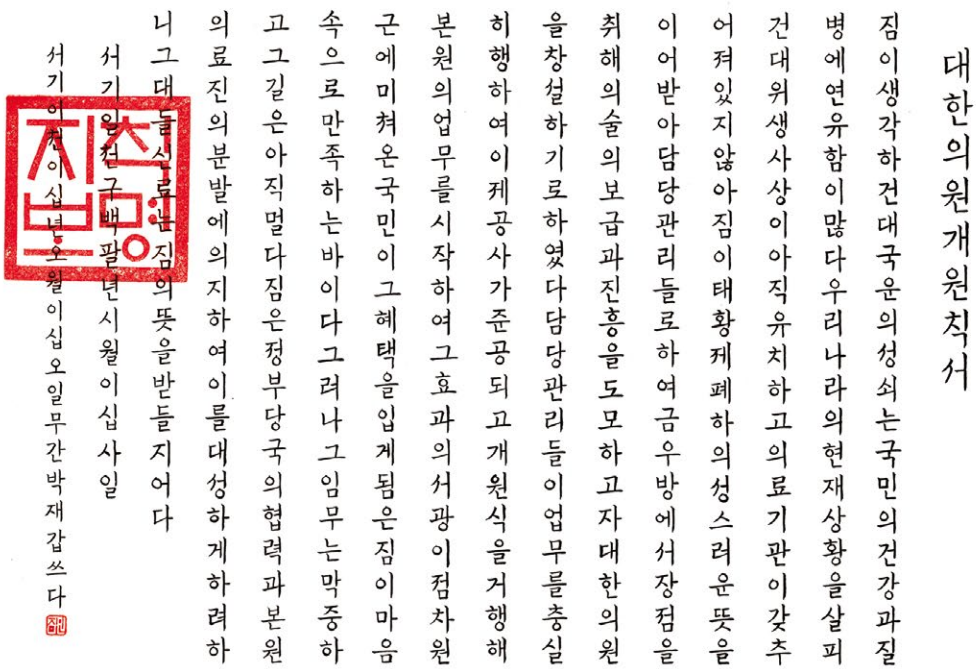
光武十一年三月十日

勅 議政府叅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 朴齊純
內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李址鎔
度支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閔泳綺
學部大臣勳二等 李完用

西紀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출처 : 議政府(朝鮮) 編,『勅令, 奎17706-19冊』, 筆寫本, 19世紀 末-20世紀 初(高宗31年, 隆熙4年, 1894~1910)
전시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13.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작품 크기 : 43.0x59.0cm
자료 제공 : 김상태, 허성도, 박갑수 국역
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대한의원개원칙서

짐이생각하건대국운의성쇠는국민의건강과질병에연유함이많다우리나라의현재상황을살피건대위생사상이아직유치하고의료기관이갖추어져있지않아짐이태황제폐하의성스러운뜻을이어받아 담당관리들로하여금우방에서장점을취해의술의보급과진흥을도모하고자대한의원을창설하기로하였다담당관리들이업무를충실히행하여이제공사가준공되고개원식을거행해본원의업무를시작하여그효과의서광이점차원근에미쳐온국민이그혜택을입게됨은짐이마음속으로만족하는바이다그러나그임무는막중하고그길은아직멀다짐은정부당국의협력과본원의료진의분발에의지하여이를대성하게하려하니그대들신료는짐의뜻을받들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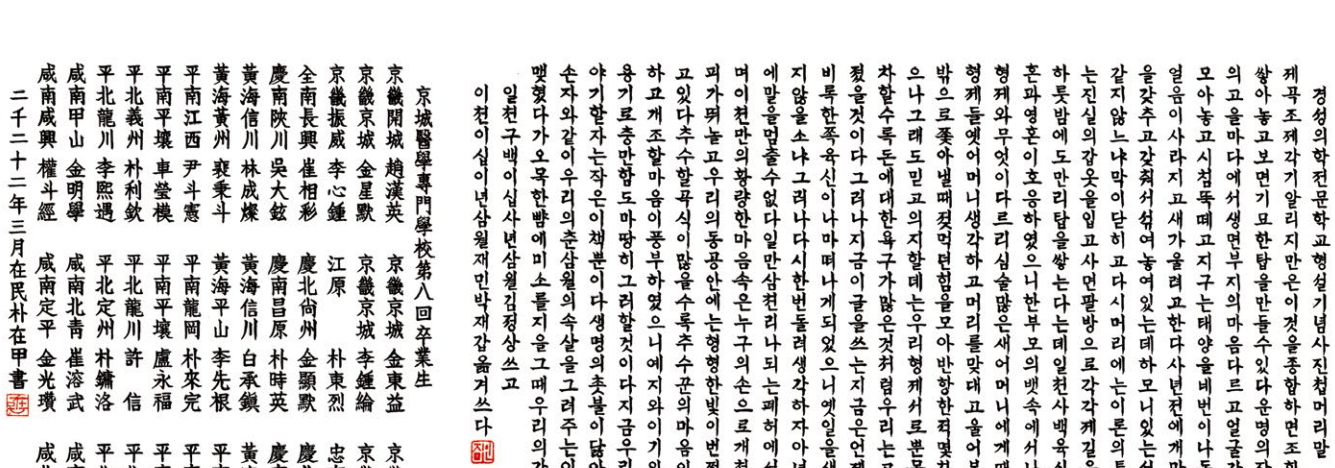
서기일천구백팔년시월이십사일

서기이천이십년오월무간박재갑쓰다

작품은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건물 로비에 전시중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 京城醫學專門學校 螢雪記念 寫眞帖 序文

Preface to the Gyeongseong Medical School Yearbook



경성의학전문학교형설기념사진첩머리말

제곡조제각기알리지만은이것을종합하면조화된선율을이루고한개한개의돌이건만
쌓아놓고보면기묘한탑을만들수있다운명의장난인지전세의인연인지모르나십삽도
의고을마다에서생면부지의마음다르고얼굴같지않은오십여명의배우들을한무대에
모아놓고시첨뚝떼고지구는태양을네번이나돌았다또다시네번째눈이녹고꽃이피고
얼음이사라지고새가울려고한다사년전에개막되었던모의극은슬픈장면우스운구절
을갖추고갖춰서섞여놓여있는데하모니있는선율의울림같고기교있게쌓아놓은탑과
같지않느냐막이닫히고다시머리에는이론의투구를쓰고손에는실제칼을잡고가슴에
는진실의갑옷을입고사면팔방으로각각제길을걸으려할때우리는슬퍼할까기뻐할까
하룻밤에도만리탑을쌓는다는데일천사백육십일을나날이살과살이서로부딪치고영
혼과영혼이호응하였으니한부모의뱃속에서나오지는않았을망정그사이에연결됨이
형제와무엇이다르리심술많은새어머니에게때때로죄없이구박을받은불쌍한외로운
형제들엣어머니생각하고머리를맞대고울어본적이몇번이며새어머니가등을때려서
밖으로쫓아낼때젖먹던힘을모아반항한적몇차례냐각자다외롭고그전제가또외로웠
으나그래도믿고의지할데는우리형제서로뿐목이마를수록물에대한갈망이더깊고구
차할수록돈에대한욕구가많은것처럼우리는교독할수록더욱우리끼리의애정이깊어
졌을것이다그러나지금이글을쓰는지금은언제나서로원만하게만날지기약치못하고
비록한쪽육신이나마떠나게되었으니엣일을생각하든지뒷일을바라보든지어찌슬프
지않을소냐그러나다시한번돌려생각하자아녀자가아닌우리는감상적인비애와향락
에말을멈출수없다일만삼천리나되는폐허에서누구의입김으로새문화가일어날터이
며이천만의황량한마음속은누구의손으로개척될터이냐우리의동맥속에는선홍색의
피가뛰놀고우리의동공안에는형형한빛이번쩍이고우리의폐에는씩씩한기류가흐르
고있다추수할곡식이많을수록추수꾼의마음이더기쁜것같이우리에게건설하고개척
하고개조할마음이풍부하였으니예지와이기와양심을가진우리의가슴은자못희열과
용기로충만함도마땅히그러할것이다지금우리가맛보는기쁨과슬픔을죽는날까지이
야기할자는작은이책뿐이다생명의촛불이닳아갈때수염을휘날리고턱밑에앉은어린
손자와같이우리의춘삼월의속살을그려주는이책을들고시울진눈고리에맑은이슬이
맺혔다가오목한뺨에미소를지을그때우리의감개가어떠할소냐

일천구백이십사년삼월김정상쓰고

이천이십이년삼월재민박재갑옮겨쓰다

京城醫學專門學校第八回卒業生

京畿開城 趙漢英　京畿京城 金東益　京畿京城 李鍾九　京畿京城 崔六洲甲
京畿京城 金星歌　京畿京城 李鍾綸　京畿龍仁 尹致魯　京畿利川 崔昌善
京畿振威 李心鍾　江原 朴東烈　忠南天安 洪承漢　忠南論山 朴秉來
全南長興 崔相彩　慶北尙州 金顯歌　慶北尙州 朴元涉　慶北大邱 朴弼赫
慶南陜川 吳大鉉　慶南昌原 朴時英　慶南馬山 河祐鏞　黃海松禾 甘濟龍
黃海信川 林成燦　黃海信川 白承鎭　黃海鳳山 李喜在　黃海遂安 金永七
黃海黃州 裵秉斗　黃海平山 李先根　平南寧遠 姜翊駿　平南 吳尙根
平南江西 尹斗憲　平南龍岡 朴來完　平南 朴璣秉　平南鎭南浦 吳東
平南平壤 車瑩模　平南平壤 盧永福　平南大同 金鼎相　平南平壤 奇能權
平北義州 朴利欽　平北龍川 許 信　平北龍川 金尙厖　平北龍川 張丙燁
平北龍川 李熙遇　平北定州 朴鏞洛　平北寧邊 明桂植　平北龍川 林在苑
咸南甲山 金明學　咸南北靑 崔溶武　咸南北靑 李亨垣　咸南長津 林在苑
咸南咸興 權斗經　咸南定平 金光瓚　咸北吉州 許丁歌　咸南咸興 金鍾夏

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3.0x69.0cm

자료 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의학사연구실 김상태 제공, 박갑수 국역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

제 곡조 제각기 알리지만은 이것을 종합하면 조화된 선율을 이루고, 한 개 한 개의 돌이건만 쌓아놓고 보면 기묘한 탑을 만들 수 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전세의 인연인지 모르나 십 삼도의 고을마다에서 생면부지의 마음 다르고 얼굴 같지 않은 오십여 명의 배우들을 한 무대에 모아 놓고, 시침 뚝 떼고 지구는 태양을 네 번이나 돌았다. 또다시 네 번째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얼음이 사라지고 새가 울려고 한다.

사년 전에 개막되었던 모의극은 슬픈 장면 우스운 구절을 갖추고 갖춰서 섞여 놓여 있는데 하모니 있는 선율의 울림 같고, 기교 있게 쌓아 놓은 탑과 같지 않느냐. 막이 닫히고 다시 머리에는 이론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실제 칼을 잡고 가슴에는 진실의 갑옷을 입고 사면 팔방으로 각각 제 길을 걸으려 할 때 우리는

슬퍼할까!

기뻐할까!

하룻밤에도 만리탑을 쌓는다는데 일천 사백 육십 일을 나날이 살과 살이 서로 부딪치고 영혼과 영혼이 호응하였으니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을망정 그 사이에 연결됨이 형제와 무엇이 다르리! 심술 많은 서모(새어머니)에게 때때로 죄 없이 구박을 받은 불쌍한 외로운 형제들, 옛 어머니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울어본 적이 몇 번이며, (서모가) 등을 때려서 밖으로 쫓아낼 때 젖 먹던 힘을 모아 반항한 적 몇 차례냐!!

각자 다 외롭고 그 전체가 또 외로웠으나 그래도 믿고 의지할데는 우리 형제 서로뿐, 목이 마를수록 물에 대한 갈망이 더 깊고 구차할수록 돈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고독할수록 더욱 우리끼리의 애정이 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언제나 서로 원만하게 만날지 기약치 못하고 비록 한쪽 육신이나마 떠나게 되었으니, 옛일을 생각하든지 뒷일을 바라보든지 어찌 슬프지 않을 소냐. 그러나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하자. 아녀자가 아닌 우리는 감상적인 비애와 향락에 말을 멈출 수 없다. 일만 삼천 리나 되는 폐허에서 누구의 입김으로 새 문화가 일어날 터이며, 이천만의 황량한 마음속은 누구의 손으로 개척될 터이냐. 우리의 동맥 속에는 선홍색의 피가 뛰놀고, 우리의 동공 안에는 형형한 빛이 번쩍이고, 우리의 폐에는 씩씩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을수록 추수꾼의 마음이 더 기쁜 것 같이 우리에게 건설하고 개척하고 개조할 마음이 풍부하였으니 예지와 이기와 양심을 가진 우리의 가슴은 자못 희열과 용기로 충만함도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맛보는 기쁨과 슬픔을 죽는 날까지 이야기할 자는 작은 이 책뿐이다. 생명의 촛불이 닳아갈 때 수염을 휘날리고 턱 밑에 앉은 어린 손자와 같이 우리의 춘삼월의 속살을 그려주는 이 책을 들고 시울진 눈 고리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가 오목한 뺨에 미소를 지을 그때 우리의 감개가 어떠할 소냐!!

일천구백이십사년 삼월 김정상 쓰고

이천이십이년 삼월 재민 박재갑 옮겨 쓰다

京城醫學專門學校 第 八回 卒業生

京畿 開城 趙漢英　京畿 京城 金東益
京畿 京城 李錞九　京畿 京城 崔六洲甲
京畿 京城 金星默　京畿 京城 李鍾綸
京畿 龍仁 尹致魯　京畿 利川 崔昌善
京畿 振威 李心鍾　江原　　朴東烈
忠南 天安 洪承漢　忠南 論山 朴秉來
全南 長興 崔相彩　慶北 尙州 金顯默
慶北 尙州 朴元涉　慶北 大邱 朴弼赫
慶南 陜川 吳大鉉　慶南 昌原 朴時英
慶南 馬山 河祐鏞　黃海 松禾 甘濟龍
黃海 信川 林成燦　黃海 信川 白承鎭
黃海 鳳山 李喜在　黃海 遂安 金永七
黃海 黃州 裵秉斗　黃海 平山 李先根
平南 寧遠 姜翊駿　平南　　吳尙根
平南 江西 尹斗憲　平南 龍岡 朴來完
平南　　朴璣秉　平南 鎭南浦 吳東一
平南 平壤 車瑩模　平南 平壤 盧永福
平南 大同 金鼎相　平南 平壤 奇能權
平北 義州 朴利欽　平北 龍川 許　信
平北 龍川 金尙垕　平北 龍川 張丙燁
平北 龍川 李熙遇　平北 定州 朴鏞洛
平北 寧邊 明桂植　咸南 長津 林在苑
咸南 甲山 金明學　咸南 北靑 崔溶武
咸南 北靑 李亨垣　咸南 咸興 金鍾夏
咸南 咸興 權斗經　咸南 定平 金光瓚
咸北 吉州 許丁默

二千二十二年三月在民朴在甲書

15. 역질 관련 영조 윤음 英祖 癘疫 綸音 King Yeongjo's Word on Contagious Diseases

역질과관련하여각도의방물과물선의
진상을중지할것을하교하다

하교하기를금년의역질은병란보다도더심하다
만일이대로그치지않는다면백성이다죽어버리
겠다두번이나제사를지냈는데일을받든사람이
어찌정성을다하지않았을까마는나의비덕과성
의가얇아아득히감응하는조짐이없는것이다아
거꺽자들의죽음이줄을이어도그임금된자가구
해내지못하니어찌한갓우리꺽자들을거버렸다
하지않으랴이는창창한하늘과오르내리는영령
을거버림이다일을맡은신하들은임금의부덕이
라고만말하지말고구원하고진휼하여특별히마
음을더기울이고경외를막론하고받을것은가을
의추수때까지미루어라모든공헌은백성의고혈
이다예기에이르기를대찰의해에는임금도먹을
것을들지않는다고하였다금년의탄일에는각도
의방물과물선의진상을동조이외는모두중지하
라하였다

영조실록칠십일권
영조이십육년서기일천칠백오십년오월십일
서기이천이십년여름무간박재갑쓰다

역질과관련하여하교하다
금년의 역질은 병란보다도 더 심하다 만일 이대로 그치지 않는다면 백성이 다 죽어버리겠다 두 번이나 제사를 지냈는데 일을 받든사람이 어찌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까마는 나의 덕과 정성이 얇아 아득히 감응하는 조짐이 없는 것이다 아 저 백성들의 죽음이 줄을 이어도 그 임금된 자가 구해내지 못하니 어찌 한갓 우리 백성들을 저버렸다 하지 않으랴 이는 창창한 하늘과 오르내리는 영령을 저버림이다 일을 맡은 신하들은 임금의 부덕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구원하고 진휼하는데 특별히 마음을 더 기울이고 경외를 막론하고 거두는 것을 가을 추수때까지 미루어라 모든 공물은 백성의 고혈이다 예기에 이르기를 큰 전염병이 든 해에는 임금도 먹을것을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금년의 탄일에는 각도의 방물과 물선의 진상을 대비전 이외는 모두 중지하라
영조이십육년오월십일

역질과관련하여각도의방물과물선의진상을
중지할것을하교하다
하교하기를금년의역질은병란보다도더심하다만일이대로그치지않는다면백성이다죽어버리겠다두번이나제사를지냈는데일을받든사람이어찌정성을다하지않았을까마는나의비덕과성의가얇아아득히감응하는조짐이없는것이다아저적자들의죽음이줄을이어도그임금된자가구해내지못하니어찌한갓우리적자들을저버렸다하지않으랴이는창창한하늘과오르내리는영령을저버림이다일을맡은신하들은임금의부덕이라고만말하지말고구원하고진휼하여특별히마음을더기울이고경외를막론하고받을것은가을의추수때까지미루어라모든공헌은백성의고혈이다예기에이르기를대찰의해에는임금도먹을것을들지않는다고하였다금년의탄일에는각도의방물과물선의진상을동조이외는모두중지하라하였다
영조실록칠십일권
영조이십육년서기일천칠백오십년오월십일
서기이천이십년여름무간박재갑쓰다

작품 크기 : 42.5x58.5cm
자료 출처 : 「영조 26년 5월 10일 신해 4번째 기사」, 『영조실록 71권』, 서기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김채식의 도움으로 문장을 일부 수정
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작품은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 전시 중

16. 무오년 독감 戊午年毒感 Muonyeon Flu (in 1798)

무오년독감

음양이온통어질러지면혹사특한기운이병이되어생민을해치니각종
사례가한둘이아닐세조짐이재앙으로나타나돌림병되어유행하네옛
날에도그랬다지만올해처럼심한해는없었네염병도아니요마마도아
닌것이온세상끝까지덮쳤어라돌림감기라억지로이름을붙였지만한
마디말로표현하기어렵네열흘만에쳔하에퍼져풍우같은기세로몰아
쳤네고관과백성들날마다죽어갔네원근에서유사에게보고하는데번
번이천백단위헤아리네시장에는삼베가동났고장례에는널이부족하
구나전쟁보다참혹하고역병보다흉악하다완연히호겁을겪은듯상전
벽해의세월지난듯듣자니중국에서시작하여처음엔더욱많이죽었다
지여파가조선에미쳐곳곳마다맹위를떨쳤네물어보자누가주장하여
기의운행어그러뜨렸나삼개월만에조금수그러드니이치를아득히알
수없네백성들은환난만나은혜로운하늘을우러러따사로운햇살이요
기를소멸시키고때맞은단비가농사를도와주어보리도벼도풍년들어
더이상피폐함이없기를바라네섭리하는분께말씀드리노니힘을다해
보우해주소서

정조이십삼년봄무명자윤기지음

서기이천이십일년봄재민박재갑쓰다

戊午年毒感

二儀滃轇轕 氣或有邪沴 發為生民害 種種非一例 兆眹見災眚
浸淫祟疫癘 縱云誰昔然 未有如今歲 非瘟亦非疹 彌天網無際
强名曰輪感 難以一言蔽 旬月遍天下 驟如風雨勢 公卿及黎庶
死亡日相繼 遠近報有司 動以千百計 布麻絶市廛 棺椁窘葬瘞
酷慘甚兵革 凶險過鬼厲 宛經一浩劫 滄桑閱此世 傳聞自大國
始初尤多殪 餘波及左海 所向厥鋒鋭 借問孰主張 而使運氣盭
三朔乃稍息 理數杳難諦 百姓遭瘡痍 瞻仰仁天惠 瑞日消氛祲
時雨好樹蓺 麥熟又禾登 庶更無困弊 寄語燮理地 殫竭胥翼勵

正祖二十三年春無名子尹愔著

西紀二千二十一年春在民朴在甲書

작품 크기 : 42.5x58.5cm
자료 출처 : 윤기 지음, 이규필 옮김, 「무오년 독감」, 『무명자집 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2014, 79~81쪽
전시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작품은 질병관리청에 전시 중

무오년 독감

무오년(1798) 겨울 끝자락부터 기미년(1799) 봄에 이르도록 독감이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독감이 일어났는데, 죽은 이가 몹시 많고, 청나라 건륭 황제까지도 독감으로 붕어하였다. 드디어 우리나라로 건너와, 열흘 만에 곧장 서울까지 번져,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공경 이하로 죽은 이가 열에 두셋이나 된다." 하였다. 이는 진기요 겁운이니 시를 지어 기록한다.

무오년독감

음양이 온통 어질러지면
혹사 특한 기운이 병이 되어 생민을 해치니
각종 사례가 한둘이 아닐세
조짐이 재앙으로 나타나
돌림병되어 유행하네
옛날에도 그랬다지만 올해처럼 심한 해는 없었네
염병도 아니요 마마도 아닌 것이
온 세상 끝까지 덮쳤어라
돌림감기라 억지로 이름을 붙였지만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열흘만에 천하에 퍼져
풍우 같은 기세로 몰아쳤네
고관과 백성들 날마다 죽어갔네
원근에서 유사에게 보고하는데
번번이 천백단위 헤아리네
시장에는 삼베가 동났고
장례에는 널이 부족하구나
전쟁보다 참혹하고 역병보다 흉악하다
완연히 호겁을 겪은 듯
상전벽해의 세월 지난듯
듣자니 중국에서 시작하여
처음엔 더욱 많이 죽었다지 여파가
조선에 미쳐 곳곳마다 맹위를 떨쳤네
물어보자 누[1]가 주장하여
기의 운행 어그러뜨렸나
삼개월만에 조금 수그러드니
이치를 아득히 알수없네
백성들은 환난 만나
은혜로운 하늘을 우러러
따사로운 햇살이 요기를 소멸시키고
때맞은 단비가 농사를 도와주어
보리도 벼도 풍년들어
더 이상 피폐함이 없기를 바라네
섭리하는 분께 말씀드리노니
힘을 다해 보우해주소서
정조 이십삼년 봄 무명자 윤기 지음
서기 이천이십일년 봄 재민 박재갑 쓰다

戊午年毒感

二儀澁轇轕　氣或有邪沴　發為生民害　種種非一例
兆眹見災眚　浸淫祟疫癘　縱云誰昔然　未有如今歲
非瘟亦非疹　彌天網無際　强名曰輪感　難以一言蔽
旬月遍天下　驟如風雨勢　公卿及黎庶　死亡日相繼
遠近報有司　動以千百計　布麻絶市廛　棺椁窘葬瘞
酷慘甚兵革　凶險過鬼厲　宛經一浩劫　滄桑閱此世
傳聞自大國　始初尤多殪　餘波及左海　所向厥鋒銳
借問孰主張　而使運氣盭　三朔乃稍息　理數杳難諦
百姓遭瘡痍　瞻仰仁天惠　瑞日消氛祲時雨好樹蓺
麥熟又禾登　庶更無困弊　寄語燮理地　殫竭胥翼勵
正祖二十三年春無名子尹愴著
西紀二千二十一年春在民朴在甲書

윤기 지음, 이규필 옮김, 「무오년 독감」, 『무명자집 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2014, 79~81쪽

---

1. 누 : 무명자집에는 '주'로 되어있으나 누구(孰)의 오타로 확인됨.

天和

이십칠년

쥔비멎고구름

이걷혀가며파란하

늘이보였다덥지도춥지

도않은쾌적한날이었다지금

의서울대암연구소출입구자리를

거켜언덕을올라서쪽끝찡자가있는위

치에서서창경궁북쪽하늘을바라보고있었

다나무가많지도않고크지도않아창경궁과그념

어하늘이훤히보였다그때갑자기바람도아닌형용할

수없는커다란보이지않는기운이창경궁북쪽하늘로부터

내가슴속으로막불어들어와가슴이고무풍선같이늘어나터질

것같은기분을느꼈다마치가슴속에흡입기같은기계가있어그하늘

의기운을빨아들이는것같은느낌을짧지도길지도않은동안경험하였다

그전에한번도겪어보지못하였고그누구한테들어본적도없으며전혀바랐던

적도없었던일이었다명당터에오면이런경험을하게되는것인가이곳이서울대암

연구소삼성암연구동터로좋겠다는생각을하면서가슴속에그벅찬느낌을묻어두었다

이천이십이년봄無間박재갑짓고쓰다

天和

이십칠 년 전 비 멎고 구름이 걷혀가며 파란 하늘이 보였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쾌적한 날이었다.
지금의 서울대 암연구소 출입구 자리를 거쳐 언덕을 올라 서쪽 끝 정자가 있는 위치에 서서 창경궁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가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 창경궁과 그 넘어 하늘이 훤히 보였다. 그때 갑자기 바람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보이지 않는 기운이 창경궁 북쪽 하늘로부터 내 가슴속으로 막 불어 들어와 가슴이 고무풍선같이 늘어나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마치 가슴속에 흡입기 같은 기계가 있어 그 하늘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짧지도 길지도 않은 동안 경험하였다.
그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였고 그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으며 전혀 바랐던 적도 없었던 일이었다. 명당 터에 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곳이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터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속에 그 벅찬 느낌을 묻어 두었다.
이천 이십 이년 봄 無間 박재갑 짓고 쓰다

천화天和라는 말은 다양한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도가道家 사상가인 장자莊子는 사람이 우주자연의 법칙인 도道에 부합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경지를 '천화'라는 말로 표현했다.『회남자淮南子』라는 고전에서는 초목과 금수 등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천지의 상서롭고 조화로운 기운을 '천화'라고 하였으며,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漢書 · 예악지禮樂志」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원천 또는 인간의 원기元氣라는 의미로 천화를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등과 같은 자료에서도 '천화'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는 주로 천지자연의 상서롭고 조화로운 기운을 뜻하거나, 더러는 임금님의 건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용례들을 종합해보면, '천화'는 우주자연의 상서롭고 좋은 기운과 그에 부합하는 인간의 원기가 만나는 순간에 느끼게 되는 천연의 조화로운 기운[和氣]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화산和山 한재훈韓在壎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7.

작품 크기 : 43.0x43.0cm
자료 : 박재갑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두 가지 유산』

박재갑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우리 국민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겼다. 첫째는 기업 유산이다. 이 회장은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사업 보국'과 '인재 제일'을 실천해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도 삼성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다. 둘째는 재산의 사회 환원이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점과 보물 46점 등 총 2만3000여점, 감정가 약 3조원에 이르는 미술품을 기증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쾌척했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유산 중 60%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전담 병원 건립과 연구에 7000억원, 소아암·희귀질환 등 어린이 환자 지원에 3000억원 등 총 1조원을 내놓는다.

이 회장은 생전에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의 치료를 위해 이미 거액을 기부했다. 필자가 1995년 3월 서울대 암연구소장으로 임명받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암연구소 시설이 열악해 건물 신축을 서울대 본부에 건의했더니 연구동 건립은 대부분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 대기업에 연구동 건립 지원 제안을 했는데 삼성그룹이 지원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1996년 3월 이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당시 이 회장은 배석한 비서실장에게 "왜 박재갑 소장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지 않고 깎았느냐"고 질책해 깜짝 놀랐다. 당시 지원 금액은 300억원이었다. 지금 추산하면 아마도 3000억원쯤 될 것이다. 오찬이 끝날 무렵 이 회장이 한 말에 다시 놀랐다.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삼성이 먼저 알고 해드렸어야 했는데 요청이 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연구소 기공식은 1997년 11월 17일 열렸다. 이 회장은 기공식에서 "암 연구는 어느 한 연구기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선진국 연구 결과에 무임승차해 의존할 수도 없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지원해 세운 삼성암연구동은 2000년 3월 지상 10층 규모로 완공됐다. 서울대 암연구소는 삼성암연구동 신축을 계기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연구동에 있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는 암 연구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세포주를 신속하게 분양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회장의 지원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 필자가 2000년 3월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에 임명된 후 국고 지원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지원을 받기 위한 공익재단인 『재단법인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을 설립하려니 기본 재산 5억원이 필요했다. 삼성그룹 비서실을 찾아가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이 회장은 폐암 치료를 위해 해외에 있을 때였는데도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생명 3억원과 이 회장의 사재 2억원을 더해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삼성생명은 이후 25억원의 출연금을 더 기부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전쟁보다 더 참혹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이는 적과 싸우는 국방을 전통적 국가 안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비전통적 국가 안보, 즉 건강안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기부 및 유산의 사회 환원은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을 놓았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 문화 유산과 세계적 미술품을 기부해 국민이 이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 이 회장의 공헌이 문화재 기부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시론·기고 www.chosun.com

박재갑,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두 가지 유산』, 조선일보, 2021. 8. 17.

18. 천물무간 天物無間 Nature in One

새김 2

天物無間

하늘과 물질이 애초에 사이가 없이 하나다

壬寅, 無間

전각 Seal Engraving, 12.0x12.0cm

자료 : 박재갑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박재갑의 『천물무간天物無間』 개념에 대한 부연

동양에서 현실과 무관하게 실재하는 초월적 하늘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천지간에 생장하는 만물의 자연법칙과 일상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도덕 준칙에서 진면모가 드러나므로, 명사화된 하늘이 아닌 형용사화되고 술부화 된 하늘이어야 의미를 지닌다. 이에 선현들은 만물 가운데 지각과 본성을 온전히 갖춘 인간의 마음에서 하늘이 온전히 합일되어 『천인무간天人無間』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본성[性]이라는 매개를 통해 인간은 도덕 감정의 근거가 되는 형이상의 존재 하늘[天]과 합일될 수 있다. 마음[心]을 닦아 본심을 회복하면 내면의 도덕 근거인 본성의 실재를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본성을 부여한 형이상의 하늘의 의미까지 알 수 있다. 나아가 하늘은 개별 사물의 자연법칙을 통해 현현되고 있으므로, 도는 자연을 본받고, 천지자연의 큰 덕은 '生'이라 하였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늘의 모습대로 서로 살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

박재갑은 세포·분자·원자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연구한 자연과학도이자, 한국철학사상의 원형인 『무간無間』 사유에 대해 연구한 인문학도이다. 철학은 기존 개념에 처한 시대 상황의 의미를 첨가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개념 규정을 통해 소홀이 여겼거나 간과했던 문제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

박재갑은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조차도 상생을 본질로 한다고 단언한다.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조차 하늘의 신묘한 이치를 드러내어 상생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2017년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논문 『유학儒學의 천인관天人觀에 관關한 연구硏究』에서 하늘과 물질은 간극이 없다는 개념을 신조新造하여, 『천물무간天物無間』으로 천지의 본체를 규정하였다.

우천友千 고재석高在錫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6.

19.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 Coexistence & Cosmos

새김 3

天地人相生心

하늘, 땅, 인간은 서로 살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

壬寅, 無間

전각 Seal Engraving, 12.0x12.0cm

자료 : 박재갑

전시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필자는 『천인무간天人無間』에서 『천생무간天生無間』, 『천물무간天物無間』의 이치를 토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일체一體가 되어 서로 살리는 상생相生을 이루는 것이 자연(자연스런 본래 상태를 의미하는 본체이자 본질)이라고 본다.

서로 살림이 자연임을 의미하는 '상생'의 철학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박재갑, 『유학儒學의 천인관天人觀에 관關한 연구硏究』, 성균관대학교, 2017.

『서울대학교,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국민건강의 초석을 놓다』, VOM: Vision of Medicine,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Vol.34, 2022, 26~29쪽

제7장 인장印章 작품作品

정자체 임서 작품과 한글재민체 필사 작품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으로 『체천지보體天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대재건원大哉乾元』,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대한국새大韓國璽』, 『외무대신外務大臣』, 『외부대신外部大臣』, 『칙명지보勅命之寶』 7 작품을 돌에 모각模刻하였고 『칙명지보』를 한글로 돌에 새겼다.

인장印章은 보인寶印·관인官印·사인私印 등으로 나눈다. 보인寶印은 寶와 印을 말한다. 寶는 임금의 인장을, 印은 왕세자와 기타의 官印을 가리키며 이를 통칭하여 보인이라고 한다. 보인寶印에는 국새國璽와 어보御寶가 있다. 보인 가운데 국새國璽는 국왕의 인장으로 국가와 왕권을 상징하였다. 국새는 국명을 새긴 朝鮮國璽、大韓國璽와 직명을 새긴 朝鮮國王之寶、皇帝御璽 등의 실무에 사용한 실용인이 있고, 어보는 존호尊號·휘호徽號·시호諡號를 새기어 종묘에 보관하던 의례적으로 왕의 가례나 보위에 오를 때 공식행사에 사용하던 보인이 있다. 관인官印은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등의 중앙관과 지방관의 인장을 망라한 관리의 인장이다. 사인私印은 개인이 사용한 도서인과 낙관인이 주종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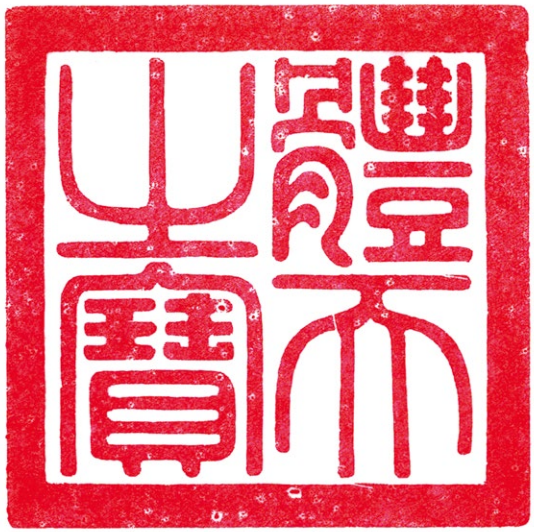
임금의 인장은 삼국과 고려까지는 국새國璽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는 옥새玉璽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왕과 왕후, 왕세자의 인장을 함께 보인이라고 한다. 임금의 새璽 외에는 대부분 몸에 차게 되어 있다. 관인은 중앙관에서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인장을 지참하였으며, 인꼭지에 구멍을 뚫어 인끈을 꿰어 허리에 찼다. 관인이란 집정에 쓰이던 인장으로 모두 정해진 인장 제도와 계급·신분·지위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인장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신표였기 때문에 규격이나 재질·용도·신분에 따라 인문印文과 인끈의 색깔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인장의 이명異名으로 인印·장章·신信·도서圖書·도장圖章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서압署押·화압花押·함啣,銜·착명着名·착압着押·수결手決·수례手例·수압手押·수장手掌·수촌手寸 등도 인장의 대용으로 사용한 신표信標들이다. 인장의 자체字體는 전서篆書가 주로 사용되어 전각篆刻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보인은 전서에서도 구첩전九疊篆이 주로 사용되었고, 관인은 무전繆篆이 많으며, 사인은 소전이나 무전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자체를 선호하였다. 사인의 종류에서도 낙관에 사용하는 낙관인, 전적典籍에 사용하는 도서인圖署印과 장서인藏書印 등이 있다.

『한국인장의 개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孫煥一, 「朝鮮時代의 寶印」,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編,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서울, 2004년, 163~192쪽

1.『체천지보體天之寶』, 1464년



12.0x12.0cm (모각 12.0x12.0x3.0cm, 박재갑)

조선 전기 어보가 찍힌 문서로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이 있다. 1464년(세조 10)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등이 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자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지은 글과, 이 소식을 듣고 세조世祖를 포함한 왕실에서 물품을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1458년(세조 4)에 제작한 세조의 『체천지보體天之寶』와 1457년(세조 3)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에게 올린 존호보 『자성왕비지보慈聖王妃之寶』, 1457년(세조 3) 예종睿宗을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만든 책봉인 왕세자인王世子印이 찍혀 있다. 이 가운데 현존하는 유물은 정희왕후의 어보뿐이다. 세조의 체천지보는 내치용 국새의 성격을 띤 인장으로 보이지만 제작 당시에 용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듯하다. 실제로 이 인장은 다른 문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세조 때에 제작한 특수한 내치용 국새의 사례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은 듯하다.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20~121쪽

체천지보는 세조 4년(1458)에 만든 어보御寶의 하나이나, 두루 쓰이지는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세조 4년 무인(1458) 2월 26일(을묘)자에 아래와 같은 관련 기사가 나온다.

새로 만든 『체천지보體天之寶』가 완성되니, 임금이 환관宦官 이존李存으로 하여금 보寶를 가지고 승정원에서 의논하게 하기를,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나, 쓸 곳을 알지 못하겠다."하니,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이 말하기를, "원컨대 옛 법을 널리 상고하소서."하였다.

「세조 4년 2월 26일 을묘 5번째 기사」, 『세조실록 11권』, 1458년

일반적인 분류대로라면 체천지보는 어보임에 틀림없다. 1457년이며 이미 『시명지보施命之寶』와 같은 어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체천지보를 찍고 세조가 직접 어압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세조 개인의 발원문이라는 문서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조의 시주는 행정적 체계를 따르는 공식 행위가 아니고 국왕이지만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호, 「조선시대 행정 문서의 어보御寶, 관인官印, 서명署名」, 김연수,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2009년, 150쪽

체천體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永樂帝 태종太宗 주체朱棣(1360~1424)의 존시尊諡는 '체천홍도고명광운성무신공순인지효문황제體天弘道高明廣運聖武神功純仁至孝文皇帝'이고 묘호廟號는 '태종太宗'으로, 존시에 '체천體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중국 당나라 때 저명한 문인文人이며, 국자사문박사國子四門博士를 역임한 황도黃滔가 쓴 『성시왕자지도여룡수부省試王者之道如龍首賦에 "하늘을 본받아 제도를 세운다體天而立制" 라는 표현이 나온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속에는 "체천진도體天盡道" 즉, "하늘을 본받아 도를 극진히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조선왕조실록』 영조 4년 무신(1728) 1월 5일(병진)에는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영조 임금에게 "'하늘을 본받고 도道를 행하여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體天行道日新又新.'는 여덟 글자가 오늘날 전하의 가장 긴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기사가 실려 있다. 퇴계 선생이나 이광좌의 말에서 '체천體天'이라는 말은 '도道'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임금이 지향해야 할 자세로 언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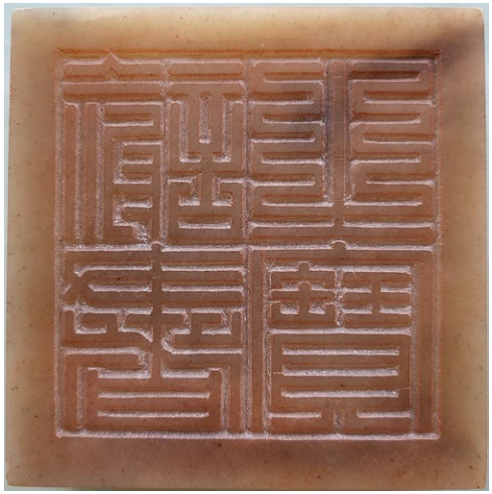
조선 중기의 형조좌랑, 부제학을 지낸 문신으로, 임진왜란(1592), 정묘호란(1627)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외세의 침략에 저항했던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은 비후잠毖後箴이라는 글을 지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 글에서 '체천體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 성왕聖王은 위로 하늘을 본받았다. 하늘은 세상 위에 자리하니, 그 덕이 강건하다. 강건하기 때문에 공정公할 수 있고, 공정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임금의 덕은 하늘을 본받아, 모든 것을 비추어 임한다. 확 트이게 크고 공정하려면 반드시 사사로움私을 없애야 한다.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강건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은 '체천體天'에 대한 설명이다. 蒼石先生文集卷之十四 / 毖後箴[幷疏: "古之聖王 上體穹蒼 天位乎上 其德曰剛 惟剛故公 惟公故大 靈德法乾 照臨無外 廓然大公 必去其私 私之不克 剛不可爲 [此一節 言體天]" 이 밖에 영조 40년 갑신(1764) 11월 12일(기미)에 장령 황최언黃最彦이 영조 대왕 앞에서 "체천육잠體天六箴이라는 글을 꺼내 올린 다음 읽어 아뢰었다."는 기사도 있다.

이상의 모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천體天'은 임금이 도道를 행하거나 제도를 제정할 때 반드시 하늘의 뜻이나 하늘의 명을 본받아 그 안에 담고자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0. 8.

2. 『유서지보諭書之寶』, 1593년



『유서지보諭書之寶』
『大典會通』 권 3(42장_전면), 禮典_璽寶_諭書之寶,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JRD&book_cd=GK01302_00&vol_no=0003&page_no=0089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0. 28.

10.0x10.0cm (모각 10.0x10.0x3.0cm, 박재갑)

유서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유수留守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 아는 밀부密符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를 말한다.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編,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2004.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조선시대 유서諭書에 사용한 행정용 국새國璽이다. 조선시대에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리가 왕명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를 위해 군사를 움직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밀부密符 제도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밀부의 우부右符는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및 제진諸鎭에 주고, 좌부左符는 궁궐 안에 간직한다. 만약 징병徵兵할 때에는 교서敎書를 내려서 좌부를 우부와 맞추어본 뒤라야 징발徵發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비상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관원이 간직하고 있던 반쪽의 밀부와 왕이 보낸 반쪽의 밀부를 맞추어 의심할 바가 없을 때 명령대로 거행한 것이다. 이때 왕이 보낸 교서가 바로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찍힌 유서에 해당한다. 기존 유서에 대한 개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시대 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로,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유서의 범위는 이보다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서를 발급 사유 및 수록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밀부유서密符諭書를 비롯하여 포상유서褒賞諭書, 훈유유서訓諭諭書, 관원을 부르는 유서 등이 있다.

밀부유서는 국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에 국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명령서이다. 밀부유서의 문서식은 16세기 후반에 한 차례 변화하였고, '전율통보典律通補'에는 조선 후기에 발급된 문서식이 기재되어 있다.

포상유서는 왕이 상급 관원의 보고를 통하여 공적이 있는 관원에게 하사품을 내리면서 함께 발급한 문서이다. 새서표리璽書表裏, 새서숙마璽書熟馬 등을 내려주라는 왕명이 있을 때에 포상유서와 하사품을 내려주었다.

훈유유서는 왕이 일반 백성 및 관원에게 훈유訓諭하거나 효유曉諭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관원을 부르는 유서는 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에 발급하는 유서이다. 왕이 유서로 관원을 부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긴급한 일로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 둘째,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으로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있을 때 왕이 유서를 내려 해당 관원을 올라오게 하는 경우, 셋째, 사직 상소를 올린 관원에게 국왕이 사직을 만류하고 해당 관원을 부르는 경우에 유서를 발급하였다.

유서의 기원은 고려의 선전소식宣傳消息에 있다. 고려 말에 왕에 의해 번거로이 내려지던 선지宣旨에서 일부 기능이 분화된 문서로, 왕의 명령을 중추원中樞院 승선承宣이 작성하여 전달한 것이다. 또 군정軍政과 관련된 명령과 일부 국가의 정책이나 국왕의 개인적인 명령을 전달하는 내전소식內傳消息이 있었다. 조선에 들어 1443년(세종 25) 고려의 유제遺制인 내전소식을 폐지하고 유서를 처음 시행하여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때 유서식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첫 면에 '유諭'자와 수취인의 관직, 성명을 쓰고 결사訣辭에는 '고유故諭'를 쓴다. 문서의 말미에는 날짜를 쓰고 어보인 유서지보를 찍었다.

조선시대에 유서지보를 처음 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서지보를 사용한 사례는 1444년(세종 26) 정식鄭軾 유서諭書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후 1457년(세조 3) 이윤손李允孫 유서諭書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안보安寶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물 제1289호인 이윤손 유서는 3월 12일 세조가 평안도절제사 이윤손李允孫(?~1467)에게 내린 유서로, 역모에 의해 군사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문서에 안보된 유서지보의 재질은 확인할 수 없으며, 크기는 사방 10센티미터, 서체는 소전小篆으로 '유서' 두 자만

으로 제조하였다고 하였다. 해당 고문서를 살펴보면 재질은 알 수 없고, 서체는 동일하나 보문이 '유서지보'이므로 기록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유서지보 외에 연산군 대 이전까지 사용한 또 다른 유서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서지보를 처음으로 사용한 1443년보다 약 52년 뒤인 1495년(연산군 1) 연산군은 새로운 유서지보를 시명지보의 크기와 같게 제조하되 은제 도금으로 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안 되어 새로운 유서보를 완성하여 팔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국새는 기존의 인영印影과 비교하여 크기나 보문은 동일하나 서체가 소전에서 구첩전으로 바뀌었다. 사용 기간은 제작한 해인 1495년부터 새로 개조한 해인 1876(고종 13)까지 약 381년간이다. 개조한 유서지보 관련 기록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실려 있다. 재질은 동제 도금이며, 크기는 10.2x10센티미터로 기존에 제작한 유서보보다 세로로 2밀리미터 크게 제작되었다.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77~81쪽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 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년)에 성조聖祚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인 국인國印이 수여되었다. 이를 대보大寶라 하여 1636년(인조 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보인寶印들이 제작, 사용되었는데, 교서·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교린문서交隣文書, 특히 대 일본 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등이 있었고,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쳤다.

행정안전부 「국새」, 2021 『정부의전편람 1』, https://www.mois.go.kr

3. 『대재건원大 哉乾元』, 1603년

3.7x3.7cm (모각 3.6x3.6x8.0cm, 박재갑)

선조대왕宣祖大王의 어인御印

『대재건원大哉乾元』▶ 위대하도다, 건乾의 원元이여!

이 말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역의 64괘 가운데 첫 번째 괘인 건괘乾卦를 설명하는 단전彖傳에 나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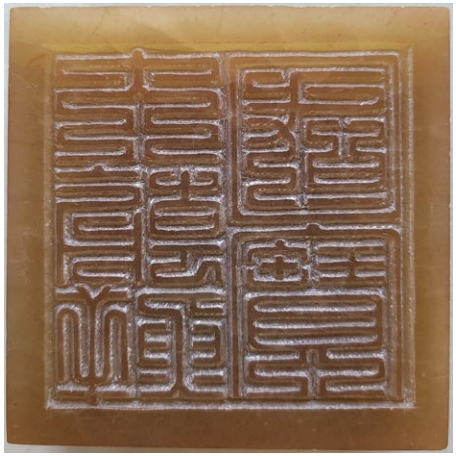
주역에서 '건乾'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에는 원元·형亨·이利·정貞이라는 네 가지 덕이 있다고 말한다. 이 네 가지 덕 가운데 '원元'은 '크다' '으뜸' '시작' 이런 뜻이 있으며, 그것이 계절로 나타나면 '봄春'이 된다고 본다. '봄'은 한 해를 시작하는 계절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즉, 죽은 것 같았던 이 세상에 생명이 다시 새로운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계절이다. '여름'은 그렇게 소생한 것들을 키우는 계절이고, '가을'은 그것들의 결실을 보게 하는 계절이며, '겨울'은 그 생명이 이듬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생명력을 간직하는 계절이다. 결국 여름·가을·겨울은 봄에 시작된 생명 활동을 이어주는 계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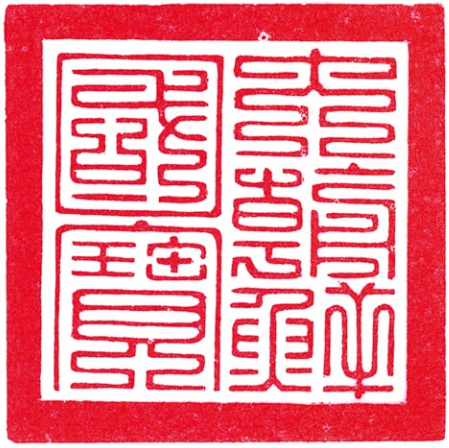
사계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봄'이듯, 주역에서는 원·형·이·정도 같은 논리로 이해한다. 그래서 "위대하도다, 건의 원이여!"라고 한 것이다. 참고로, 이 말 다음에 "만물이 이것에 의지하여 시작된다"는 말이 이어진다.

임금은 한 나라에서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다. 만물의 아버지는 하늘이고, 만물의 어머니는 땅이다. 더군다나 임금은 하늘의 명 즉, '천명天命'을 받아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천명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항상 '하늘'을 의식한다. 임금이 본받고자 하는 '하늘'이 바로 주역의 건괘에 나온다. 특히 하늘의 네 가지 덕 가운데 첫 번째 덕인 '원'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한재훈 작성, 개인 교신, 2022. 10. 28.

4.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1894, 1895년





9.4x9.4cm (모각 9.0x9.0x3.0cm, 박재갑)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國印을 공식 대보大寶로 사용하였으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인문印文을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계승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보인寶印들이 사용되었는데, 서적을 반포·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책의 발간에 사용하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규장각의 벼슬아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명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 아래 상서원 등에서 제작·보관·관리하였다.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국새』, 등록일 2021년 12월 20일, https://www.mois.go.kr

개화기의 국새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조선은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끝내면서 종전의 책봉에 의한 국새 인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1876년(고종 13)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를 폐지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1881년 고종은 신사信使가 가지고 가는 국서國書에 위정이덕爲政以德 보를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고, 8년 후인 1899년에는 대조선국보를 포함하여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1894년 갑오경장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본 관련 국서에 사용할 국새를 자체 제작하였고, 보문은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임을 알 수 있다. 갑오경장을 즈음하여 조선에서는 대조선국보 외에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1882년 7월 1일 제작), 『대군주보大君主寶』(1882년 7월 1일 제작),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1876년 12월 15일 제작)를 제작하여 일본 관련 국서에 사용하였다. 개화기를 전후하여 일본 국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국새의 종류와 형태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5. 개화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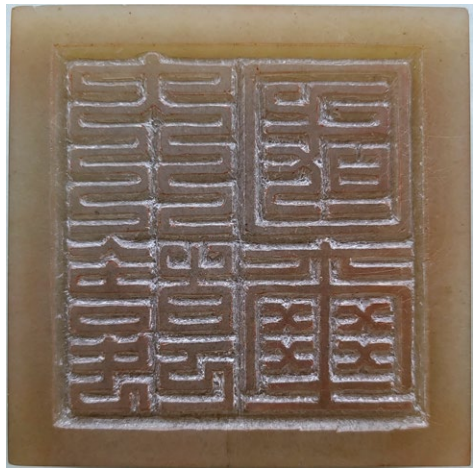
	보명	뉴식	재질	크기(cm)	서체	완성시기
1	대조선국주상지보 朝鮮國主上之寶	귀뉴 龜鈕	천은도금 天銀鍍金	11.6	첩전 疊篆	1876년 12월15일
2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귀뉴	천은도금	11.6	첩전	1881년 7월27일 이후
3	대조선국대군주보 大朝鮮國大君主寶	귀뉴	천은도금	9.5	소전 小篆	1882년 7월 1일
4	대조선대군주보 大朝鮮大君主寶	귀뉴	천은도금	9.6	소전	미상
5	대군주보 大君主寶	귀뉴	천은도금	9.5	첩전 疊篆(9첩)	1882년 7월 1일
6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귀뉴	천은도금	9.4	첩전	1889년 8월 5일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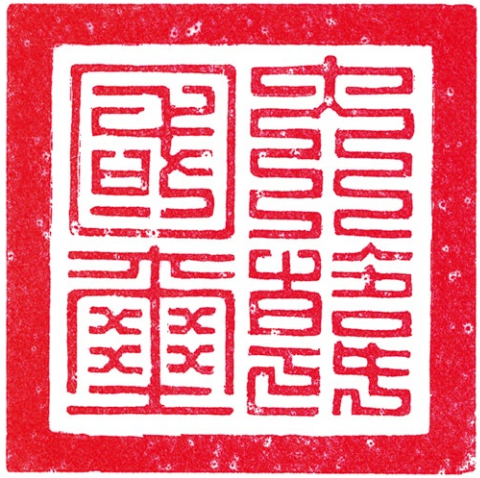
기존에 중국에서 반사된 국새의 보문과 달라진 점은 '인印'자에서 천자만이 쓸 수 있는 '보寶'자로 대체하였고 책봉명인 '조선국왕朝鮮國王'에서 '조선朝鮮'이란 국명으로 또한 '국왕國王'에서 '대군주大君主'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뉴식은 전과 같이 귀뉴龜紐로 하였다. 이 외에도 개화기 국왕 문서와 서적 반사頒賜(조선 시대 임금이 백성에게 책이나 그 밖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를 위해 제작된 국새로 『준명지보濬明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수훈지보垂訓之寶』가 있다.

성인근, 『고종 황제 비밀 국새』, 소와당笑臥堂, 서울, 2010년, 49쪽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4~96쪽

5.「대한국새大韓國璽」, 1906년





9.4x9.4cm (모각 9.0x9.0x3.0cm, 박재갑)

대한제국기(1897년 10월 12일 ~ 1910년 8월 29일)의 국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한 직후 조선에서는 황제 즉위를 요청하는 상소가 조야 각계로부터 쇄도하였다. 그해 1897년 8월에는 전년도에 일본의 위압 속에 정해졌던 건양建陽이란 연호를 광무光武로 변경하고, 10월 초에는 서울의 회현방(소공동)에 환구단圜丘壇이 완공되어 마침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곧이어 고종은 국명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제국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505년간 지속된 조선왕조는 종언을 고하였고, 우리 역사상 최초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국가 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는 대한제국 선포의 당위와 대략을 책머리에 실었다.

대조선이 개국한 지 506년, 우리 성상께서 등극하신 지 34년. 조종祖宗의 오랜 기틀을 이어받고 만방萬邦이 일신一新하는 시운時運을 만나 성덕이 더욱 빛나고, 큰 교화가 더욱 널리 베풀어졌다. 신민들은 천심天心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서로 이어서 황제대위皇帝大位에 오르실 것을 청하였다. 폐하께서 겸손히 사양하신 것이 수십 번이다가 비로소 윤허하셨다. 마침내 음력 정유년丁酉年 9월 17일에 친히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지에 제사 지낸 후 황제皇帝에 즉위하시고 태극전太極殿(지금의 중화전中和殿)으로 돌아와 백관의 하례賀禮를 받으셨다. 마침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치고, 건원建元을 광무光武라 하였다. (후략)

대한제국 선포의 핵심은 군주의 호칭을 '황제皇帝'로,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한 일이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다음 날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마한·진한·변한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大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며, '조선'은 옛날에 기자가 봉해진 때의 이름으로 당당한 제국의 명칭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고종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새보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한 국새와 어보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3과), 『칙명지보勅命之寶』(2과),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命之寶』로 총 9과이다. 이때 왕실 인사의 호칭도 변경됨에 따라 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의 어보도 함께 제작하였다. 각 새보의 형태 사항과 제작 시기, 사용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개화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보명	뉴식	재질	크기(cm)	서체	제작시기	사용처
1	대한국새 大韓國璽	용뉴 龍鈕	천은도금 天銀鍍金	9.4	첩전 疊篆(9첩)	1897. 9.19.	국서 國書
2	황제지새 皇帝之璽	용뉴	천은도금	9.4	첩전 疊篆(9첩)	1891. 9.19.	훈기 勳記
3	황제지보 皇帝之寶	용뉴	옥 玉	11.1	소전 小篆	1887. 9.17	친임관칙지 親任官勅旨
4	황제지보	귀뉴 龜鈕	천은도금 天銀鍍金	11.4	소전	1897. 9.19.	친임관칙지
5	황제지보	용뉴 龍鈕	옥 玉	9.4	소전	1897. 9.19.	친임관칙지
6	칙명지보 勅命之寶	용뉴	순금 純金	11	소전	1897. 9.19.	주임관칙지奏 任官勅旨
7	칙명지보	용뉴	천은도금 天銀鍍金	9.1	소전	1897. 9.20.	가자승육칙지 加資陞六勅 旨, 조칙詔勅
8	제고지보 制誥之寶	용뉴	순금 純金	11	소전	1897. 9.19.	친임관칙지 親任官勅旨
9	시명지보 施命之寶	용뉴	천은도금 天銀鍍金	8.9	소전	1897. 9.20.	

이때 제작된 새보를 살피면 우선 1과를 제외한 모든 손잡이가 거북에서 용으로 바뀌었고, 보문은 '인'에서 '새'와 '보'자로 대체하였다. 서체도 복잡한 첩전疊篆 위주에서 대부분 간명한 소전小篆으로 바뀌었다. 각각의 용도를 살펴보면 우선 대한국새는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국서國書로 용도를 한정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명과 청으로부터 반사된 국새 조선국왕지인의 사용처와 같다. 황제지새는 나라에 훈공勳功이 있는 이에게 내려주는 훈기勳記로 규정하였다. 3과의 황제지보

는 뉴식이나 재질, 크기를 각각 달리 제작하였지만 용도는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인 친임관칙지親任官勅旨에 국한하였다. 고급 관리의 임명에서도 정1품~종2품에 해당하는 칙임관勅任官에게는 제고지보를 , 3품~6품까지의 주임관奏任官의 임명장에는 칙명지보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1899년(고종 36)에는 군제 개편과 함께 『대원수보大元帥寶』와 『원수지보元帥之寶』를 제작하였다. 이는 당시 원수부 규칙 제1편을 발표하면서 황제인 고종이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인 순종이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하게 되면서 제작하였다. 이 당시 관보에 의하면 원수부인元帥府印과 각국의 인장도 함께 제작하였다.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외에도 『군주어새君主御璽』, 『황제어새皇帝御璽』라는 비밀 국새가 있었다. 군주어새는 제한제국 선포 직전인 1897년 9월 프랑스와 독일에 양국의 우호 증진과 상호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친서에 찍혀 있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 필름에 사진이 남아있다.

황제어새는 고종 황제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대한제국기에 러시아, 이탈리아 등 각국에 일본을 견제하고 대한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친서에 사용한 인장이다. 황제어새의 존재는 문서와 사진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이 한 재미교포로부터 구입하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어새는 사방 5.3센티미터로 기존의 새보보다 약 절반 정도 작은데, 근대화된 문서 양식에 맞는 크기로 제작되었다. 재질은 비파괴검사 결과, 뉴의 금과 은의 비율이 81:18, 인대는 57:41의 비율로 따로 제작해 붙였다.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새보 중 일부는 한일합방 당시 약탈당하여 일본 궁내성에 보관되다가 미군정에 인수되어 1946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반환되었다.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7~102쪽

6.『외무대신外務大臣』, 1894년 10월 11일

3.6x3.6cm (모각 3.6x3.6x8.0cm, 박재갑)

외무아문外務衙門(1894년 6월 28일~1895년 4월 1일)

조선 말기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에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衙門官制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외무아문外務衙門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참의參議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교섭국·통상국·번역국·기록국·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국장) 1인, 주사 1인을 두고, 교섭국은 외교 사무 이외에 만국의 공법·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었다.

통상국은 통상 및 항해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고, 번역국은 외국 공문의 번역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고, 기록국은 조약 및 외교문서의 보관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번역국장 겸임) 1인, 주사 6인을 두고, 회계국은 회계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895년 4월 1일 별도의 외부관제를 공포하고 외부外部로 개칭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7. 『외부대신外部大臣』, 1895년5월3일, 1899년10월30일

외무대신이 외부대신으로 바뀐 것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1894년 6월 28일 설치된 외무아문外務衙門이 설치된 지 일 년이 채 못되어 1895년 4월 1일 외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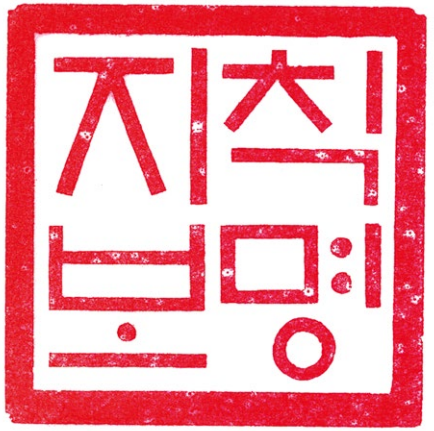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3.6x3.6cm (모각 3.6x3.6x8.0cm, 박재갑)

8. 『칙명지보勅命之寶』, 1908년

11.0x11.0cm (모각 9.0x9.0x3.0cm, 박재갑)

새김 1. 『칙명지보』(한글) 勅命之寶(韓契), 2020



한글로 번역한 서예 작품을 위하여 한글 칙명지보 인장을 돌에 새겼다. 글자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를 따르려 노력하였다.

9.0x9.0x3.0cm, 박재갑

부록

1. 그림 목록

순번	제목
그림 1	대한의원개원칙서
그림 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그림 3	「한글재민체1.0」 제작 과정
그림 4	「한글재민체」 한자 획의 특징
그림 5	「한글재민체」 간체자
그림 6	「한글재민체」 간체자 · 번체자 비교
그림 7	「한글재민체」 일본 가나문자

2. 표表 목록

순번	제목
표1	조선시대 사자관 운영 현황
표2	사자관청등록수록 외교문서 작성 기사 목록
표3	사자관청등록수록 사자관 참여 기록물 목록
표4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표5	개화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표6	대한제국기 국새의 종류와 형태 및 크기

3.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作品 목록

순번	제목	원본 제작 시기	원본 크기	임서 재료	임서 크기	임서 시기	인장印章
조선 제4대왕(1418~1450년) 세종世宗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조선 제6대왕(1452~1455년) 단종端宗							
임서 1	홍무정운역훈 譯訓	1455년	31.3x21.0cmx2단	한지에 먹	32.0x42.0cm	2022년 12월	
조선 제7대왕(1455~1468년) 세조世祖							
임서 2	훈민정음 언해본 諺解本	1459년	32.5x22.5cmx2장	한지에 먹	31.0x52.0cm	2022년 11월	
임서 3	상원사중창권선문	1464년	32.5x12.0cmx첩	한지에 먹	32.5x145.0cm	2022년 10월	체천지보 體天之寶
조선 제9대왕(1469~1495년) 성종成宗							
임서 4	삼강행실도언해	1481년?	5.3x12.2cm	한지에 먹	32.0x69.0cm	2022년 12월	
조선 제14대왕(1567~1608년) 선조宣祖							
복각 1	훈민정음언해본 희방사본	1568년	31.8x21.9cmx2장	한지에 프린팅 잉크	30.0x52.0cm	2018년 5월	
임서 5	선조국문유서 諭書	1593년 9월	80.0x40.0cm	한지에 먹	91.0x59.0cm	2020년 9월	유서지보 諭書之寶
임서 6	선조어필 御筆 숙의에게	1597년, 선조 30년 8월	19.8x31.5cm	한지에 먹	36.0x47.0cm	2022년 11월	
임서 7	선조어필	1603년, 선조 36년	28.0x21.2cm	한지에 먹	38.5x30.0cm	2022년 11월	대재건원 大哉乾元
임서 8	선조대왕어필언간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32.6x18.0cm	한지에 먹	35.0x25.0cm	2022년 11월	대재건원 大哉乾元
조선 제17대왕(1649~1659년) 효종孝宗							
임서 9	효종대왕어서 御書	1652~1659년	35.2x18.0cm	한지에 먹	46.0x43.0cm	2022년 11월	
조선 제19대왕(1674~1720년) 숙종肅宗							
임서 10	숙종대왕언찰어필	1685년	27.5x23.8cm	한지에 먹	39.0x36.0cm	2022년 11월	
임서 11	숙종대왕어필 명안공주방	17세기	22.7x27.2cm	한지에 먹	35.0x38.0cm	2022년 11월	
임서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	1699년	21.5x33.2cm	한지에 먹	37.0x53.5cm	2022년 11월	
조선 제20대왕(1720~1724년) 경종景宗							
임서 13	소훈이씨제문 祭文	1721년	27.9x152.8cm	한지에 먹	37.0x155.0cm	2022년 12월	

조선 제21대왕(1724~1776년) 영조英祖

임서 14	어제자성편언해	1746년		한지에 먹	37.6x24.2cm	2020년	
임서 15	천의소감언해	1755년	36.5x23.2cm	한지에 먹	36.5x24.0cm	2022년 11월	
임서 16	고문진보언해	영조년간	30.3x23.5cm	한지에 먹	31.5x24.5cm	2022년 10월	
임서 17	임산예지법*	18세기	26.5x10.2cmx첩	한지에 먹	34.0x240.0cm	2020년	

조선 제23대왕(1800~1834년) 순조純祖

임서 18	언서첩서문序文	1802년	24.9x9.9cmx첩	한지에 먹	39.0x31.0cm	2022년 11월	
임서 19	유빈박씨애책문哀冊文	1823년	19.0x159cm	한지에 먹	23.0x155.0cm	2022년 10월	
임서 20	학석집(익종)언해	19세기	25.7x18.9cm	한지에 먹	27.0x20.0cm	2022년 11월	
임서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 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 표리행례 홀기笏記	1827년	25.3x12.5cmx첩	한지에 먹	32.5x48.0cm	2022년 11월	

조선 제26대왕(1863~1907년) 고종高宗

임서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國書	1883년 6월 12일		한지에 먹	34.0x40.0cm	2023년 2월	
임서 23	국서제정사	1883년 9월 18일		한지에 먹	34.0x40.0cm	2023년 2월	
임서 24	명성황후상존호 옥책문玉冊文	1890년	26.9x15.9cm	한지에 먹	31.0x80.0cm	2022년 11월	
임서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國書(622)	1894년 10월 11일	40.7x51.5cm	한지에 먹	41.0x51.0cm	2022년 11월	외무대신 外務大臣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임서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國書(613)	1895년 5월 3일	42.0x53.5cm	한지에 먹	41.0x51.0cm	2022년 11월	외부대신 外部大臣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임서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國書(617)	1899년 10월 30일	41.5x51.8cm	한지에 먹	41.0x51.0cm	2022년 11월	외부대신 外部大臣
임서 2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 도홀기	1901년	24.8x7.0cmx첩	한지에 먹	36.0x28.0cm	2022년 10월	
임서 29	책황귀비홀기	1903년	27.6x9.2cmx첩	한지에 먹	39.0x32.0cm	2022년 10월	
임서 30	고종황제의 밀서密書	1906년	23.5x36.2?cm	한지에 먹	33.5x47.0cm	2022년 11월	대한국새 大韓國璽

조선 제27대왕(1907~1910년) 순종純宗

임서 31	대한의원개원칙서**勅書	1908년	43.0x59.5cm	한지에 먹	43.0x59.0cm	2019년 5월 25일	칙명지보 勅命之寶
임서 32	서순행일기日記	1909년	26.8x19.0cm	한지에 먹	39.0x30.0cm	2022년 9월	

임산예지법*전시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대한의원개원칙서전시 :** 「명사서예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9. 10. 12. ~ 11. 10., 299쪽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작품作品 목록

순번	제목	원문 제작 시기	작품 재료	작품 크기	작품 제작 시기	전시
국사國事						
작품 1	정대마도교서(국한문)	1419년 6월 9일	한지에 먹	90.0x60.0cm	2022년 5월	전시(-)
작품 2	징비록 서문(국한문)	1604년	한지에 먹	90.0x60.0cm	2022년	전시(-)
작품 3	선조국문유서(국문)	1593년	한지에 먹	91.0x59.0cm	2020년 10월	전시(-)
작품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국문)	1882년	한지에 먹	128.0x70.0cm	2020년 10월	명사서예전,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년 11월 5일~12월 5일, 251쪽
작품 5	삼일독립선언서(국문)	1919년	한지에 먹	114.5x62.0cm	2021년 8월	*전시2
작품 6	宣言書(국한문)	1919년	한지에 먹	59.5x114.5cm	2021년 8월	*전시2
작품 7	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국한문)	1919년	한지에 먹	96.0x54.0cm	2021년 8월	*전시2
의학醫學						
작품 8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국문)	1898년 11월 7일	한지에 먹	3.0x105.0cm	2022년 9월	*전시2
작품 9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한문)	1898년 11월 7일	한지에 먹	41.5x127.5cm	2021년 5월	*전시2
작품 10	학부대신답서(국한문)	1898년 11월 9일	한지에 먹	42.5x58.5cm	2021	*전시2
작품 11	칙령제7호(국한문)	1899년 3월 24일	한지에 먹	43.0x59.0cm	2022년 3월	*전시2
작품 12	칙령제9호(국한문)	1907년 3월 10일	한지에 먹	43.0x59.0cm	2022년 3월	*전시2
작품 13	대한의원개원칙서(국문)	1908년 10월 24일	한지에 먹	43.0x59.0cm	2020년 5월	*전시1
작품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국한문)	1924년 3월	한지에 먹	43.0x69.0cm	2022년 3월	*전시3
작품 15	역질 관련 영조 윤음(국문)	1750년 5월 10일	한지에 먹	42.5x58.5cm	2021년 6월	*전시1
작품 16	무오년 독감(국한문)	1799년 봄	한지에 먹	42.5x58.5cm	2021년 봄	*전시2
사상思想						
작품 17	천화(국한문)	2022년 봄	한지에 먹	43.0x43.0cm	2022년 봄	*전시3
작품 18 (새김 2)	천물무간(국한문)	壬寅	돌에 새기고, 한지에 인주	12.0x12.0cm	2022년 3월 26일	*전시3
작품 19 (새김 3)	천지인상생심(국한문)	壬寅	돌에 새기고, 한지에 인주	12.0x12.0cm	2022년 4월 5일	*전시3

*** 전시 1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08. ~ 11. 12.
*** 전시 2 :**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 ~ 12. 14.
*** 전시 3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05. 25. ~ 06. 30.

5. 모각模刻, 복각復刻 및 새김刻 작품作品 목록

순번	제목	원본 제작 시기	원본 크기	각 재료	각 크기	각 시기
모각1	체천지보	1458년	2.0x12.0cm	돌에 모각	12.0x12.0x3.0cm	2022년 12월 25일
모각2	유서지보	1593년	10.0x10.0cm	돌에 모각	10.0x10.0x3.0cm	2020년 5월 25일
모각3	대재건원	1603년	3.7x3.7cm?	돌에 모각	3.6x3.6x8.0cm	2022년 12월 18일
모각4	대조선국보	1889년	9.4x9.4cm	돌에 모각	9.0x9.0x3.0cm	2022년 12월 22일
모각5	대한국새	1897년	9.4x9.4cm	돌에 모각	9.0x9.0x3.0cm	2022년 12월 18일
모각6	외무대신	1894년10월11일	3.6x3.6cm?	돌에 모각	3.6x3.6x8.0cm	2022년 12월 22일
모각7	외부대신	1895년5월3일	3.6x3.6cm?	돌에 모각	3.6x3.6x8.0cm	2022년 12월 23일
모각8	칙명지보	1897년	9.0x9.0x3.0cm	돌에 모각	9.0x9.0x3.0cm	2019년 7월 11일
복각 1	훈민정음 언해본 희방사본	1568년	31.8x21.9cmx2장	나무에 복각	31.0x53.0x3.0cm	2018년 5월 25일
새김 1	칙명지보(한글)	2020년	9.0x9.0cm	돌에 새김	9.0x9.0x3.0cm	2020년 6월 1일
새김 2	(한글재민체 작품 18) 천물무간	2022년	12.0x12.0cm	돌에 새김	12.0x12.0x3.0cm	2022년 3월 26일
새김 3	(한글재민체 작품 19) 천지인상생심	2022년	12.0x12.0cm	돌에 새김	12.0x12.0x3.0cm	2022년 4월 5일

6. 참고문헌

머리말

『대한의원개원칙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www.heritage.go.kr

제1장

- 박갑수, 「축하의 말씀」,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특별전에서, 2022. 5. 25.
- 신선호, 개인 교신, 2022. 3. 17.
- 전광배, 개인 교신, 2023. 3. 16.
- 陳泰夏, 「契(글)자와 글」, 『한자漢字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東夷族이 만들었다』, 明文堂, 서울, 2019년, 158~163쪽
-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72~173쪽
- 김정수, 「한글 문화권의 앞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94~199쪽
- 이건무, 「새천년에 비춰보는 한글의 미래」,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59쪽

제2장

-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 왕조 어책御冊, 옥책玉冊5』,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199, 252~254쪽
- 서준, 「교명과 죽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 왕조 어책御冊 – 교명敎命·죽책竹冊·금책金冊』,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426쪽~453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93~196쪽
- 張乙演,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硏究 : 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硏究院, 城南, 2007년, 17쪽
- 한우근韓沽劤, 이태진李泰鎭, 이성무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飜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성남시, 1985년, 8쪽
- 조두순 외 저, 『역주 대전회통』,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 www.krpia.co.kr
- 한우근韓沽劤, 이태진李泰鎭, 이성무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飜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성남시, 1985년, 18쪽
-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 사자관청등록 國譯 寫字官廳謄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22년, 10~32쪽
-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續大典』, 『大典通編』, 『六典條例』, 『練藜室記述』, 『承政院日記』, 『鮮王朝實錄』, 『雜科榜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 古4652.5-16-v.3), 1870. 以後
- 『寫字官聽謄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번호: 고궁3817
- 『侍講院冊役所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2-2780), 1880.
- 『小學諸家集註』,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3-46), 1815.
-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 김두헌, 「자료 『寫字廳先生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 대동사학회, 2004.
- 김두헌,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45,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 이신영, 『王羲之 書藝에 關한 批評 硏究 』,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장서각, 『장서각 소장 고문서대관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國譯 사자관청등록寫字官廳謄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22년, 10~32쪽
-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
- 윤증尹拯, 「유상기에게 보냄, 6월 12일」, 『명재유고明齋遺稿, 제26권, 서書』, 1732년, 한국고전종합DB
- 조광조趙光祖, 「가문 의식과 선조先祖의 현창顯彰」, 『정암집貞菴集』, 1892년, 한국고전종합DB
- 이석연,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개인 교신, 2022. 9. 28.
- 조선일보, 2023. 2. 22.
- 이필숙, 개인 교신, 2022. 3. 19.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 3. 16.~19. 14쪽
-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16.
-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20.
- 윤진영, 개인 교신, 2022. 9. 14.

제3장

-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38쪽
- 김응학, 개인 교신, 2022.9.13.
- 허경무, 김인택,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유형과 명칭』, 한글, 2007년, 275: 193~226쪽
- 홍윤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창녕, 9. 24. ~ 9. 25., 7~54쪽
-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5쪽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체古體, 예문, 네이버 검색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 박병천, 개인 교신
- 사) 갈물한글서회 소개, http://www.galmul.or.kr/
- 윤양희, 『중학교 서예』, 우일출판사, 서울, 1984년, 19쪽
- 윤양희, 『한글書藝 指導方法 改善을 위한 硏究』, 韓國敎育開發院, 서울, 1985년, 43쪽
- 장지훈, 개인 교신, 2022. 9. 13.
- 윤양희, 개인 교신, 2023. 3. 24.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268쪽
-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2. 10. 13., 네이버 검색
- 박병천, 『한글서체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 2014년, 45~46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426쪽
- 장지훈,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통일방안 연구」, 『서예학연구』, 2015년, 27 : 401~426쪽
-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007.
- 곽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서예문인화書藝文人畫, 2015. 1., 92~103쪽
- 곽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2)』, 서예문인화書藝文人畫, 2015. 2., 94~10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60~363쪽
- 이규복,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 이서원, 성남시, 2020년
- 友千 고재석 부연敷衍, 개인 교신, 2022. 9. 14.
- 정광, 『새로운 시각視角으로 본 훈민정음 제정의 경위經緯 - 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영축총림 통도사 특별학술대회,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영축총림 통도사, 2022년 10월 7일, 7쪽
-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네이버 검색
-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
- 해서체,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유광종, 『중국 정부의 붓글씨 필체』 조선일보, 2022. 1. 14.
- 우리말샘, 네이버 검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검색
- 이민식, 「정조正祖의 서체반정書體反正」,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년, 161~162쪽.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일성록日省錄』, 서기 1785년 정조 9년 6월 19일(병신), 0174권, 奎12811, 0099-0099면
- 이익李瀷(1681~1763), 민족문화추진회 편, 「제9권, 인사문人事門, 설암雪庵」, 『국역 星湖僿說Ⅳ』, 민족문화추진회·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1982년, 70~72쪽
-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2021년, 45:134~163쪽
- 박세당朴世堂, 「석봉石峯, 시詩 석천록石泉錄 상上」, 『서계집西溪集 卷2』, 간행년도 미상, a134_033a 쪽, 한국고전종합DB
-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8. 24.
- 이익, 『성호사설』 한석봉 부분 참고, 고재석, 개인 교신, 2023. 3. 13.

제4장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copylight.or.kr), 한국저작위원회, 2020. 10. 8.
- 하철용, 개인 교신
- 박갑수, 개인 교신
- 한재훈, 개인 교신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년, 22권 3호, 328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진영, 박용만 제공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 진황가陳凰嘉, 김민金民, 『韓契在民体-韓国字体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volume 456, 74~76쪽
- 김지영, 자료 제공, 2023. 2.

제5장

- 정광, 자료 제공, 2022. 11. 18.
-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68쪽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청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정진웅, 자료 제공
- 성파, 문화재청, 자료 제공
-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주해 - 신미信眉 등 씀」,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 김무봉 역, 간경도감 언해, 「『상원사 중창권선문』, 권선문 어첩 - 세조世祖 씀」, 1463년(세조 9), 세종한글고전, db.sejongkorea.org
-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1. 8.
- 김무봉,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 『역주 상원사중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35~56쪽
- 최홍식, 김정수, 자료 제공
-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45쪽
-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년, 7~10쪽
- 부산시립박물관, 자료 제공
- 한재영, 심보경, 「선조교서(백성유환교서)」,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15~18쪽
- 선조 찬, 1593년(선조 26), 1장, 필사, 80.0x40.0cm, 부산시립박물관(권이도 기탁), 보물 제951호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자료 제공, 2022. 10. 11.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11쪽
-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4일, 계유 3번째 기사, 1597년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13~14쪽
- 金一根, 『諺簡의 硏究 - 한글書簡의 硏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55~56쪽
- 『한글서예변천전』, 예술의전당, 1991.
- 『조선 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2002.
- 『朝鮮王朝御筆』 예술의전당, 2002.
- 「1603년 선조가 옹주에게 보낸 편지」,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9쪽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5, 7, 13쪽
- 金一根, 『諺簡의 硏究 - 한글書簡의 硏究와 資料集成』, 建國大學校出版部, 서울, 1986년, 262쪽
- 국립청주박물관, 자료 제공, 2022. 10. 05.
- 『조선시대 한글 편지』,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05 https://archive.aks.ac.kr/
- 효종대왕,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 66~69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43쪽
- 계명대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자료 제공, 2022. 10. 5.
-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71~74쪽
- 오죽헌시립박물관, 자료 제공, 2022. 10. 11.
- 「숙종이 모후 명성왕후에게 보낸 편지」,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
-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3쪽
- 「명안 공주」, 『문화원형백과 e조선궁중여성, 2004』,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네이버 지식백과
- 「국조전고國朝典故, 공주公主 · 부마駙馬」, 『연려실기술 별집 제1권』, 한국고전종합DB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104, 105쪽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부록附錄 38~39쪽
- 박정숙, 『조선의 한글편지』, 다운샘, 서울, 2017년, 347쪽

- 디지털장서각 : 『1721년 11월 소훈이씨昭訓李氏 치제문』 - 王室古文書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훈이씨 제문」, 『英祖妃嬪資料集2 碑誌, 冊文, 敎旨, 祭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1년, 60~6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70~71쪽
- 배영환,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1) - 어제자성편(언해)와 어제속자성편(언해)를 중심으로」, 이광호 외,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파주, 2007년, 42쪽
- 영조(조선왕,1694-1776)찬 英祖(朝鮮王,1694-1776)撰, 『어제자성편언해(상하)御製自省編諺解(上下)』, K4-4106, MF16-366,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
- 조항범, 김주필, 황문환, 박용만, 『역주 어제자성편(언해)』, 도서출판 역락, 서울, 2006년, 27~36쪽
- 『쳔의쇼감언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년, 0003쪽
-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7쪽
- 정윤자, 김길동, 김일환, 변민주, 주경미 역주, 『천의소감언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시, 2019년, 4~5쪽
- 英祖(朝鮮) 命撰,『쳔의쇼감언해』, 英祖31年(17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214-v.1-4
- 황문환,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 필사본의 가치」,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12~313쪽
-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25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52~253쪽
- 한국학중앙연구원(MF35-004657), 자료 제공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8.~11. 1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82~83쪽
- 김호, 국역, 개인 교신, 2023.3.13.
- 金一根, 이조어필언간집, 나라출판, 서울, 1959년, 21쪽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자료 제공, 2022. 10. 5.
- 장요한, 『宸翰帖 坤의 연구 및 역주』,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9년, 44~48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30~231쪽
- 남공철 찬, 1823년(순조23), 1첩, 필사본, 19.0x15.9cm, 2-3019
- 효명세자 지음, 19세기, 종이에 필사, 25.7x18.9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국립한글박물관,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 공쥬 글시 뎍으시니』,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년, 18~19쪽
- 禮曹(朝鮮) 編,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 奎27613, M/F82-16-61-F,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갓든 이약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20쪽
- 국립고궁박물관, 『갓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 갓든 이약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22년, 12~21쪽
- 이현주 책임연구원 국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24~225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1.
- 『승정원일기』, 民族文化推進會, 2000.
- 『藏書閣所藏儀軌解題』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2,
-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2-40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8. 13.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114~115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222쪽
- 박부자, 『장서각소장 등록류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성남시, 2016년, 220~221쪽
- 정은주, 『進封皇貴妃儀軌』(奎13211)
-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서울, 글내음, 2004년, 별첨
-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지음, 권민주 옮김, 『고종황제의 밀서 - 다시 밝혀지는 을사보호조약』, (원작. To-morrow in the East), 서울, 글내음, 2004년, 71~73쪽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자료 제공

- 「명사서예전」, 『제1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19. 10. 12. ~ 11. 10., 299쪽
- 한재훈, 자료 제공, 2022. 10. 28.
- 화봉문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황성신문皇城新聞』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 · 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2007.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2단계, http://waks.aks.ac.kr/

제6장

- 김상훈, 『이승만의 대마도對馬島 반환요구~국제사회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논단, 68~79쪽, 2011.
- 조선왕조실록,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오 5번째 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국사편찬위원회
- 안동 하회마을 사이트 검색 http://www.hahoe.or.kr/
- 임진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쪽.
-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 해제」,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 345~355쪽
- 안병욱, 개인 교신
- 『함께쓰기-한글과 한자,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1. 11. 2.~12. 14.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2. 5. 25.~6. 30.
-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 2020. 10. 8.~11. 12.
- 한국국학진흥원, 자료 제공
- 김채식, 박갑수 국역, 개인 교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 92~93쪽
- 한재영, 심보경,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윤음」, 『역주 윤음 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7년, 347~355쪽
- 「명사서예전」, 『제13회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2021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 11. 05. ~ 12. 05., 251쪽
- 高宗(朝鮮) 撰, 『어제유팔도사군기로인민등윤음』, 『御製諭八道四郡耆老人民等綸音』, 奎2061, 1冊(5張), 高宗19年(188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
- 유홍준, 자료 제공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국사편찬위원회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 박갑수, 허성도, 전광배, 김채식 국역, 자료 제공
- 上學部大臣書 : 池錫永上疏/ 池錫永(朝鮮) 著,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 池錫永(朝鮮)著, 『學部大臣答書』, 『池錫永上疏』 한국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sgimage.aks.ac.kr/view?qCond=bookId&q=K2-2005_001
- 議政府(朝鮮) 編, 『勅令, 奎17706-7冊』, 筆寫本, 19世紀 末-20世紀 初 (高宗 31年-隆熙4年:1894-1910)
- 議政府(朝鮮) 編, 『勅令, 奎17706-19冊』, 筆寫本, 19世紀 末-20世紀 初 (高宗 31年-隆熙4年:1894-1910)
- 김상태, 허성도, 박갑수 국역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의학사연구실 김상태 제공, 박갑수 국역
- 「영조 26년 5월 10일 신해 4번째 기사」, 『영조실록 71권』, 서기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김채식의 도움으로 문장을 일부 수정
- 윤기 지음, 이규필 옮김, 「무오년 독감」, 『무명자집 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2014, 79~81쪽
- 화산和山 한재훈韓在壎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7.
- 박재갑,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두 가지 유산』, 조선일보, 2021. 8. 17.

- 우천友千 고재석高在錫 근서謹書, 개인 교신, 2022. 4. 26.
- 박재갑, 『유학儒學의 천인관天人觀에 관關한 연구硏究』, 성균관대학교, 2017.
- 『서울대학교,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국민건강의 초석을 놓다』, VOM: Vision of Medicine,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Vol. 34, 2022, 26~29쪽

제7장

- 『한국인장의 개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 孫煥一, 「朝鮮時代의 寶印」,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編,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학연문화사, 서울, 2004년, 163~192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20~121쪽
- 「세조 4년 2월 26일 을묘 5번째 기사」, 『세조실록 11권』, 1458년
- 박준호, 「조선시대 행정 문서의 어보御寶, 관인官印, 서명署名」, 김연수,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2009년, 150쪽
- 한재훈 작성, 개인 교신, 2022. 10. 8.
- 『大典會通』 권3(42장_전면), 禮典_璽寶_諭書之寶, http://kyudb.snu.ac.kr/pf01/rendererlmg.do?item_cd=JRD&book_cd=GK01302_00&vol_no=0003&page_no=0089
-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10. 28.
-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 편編,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2004.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77~81쪽
- 행정안전부 「국새」, 2021 『정부의전편람 1』, https://www.mois.go.kr
- 한재훈 작성, 개인 교신, 2022. 10. 28.
- 행정안전부-2021 정부의전편람 1, 『국새』, 등록일 2021년 12월 20일, https://www.mois.go.kr
- 성인근, 『고종 황제 비밀 국새』, 소와당笑臥堂, 서울, 2010년, 49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4~96쪽
-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97~102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박재갑 朴在甲 Park Jae-Gahb
김민 金民 Kim Min

한글재민체연구회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ISBN 979-11-980056-1-8 (PDF)

비매품/무료

9 791198 005618 05640